공군 1973

〈제 135 호〉

1973년 8월 20일 인쇄
1973년 8월 25일 발행

중화민국 국방부 정보차장실 집행관 공본예방

중화민국 국방부 정보차장실 집행관 왕 청린 중장이 5월 23일 공군본부로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국회 국방 상임위원 공본 예방

국회 국방 상임위원 일행이 5월 30일 공군본부로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 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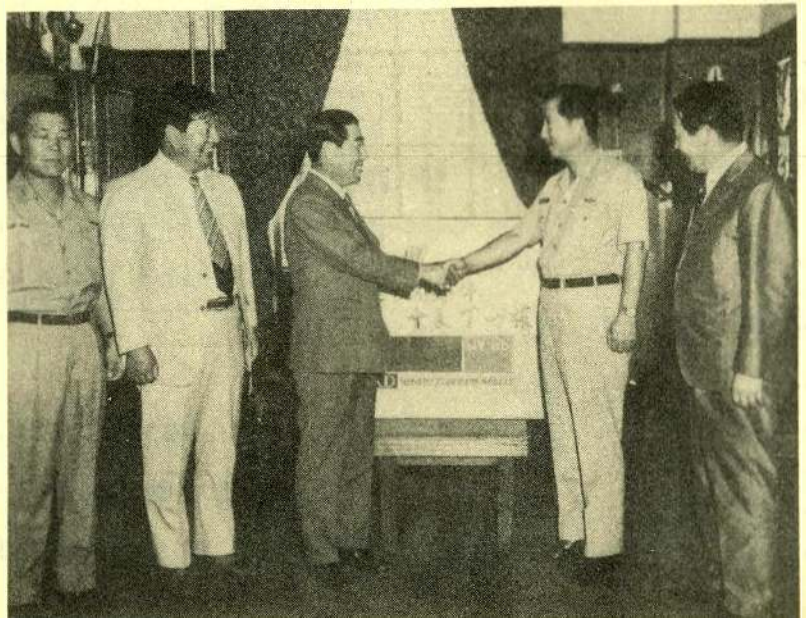
1968년 12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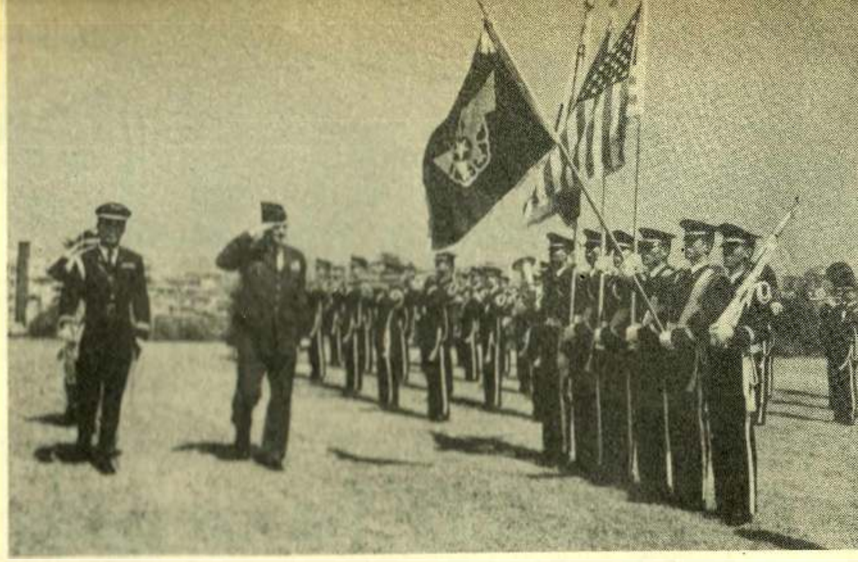
미 태평양 공군 부사령관 공본 예방

미 태평양 공군 부사령관 「탈보트」중장이 6월 17일, 공군본부로 옥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성우 구락부 공본 예방

성우 구락부 일행이 7월 3일, 공군본부로 옥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하고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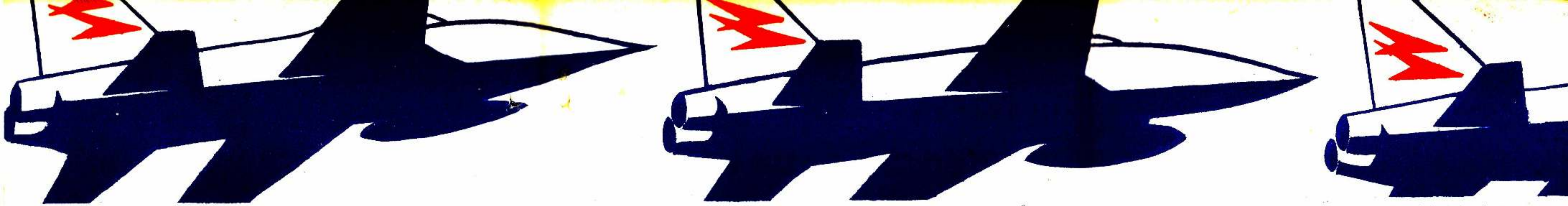


UN군 사령관 이임인사차 옥 총장 예방

이임하는 UN군 사령관 「베네트」대장이 7월 24일, 이임인사차 공군본부로 옥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 환담을 나누었다.

신임 유엔군사령관 공본예방

신임 유엔군사령관 「스틸웰」대장이 8월 3일, 취임인사차 공군본부로 옥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표지화 • 차례화 • 컷……진 광선, 김 준호

「공 군」 제 135 호

권 두 언 ……………………………… 정훈감 신 찬 (2)

<특별 정훈교육자료>

통일로 가는 평화외교 ……………………………… 편 집 실 (4)
유신 정병 운동 ……………………………… 김 원 기 (22)

유신이념과 충무공 정신 ……………………………… 편 집 실 (34)
지휘관의 자질로 본 충무공 정신 ……………………………… 이 태 식 (67)
주체적 민족정신 ……………………………… 류 홍 렬 (48)

특집 : 군의 과학화

군의 과학화를 지향하는 우리의 자세 ……………………………… 이 창 록 (85)
군의 과학화와 공군적 관리 ……………………………… 김 판 석 (92)

정신전력 문제 ……………………………… 김 성 국 (58)
자주국방과 공군 ……………………………… 손 철 영 (76)

수필 잊을 수 없는 사병 ……………………………… 장 덕 수 (163)
천태만상 ……………………………… 홍 종 도 (165)
생활의 멋 ……………………………… 한 경 수 (167)
무 제 ……………………………… 김 덕 기 (169)
정의감 ……………………………… 문 창 욱 (171)

항공 군사과학

공중전술무기로서의 원격조종비행체 ……………………………… 최 상 근 (134)
「윌리엄 · 미첼」의 생애와 사상 ……………………………… 심 사 수 (138)
어떤 전투기 조종사와의 회견기 ……………………………… 이 응 수 (150)
자주국방을 위한 PPBS ……………………………… 군특명검열단 (173)

논단 공자에서 싸르트르까지 ……………………………… 윤 영 춘 (99)

소박 속에 깃든 전우애 ……………………………… 김 은 우 (128)
대심원으로 행차하신 빈대 ……………………………… 허 상 (214)
만화 공군만상 ……………………………… 박 진 래 (126)

군종코오너

책임과 행위 ……………………………… 최 원 진 (197)
인내와 성취 ……………………………… 허 수 (201)
단결의 중요성 ……………………………… 김 춘 근 (205)
기독교의 전쟁관 ……………………………… 김 상 배 (208)

취미코오너

테니스를 즐기자 ……………………………… 심 성 환 (218)
20세기 명작의 고향 ……………………………… 심 자 한 (231)

군사기밀 보호법 체제완비 ……………………………… 신 심 진 (117)

제 135 호 | 1973년 제 3 호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의 전략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읍니다. 독자 여러분은 부지중 이 책자가 오용이 되지 않도록 취급과 보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훈감실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높은 성장을 해야 하는 우리다. 그렇다고 기계가 설치되고 도로가 넓어졌다고 해서 더 빠르고 더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해 버릴 수만은 없다.

국민 개개인의 과학화에의 열의와 그에서 나온 생활자세가 뚜렷하지 않고서는 선도자는 목이 쉬고 말거나 않을지. 퓨우즈(Fuse)가 나가면 감전의 직평만으로 동네 전기상에 전화를 건다. 문고리가 부서지면 건너편 목수아저씨를 부르련다. 어렸을적 시계를 부셨다고 아버지께 종아리를 맞고 자란 것이 오직 이 꼴이 되었으니 기계를 두려워하던 어른들에게 「그것 보십쇼」할는지 누가 아무렴 그렇구 말구란가.

과학화는 또 우리 주변의 능률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 안다. 기록이 없다. 규정이, 운영시책에 현실과 안 맞는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근거를 마련하여 정리해 놓으면 될게 아니냐. 나만을 위한 업무고 사무일이 아닌 바에는 지금 몇 자 적어 남기면은 그 얼마나 편할 뒷사람이 많을 거냐.

로마(Roma)는 하루 아침에 이룩될 수 없다지만 그 말이 있기 전 몇 수백년을 알알이 모아 쌓은 뒤의 얘기일께.

내가 우선 변하고 둘째이, 이들에 그런 경험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게는 된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내가, 내 주변이 어디까지 와 있나 눈을 닦아 둘러 보자.

과학화는 나의 주변에서 무엇이 미결한가부터 정확히 아는데서 계발(啓發)한다고 감히 말하련다.

통일로 가는 평화외교

□ 박 대통령 각하 특별성명의 배경과 의의 □

특별 정훈교육강좌

1. 분단의 역사와 통일에의 의지

가. 타의에 의한 민족분단

박 대통령 각하의 평화통일외교정책의 핵심은 한 마디로 말해서 민족분단의 비극을 현실적으로 지양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5천만 민족의 애절한 염원을 풀기 위한 민족지도자의 가장 착잡하고 현명한 일대 영단이다.

우리는 2차대전 후에 큰 연합국에 힘입어 이민족 지배의 굴레를 벗고 해방되었으나, 이 민족해방은 국토의 양단과 민족의 분열이라는 새로운 민족적 비극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다.

생각하면 타의에 의한 민족 분단이라는 이 새로운 민족 비극도 열강에게 운명을 맡겨야 했던 지난날의 민족사대(事大史)가 그러했듯이 우리 민족이 자주·자립·자부할 수 있는 자주역량을 배양하지 못한 데서 초래된 결과를 부인할 수 없다.

전후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미·소를 정점으로 하는 냉전체제가 굳어지면서 패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편의적인 분리선이라고 하던 한반도의 38도선을 남북분단의 장벽으로 굳어졌던 것이다.

미·영·소 등 세 나라 외상들이 우리 한국문제의 처리를 위해서 회합한 1945년 12월의 소위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는 뜻 밖에도 신탁통치안을 결의하였다.

사태가 여기 이르자 우리 민족의 놀라움과 분노는 컸다. 그리하여 신탁통치 반대의 소리가 노도와도 같이 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민족감정의 폭발 속에서 하루밤 사이에,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반탁」으로부터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찬탁」으로 태도를 표변한 공산주의자들의 반민족적 자세에 접하고

세상 민족분단의 비참한 현실에 민족적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소련을 등에 업고 북한에 발판을 굳힌 공산주의 세력은 남북분단 상태를 영구화시키고 적화통치권을 계지함으로써 우리의 독립과 주권 회복 그리고 통일정부의 수립을 방해하는 책동을 벌였다.

나. 남북한 총선거의 좌절과 대한민국의 수립

어찌 그뿐인가!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우리 한반도의 문제는 「유엔」총회에 회부되어 1947년 11월 14일 「유엔」감시하에 전한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그 총선거의 실시 및 감시를 위한 「유엔 한국위원단」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948년 초 우리 한반도에 파견된 「유엔」한국위원단은 총선거 실시의 준비를 위한 북한 방문을 시도하였으나 소련 점령군과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거부 당함으로써 전 한반도에 걸쳐 자유 총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유엔」은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유엔」한국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남한지역에서만의 총선거실시안을 결의하여 1948년 5월 10일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선거를 실시하고, 1948년 8월 15일 광복절 제3주년을 기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에 의해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애석하고 안타까운 것은 미·소 공동위원회나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 공산주의 세력의 방해로 빛을 보지 못하고 말았던 일이다.

다. 북한의 남침으로 빚어진 민족비극

이렇게 평화통일의 시도를 외면한 북한 공산주의 세력은 미군 철수 후 남북한정세를 주시하고 위장평화공세를 계속하다가 1950년 6월 25일, 고요한 일요일 새벽을 기해 무력남침을 감행하여 그들의 기본전략이 평화통일이 아닌 무력적화통일에 있음을 행동으로써 입증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동족의 생명과 막대한 민족재산을 희생시킴으로써 천추에 씻을 수 없는 민족적 죄과를 범하였다.

그러나 이런 동족상잔의 쓰라림이 컸던 만큼 북녘 동포의 자유와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 더욱 강렬해지고 있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간의 전란이 휴전으로 매듭지어진 뒤에도 북괴 공산집단은 무력적화통일이라는 허망한 꿈을 버리지 않은 채 침투와 무장「게릴라」를 계속 남파하여 우리 정부의 전복과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무력 도발을 일삼아 왔다.

2. 박 대통령 각하의 8·15 선언과 남북적십자 회담

이러한 시대의 추세를 직시한 박대통령 각하는 투철한 민족애 정신과 평화통일 염원을 저버리고 긴장완화와 평화추구의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면서 조국에 동족상잔의 비극을 도발하려 드는 북한 공산집단의 불장난을 막고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북괴로 하여금 무력 도발을 중지하고 평화 구축을 위한「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남북간의 선의의 경쟁에 응해 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판단에 입각한 박 대통령 각하의 평화통일 구상의 천명이 바로 1970년 광복 제25주년 경축사에서 표명된 역사적인「8·15선언」인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각하의「8·15선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냉담한 것이었고, 그로부터 만 1년의 시간이 지나 「8·15선언」에 입각한 대한적십자사의 1천만 이산가족 찾기 남북적십자 회담의 제의에 겨우 북괴측은 일단 응해 왔던 것이다. 「8·15선언」이 있었던 그 해 북괴는 그들 수괴가 내세우는 적화 오히려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1970년 11월 소위 노동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는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전체주의의 노선을 표방하는 등 전쟁 일보 전의 상태로까지 긴장상태를 조성하였었다.

그해 12월 6일 박대통령 각하께서「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국민에게 총력안보체제의 강화를 촉구한 까닭은 바로 북괴의 그와 같은 도전적 긴장사태의 조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의 국민을 수호하고 지속적 경제의 발전을 최대한으로 전개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조치였던 것이다.

우리는 총력안보체제로 평화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요건은 어떠한 도전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국력과 국민의 총력체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평화통일을 추구하게 위해서는 남북간의 대화를 열어 서로의 불신과 오해를 풀고, 이해와 신뢰의 바탕을 넓혀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 아래 우선 이질화되어진 일

도적 문제인 1천만 이산가족을 찾아 주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우리 측이 제의하여 대화의 실마리를 찾았던 것이다.

마.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

당시 박 대통령 각하께서는 남북간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972년 5월 2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에 보내어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으로 본격적인 남북대화를 여는 것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북괴측은 남북대화에서 실질적인 문제해결에는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고 대화기간 중에도 우리에 대한 비방과 무력도발을 계속하는 한편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문제의 선결만을 주장하였다. 또 한편 밖으로는 무절제한 외교경쟁의 결과로 사실상 조국의 분단을 고정시키는 행동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민족의 긍지와 위신을 떨어뜨렸다. 이러한 현실은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박 대통령 각하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의 천명은 민족분단의 비극을 하루 속히 해소하고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성취하려는 우리의 민족적 염원과 통일의 과제를 구현하는 보다 차원 높은, 또한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평화의 정착 바탕위에서 통일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획기적인 결단인 것이다.

2. 평화통일의 국제적 여건 조성

가. 국제정세의 여파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 나라는 그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주변 정세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특히 주변 국제정세의 격동기에는 그 악과가 대개의 경우 우리에 대한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나타났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상기할 때 오늘날 격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의 새로운 물결에 대해 우리는 결코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의 국제정세의 새로운 조류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후 냉전체제를 탈피하고 화해와 협상체제를 기조로 하여 열강들에 평화공존하려는 새로운 세력균형의 모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변형된 국제정세의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과

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판단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 국제무대에서의 능동적 대처

우리가 해결해야 할 첫째의 문제는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국제정세 변화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 둘째는 우리의 민족통일은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 셋째는 그러면 한정된 국제적 여건을 기조로 하는 평화공존의 국제조류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 어떻게 현상타파가 전제가 되는 자주적 통일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민족통일은 우리의 목적이며 목표인데 반해, 국제정세에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지 결코 목적이나 목표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즉 평화적 조국통일의 대전제인 평화를 안정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긴장완화를 지향하는 국제정세에의 능동적인 대처와 적응이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박 대통령 각하는 어떤 특별성명에서, 「우리는 조국통일을 국제정세의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현명하고도 확고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구해 나가야 하겠다」고 전제하고,

「그것은 곧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킴으로써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자주역량으로 통일을 기필코 이룩하자는 것이다」라고 국제정세에의 능동적인 적응이 어디까지나 통일을 위한 방편임을 분명히 밝혔다.

3. 남북대화의 실질적 촉진

가. 인도정신 저버린 북괴의 주장

박 대통령 각하의 「8·15선언」에 뒤따른 결의에 이산가족 찾기의 남북적십자 회담을 제의하여 인도적인 남북대화가 시작된지 근 3년, 그리고 7·4남북공동성명에 의한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한 정치적 남북대화의 실마리가 마련된지 근 2년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 동안의 남북대화의 결과를 살펴볼 때 통일을 고대하는 민족적 염원에 비하여 그 성과는 너무나 미미하고, 그 전진은 너무나 지지부진한 느낌을 금할 수 없다.

[illegible]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그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대화의 궁극적인 진전과 성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간에 가로 놓여 있는 불신과 긴장요인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노력을 선행함으로써 남북대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여건의 조성은 물론 남북한이 서로 스스로의 판단과 노력으로 또한 상호 협조 노력을 통해 직접 추진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하지마는, 그것으로써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에는 국제무대에서의 간접적이며 우회적인 접촉을 통한 이해 촉구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박 대통령 각하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의 천명은 바로 이러한 관점 아래 보다 효과적으로 남북대화를 활성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취해진 보다 실질적인 남북대화의 측면책인 것이다.

4. 자주역량 바탕 위에 역사적 영단

가. 세계 속의 한국으로 웅비

이상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 각하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의 배경과 필요성을 살펴보았거니와 여기서 우리가 관찰해야 할 또 한 가지 점은 어떻게 하여 그러한 획기적 천명이 가능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박 대통령이 「6·23선언」과 남북대화의 주도에 이어 이번에 우리 대내·외교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10월유신」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국력 신장과 10월유신으로 다져진 국내 안정 기반의 강화 및 국력의 조직화에 의한 총력체제가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외교가 국력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신장된 국력은 외교면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게 마련이다. 또한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제국과의 이해관계와 상호협력의 증진을 위해 다변적인 국제관계를 맺어 나가는 화해와 평화공존의 오늘날의 시대조류에 과감히 뛰어 들어, 여하한 나라나 여하한 경우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해 가겠다는 이번 박 대통령 각하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의 천명은 우리의 국력신장을 웅변으로 입증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외교대결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신념과 자신의 표명이라 하겠다.

나. 국력을 조직화한 10월유신

이러한 과정과 신념의 원천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주적인 국력인 것이다.

우리는 10월유신으로 우리의 역사상 어느 시대에서보다도 국력이 조직화되어 안정과 번영의 발판이 확고부동하게 다져지고, 일사불란한 전 국민적 총화체제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천명하는 역사적인 일대 결단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의 체질은 그러한 허약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역량을 발판으로 평화통일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강화된 기반이 있을 따름이다. 그러기에 박 대통령 각하도 소신있는 정책을 마음껏 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유신체제의 확립은 결정적 도약기에 접어들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필요 불가결한 가장 현명한 조치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오늘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의 천명은 박 대통령 각하의 탁월한 결론인 동시에 또한 우리 온 국민의 총화된 자주역량의 발현인 것이다.

5. 평화통일 외교정책 7개항의 내용

박 정희대통령 각하의 역사적인 평화통일 외교정책의 천명은 조국의 통일을 모구하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하루속히 달성하기 위한 보다 능동적이며 현실적인 조치로서, 이번 특별성명에서 밝힌 7개항의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평화통일은 민족의 지상 과업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1945년, 8·15해방으로 온 국민이 갈망하던 조국의 광복은 이룩되었으나 불행히도 미·소 두 나라의 분할로 국토가 38선을 경계로 분단되자 드디어 새로운 민족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 되었다. 그를 위해 우리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은 부단히 경주되어 마침내 박 대통령 각하의 「8·15선언」과 남북적십자회담, 그리고 7·4 남북공동성명에 의한 남북대화로 전개되어 민족통일사에 새로운 한 장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천명된 박대통령 각하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은 예리한 그 동안의 노력을 한 단계 높은 새로운 차원에서 추구하려는 역사적 일대 영단이다. 이 영단의 기조 속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은 더욱 적극적으로 경주되어 나갈 것이다.

나. 한반도 평화의 대전제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불법남침으로 6·25동란이라는 쓰라린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는 온갖 방법을 다해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모든 위협요인은 일절 배제되어야 한다. 무장간첩을 남파하는 등의 침략적 도발행위는 물론 남한에서의 적화혁명을 획책하는 등의 간접침략행위도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7·4 남북공동성명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남북은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일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등 반국가활동 단속법들을 폐기하고 반공단체를 해산해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책동을 포기하고 주한미군을 포함한 모든 외군의 철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므로 일절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에 있어서 불안정한 평화상태를 안정된 평화상태로 발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념과 이념, 제도와 체제의 차이를 초월한 평화의 약속과 보장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고, 내정불간섭 원칙의 준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 성실과 인내로써 남북대화 계속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은 남과 북이 서로 무력침략이나 도발을 하지 않으며,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조국의 통일을 추구하고, 그에 앞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의 단결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3대 통일원칙이다.

그동안 우리는 남북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성실과 인내를 다하여 왔다. 박대통령 각하는 남북관계 개선의 문제를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

고 비슷한 일이 있다. 즉 시험지를 받은 학생은 우선 풀기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야지 어려운 문제부터 풀기 시작하면 어려운 문제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한 나머지 쉬운 문제마저 풀지 못하는 것처럼 남북대화도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측의 주장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가장 어려운 문제인 「군사문제 우선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라.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묵인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 각하의 영도하에 60년대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룩하여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성공하고, 그 기반위에서 스스로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여 「안정·번영·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중흥을 이룩하기 위한 도약의 도정에서 재출발의, 가장 능률의 극대화를 이룬 국정의 기틀을 마련코자 10월유신을 단행하는 등 「세계 속의 한국」에로의 웅비를 기도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세계 속의 한국」으로 그 좌표를 높인 우리는 다변화 국제정세의 주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세계사의 진운에 기여하여야 할 책무와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에 국제정세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시대가 끝나고 현상유지를 기조로 하는 열강들의 세력균형으로 평화공존을 유지하려는 것에 그 주된 조류가 되어 있다. 국제사회의 평화공존은 그 말할 나위도 없이 긴장완화와 국제협조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

긴장완화와 국제정세에 도움이 되는 데 전제하여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차원 높은 평화통일 외교정책의 참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은 어디까지나 통일이 실현될 때까지의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조치일 뿐이며,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마. 북한과의 국제연합 동시 가입 묵인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유엔」은 평화를 위한 범세계적 보편적 국제기구로서 민족자결과 국가 자주

[illegible]

화와 국제협조에 능동적으로 기여코저 하는 우리 외교정책의 전환은 우리의 우방국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6. 통일로 가는 평화의 대도(大道)

평화통일 외교정책의 천명은 우리 민족에게 통일에의 길의 날을 가꾸어주며 전진적인 외교정책의 천명으로서 5천만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능동적인 접근에 있어서 전환점이며, 평화공존의 국제조류에 과감하게 뛰어들며 세계평화에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그 세계사적, 민족사적 의의는 매우 큰 것이다.

가. 세계평화에의 기여

이번 박 대통령 각하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의 천명은 우선 세계사적 견지에서 볼 때 우리가 세계평화에 적극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 전체방향의 세계사적인 특징을 간추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되도록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천명하였다.

둘째, 우리는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하고 또한 모든 국가의 우리에 대한 문호개방을 적극 촉구하였다.

셋째, 우리의 외교정책의 기본은 오직 평화선린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제 우리는 긴장완화의 국제조류 속에 과감히 뛰어 들어 민족의 위신과 긍지를 유지하면서 세계평화에 능동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세계사의 주역의 일익을 자주적으로 담당하여 나가자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숭고한 이념인 홍익인간 선린우호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나. 자주적 평화통일 여건의 실질적 개선

평화통일 외교정책 천명의 두번째 의의는 민족적 염원인 평화통일의 여건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방향을 내외에 천명하였다는 사실로 그 민족사적 의의는 매우 큰 것이다.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있어서 민족사적인 특성을 간추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임을 내외에 거듭 분명히 천명하였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노력으로 정착 유지할 것을 천명하였다.

셋째, 남북대화의 효과적 추진의 결의를 내외에 천명하였다.

넷째, 북한과 「유엔」을 비롯 모든 국제기구에서의 동석을 묵인할 것을 밝힘으로써 국제무대에서 북한과의 선의의 경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뚜렷이 하였다.

다섯째,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까지도 포함한 세계 모든 국가와의 개방외교를 천명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자주적 역량과 자신, 민족적 위신과 긍지를 드높였다.

7. 총력외교시대에의 대응자세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박 대통령 각하의 특별성명은 우리에게 총력외교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실감케 하였다. 우리가 이에 대처해 나갈 때 국가의 총력외교태세의 강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이번 영단으로 인하여 우리 앞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외교적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첫째로 북한도 우리와 같이 여러 국제기구에 참여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둘째로 북한과 우리와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셋째로 우리 나라가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때문으로 공산주의국가 국민들도 반공하는 우리 나라를 자유롭게 출입하게 될 것이다.

넷째로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도 그들 나라에 출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국제외교의 격변기에 즈음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각오로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가. 국론통일로 총력외교를 다짐하자

국내외정세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적 지상과업을 어떻게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박 대통령 각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킴으로써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자주역량으로 통일을 기필코 이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념을 구현하기 위해 조국통일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조치가 이번에 천명된 평화통일 외교정책인 것이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희구하는 우리 국민은 마땅히 국론을 통일하여 국민의 단결된 총화력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총력외교의 첫 출발이다.

나.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견지하자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이나 「유엔」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여 북한을 한 국가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고 속단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에게는 평화통일 외교정책의 참뜻을 깨우쳐 주는 한편,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긍지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이점이 참다운 국민총화와 평화통일에 이바지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전통·문화면에 있어서도 상부상조하고 타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순국과 애국을 존중해서 총화하는 배달민족의 정기와 정통성을 이어받은 민족사적 주체인 것이다.

다. 유신한국을 세계에 선양하자

평화통일 외교정책의 천명으로 자신을 가지고 공산주의국가를 포함하는 모든 나라에 우리 나라를 개방하고, 아울러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나라의 문호개방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동안 우리가 박 대통령 각하의 영도하에 조국 근대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10월유신으로 국력의 조직화를 계속하여 「세계 속의 한국」으로 도약을 거듭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차원의 외교시대에 즈음하여 민주주의체제에 입각한 유신한국의 선양에 더욱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라. 국력 배양으로 평화통일 외교를 뒷받침하자

평화통일 외교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성취하는데 있음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놓여 있는 국내외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감으로써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자주역량으로 통일을 지향코 매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북간의 경쟁은 새로운 차원에서 치열해질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건설과 국력 증강의 경쟁이 계속될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국제기구에서의 경쟁, 「유엔」에서의 경쟁 등 다각적인 외교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외교도 국력, 통일도 국력이다. 우리는 민족중흥을 지향하는 유신과업의 수행에 일치 단결함으로써 국력배양의 가속화와 국력의 조직화에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대통령 각하 특별성명 (전문)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해 온 남북대화의 경험과 국제정세의 추이에 비추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우리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제2차세계대전 후 우리는 해방이 되었으나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국토는 양단되고 민족은 분열되었읍니다.

당초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한 군사적 경계선이라고 하던 38선이 그 후 철의 장막으로 변하고, 남과 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읍니다.

그 동안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38선의 해소와 통일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교섭이 있었으나, 미·소간의 근본적 대립으로 실패에 돌아가고 결국 한국문제는 국제연합에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1947년 제2차 국제연합총회는 남북한을 통한 자유로운 총선거의 실시를 결의하고, 이를 위해 임시 한국위원단을 파견하였읍니다.

그러나 북한의 거부로 남한에서만 자유선거가 실시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국제연합에 의하여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게 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공산군의 불법의 침략으로 인한 한국동란으로 무수한 동포가 생명을 잃고 전국토는 초토화되었으며, 3년간의 참담

동에 휴전은 성립되었으나 분단은 지속되고 통일은 요원하였읍니다.

나는 이 분단으로 말미암은 동족의 고통을 덜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70년 「8·15선언」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를 촉구하였읍니다. 그 다음해 8월 12일 우리측은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하였으며, 작년 7월 4일에는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읍니다.

이리하여 남북대화는 시작되었읍니다. 그러나 근 2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성과는 우리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용이하고 실현 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남북간의 장벽을 점차 제거하고, 구체적인 실적을 통해서 상호간의 불신을 신뢰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대화를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길이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해 왔읍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불신요소를 남겨둔 채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군사 및 정치문제의 일괄해결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측은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의 진행 중 뒤으로는 사실상 조국의 분단을 고정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하여 왔읍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현상으로 보아 우리가 기대하는 바 남북대화의 결실을 얻기까지에는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예견되며, 상당히 긴 세월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결과적으로 불신의 심화와 긴장의 고조마저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편 최근의 국제정세는 제2차세계대전 후의 냉전시대가 끝나고 현상유지를 기조로 하는 열강들의 세력균형으로 평화공존을 추구하려는 것이 그 주된 조류라 하겠읍니다.

또한 그간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일련의 주변정세의 발전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국토통일이 단시일 내에 성취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지상의 염원과 목표를 국제질서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 현실에 대처하여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국내외의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현명하고도 확고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강인하게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를 이땅에 정착시킴으로써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자주역량으로 통일을 기필코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2.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4.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5.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특별 정훈교육 자료>

[illegible]

— 배경 및 그 방향 —

김 원 기

차 례

1. 개 요
2. 유신정병운동의 실제
   - 가. 제 2전력
   - 나. 10월유신
   - 다. 새마을 운동
   - 라. 유신정병운동
3. 성과 기대의 문제
4. 결 어

1. 개 요

1972년 초 우리 공군은 전력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여 제 2 전력을 부각시켰고, 제 2전력을 조직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가상의 적보다 훨씬 우세한 전력을 견지하기 위한 각 분야별 제 2 전력 운동을 전개하였다.

환경을 정돈하여 건전한 정서를 생음으로 해서 사기를 높게 하기 위해 식당, 내무반 등의 환경을 일신했고, 전 내무반장을 재교육함으로써 모범내무반으로의 동화작용을 유도하는 등, 제 2 전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업무를 추진하였다.

10월유신 이후, 이러한 일련의 제 2전력운동은 더욱 그 필요성을 배가하여 유신정병에 필요한 중요 강조사항을 설정 마련하였으니 이것이 유신정병 계획이다.

유신정병운동은 10월유신의 이념과 목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의 기본자세와 임무를 부여하고, 공군의 당면과제인 제 2 전력을 완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실천목표를

1) 10월유신 및 새마을 정신의 생활화
2) 충무사상의 고취와 군인정신 함양
3) 한국사상 교육
4) 재무관리의 개선
5) 인사관리의 개선
6) 군기강 쇄신
7) 군민 일치감 조성

등 7가지 대명제를 전제로 제기하였던 것이다.

이제 유신정병운동은 그 계획의 수립으로부터 3개월여의 실천이 있었다.

그 동안 공군실정과 능력에 맞게 예하부대 효율성과 실정에 맞게끔 수정보완이 진행되어 왔으며, 1차적 성과분석도 있었다.

앞으로의 유신정병운동은 부정적 차원의 개선실천보다는 긍정적 차원의 생산운동, 한국적 운동보다 좋은 실천적인 한국사상 발굴운동 등으로 발전될 것이다. 여하튼 유신정병계획에 의한 제반 업무는 꼭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소 애로점이 있더라도 목표에는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유신과업 수행의 과제임을 밝혀둔다.

2. 유신정병운동의 실체

가. 제 2 전력

재래적 전력의 평가는 인원, 장비, 시설, 물자의 우열로 순위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중동전쟁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막강한 공격력 및 파괴력, 방어력, 그리고 미군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인도지나 전쟁에서 보여준 월맹의 전과는 현대의 전력 평가에 있어서 새로운 지표를 형성하고 있다.

그것은 정신력, 고도한 기술, 과학적 체계의 전략적 가치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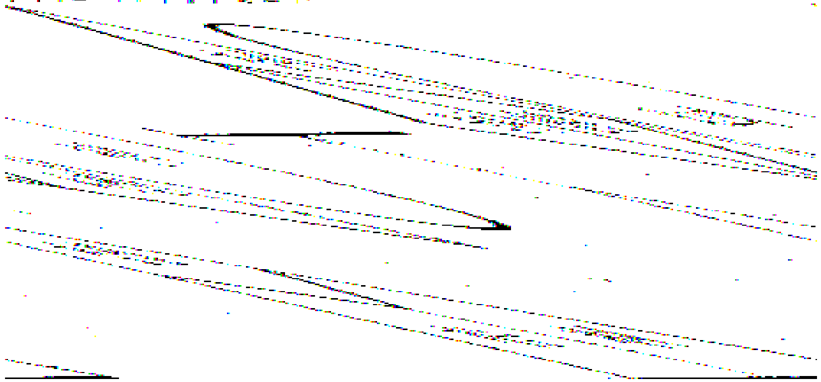
어떠한 경우에건 인원, 장비, 시설, 물자는 인간의 노력 자체만으로는 극대화에의 변혁이 불가능하다.

즉 물량은 반드시 한계가 있으며, 힘이 갖는 가치가 유형적일 때의 질(質)의 문제가 복합하게 되는 한은 힘의 무한한 분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신, 기술, 체제는 인간의 노력 자체만으로도 힘의 극대화에의 변혁이 가능하다.

즉 유형적인 물량에 의한 전력은 고정되어 있어도, 무형적인 기능에 의한 정신전력은 무한한 힘의 분출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유형적인 물량만으로도 무형적인 기능만으로도 전력의 극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표 1>

유형적인 물량 즉 인원, 장비, 시설, 물자와 같고, 거기에 무형적인 기능인 정신, 기술, 체제의 극대화 변혁을 복합시킬 때에 「물량」은 「질」의 형태로 변혁하고, 유무형적인 총체로서의 전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 2 전력의 목표인 것이다.

나. 10월유신

10월유신은 자주, 자립, 자조, 자위, 자결의 5자정신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국력을 배양하고 조직화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민족의 번영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즉 10월유신은 5·16혁명의 국민혁명이론의 승화적용이며, 새마을 운동 정신의 구현인 것이다.

이와같은 10월유신의 이념과 정신은 그 과업수행에 있어서 다음 세 가지 실천적 목표의 완수에 우선 전력해야 하는 것이다.

첫째 우리의 주체성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주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민족사관을 주체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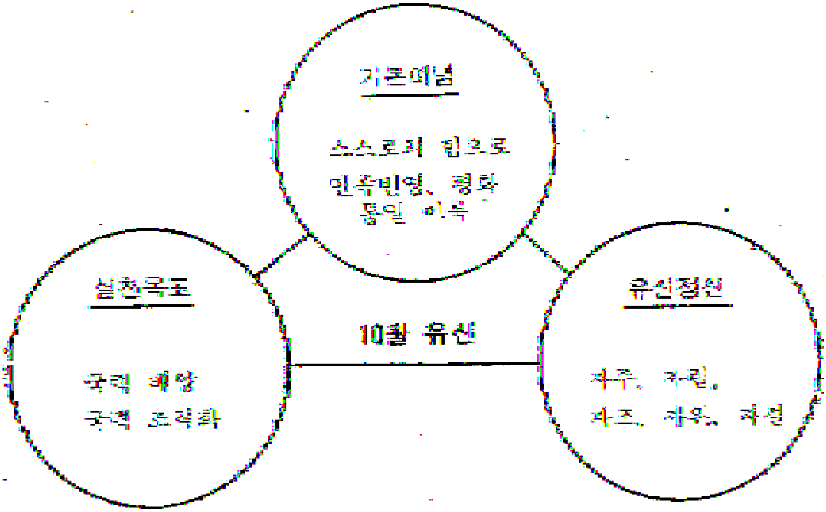
주체적 민족사관의 정립이란 과거의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밝히고 현재의 우리 처지와 현실을 똑바로 알고 미래의 진로를 올바르게 잡자는 것이다.

둘째, 국력배양과 조직화를 위해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하고 자유경제 체제로 고도성장을 지속하며, 국민의 기강을 확립하고 우리의 고유문화를 창조적으로 계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 중에서 좋은 점은 잘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야 하고 나쁜 점은 과감히 드러내며, 또 남의 것 중에 좋은 점은 얼마든지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고 나쁜 것은 배우지 않고 가려버려야 한다.

셋째, 새마을 운동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과 실천을 과감히 밀고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면, 우리 공군은 장병 개개인의 전기연마로 기술향상, 투철한 사명감을 견지하기 위한 제 2 전력 개발에 더욱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도표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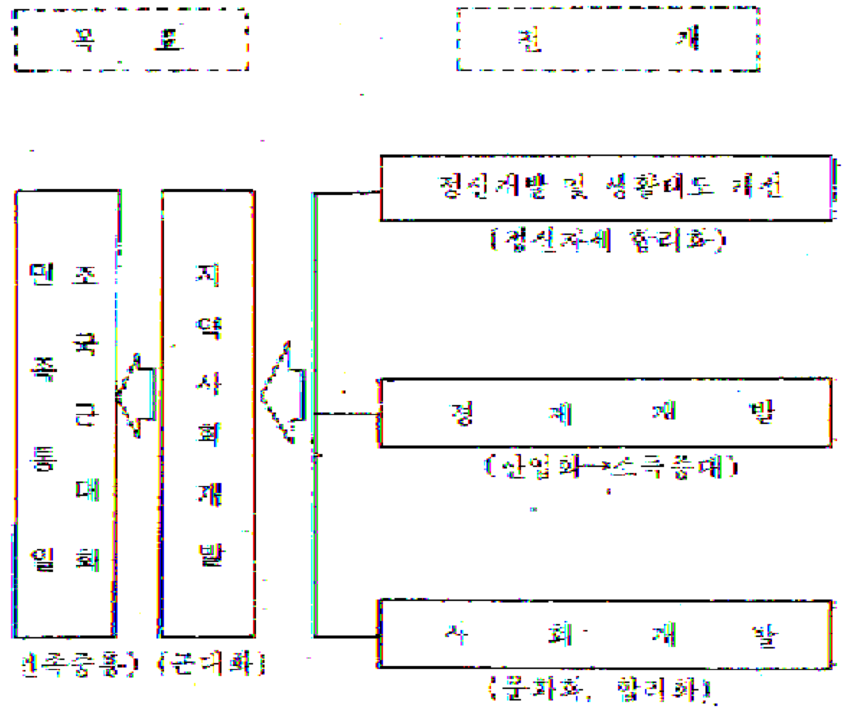
다. 새마을 운동

1970년 4월 22일 지방장관 회의에서 대통령 각하께서 「농촌 자조노력의 진작방안을 연구하라」는 지시를 하셨고, 이 지시에 의거하여 내무부에서 구체적으로 방안연구를 시작하므로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새마을 운동은 태동되었다.

같은 해 10월, 전국 33,000여개의 자연부락에서 일제히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듬해인 1971년 3월, 16,000여개의 마을에 마을당 철근 1톤, 시멘트 500포씩이 정부에서 보조됨으로써 새마을 운동은 본격화되었다.

같은 해(1971) 9월, 새마을 운동은 「자조, 자립, 협동」의 정신계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그 이듬해(1972) 3월에는 새마을 운동은 「도시」에서도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강조되면서, 「새마을 운동은 지역사회의 소득증대와 직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와같은 발전을 거치면서, 새마을 운동의 목표는 「새마을 정신(자조, 자



<도표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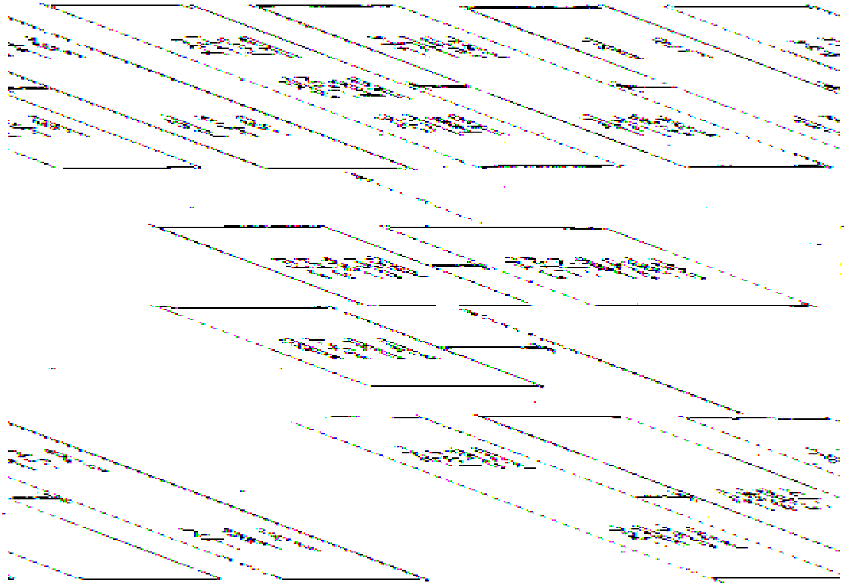
립, 협동)의 생활화로 정신, 경제, 사회개발을 이룩하여 지역사회를 근대화 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조국근대화」 「민족통일」을 달성시켜 「우리 민족의 중흥」을 기약하는데 있다는 것으로 요약되었다.

i) 정신개발

정신개발의 문제는 어떤 물량적인 형태로 표시될 수는 없고 추상적인 사유방식과 행동규범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정신개발이라 함은 「합리적인 사고」 즉, 「사유의 합리화」이다.

이는 곧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에의 길이며, 자조, 자립, 협동정신의 생활화로 투철한 국가관과 민족주체성을 확립하는 밑바탕이 된다.



<도표 15>

2) 생활태도 개선

생활태도 개선이라 함은 「생활의 합리화 및 과학화」를 뜻한다.

이는 곧 일찍일어남으로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합리적 운동으로 부조리를 타파하며, 공익우선으로 사회기풍을 쇄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불의, 불신, 부정, 부패, 퇴폐, 부조리 등을 배격하는 건전하고 참신한 생활태도가 확립된다.

3) 경제개발

경제개발은 소비관습의 합리화로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근대화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확대 재생산의 도모가 강력해야 한다.

또한 관(官)에 의한 「이끌림의 새마을」이 아닌 민간주도(民間主導)에 의한 「스스로의 체제」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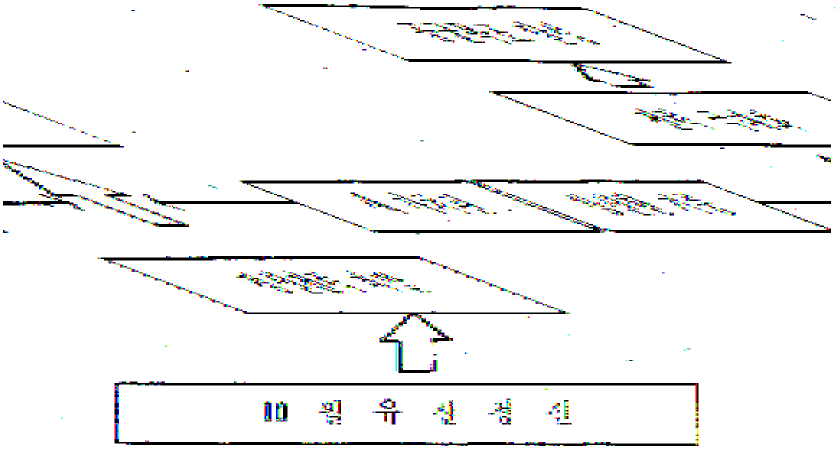
정 신 개 발
- 새마을정신(자조, 자립, 협동)의 생활화
- 생활태도・의식운동의 계속적인 전개로 생활화, 체습화

↓

경 제 개 발
-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원활화・민간주도
- 효율성이 크고, 공동이익이 보장되고, 협동노력의 대가가 큰 것.

↓

사 회 개 발
- 경제적 기반의 조성으로 가능



<도표 Ⅵ>

유신결행운동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13개 세부사업의 완수에 목적을 두었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것과 같다.

3. 성과 기대의 문제

유신결행운동의 실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신결행운동은 10월유신 정신에 의한 사명감 고취, 제 2 경제에 의한 정신전력의 극대화, 새마을 운동의 정신에 의한 국가 참여의식 등을 복합한 「가치있는 승리에의 확신」을 가진 정신전력극대화 운동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무형적인 기능의 목표도달에의 작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방향설정이 있어야 한다.

첫째, 유신결행운동은 각급 지휘관의 높은 관심도와 솔선수범하는 참여도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물론 참모진의 협조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부대임무상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나, 우선 유신결행이 이뤄져야만 정예공군에 도달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둘째, 유신정병운동의 계획 수행에 있어서 전원일치의 자발적이며 긍정적인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장병의 자발적 총의에 의해서 고조되어야 하겠고, 상급자일수록 작은 일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하며, 장병에 대한 유신정신교육이 간단 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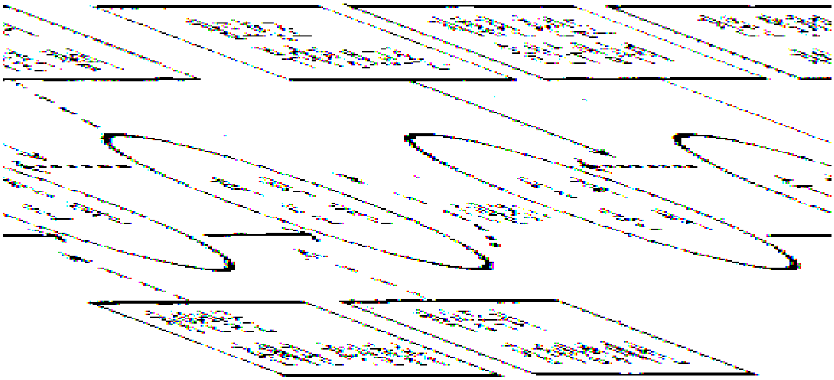
셋째, 군 전력향상의 각종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반 부조리, 반 비능률, 반 비경제의 3반운동을 지속하여 활발히 추진함은 물론이거니와, 전력제고를 위한 생산적인 운동, 즉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무실역행(務實力行)운동을 적극 발굴해야겠다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과학화 운동」이 공군을 비롯한 전군, 전국민에게 전파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각 분야에서 연구 중인 것이다.

넷째, 유신정병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보완, 발전이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대상호간의 정보교환이 활발해야겠고, 새로운 착상을 투입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방법을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유신정병운동에 관한 관계관의 지견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평가가 실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도표 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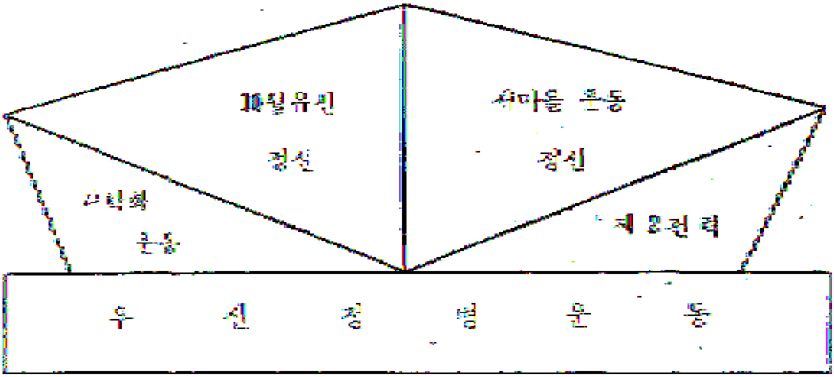
[illegible]

[illegible]

물론 여기에는 새로운 창안과 발견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과학하는 마음가짐, 합리적인 생활태도를 함께 가지면서 조리있고, 생산적이며, 능률적인 업무수행에 자기계발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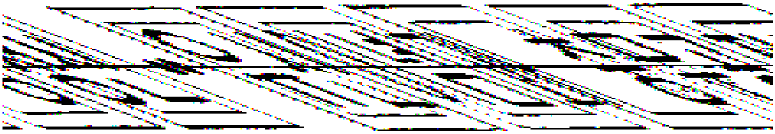
이 투자가 정신전력 극대화, 사명감 고취, 국가 공헌의식을 복합시켜, 유신정병운동을 이끄는 10월유신, 제 2 전력, 새마을 운동 정신에로 통괄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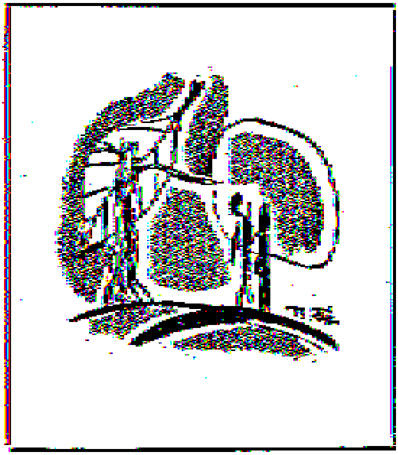
<도표 Ⅲ>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남북대화야말로 그 누구도 저해할 수 없으며 또한 중단되어서도 안 되는 민족의 지상명령이다. 이 지상명령에 따라 남북대화를 적극 전개하고 나아가서 통일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제도와 체제의 새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편 집 실



우리의 5천년 민족사를 통해서 구국제민(救國濟民)의 충의열사(忠義烈士)가 수없이 많지만 유독 충무공만이 남다른 민족적 존경과 숭앙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지 왜적을 무찔러 나라의 위기를 건지기 위한 전승보국(戰勝報國)과 멸사봉공(滅私奉公) 때문만도 아니요, 뛰어난 전략 전술로 소수의 병력으로 수십배의 적군함대를 섬멸한 때문만도 아니다. 또 공이 세계에서 최초로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었기 때문만도 아니다.

우리가 공을 민족적 신앙의 대상처럼 숭앙하고 추모하는 이유는 그 거룩한 구국의 충의와 더불어 공의 가슴 속에 불타고 있었던 대의(大義)에 순(殉)하는 구국정신과 민족애요, 동포애, 자주의식 그리고 두 차례씩이나 남의 모함에 의해 옥고를 치르면서도 결코 조정과 [illegible] 나라에 대해 원망을 하기는커녕 백의종군하여 구국의 전선으로 달려갈 만큼 숭고했던 그 높은 인격 을 도저히 범인으로서는 따를 수 없는 고결하고 숭엄한 정신에 있는 것이다.

1. 충무공의 생애

가. 청소년 시절

충무공 이 순신장군은 428년 전, 이조 인종 원년(1545년) 4월 28일(음 3월 8

일] 서울의 건천동(乾川洞: 현재의 인현동(仁峴洞))에서 이정(李貞)씨의 3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항상 집 앞에서 놀고 활과 들고 다니며 동네 아이들을 모아 전쟁놀이를 하는데, 언제나 대장역을 도맡아 하는가 하면, 그때 벌써 어른들이 놀랄 정도로 활 쏘기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하여 형들이 선비로 나섰는데 반해, 공은 어려서부터 익혀 온 무인생활을 고집하여 당시 흔히 무예에 능한 속에서도 뛰어났으며, 기사(騎射)술에 열중하였다.

선조 5년(1572년) 8월, 28세 되던 해 공은 훈련원 별과 시험에 응시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공은 시험 도중 기마술에서 달리던 말이 거꾸러지는 바람에 낙마(落馬)하여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불운을 당했다.

공은 그 자리에서 낙방했지만 구경하던 사람들이 공이 죽었나 싶어 가슴을 조이고 있는데, 공은 벌떡 일어나서 옆의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그 껍질로 상처를 싸매고 태연히 일어서서 걸어 나갔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공의 용기와 의연한 태도에 모두 놀랐던 것이다. 그리하여 시중에 영웅(英雄)만 늘 보고는 불굴의(不屈)의 영웅은 준비되고(準備되어)의 세월 속에서 무르익어 그 때 이른 30세 전후 청년시절을 스스로를 단련하며 지내야 했다.

나. 변방 군관 시절

공은 선조 9년(1576년) 봄, 32세가 되어 비로소 무과에 급제하여 그해 12월 함경도 동구비보(董仇非堡)의 권관(權管: 계급의 하나). 한낱 변경의 이름 없는 군인으로 벼슬길의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35세 되던 선조 12년(1579년) 2월, 훈련원 봉사(奉事: 기술에 사무직)로 임명되어 본부 근무를 하게 되었다.

훈련도 재직 중 당시 병조정랑(兵曹正郎) 서익(徐益)에 그의 친구를 봉사에서 참군(參軍)으로 부당승진시키는 편법인사를 함에 공은 불법적 처사라고 반대하여 상사인 서익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공은 그의 능력에 의해 그해 10월 충청도 병마절도사 휘하의 군관으로 나갔다가 이듬해 7월, 전라도 발포 만호(鉢浦萬戶)가 되었다.

그러나 1년 남짓한 뒤 선조 15년(1582) 1월, 군기조사관으로 서익이 내려와 군기가 엉성하다는 이유로 파직되어 전에 훈련원 일에 대한 보복을 당하는 곤경을 겪었다.

선조 19년(1586년) 1월, 42세 때 사복시(司僕寺) 주부가 되었고, 불과 보름 뒤에 호족방어(胡族防禦)의 필요로 함경도 조산보(造山堡) 만호가 되었다가, 이듬해 8월 두만강변의 녹둔도(鹿屯島) 둔전관을 겸임하게 되었다.

이해 가을 호족(胡族)의 침략을 받아 전하여 격퇴했으나, 그 패전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던 함경도 병마사 이일(李鎰)의 모함으로 관직에서 파면되어 백의종군(白衣從軍)하게 되었다. 이것이 공에 백의종군하게 된 첫번째 일이다.

선조 21년(1588년) 6월, 북방변방 군관생활을 청산하고 귀향하여 유유한 한가의 나날을 보내던 중 이듬해 2월 전라도 순찰사 이광(李洸)에게 발탁되어 군관으로 다시 복직하게 되었다. 같은 해 11월 선전관을 겸임했다가 12월에 정읍현감으로 승진되었다.

그 이듬해 46세 되던해 7월, 고사리진(高沙里鎭) 첨사(僉使)가 되고, 8월에 만포진 첨사로 전임되었으나 대간(臺諫)의 반대로 철회됨에 도로 유임되었다. 선조 24년(1591년) 임진왜란 한 해를 앞두고 그해 2월 공은 진도 군수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기도 전에 가리포(加里浦鎭) 첨사로 전직되었고, 또 다시 거기에 부임하기 전에 전라 좌수사로 임명되어 여수에 있는 좌수영에 부임하게 되었다. 이것은 비로소 공이 만대불후의 수군제독으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이었다.

15년에 걸친 공의 변방 군관생활은 인고와 시련의 연속이었으나 그것은 공의 대성과 대공(大功)을 기약하는 하나의 사전연마를 위한 시련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 전란시절

일개 고을 원에서 일약 수군절도사로 뛰어오른 데에는 그의 죽마고우이며 당시 중신(重臣: 좌의정 겸 이조판서)이었던 서애 유성룡(西厓 柳成龍)의 은공이 컸다.

공은 군사를 배정하여 군사훈련, 전비강화 그리고 거북선 창조를 게을리 할 수 한 순간도 없는 결의 단련에 매진했다. 드디어 선조 25년(1592년) 4월 14일 왜군 20여만명이 부산포에 침략의 첫발을 내딛고 연전연승의 파죽지세로 북상, 불과 보름 뒤인 5월 2일에 한양이 함락되고 선조대왕은 의주(義州)로 피신했으며, 6월 13일에는 평양까지 함락되었다.

한편 왜군침입의 첫 때부터 경상우수사 원균은 첩보에서 불전퇴주(不戰退走)하며 한반도는 위태로운 국면에 이르렀다.

그러나 원균의 원군 요청에 따라 경상도 수역에 출동한 이 순신함대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제 1차 결전(決戰)에서 옥포, 적진포 전승을 거두어 [illegible] 무인지경으로 날뛰던 왜군함대에 공포와 충격을 주었다.

5월 29일~6월 10일 사이의 제 2차 출동에서 당포, 당항포, 율포 전승을 거두게 되자 이때부터 비로소 적 해군은 충무공을 겁내게 되었고 왜의 지상군도 후방보급에 불안을 느끼게 되었으며, 조정에서는 해상의 전승을 힘입어 전국 도처에서 의병 모집에 적극성을 띠었고,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갖게 되었다.

7월 6일~13일의 제 3차 출동엔 한산도 대첩, 안골포 해전에서 계속 전승을 거두었고, 8월 24일~9월 2일 사이의 제 4차 출동에서는 적의 근거지인 부산포에서 대해전(大海戰)을 벌여 적 수군의 거점을 완전히 공략하고, 적지상군의 해상통로를 차단하여 일본 본토에서까지 원정군과의 연락선을 격절하고 겁낼 정도로 충무공함대는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듬해 7월 좌수영을 여수에서 거제 한산도로 옮겨 왜군 침략의 수로를 가로막았고, 그해 8월엔 제군을 통합적인 삼도수군통제사를 제수 받고 전라좌수사를 겸했다.

그 뒤 선조 29년(1596년)에 적들은 공명 작전에 넘어지고, 서인 일부에서 제창의 공세로 나온 왜군의 선동을 곧 알지 못하고 박해의 도피, 원균의 모함, 조정도 정쟁에 휘말려 그해 2월 26일 충무공은 공격 나가지 않았다는 혐의 명목 같은 이변을 맺게 되었다.

서울에 압송된 충무공은 사형처분을 받을 뻔했으나, 판중추(判中樞) 정탁(鄭琢) 등의 구명으로 4월 1일 권원의 휘하에 백의종군하게 되었다. 이것이 충무공의 두번째의 백의종군이었다.

백의종군으로 또 다시 인고의 세월을 지낸지 한 달이 좀 넘은 7월 15일 그의 뒤자리를 이었던 원균은 적수군의 함정에 몰려 전함대를 잃고 그의 목숨마저 빼앗기고 말았다.

그제서야 충무공의 진가를 뒤늦게 깨달은 조정에서는 그를 전지에 복직시켰다.

8월 3일에야 임명장을 받고 부임했으나 남아있는 전함이란 모두 12척 뿐이었다.

이 빈약한 함대를 거느린 해상의 영웅은 9월 16일 노량해전에서 적 우세한 대를 무찔러 또다시 대해전(大海戰)을 거두었다.

선조 31년(1598년) 8월, 왜군 총수 「도요도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병사

하자 왜군 철수가 은밀하게 진행되었고, 이 기미를 알아챈 조·명(朝·明) 연합군은 9월 중·하순 합동공세로 적군을 공격해 실패했었다.

왜장의 뇌물공세로 명군이 물러나자 왜군 철수부대의 퇴로를 봉쇄코자 단행하고자 나선 충무공은 11월 19일 노량 해전을 지휘하던 중 적진의 소용돌이 속에서 적탄을 맞아 장렬한 최후를 마치었다.

그때 공의 향년은 54세.

공은 숨을 거두는 최후 순간, 조카 완(莞)에게 자신의 죽음을 숨겨 적군 섬멸을 완수케 하여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했다.

충무공의 그 지극한 충성심, 숭고한 인격, 무한한 인고의 위대,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위대한 통솔력은 임진왜란의 국난을 극복한 원동력으로서 공은 실로 이 민족, 이 국가의 운명을 홀로 지탱한 민족생존을 위한 동량(棟樑)이요 초석이었다.

2. 유신이념과 충무공 정신

우리는 오늘날 시대가 요청하는 유신정신을 비록 400년이란 시간의 격차는 있어도 오늘날과 같은 국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수호했던 위대한 당시의 선조들이 줄기차 안재력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애국적인 정신을 충무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며 박대통령 각하께서는 충무공의 멸사봉공(滅私奉公),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정신을 「충무공정신」「忠武公精神」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충무공정신은 무엇이며 어떤 정신이 충무공 정신인가? 우리가 충무공의 전기를 읽고 나서 느끼는 감동, 현충사를 참배하였을 때 느끼는 감회 등은 모두가 우리 가슴 속에 충무공정신이 살아있는 까닭이다.

다음에 충무공정신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멸사봉공의 애국·구국정신

충무공은 애국에서 우국으로, 다시 구국으로 직결되고 있다. 공은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서 호국을 하고 구국을 하였으며, 행동과 실천뿐만이 아니라 기꺼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 전쟁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것이다.

공은 두번이나 백의종군하게 되었으나 한 마디의 불평도 없이 명령에 따랐다. 공이 한산도 진중에서 한창 적군 토벌의 전략을 짜고 있던 무렵 고향으로부터 온 소식에 부인의 병환이 위중하다고 했건마는 「나라일이 이러하기에 이르렀으니 다른 일에는 생각이 미칠 수

없다.」하고 사사보다 국사를 앞세운 멸사봉공과 살신보국의 정신으로 처절한 전쟁에 임한 충용한 공이었다.

공은 마지막 싸움터 노량에서 선두에 독전하다가 적의 총탄에 맞아 숨을 거두며, 「방패로 내 앞을 가려라. 적에게 죽은 것을 보이지 말라. 지금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발설하지 말라」하고 자신의 죽음보다도 나라 일을 더 걱정한 공의 진충보국의 정신에는 하늘도, 바다도 흐느껴 울었을 것이다.

나. 조국애

우리 나라 역사상 충신과 지사에서 충무공만큼 국토애에 투철하였던 분은 없었다.

선조 26년(1593년) 명나라 지휘관 담종인(譚宗仁)이 일본과 강화한다고 왜장 소서행장의 진중에 가서 그들로부터의 뇌물을 받고, 충무공에게 「일본군을 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일이 있었다. 그는 그 공문에서,

「일본군이 싸움을 그치려고 하니 일본진영에 가까이 가지 말 것과 모두들 각자 본 고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하시기 바란다.

그때 공은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이 공문을 보자 너무나 분격하여 친히 글을 지어 대답하기를, 「영남 연해안이 내 땅 아닌 곳이 없는데, 우리더러 일본진영 가까이 가지 말할 말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우리 땅에 있는데, 각각 본 고장으로 돌아가라 하니, 도대체 본 고장이란 어느 쪽을 가리킨 것인가?」

하고 장렬한 항의를 했던 것이다. 이 얼마나 뼈저리게 사무치는 조국애였던가?

「내 땅」이란 생각, 곧 내가 딛고 있는 곳, 내 있는 곳이 다 「내 고장」이라는 생각, 그것이 곧 조국의식이다. 이 의식에서 우러난 것이 조국애이다.

이 뜨거운 조국애, 비록 한 뼘의 땅이라도 적의 발 아래 더럽힐 수 없다는 조국수호의 정신,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땅을 찾고 죽겠다는 비장한 각오, 그것이 곧 충무공정신의 근본이다.

충무공은 한산도 진영 속에 따로 벼 500여섬을 장만해 두게 하였었다. 군량 이외에 따로 양곡을 마련해 두는 것을 보고, 어떤 이가 그 까닭을 물었다. 그때 공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금 상감께서 의주에서 피난을 하고 계신다. 들으니 조정의 대신들은 일이 불행하게 되면 강을 건너 가자고 한다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날이 온다면 나는 이 곡식을 배에다 싣고, 서해로 거슬러 올라가 상감을 모셔

고, 죽을곳을 당해 적과 싸울 것이요. 설사 불행하게 될지라도 적왕과 신하가 되지 않고 내 국토 안에서 죽는 것이 옳다.」

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조국의식인가? 이 조국의식은 곧 주체의식이다. 「내가 곧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정신이다. 그러므로 주인은 나라를 버리지 못한다는 정신이다. 죽어도 이 국토 안에서 죽어야 한다는, 나와 국토가 각각 따로 떨어진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일심동체의 정신이다.

다. 민족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조국의 국토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마음은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 애족의 정신이다. 그것은 곧 동포애의 정신이다.

공이 견내량 한산도의 기습으로 닥쳐오는데도 적선을 격파하고 적군을 무찔러 나가자 다급해진 왜적은 육지에 내려 다울로 도망을 쳤다. 명장(名將) 같으면 거기에 남은 배들을 모조리 불질러 태워버리거나 노획해 가지고 왜적 전과를 올리는 데만 급급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은 남은 배 몇 척은 그대로 두라고 하면서, 「적군이 타고 나갈 배가 없으면 마을로 올라가 우리 백성들에게 큰 해를 끼칠 것이다. 결코 배들 남겨 두어서 놈들이 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공의 특의를 「적군을 물리는 것」에 두는 원균의 사고방식과 공의 생각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가를 알 수 있다.

공의 전쟁목적은 어디까지나 「백성보호」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피란민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떠돌아 다니는 것을 본 충무공은 그들을 전선에 실어 싣고 식량까지 주어서, 돌산도(突山島)로 옮겨 보내어 살도록 하고, 조정에 그 뜻을 장계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에게는 곳마다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다녔다. 공에게로 자신 승리가 있기 때문만도 아니다. 아무리 승전하는 장군일지라도 그가 백성을 무섭게 포악하고 구박했다면 따라 다닐 리가 없었을 것이다. 승리도 승리이지만, 그보다는 백성을 사랑해 주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따라 다녔던 것이다.

선조 26년(1593 년) 충무공이 한산도에 진치고 있을 때에 그 섬은 큰 고을처럼 융성했으며, 또 공이 떠나서 체에 원래 전라도의 고금도(古今島)에 진을 옮겼는 지난 한산도 시절보다도 오히려 10배나 되었다고 했으니, 그 얼마나 그 밑 섬에 고도 수 많은 수재와 피난민들에 때 백한 다행였는가? 자작 공의

「동포여!」 그렇게 하다 바라보고, 그와 하나 믿고 모여들었던 것이다.

공이 순국하기 얼마 전의 일이다. 명나라 진도독은 이미 소서행장에게서 뇌물을 받고 그가 빠져 나갈 길을 터줄 속셈으로 자기는 남해에 있는 적을 치러 가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공은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남해의 적은 적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적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동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도독은 「적이게 항복 했는 포로도 적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그 곳을 공격하겠다고 우겼다. 그것은 우리 백성의 목을 베어 적의 머리처럼 보고함으로서 큰 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충무공은 이를 말로 거절하다가 의견이 대립되자 진도독은 칼을 어루만지며 「본국 황제가 준 칼이요」하고 위협하려 했다.

공은 그가 아무리 무서운 위협을 가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백성들의 무고한 생명을 진도독의 손에 맡겨 둘 수는 없었다.

「한 번 죽는 건 아깝지 아니하오. 나는 이 나라 대장이오. 적을 버리고 내 동포를 죽이게 할 수는 없소.」라고 하며 태산같은 자세를 보였을 때에 진도독은 마침내 사과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공은 언제 어디서나 「내 백성, 내 동포」를 위해서 일하며 싸웠다.

공의 일기에, 비가 오는 날에도,

「슬프다. 동민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말들이 적혀 있다. 이 얼마나 순수하고 소박한 동포애의 표현인가!

참된 지도자는 혼자 국민의 앞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곁에서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다.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호국의 길로 삼은 공의 동포애, 국민의 곁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고 죽음을 같이 한 공의 그 따뜻한 동포애는 영원히 우리 국민의 가슴 속 깊이 살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충무공의 그 뜨거운 애민 애족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서로 믿고 아끼는 국민의 새 풍토, 새 세대에게 그 동포애의 얼이 전해지도록 해야 하겠다.

라. 자주, 자조, 자립, 자위의 정신

충무공의 일대기를 보면 공이 얼마나 남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제 힘으로 살았다는 자주, 자조, 자립, 자위의 정신에 투철하였던가를 알 수 있다. 공은 그 정신 때문에 출세가 얼마나 늦었는지 모른다. 공이 과거에 오른 것은 32세 되던 해였다. 대부분 사람이 이때 무

적 늦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급제를 하고도 북쪽 변방으로 나가 권관(權管)이나 만호(萬戶)라 하는 말직으로 돌아다니다가 정읍(井邑)현감이 된 것은 45세, 전라 좌수사가 된 것은 47세 때의 일이다. 그러므로 유성룡이 그의 징비록(懲毖錄)이란 책에서 공의 외로운 운세를 「조정에서는 공을 밀어 주고 당겨주는 이가 없어 급제한 지 10여년에 겨우 군록을 올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공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권세가의 문을 두들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기회가 있어도 그것을 물리쳤던 것이다. 율곡과 충무공은 같은 덕수이씨(德水李氏)로 족보를 따져보면 숙질간(叔姪間)이 된다. 충무공이 아저씨 항렬이고 율곡은 조카뻘이 된다. 그러나 율곡은 일찍부터 출세를 해 대신(大臣)의 자리에 있었고 충무공은 미관말직에서 허덕이는 처지였다. 율곡이 유성룡을 통해서 충무공을 만나 보기를 청했고 또 유성룡도 서로 만나 보라고 권했던 것이다.

그러나 충무공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율곡과 나와 같은 성씨이라, 서로 만나 보는 것도 좋겠지마는 그가 벼슬을 주는 대신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만나 보지 않겠소」

이 말을 들은 율곡과 유성룡은 공의 인격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가의 힘을 빌어 벼슬길에 올랐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공은 이 같이 남의 힘에 의존하려는 생각은 꿈에도 가져 본 일이 없었다. 그처럼 자기를 모독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았던 것이다.

이같은 자주, 자조, 자립의 정신은 무엇을 기본으로 해서 생기는 것인가?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자주, 자립할 수 있는 자기의 힘이다.

제 힘이란 실력을 말한다. 참된 실력,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에게 빌어 온 거짓 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실력만이 참된 힘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실력, 그 참된 제 힘은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는 것인가?

충무공은 자기의 힘을 결코 다른 어떤 데서 얻은 것이 아니었다. 자기 스스로 수련하고 자기 스스로 훈련을 거듭하여 모으고 쌓은 것이다. 공은 이렇게 축적한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고, 그 힘은 자위의 정신으로 승화되어 적을 무찔렀으며, 그 힘으로 민족과 국가를 구원해 낸 것이다.

1597년(선조 30년) 재침 때에 모함으로 공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통제사로 있던 원균의 잘못으로 우리 수군은 무참한 패전을 당하고 말았다. 공이

옥에서 나와 다시 통제사로 재임명을 받았건마는 원균의 패전으로 우리 수군은 산산조각이 난 터라 호남, 영남의 연해안을 두루 뒤져도 전선이라고는 겨우 12척 뿐이었다.

조정에서는 이것을 빈약히 여겨, 공에게 「해전을 버리고 육지로 올라와 싸우라」고 명령했던 것이다. 그러나 공은 「해전을 버릴 수는 없음」을 말하는 장계 속에서 「신에게는 싸울 수 있는 배가 아직도 12척이 있읍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면 능히 싸울 수 있읍니다. 그리고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두 마디 말은 천고의 명언으로 전하여지고 있다. 그 당시 적의 전선은 무려 400여척이었다.

400여척을 상대로 한 12척의 함대, 동서고금의 전사를 뒤져 보아도 그같은 예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단지 12척의 배를 이끌고 1300척이나 되는 적의 함대와 자신만만하였던 공의 신념, 그리고 또 「신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 적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고 자신을 과시했던 공의 신념. 그 신념의 뒤에는 자존, 자조, 자립, 자위의 의지가 용솟음치고 있었음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다.

공은 그 신념 하나를 가지고 전사상(戰史上) 전무후무한 12:400의 열세 속에서 경이적인 승리를 하였던 것이다.

마. 창의와 개척정신

충무공이 산 그 시대는 참으로 혼미와 파동이 얽혀져 있는 혼돈의 시대였다. 충무공은 시대가 그러하였기에 분연히 일어섰다. 길이 없었기 때문에 새 길을 뚫고 나갈 수 밖에 없었다. 과연 공은 새 길을 뚫고 나갔다.

공은 새 길을 통해 나라의 운명을 열어 놓았고, 국민의 나갈 길을 터주었다.

충무공의 창의와 개척의 정신이 최고도로 발휘된 것이 바로 거북선의 창제이다. 세계 선박사상 가장 독창으로 나타난 철갑선이다. 충무공은 배조차 궁핍한 때가 있었던 그 당시에 군량 준비를 스스로 갖추기에 여념이 없었다. 군사를 훈련시켜야 했고, 무기를 만들고 정비해야 했다. 그러한 속에서 공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거북선을 발명해 낸 것이다.

이 거북선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의 기록이 남아 있다.

「신이 일찍이 왜적의 난리가 있을 것을 걱정하여 특별히 거북선을 만들었사온데 앞에는 용머리를 붙여 아가리로 대포를 쏘고 등에는 쇠못을 꽂았으며, 안에서는 밖을 내다 볼 수 있어도 밖에서

는 안을 들여다 볼 수 없고, 비록 적진 수백리 속에라도 뚫고 들어가 수로를 보게 하였읍니다.」

이 기록만 보아도 공이 얼마나 용의 주도하며 창의성을 발휘했는가 알 수 있다.

충무공은 해전의 승리만으로서 족하게 여기지 않았다. 대량 생계를 올려 옥권은 확정했다. 그러나 아군이 늘 고전하는 것은 적군의 조총(鳥銃)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조총을 연구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공은 노획한 적의 조총을 분해하고 연구하여 마침내 조총을 만들어 내고야 말았다. 더우기 충무공이 한산도에서 만들어 낸 조총은 그 성능이 왜적의 그것보다 몇배나 더 정밀한 것이었다. 그것은 임진란이 일어난 다음해 7월 [음력] 완성되었던 것으로 공은 그것을 하루 빨리 각 도에 전해서 많이 만들어 내도록 건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끝내는 큰 활용을 보이지 않았으니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이었던가!

충무공이 옥에서 나온 뒤에 다시 통제사의 재 임명을 받기는 했어도, 군영에는 군사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 닥쳐오는 겨울은 지날 일이 막연했다. 이에 공은 「해로통행첩(海路通行帖)」이란 제도를 구상했다. 곧 대선은 쌀 3석(石), 중선은 2석, 소선은 1석씩을 바치고 통행세를 바쳐야만 통행할 수 있게 하여 만여석의 군량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그것은 군량을 모으는 방법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적의 간첩선을 통제하는 일석이조의 큰 효과를 거두었던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공의 특유한 창의정신에서 베푸어진 것이다.

충무공은 실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고 막힌 길을 뚫고 개척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으로 하여금 죽음 속에서 삶을 찾을 수 있게 했다. 공의 이러한 창의와 개척의 정신은 우리가 공으로부터 물려받아야 할 영광스러운 유산의 하나인 것이다.

바. 유비무환의 정신

계사년초에 적의 수군을 섬멸한 충무공은 그 동안에도 전력을 소모하여 오다가 본거지인 여수가 지리상으로 편벽하다 하여 선조 26년 7월에 한산도로 이진(移陣)되었다. 한산도는 산(山)이 둘러 싸여 있어 배를 숨기기에 편하고, 적선이 오가는 것을 탐(探)하려면 반드시 지나게 되는 문호였다. 이 곳에서 공은 둔전을 경작하여 군량을 비축하고 고기를 잡아 그것으로 베(布)를 바꾸어

군복을 마련하고, 나무를 베어 군선을 만들고, 쇠를 녹여 무기를 만드는 등 후방상태 준비도 쉬지 않고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르는 전쟁에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거북선의 구상과 건조였다. 임진란이 일어나기 바로 전의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적혀 있다.

○ 2월 8일, 이날 거북선에 쓸 돛베 29필을 받았다.

○ 3월 27일, 거북선에서 대포 쏘는 것을 시험해 보았다.

○ 4월 11일, 이날 비로소 돛베를 만들었다.

○ 4월 12일, 식후에 배를 타고, 거북선에서 지자포와 현자포를 쏘아 보았다.

이상과 같은 기록을 보면 거북선이 완성된 것은 4월 12일께였다. 한편 왜군의 제1군 1만8천명이 소서행장(小西行長) 등을 대장으로 삼아 350여척의 병선에 분승하고 부산포에 침범 상륙한 것은 바로 4월 14일이었다. 따라서 공은 거북선의 건조에 있어서, 왜군의 침입시기와 실로 경쟁을 했던 것과 같은 느낌이 있다.

사. 정의에 사는 정신

사람은 모름지기 살아가는데 있어서 목적과 그 목표가 있어야 한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생존이지 생활은 되지 못 한다.

충무공의 일생을 더듬어 보면 공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국가와 정의」에 두고 이를 자신의 인생목표로 삼고 있었다.

충무공은 생활의 목표를「애국」나「충무」나「정의」에 두고 살았고, 또한「정·부정」,「의·불의」에만 두어, 바르고 옳은 일이면 행하고, 굽고 그른 일이면 그에 대항해서 싸웠던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에게는 해롭고 싸움에는 지고 실패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바르고 옳은 일이면 그것으로 자기 갈 길을 삼았고, 반면 아무리 이롭고 이기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굽고 불의의 일이면 생명을 걸고 싸웠던 것이다.

공은 54년 동안의 생을 「정의」라는 목표 아래 살고 갔다. 따라서 공의 일생에서 정의와 국가를 떼어버린다면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다. 생사를 초월한 높은 가치도 「정의와 국가」라는 절대적인 목표가 뒤 되었기 때문에 더욱 빛났던 것이다.

그러기에 마지막 전쟁에 나가며 순국

죽기 바로 몇시간 전에 추운 겨울 바람에 거세게 불어오는 찬 바람 위로 올라가 손을 씻고 무릎 꿇어 하늘에 맹세를, 「이 원수 무찌른다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라고 기도했다. 그리하여 공은 정의를 위해 살고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도 던져버린 것이다.

이상과 같이 충무공의 정신을 몇 가지로 크게 나누어 고찰하였지만 우리가 본받고 실천해야 할 공의 정신은 이것만이 아니다.

3. 충무공 정신과 우리의 자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충무공정신은 곧 유신이념이요, 유신이념이 곧 충무공정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유신과업의 완수에 매진하는 것은 곧 충무공의 거룩한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에 되살리는 길이 되는 것이다.

생활을 통해 구현되지 못하는 정신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생활 속에서 실천에 옮겨진 정신만이 귀중한 것이며, 실천이 없는 정신은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한 것으로 말로만 강조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훌륭한 정신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이다.

충무공의 충효정신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까닭은 공의 충의가 국왕에 대한 충성으로만 끝나지 않고 조국애와 민족애로까지 승화되었다는 데 있다.

우리도 이러한 충무공정신을 본받아 투철한 민족의식으로 민족주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하겠다. 주체적 민족사관을 정립하여 과거의 역사를 올바로 파악하고 오늘의 현실과 처지를 똑바로 알아 새로운 민족사 창조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힘써야 하겠다.

충무공은 나라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한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다는 신념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우리는 격변하는 내외정세 속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기약하기 위한 유신과업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이 과업은 우리 아닌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떠맡길 수 없는 우리 자신의 과업으로서 너와 나의 구별없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기어이 완수해야 할 민족적 과제이다.

죽어서도 조국을 지킨 공의 정신을 본받아 유신과업 완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

충무공은 전라좌수사로 부임하자마자 반드시 왜적이 침략해 오리라 예견하고 그에 대비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공은 좌수영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휘하 각 포구를 직접 순

그런데 한 집안의 일이 잘 되려면 그 집 주인이 다른 집 사람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음이 없이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 가족과 더불어 부지런히 일을 하고 모든 일을 자주적으로 처리해 가야 함과 같이 한 나라의 일도 그렇게 하여야만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주·자조·자립 정신이 바로 한 집안이나 한 나라를 번영의 길로 인도하는 힘으로 되는 것이니 그것을 민족을 단위로 한 국가의 경우에는 주체적 민족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우리 민족은 유라시아(Eurasia) 대륙의 동쪽 끝에 자리잡고 있는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대한반도에 들어와 농업생활을 시작하고 차차 인구가 늘어가게 됨에 따라 산천을 경계로 하여 원시적인 여러 부족국가를 이룩하고 고유문화를 창조하는 한편 이웃에 세워진 중국민족의 나라들과 싸움을 거듭하는 사이에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임으로써 민족통일국가를 이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은 부족국가를 이룩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천 수백년 동안에 있어서 비록 몇 차례에 걸쳐 왕조를 바꾸게 한 일은 있었을지라도 다른 민족에게 국권을 빼앗긴 일은 거의 없었으니 이러한 일은 우리 민족이 지닌 바 굳센 주체적 민족정신 때문이었다. 그러한 주체적 민족정신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낸 일은 우리 민족의 나라들이 보다 먼저 세워진 중국 민족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고유의 연호(年號)를 만들어 쓰고 임금은 황제라고 부르게 한 이른 바 「건원칭제(建元稱帝)」운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건원칭제」운동을 중심으로 한 주체적 민족정신에 대하여 시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2. 3국시대의 주체적 민족정신

우리 민족은 수천년 전부터 만주평야와 대한반도에 걸쳐 산천을 경계로 하여 많은 부족국가를 세우고 고유문화를 창조하다가 보다 먼저 세워진 중국민족 국가의 침략을 거듭 받게 됨에 따라 차차 크게 뭉쳐 지역적으로 부족국가연맹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동강 유역에서는 일찍부터 고조

선이라는 부족국가가 생기게 되고 그 북쪽의 만주지방에서는 부여, 고구려 등의 부족연맹국이 생기며 대한반도의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백제 등 54개 부족국가로 이루어진 마한, 사로(斯盧) 등 12의 부족국가로 이루어진 진한, 구야(狗邪) 등 12국으로 이루어진 변한이라는 부족국가연맹체 형성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부족국가들이 보다 크게 뭉쳐 부족국가연맹을 형성하게 된 것은 머나먼 수백년 동안이 걸쳐 내란에 빠져있던 주나라를 없애고 기원 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스스로 황제라 일컫고 영토를 남만주지방에까지 넓혀 만리장성을 쌓고 우리 민족의 나라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진나라는 대륙을 통일한 후 겨우 15년만에 멸망하고(BC 206) 한(漢)나라가 다시 대륙을 통일하게 되니 그 7대 황제이던 무제(武帝)는 기원 전 140년부터 건원(建元)이라는 연호를 처음으로 만들어 쓰기 시작하고 기원 전 108년에는 고조선 지방을 침략하고 이 지방에 낙랑군(樂浪郡)을 비롯한 4군을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의 한가운데에 한 4군이 설치되어 우리 민족을 탄압하게 되니 우리 민족의 부족국가들은 보다 굳세게 뭉쳐 왕국을 이룩하는 한편 4군의 세력을 쳐 내쫓는 일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한 왕국으로서 가장 먼저 발전한 나라는 한나라와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던 고구려로서 서기 53년에 즉위한 태조왕 때부터는 ①같은 혈통의 사람이 왕위를 계승하고 ②종래의 부족장들은 벼슬자리를 얻어 귀족이 되며 ③모든 권력이 국왕에게 모이게 중앙집권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고구려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한나라의 4군은 설치 후 26년(BC 82)에는 동쪽과 남쪽에 있던 임둔군(臨屯郡)과 진번군(眞番郡)을 없애게 되고 압록강가에 있던 현도군(玄菟郡)도 남만주 지방으로 옮기게 되었다. 따라서 이후 한 4군 중 낙랑군만이 대동강 유역의 거점을 차지하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게 되니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 남쪽에 있던 백제도 서기 234년에 즉위한 고이왕 때부터는 굳센 왕국으로 발전하게 되고 신라도 서기 356년에 즉위한 내물왕 때부터는 그렇게 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의 낙랑군은 굳세어진 고구려와 백제

의 공격으로 서기 313년에 없어지고 이후 우리 3국은 서로 국경을 맞대고 국력을 겨루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3국은 낙랑군의 세력과 싸우는 사이에 군현 왕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중 가장 먼저 왕국으로 발전한 고구려는 한나라의 세력과 줄기차게 싸우는 한편 그 문물을 받아들여 주체적 민족정신을 보이기 위한 「건원칭제」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구려에서는 임금들을 천제(天帝)의 아들이라고 말하여 당당히 중국민족의 나라의 「황제」와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그 19대 임금이던 광개토왕은 즉위한 391년부터 영락(永樂)이라는 자주적 연호를 만들어 씀으로써 그 영토를 만주의 요하로부터 한반도의 한강 유역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던 장수왕도 연수(延壽), 연가(延嘉)라는 자주적 연호를 만들어 씀으로써 그 영토를 소백산맥 이북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체적 민족정신으로 말미암아 고구려는 아시아 극동지역에 있어서 가장 강대한 국가로 발전하고 여러 다른 민족을 제압으로 200여년 동안이나 갈려 내란에 빠져 있던 중국대륙을 다시 통일한 수나라와 당나라의 거듭한 침입도 물리치면서 국위를 떨치고 있었다.

그리하여 고구려가 소백산맥 이북의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국력을 떨치게 되니 그 남쪽에 있던 백제와 신라에서도 주체성을 살리기 위하여 「건원칭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백제에서는 위덕왕 때(590)에는 「건흥」(建興)이라는 연호를 만들어 쓰게 되고 신라에서는 536년부터 650년까지에 이르는 사이에 「건원」(建元), 「개국」(開國), 「태창」(太昌), 「홍제」(鴻濟), 「건복」(建福), 「인평」(仁平), 「태화」(太和)라는 일곱 가지 연호를 만들어 쓰게 되었다. 특히 신라에서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연호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한나라 무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건원」이라는 연호였다는 것은 신라가 중국의 나라들과 더불어 동등한 자주국이라 함을 뜻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신라에서는 한강 유역의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그 영토를 넓히게 되어 이런 연호를 일곱 번이나 바꾸어가면서 주체적 민족정신을 나타내게 되니 고구려는 백제와 손을 잡고 한강 유역의 땅을 찾아내려고 신라

를 공략하게 되었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를 13년 동안 공격하다가 실패만을 거듭하고 있던 당나라에 김춘추를 보내어 군사동맹을 맺고 그 비위를 맞추어 주기 위하여 650년부터 당나라의 연호를 쓰는 원교근공책(遠交近攻策)을 씀으로써 3국을 통일하게 되었다. 한편 불교를 국교로 삼고 있던 신라는 부처님에게 민족통일의 염원에 예속되기를 비는 뜻에서 645년에 황룡사의 9층탑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 탑을 9층으로 만들게 된 것은 9한(九韓)의 모든 나라가 통합되기를 바라는 뜻이었다.

3. 후3국시대의 주체적 민족정신

신라는 민족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멀리 당나라와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나 당은 이 두 나라 땅에 군대를 그대로 머물게 두고 군정을 펴는 한편 신라조차 계림대도독부(鷄林大都督府)라고 불러 그의 영토로 삼으려 하였다. 이에 놀란 우리 3국의 겨레들은 주체적 민족정신으로 뭉쳐 치열한 싸움을 10여년 동안 거듭한 끝에 기필코 당군을 쳐 내쫓고 676년에는 대동강과 원산 이남의 땅을 차지함으로써 새로운 민족을 통일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통일신라와 당과의 사이는 이후 20여년 동안 좋지 못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고구려 사람인 대조영이 만주에서 699년에 진국(震國·뒤의 발해)을 세우고 천통(天統)이라는 연호를 만들어 쓰게 되니 당은 이를 두려워하여 703년부터 신라와의 국교를 다시 트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라는 728년부터 유학생들을 당에 보내어 글을 배우고 10년 뒤에 귀국하게 하니 이들 사이에서는 차차 당나라를 숭상하려는 사대(事大)사상이 생기게 되었다. 한편 신라에서는 민족을 통일한 후 100여년을 지나 780년부터는 왕족들 사이에서 임금의 자리다툼이 거듭 일어나게 되고, 당에 다녀온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사대사상이 왕성하게 되니 왕족으로서 웅주도독(熊州都督)을 지내던 김헌창은 그 아들 범문과 더불어 822년에 그곳에서 장안국(長安國)을 세우고 경운(慶雲)이라는 연호를 만들어 쓰다가 4년만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적 민족정신을 살리려는 운동은 그 후 60여 년을 지나

[illegible]

리던 신라의 경순왕이 몸소 부하들을 거느리고 935년에 개경으로 들어가서 국권을 고스란히 왕건에게 넘겨주게 되니 왕건은 이듬 해에 내란에 빠져 있던 후백제를 쳐부심으로써 다시 민족을 통일하게 되었다.

이러한 왕건의 주체적 민족정신은 그 아들로서 네째 임금이 된 광종에게 계승되어 다시 「칭제건원」운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광종은 949년 임금의 자리에 오르자 스스로 황제라 일컫고 광덕(光德)이라는 연호를 만들어 4년 동안 쓰다가 이것을 준풍(峻豊)으로 바꾸어 또한 4년 동안 쓰게 하였다. 그러나 새로이 국경을 맞대고 있던 거란족의 요나라가 자주 고려를 침범하고 중국대륙에서는 송(宋)나라가 960년에 새로이 대륙을 통일하게 되니 고려는 거란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멀리 송나라와 사귀는 원교근공책을 세워 963년부터는 송나라의 연호를 쓰게 되었다. 한편 고려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쌍기(雙冀) 등의 주창에 따라 958년부터 과거제도를 시행하여 문신으로 하여금 정권을 잡게 하니 이후 문신들은 임금과 더불어 놀이를 일삼아 국정을 그르치고 만주에서 1115년에 금(金)나라를 세운 여진족(女眞族)에게조차 머리를 숙이는 사대정책을 쓰게 되었다. 더우기 17대 임금이던 인종 때(1126)에는 임금의 장인이던 이자겸이 임금의 자리를 넘으려다가 왕궁을 불태우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문신들의 행태와 사대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던 서경(西京)의 중 묘청(妙淸)등은 서울을 그곳으로 옮기고 금나라로 쳐들어 갈 것을 주장하다가 문신 김부식들의 반대로 실패하게 되니 1135에 그 곳에서 대위국(大爲國)을 세우고 하나님이 나라를 열어주었다는 뜻에서 천개(天開)라는 연호를 만들어 쓰고 있었다. 이 묘청들의 반란은 곧 무신 출신 이들의 힘으로 가라앉혀졌으나 그 후 문신들은 무신들을 매우 멸시하여 술자리 등에서 온갖 모욕을 거듭 주게 되었다. 그러므로 대장군이던 정중부들은 참다 못하여 1170년에 문신들을 모두 죽이고 임금도 갈아치움으로써 이후 88년 동안에 걸친 무신정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무신정권도 네번이나 바뀌어 1196년부터는 문신을 부려쓰게 된 최충헌일족의 정권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즈음하여 몽고족이 1235년에 나라를 세우고 남쪽으로 들어와 고려를 엿보게 되니 곧 충헌의 아들이던 최우는 1219년부터 고려 건국 이래 313년의 민족통일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뜻에서 서통(敍統)이라는 연호를 만들어 쓰게 되었다. 이러한 굳센 주체적 민족정신으로 말미암아 최씨 정권은 거의 세계를 정복한 몽고족의 침입을 28년 동안이나 받으면서도 굴복함이 없이 나라를 지켜오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몽고족이 철령(鐵嶺, 安邊) 이북의 고려땅을 차지하고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를 영흥에 두어 그의 영토로 삼게 되니, 무신 유경들은 1358년에 최우의 어린 손자이던 최의를 죽임으로써 정권을 왕족 고종에게 돌리는 한편 왕자를 몽고에 보내어 화평의 뜻을 보이게 하였다. 이에 몽고족도 고려를 무력으로 굴복시킬 수 없음을 알고 이후 고려를 사위나라로 삼아 90여년 동안 간섭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몽고족의 간섭을 받는 동안에는 그를 섬겨야 한다는 사대사상이 고려에서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1351년에 즉위한 공민왕은 때마침 중국민족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던 몽고배척운동에 발을 맞추어 몽고배척운동을 일으켜 쌍성총관부를 재침함으로써 잃었던 지방의 국토를 회수하는 한편 대륙에서 새로 1368년에 세워진 명(明)나라를 가까이 하는 친교근공책을 쓰다가 그 후 나라를 이성계에게 빼앗기게 되었다.

4. 이씨왕조 말기의 주체적 민족정신

이성계는 몽고 배척운동에 가담하는 한편 대륙에서 1368에 세워진 명나라를 섬기는 사대정책을 씀으로써 1392년에 조선왕국을 세우고 그때부터 써오던 명의 연호를 그대로 쓰게 하였으므로 그의 후계자들도 이러한 정책을 이어받아 국제적 안전을 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은 명을 대신해서 대륙을 다스리게 된 청(淸)나라에 대하여서도 같은 사대정책을 쓰게 되었으며, 이씨왕조 500여년 동안에 있어서는 주체적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우리의 연호를 만들어 쓰는 일이 거의 없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일본은 1854년부터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1868년에는

이른 바 명치유신을 단행함으로써 군대를 근대화하고 우리 나라를 침략하는 제국주의정책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총칼로 위협함으로써 1876년에는 조선과 더불어 강화도에서 한일수호통상조약을 맺고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게 하였는데 이 조약문에서 조선으로 하여금 우리 조선 건국 후 485년을 뜻하는 개국(開國)이라는 연호를 쓰게 하였다. 일본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때까지 청나라의 연호를 써오면서 외교적으로 그 간섭을 받아오던 청의 세력을 조선에서 몰아내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후 일본과 청국은 조선에서 세력다툼을 자주 벌이다가 1894년에는 이른 바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전쟁을 치르는 사이에 조선정부로 하여금 이른 바 갑오경장(甲午更張)을 단행하게 함으로써 모든 제도를 근대화하는 일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 결과 조선은 1896년 초하루 날부터 양력을 쓴다는 뜻에서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만들어 쓰게 되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임금이던 고종(高宗)의 왕비인 민비가 1895년 음력 8월에 일본인들에게 살해되니 고종은 신변에 두려움을 느끼어 그해 음력 그믐날에 경복궁 별궁을 몰래 빠져나와 정동에 있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고 이후 약 1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광산채굴권, 철도부설권 등을 외국인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이러한 망국적 처사를 알고 미국으로부터 귀국한 서재필이 1896년 4월부터 독립신문을 발행하면서 임금이 본궁으로 돌아와 자주독립국가의 체통을 지켜 줄 것을 주장하고 독립문을 세우게 되니, 고종도 1897년 2월에 경운궁(慶運宮·덕수궁)으로 돌아온 다음 그해 8월부터는 광무(光武)라는 자주적 연호를 만들어 쓰며 10월에는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이라고 고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씨 왕조는 뒤늦게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나 그 후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이 대한제국의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하여 1904년에는 노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을 맺고 대한제국을 그의 보호구역으로 삼게 되니 고종황제는 1907년 6월에 화란의 헤이그에서 열리게 된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등의 밀사

를 보내어 을사조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열강에 알리어 국권을 되찾고자 하였다. 이에 일본은 이 밀사사건을 트집으로 삼아 고종으로 하여금 자리를 아들 순종에게 물려주게 하니 순종은 1907년 8월에 연호를 융희(隆熙)로 바꾸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나 1910년에는 국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에 걸쳐 일본제국의 압제를 받다가 8·15의 해방을 맞고 3년 뒤에는 대한민국을 세움과 아울러 단군전설에 근거를 둔 단기(檀紀)라는 연호를 만들어 쓰게 되었다. 그러나 이 단기는 단군신화에 근거를 둔 연호이므로 5·16군사혁명 이후 1962년부터는 세계공통의 연호인 그리스도교의 기원을 우리나라에서도 쓰게 되었다.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 우리가 다시 한 번 다짐하고 넘어가야 할 우리 한반도의 장래에 관한 문제는 열강이나 국제 조류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과 자주적인 결단에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민족의 주체성을 견지하고 변천하는 세계 조류에 능동적이고도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면서 평화적인 국토통일의 길을 넓히고 다져 나가야 하겠다.

◇— 나라의 번영과 직결되는 농촌 번영을 위해서는 농민들 스스로가 운명을 개척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을 도와가는 자주·자립·자조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 남에게 의지하는 습성을 버리고 스스로 돕는 마음가짐으로 가까운 생활주변부터 알차게 꾸려 나가야 한다.

정 훈 교 육 자 료

□…… 조직은 형성하는 구성원의 됨됨이에 의하여 그 힘의 크기가 달라진다. 구성원의 됨됨이는 물론 마음가짐의 굳고 엷고에 차이가 생긴다. 마음가짐의 굳음이 바로 정신전력의 문제이다. 정신전력은 반드시 구체적인 형태로써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사태에 직면하여 사태를 처리하는 데에는 더할 나위 없는 무기이다. ……□

정신전력문제

김 성 국

1. 문제의 발생

적과 대치해 있는 상태에서 "능히 적을 이길 수 있다는 승리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전력향상에 있어서 확실히 중요하다.

흔히들 말하길, "승산이 없는 싸움을 누가 하느냐. 확실히 승산이 있다 하드 현민(賢民)에게 지극히 이런 계책가 있기 때문에 싸움은 발생한다"고 한다.

혹은 "승리에의 확신"에 도취한 나머지 스스로 위약해지는 경우와 "현리에의 기적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는데도 싸움에 이기는 경우는 위의 문제에서 제외된다.

싸움의 상태에서 "승리에의 확신"이 결여되거나, "현리에의 기적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에 정신전력의 문제는 엔

걸게 발생한다.

한편, 조직을 구성한 모든 조직체에서 조직구성원 개개인이 조직의 목표를 모른다거나, 목표도달에 게을리 할 때도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이러한 예시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신은 왜 군대에 왔는가?"

—그야 뭐, 병역의무를 치러야 하니까.

—그저, 사회에서 할 일도 없고, 또 집안 문제도 하도 복잡해서 잠시 도망치는 기분으로.

—군에 안 오고는 사회에서 행세 못하고, 또 안 올 수도 없잖은가.

"그럼 왜, 하필 공군에 왔는가?"

—우리나라 군대 중에서 가장 신사적이고 멋져 보이는 점 때문에.

—외출이 잘 되고, 공군부대는 모두 후방에 있으니까.

—공부에 편했고, 제대해서도 편히 산다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군대의 사명이나 군인의 임무는 알고 있는가?"

—그거는 소위 거래. 군대의 사명이야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군인의 임무는 상급 계급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 아닌가.

—군대의 사명은 국토방위이고, 군인의 임무는 요령껏 하는 거야.

—그런 건 몰라도 돼, 그저 좀 편하게 지내고, 사고 안 내고, 눈치 빠르게 병역기간을 마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지금 당장 전쟁에 난다면 당신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건 닥쳐서 봐야 아는 거야. 요령껏 아주 요령껏?

—미친 소리 마라. 결심이 나건 왜 내냐?

—우선 가족들에 먼저 피신시키게끔 조치를 취하고, 다음에 가족과 만나게.

이들의 문답조의 대답이라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다고 "병영생활의 목적"이나, "자기 자신의 목적"이나 "외군 국가의 목적" "……목적", "……목적" 등등을, 병사들에게 모두 하나 안 틀리고 외우게 강요하여, 뜻이나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이해조차 못하고 무조건 줄줄 외우는데에도 문제는 있다.

2. 문제의 제기

한 가지로 훈련한 사회에 매료되도 보고 느끼지 못하는 여러 사람의 인식이 두꺼운 벽과 같고 이러한 사실에 갇고 있는 제대가 발전되는 수는 얼마든

지 않다.

한편, 어떤 사물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과 부분적으로 보는 것과 그 관계의 혼동이 다른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그 사물에 대한 가치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가치 차이로 인하여 문제는 제기된다.

사실인! 그런 것은 아니다.

인민(人民)을 중시한 것이냐, 개인(個人)을 중시한 것이냐에 따라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조직에 있어서 구성된 개개인의 "만남"을 중시한 것이냐, "연결"을 중시할 것이냐에 따라 철학적 인간학의 공식이 달라진다.

또한 위치 개개인의 동질성을 중시한 것이나, 인격성을 중시한 것이냐에 따라 사회구조 및 국가권력 형태가 성립과정을 달리하며, 군중을 중시한 것이냐, 인동자를 중시한 것이냐에 따라 인간의 얼이가 그 차원을 달리하여 발전하고, 동류의식에 있어서 평등으로인가, 아니면 부동으로인가에 따라 인간 사랑의 크기가 달라진다.

동류의식이란 「나」(개인이건 조직이건)의 지위(또는 힘)가 「남」(개인이건 조직이건)의 지위(또는 힘)보다 못할 때에 적어도 「나」는 「남」과 같은 위치에 까지 도달하려는 의식이며, 「나」와 「남」이 같은 지위일 때는 「남」이 「나」보다 낮아지거나 「나」의 위치가 「남」보다 우위에 있으려는 의식을 말한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제기된다.

개개인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할 것이냐, 각 개인의 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보편적인 자유만을 허용할 것이냐에 따라 민주(民主)의 개념이 달라지듯이 이상과 현실이 병행하는가, 아니면 이상과 현실 중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는가에 따라 조직의 근본적 내용이 판이한 모습을 드러낸다.

조직의 개념이 없어서도 조직은 이념으로 활동하는 것인가, 감정(感情)으로 활동하는 개인가에 결과는 달라지고, 이념과 정열이 상호 이해(理解)없이 병행할 때에 조직의 힘은 무너지게 된다.

또한, 조직은 그 구성원의 하나 하나가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 내재적에 스며있는 것인가에 발전한 형태, 차이를 드러낸다.

조직에 있어서의 내재의식은 구성원 개개인의 성격(性格)에서 아니면 교육 또는 인식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인가에 문제는 제기된다.

물론 교육 또는 인식의 부족에 의해서만 내재의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상부 계층의 지성과 주의력에 근원 등을 두어 발생

하는 하부구조의 결합관계인 단결력이 어느 약한 조직을 자폭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조직과의 대결에서 중대한 패배를 안겨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조직은 어떤 목적에서건 어느 목표를 갖기 마련에 그런 이상 조직이 있고 결코 간에 "승리"를 위해 단행하는 것이며 "승리에의 확신"을 가진 절대수의 구성원을 요구한다.

결코 승패할 수 없다거나, 대전제가 "반대"로 되어 있다거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조직은 있을 수도 없고 될 수 있다 한들 그것은 목적없는 조직이 아닌 오구(烏合)의 모임에 불과한 것이다.

조직의 최고한 그것은 국가이며, 국가단결의 최상위 조직은 군대이다.

오늘 날, 정신력이며 기술력의 성격이 모든 과정을 지배한다고 볼 때에 똑같은 군의 조직에 있어서 승리를 획득하는 원동력이다.

따라서 군의 우수성 곧 정예화가 현대전에 승리를 획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를 이루는 데에 어느 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공군의 우수성을 제기할 때에, 즉 전력 총체를 극대화하고 정비할 때에 우리는 너무 정비 일변에 치우친 경이 없지 않다.

이러한 여러가지 원인으로 문제는 제기되는 것이다.

3. 문제의 방향

1967년 6월, 1억의 아랍인에 둘러싸인 200만의 유태인에게 전 세계 눈길을 모으게 한 그 유명한 6일전쟁.

단 하루 사이에 아랍권 416대를 일시에 깨뜨린 이스라엘의 공군력은 실로 전쟁의 우수성 때문이었던가.

이집트기 309대, 시리아기 60대, 요르단기 29대, 이라크기 17대, 레바논기 1대 모두 416대의 비행기를 격파한 이스라엘은 단지 26기의 비행기 손실을 보았을 뿐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 등 아랍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유형적인 전력에 비하여 이스라엘의 전력은 절대 승리를 염두에 둘 수 없는 약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인은 국가목표를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고, 아랍보다 월등한 정신력을 갖고 있었다.

인구대비 50 : 1, 국토대비 250 : 1, 국가예산 12 : 1, 상비병력대비 30 : 1의 열세 아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국가조직의 힘은 어디에서 생긴 것인가.

그것도, 그때 겨우 국가를 세운지 19

넌, 세계 이곳저곳에 흩어졌던 동포들 모여 각양각색의 풍습이 사회 여기저기에 남아 있는, 유구한 역사의 전통은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아니던가.

키브츠와 모샤브에서 보여준 협동력, 인내심, 근면성, 그리고 조직에의 단결력, 목표설정에의 공감성, 훈련을 통한 투쟁, 철저한 교육에 의한 민족의 동질성 의식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승리국으로 이끈 것이 아닌가.

바로 문제의 방향이 여기에 있다.

정비결여 즉 주관적인 권력의 일체를 추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가치를 최고도의 경계에 도달시켜야 하는 권력변혁(權力變革)의, 거시적인 방향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이다.

생존에 대한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일 수 있을 때, 훈련은 통합 전력향상이 이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일 수 있을 때, 사명감을 고취하여 국가목표에 수렴이 동화되어 있을 때, 타성에 휘말리지만 집착된 정신력 강화가 아닌 실제적일 때, 전력변화의 기본적인 정신전력 방향은 갖추어지는 것이다.

구데리안의 이론을 그대로 빌리지 않고 숙련한 글, 맨드스 등이가 아니더라면 맥아더의 투혼은 살리지도 못하는 것처럼, 모든 정신력의 문제는 준비된 데에서 실천적으로 옮겨진 이때 그 현장에 나타나지는 것 아닌가.

"당신은 왜 군대에 왔는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이 나라 국민을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애국 애족의 도로가 되기 위해서.

"당신은 왜 공군에 왔는가?"

—현대전에 있어서 공군은 가장 중요한 군대이며, 나의 기술을 계발하기 위해서.

—나라의 젊음을 창공에 불살라 조국방위의 최고 간성이 되려고.

"지금 당장 전쟁이 난다면?"

꼭 전쟁이 나기를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이제껏 배운 나의 전투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것이다.

—국가가 당장 요구하는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 기꺼이 적을 물리쳐 버릴 것이다.

이와 같은 문답이 자연스레 나오고 명확한 자기 임무를 인식하고 있으며, 자기 맡은 바 소임완수에 철저할 수 있는 공군이라는 조직의 구성원일 수 있으며 전력차원의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4. 문제해결의 시도

가. 내재율(內在律)

어디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웰

기록은 성공적의 행동이 없다.

그러면서도 누구나 영국을 가리켜 신사의 나라라고 한다.

신사란 품행과 예의가 바르고 학덕과 지성을 갖춘 상류사회의 남자를 일컫는 말이다.

상류사회란 신분·지위·생활 정도 등이 골고루 높은 사회를 일컫는 말이다.

그렇다면, 비록 지금은 조장대국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갔으나 영국은 이 세계의 상류사회에 속해 있는 신사라는 뜻이다.

군대에, 특히 공군에 정신전력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으로 지적되는 예의,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품성,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학식, 적을 단번에 이겨내는 승리에의 신념을 갖는 자들이 바로 이 세계들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강요가 아닌 내부에의 가운데 결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내재적인 올바른 국가관의 확립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국가교육이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ㄴ. 개척혼(開拓魂)

옛부터 이어내려 온 것을 그대로 올려하며 계승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옛 것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게 조화시키고 개선하여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거기에 나아가서, 능력껏 실정에 적용시키는 일이다.

오늘날 미국의 부강을 이룩한 데에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 그리고 유럽적인 의미에서의 "잡종교배 1세의 우세현상(雜種强勢法則)"에 의한 미국 인들의 우수성이 미국의 부강을 이루는 요소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아무리 국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하고, 민족들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창조하고 개척하는 근성이 없이 없었더라면 미국의 부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이 창조하는 개척혼은 곤경을 헤쳐나가는 인내심, 다 같이 목적에 도달하려는 협동력, 근면성을 모두 포용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

베·중공 해밀무우도로 대치된 미·일·중공·소련 등 4강국의 압력, 특히 북한의 호전적인 전비증강, 거기에 덧붙여 미군의 점차적 철수와 군인의 감

흔···

이런 때에, 우리 군 특히 공군에게 필요한 정신력의 하나가 바로 [illegible]인 것이다.

다. 동질화(同質化)

사물의 우열을 가름할 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쓴다.

하나는, 둘이 같은 여건에서 양(量)으로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것이고,

둘째는, 양에 걸은 여건에서 질로써 우열을 가리는 것이다.

질과 양이 서로 다르면, 한편의 질과 양이 모두 우수하거나 동등하게 많으면 우열을 가름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군에 있어서는 양을 비교하여 우열을 가릴 만한 수적인 여건에 대한 다른 대답에는 없다.

그러면 우리 공군의 자질 향상할 동질화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최고의 지휘관, 더구나는 소령에서, 예술없이 연결되는 지휘, 명령과 주무체계를 확실한 체계로 공군의 전 병원이 동질화하는 것이다.

민족과 국가가 분열된 채로 오다 해도 국이 한 모습이에서 어려워지던 독일이 오늘의 부강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이 동질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패전 뒤의 "독일국민에게 교훈"은 독일국민 전체에게 동질화를 이루도록 구호것은 것이었고, 이 동질화를 종합하여 하나의 국가 힘으로 조직하고 국제를 이끈 사람이 바로 비스마르크였던 것이다.

제1, 2차 대전을 통하여 독일국민의 동질화는 많이 무너졌지만, 다시 이제 나름에 의해 충실해지기 시작하여 기적을 이루었던 것이다.

라. 유아독존(唯我獨尊)

불교에서 말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을 우리는 흔히 그릇되게 인식하고 있다.

그저 남을 업신 여기고 저 잘난 멋으로만 사는 "독불장군"(獨不將軍)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유아독존이란 말은 석가가 났을 때부터 생긴 말인 것이기에, 즉 "비하온의 삼계가 세상을 멸하고 있는 때이기에 사람이 출현한다"라는 뜻을 가진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가슴이 열려서, 남의 열린 가슴과 만나게 될 때 존귀한 것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유아독존을 실제적으로 보면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그 첫째는 자위에 대한 자각으로 표현된다.

——내가 맡겨질 이 계획은 나만이 지속할 수 있다. 다른 누구도 나보다 못할거야 이 계획은 내가 있어야만 한다.——

그 둘째는 봉사적인 솔선수범에 대한 희생정신으로 나타난다.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일을 솔선수범으로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칠 필요가 없다.——

전체적 아집(我執)은 흔히 그릇 인식하고 있는 독립성군의 측면에서, 문제에 의연정신은 존귀함을 갖는 측면인 것이다.

공군의 정신전력을 형성하는 데는 두 번째의 동이두 존재인 요소가 필요 불가결하다.

다. 인격(人格)과 대화(對話)

모든 노동력의 결과는 상호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줄 때에 가장 좋은 수확을 올리고, 인격은 상호 신뢰에서 최대 가치를 발휘한다.

군에 있어서의 단결력이란 인격의 결합(結合)이며, 언어순화(言語醇化)를 통한 대화의 원활은 상하관계를 더욱 돈독히 한다.

98.7%가 고교졸업 이상이라는 공군 장병(兵員)의 높은 수준은 더욱 인격적 문제를 중요하게 한다.

인격과 대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있을 것이다.

바. 동류의식(同類意識)의 발전

동류의식은 군대의 세계에서도 진급 찾지만, 오늘날의 국가관계들은 이 동류의식에 지원할 정도이다.

인접한 국가의 안전을 서로 연계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함께 획득하려 한다든지, 초강대국에 의해서 약소국이 희생되는 것들은 새로운 외교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동류의식은 국가사회에서 뿐 아니라 한 국가의 사회조직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세계 여러 나라 및 우리나라에 있었던 과거의 권력구조는 바로 이러한 예이다.

우리가 가져야 할 동류의식은 "나"의 처지를 "남"보다 높이려는 합일의식이어야 한다.

사. 승리에의 확신

군대에 있어서의 모든 수단은 결국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보위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하여 군대조직은 승리를 위한 모든 방법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고 할, 특히 정신전력을 중요시하는 것은 자신하지 않는 "승리에의 확신"에 연유하기 때문이다.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겠다는 투지를 갖는 것도 중요하거니와 결코 이기고야 말겠다는 승리에의 확신은 더욱 중요하다.

교전(交戰) 당사국에 있어서 한 쪽이 굴경히 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기고 있다."고 자국 장병들에게 외치는 것은 바로 이 "승리에의 확신"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싸우면 이긴다. 장비는 모자라도 월등한 기술과 근기로써 해낸다!"라는 우리 공군의 전통을 골고루 인식시켜야 되는 것이다.

5. 맺는 말

이 소론(小論)에서 주장하는 바는 "승리에의 확신"을 갖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올바른 인식으로 국가목표를 알고, 냉철한 판단으로 정신을 가다듬으며, 내 자율의 강화와 계획훈련의 연장으로 "승리에의 확신"을 갖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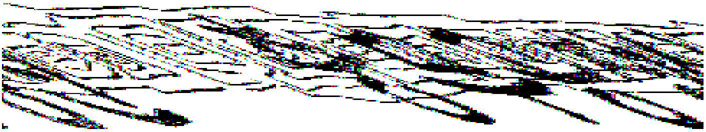
애국이라는 것이 크게 생각하면 어렵고, 또 생각하기도 거창하지마는 전체의 외국 열에, 한 방울의 도움, 한 다리의 도움을 사용하지 않는 소시민적 애국자가 되어야만 진정한 애국자가 되듯이, 무조건 전체에 대한 멸사보다는 무조건 으뜸 하나하나의 철저한 제거가 더 바람직하듯이, 주먹으로 눈을 크게 뜨며, 내주거를 빼지 말고 나 먼저 실행하는 "승리에의 확신"을 갖는 공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조국의 근대화는 비단 경제건설만이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 사회적 합리화를 이룩하는데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조국의 근대화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제 요소들, 비민주 비합리를 모두 추방해 내자는 것이다.

□ 정훈교육자료

지휘관의 자질로 본



이 태 직

우리 역사상 국난을 당하여 국가와 민족을 구하고 불후의 구국영웅으로서 민족적 숭앙의 대상이 되는 충의열사(忠義烈士)를 꼽고자 한다면, 단연 이 충무공(李忠武公)을 손꼽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충무공이 어째서 남다른 민족적 존경과 숭앙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침략해온 외군을 무찔러 나라의 위기를 구한 연사불굴한 빛나는 공적 때문만은 아니며, 세계해전사상 최초로 거북선을 만들었고, 또한 소수의 병력으로 수십배에 달하는 적군함대를 섬멸시킨 해전의 명장이기 때문만도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公)을 민족적 성웅으로 숭앙하고 추모하는 이유는 공의 구국의 공적과 더불어 민족의식, 자주의식, 충효애 불탄 나라애 공 스스로 지닌 높은 인격과 범인으로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고결하고 숭엄한 정신이 우리의 가슴 속에 면면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필자는 충무공의 공적과 정신을 군의 지도자로서 소지하여야 할 지휘관에 비추어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고 우리가 나아갈 결심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손자병법에 보면 무릇 장수된 자는 다섯 가지 덕(五德)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지(智)와 신(信)과 인(仁)과 용(勇)과 엄(嚴)으로

신 장수의 인격구성의 필수적 요소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장수로서 5덕을 다 갖추기는 어려운 것이며 이 5덕을 겸비하지 못한 장수는 많은 바 소망을 다하기 어렵다. 바로 여기에, 이러한 오덕을 겸비했던 지휘관의 표본이 충무공 이 순신 장군이다.

1. 지장(智將) 충무공

지(智)라 함은 곧 지혜(智慧)를 뜻하는데 지혜는 흔히 말하는 총명하다거나 재주가 있다는 말이 아니며, 그것은 오히려 인정에 투철하여 위의 장군과와 밑의 부하들과 서야 되는 자와 주위측에 있는 백성 등 일가의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좋고 옳음과, 좋고 그릇됨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의, 정당 바른 길을 알고 어떤 일이 위기가 올 때 미리 예측할 줄 알아서 여하한 계책이나 모략에도 현혹되지 않으며, 큰 일이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줄 알고 모든 것이 사리에 맞고 옳지 아니한 것을 결국은 옳게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순신은 지혜로 충무공은 갖고 높았을 뿐만 아니라 천재하였던 것이다.

공은 임오대 이 늦게 무예를 배웠고 32세에 과거에 급제한 후 두만강으로서의 군사생활은 우리나라의 북쪽 끝 함경도의 두만강으로부터 멀리도 강변에 이르는 변방생활로, 수차에 걸친 전술 전법에 계속되는 군대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러다가 47세 되는 2월에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가 되니 그것은 15년이란 긴 관직 생활에 공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자리였다. 여기서 잠깐 역사의 아이러니한 점을 살펴보면 충무공이 1591년 2월 전라좌수사가 된 시기와 그 이듬해 1592년 4월 14일 왜군이 부산항에 침략해 왔는 시기와 비교할 때, 실제 1년 2개월이란 세월의 차이가 우리 역사에 커다란 의의를 남기는 원동력이 된 시기였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공이 그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고 가정할 때, 실로 아슬아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설상가상 모르나, 공이 있었더라면 어쩌면도 우리나라 역사의 방향은 상상할 수도 없는 방향으로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충무공은 전라좌수영 본영인 여수에 부임하자 장차 왜군의 침공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전쟁준비를 서둘러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거북선을 만든 것을 비롯하여 성곽을 다시 쌓고 해자를 파고 무기를 정비했으며, 병사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훈련시켰고 군량을 정비하여 군법을 세우려 했으니 이 모든 일에 공이 심혈을 다기

보는 법은 계책과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5년이 지나는 동안 왜군은 남해바다에서 번번이 참패를 당하며 「동래서 이 순신이 버티고 있는 동안은 정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1597년, 정유재란을 다시 일으키자 재차 정공을 시도할 때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우리 수군(水軍)과 이순신장군 뿐이었다. 그래서 간사한 왜군은 이 순신 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흉한 계책을 꾸민 끝에 왜장 소서행장의 부하인 요시라를 경상좌병사 김 응서(金應瑞)에게 보내어 「소서행장이 가등청정과 화목치 못함에 청정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머지 않아 청정이 조선으로 오는 도중인즉, 제가 그의 배를 가려서 줄테니 이 순신으로 하여금 바다로 나아가 청정을 요격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의견을 비로서 했다. 김 응서는 충직한 장군이건만, 그만에 속아 그것을 곧 권 율(權慄) 도원수에게 보고하자, 권도원수도 또한 그 말에 속고 그 뒤에 조정의 신하들도 덩달아 속았다. 그러자, 권 율장군은 한산도로 가서 공에게 위의 명령을 전하고 요시라의 말대로 배타고 나아가 청정을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공은 답하기를 「계여 간사한 왜가 많으니,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못할 것이오, 또 뱃도리 복병을 숨겨두었을 것입니다」라 하고 계략이 흉적에게 들었던 것이다. 그 뒤 본거로 돌아간 요시라는 또 다시 김 응서에게 와서 「청정이 그간 무사히 바다를 건너와서 부산에 와 있는데, 어째서 이 통제사가 그 기회를 놓쳤읍니까?」하고 탄식하는 체 했다. 이에 서인 일파는 모략했던 것이나, 공의 높은 재주를 시기하던 조정에서는 가등청정을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잡지 않았다 하여 마침내 「적을 놓친 죄」라는 명목으로 이 순신 장군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이것이 공이 두번째 당한 옥살이를 하게 된 동기요, 다음에 삭탈되고도 백의종군(白衣從軍)을 하게 된 원인이다. 한편 삼도수군통제사의 직책을 이어받은 원 균(元均)은 군무에만과 왜군의 계략에 넘어가서 1597년 7월 16일 칠천량해전에서 무참히 패하여 우리 수군의 주력을 모조리 잃고 그도 육지로 도망하다 적병의 칼에 죽고 말았다. 이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공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 장수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충무공은 상부의 명을 어기게 되었을까?

옛날, 예로부터 내려오는 도적계(盜計)는 원칙적으로 간계(奸計)인 것으

로 된거 그렇다오.

둘째, 전장으로 나갔다가 적의 계교에 빠져 기습을 당할 우려가 있고,

셋째, 대군을 동원하면 후방을 알 수 없고 또 소군을 동원하여 주병을 남기면 만일의 경우가 우려된다.

넷째, 이일대노(以逸待勞)가 병법의 원칙이다.

이것이 바로 충무공의 자진 계책인 것이니, 그 계책은 막연하게 추측으로 나온 것이 아니며 우연히 들어맞고 예상이 적중한 것도 아니고 모두 적의 형편 따를 잘 알고 동시에 제 마음 가짐을 잘 다시 성약세궁(知彼知己), 즉 모든 전열을 하는 속에서 얻어진 것이다.

2. 신(信)에 투철한 충무공

장수가 갖추어야 할 지(智) 다음에는 신(信)이다. 신은 신(信)과 같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남을 의심하고자 아니하고 신실한 것은 좋아하며, 한 번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을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결코 순수한 자의 신이 아니다. 장수된 자의 신이란 엄한 신상필벌(信賞必罰)에 투철한 데서 찾는 것이나, 공연 규칙을 세워 그 규정에 엄격하여 상벌을 주기로 결정되었으면 나중에 비록 미워하는 자라도 약속대로 상을 주어야 하며 줄 때 보이는 자일지라도 조그만 공로의 공로나 상을 줄 수 없고, 또한 벌에 있어서도 비록 자식이나 고운 자를 가리지 않고 법도에 따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죄과에 거기서 참고 친다게 어려운 일일지라도 능히 결행하여 말로만 내용대로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참다운 신(信)이다. 이것이야 말로 대장된 자의 중심이며, 이러한 다음에 부하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을 때에 그들은 그런 장수에게 마음으로부터 복종하고 조금도 쉽게 사상을 의혹하거나 소홀히 생각지 않는 것이다. 충무공이 이와 같은 신에 투철한 지휘관이었음은 부질할 필요가 없다.

난중일기에 「해남현감과 공사례를 바친 뒤에 화동선장이 무인이라 ... 기한에 오지 않았으므로 군장 90을 때리고, 해남현감은 군장 10을 때렸다」라는 기록이 있다. 당시의 안골이라 하면 조금의 국수라 할 때 된 것인데, 오늘날 도저히가 군율을 놓이다가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하여 곤장을 때릴 수 있을까? 하나 어떤 지면을 대비하여 하더라도 예한 실없이 없고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충무공은 공사를 분명히 하였으며 공정 법리에 입각해서 처리했던 것이다.

또 어느날 궁이 예전 우리의 잘못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공의 버릇이 「그러니 제는 용서할 수가 없다」하여 벌을 더 주려는 흔연하자 공은 "법이란 규율에 따라 벌하는 법이오, 누구의 감정에 의하여 가감되는 것이 아니다. 남의 관계로서는 남을 살려주는 길로 말할 것이지 벌을 더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보더라도 공의 확고한 신념의 일면을 볼 수 있다. 특히 공의 신상필벌은 상을 주는데서 더욱 밝게 빛났으니, 그것은 각처의 전투가 끝난 다음 선조대왕에게 보고하는 장계(狀啓) 속에 모든 승첩의 공로를 한 사람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전부 부하장수들이 한 것으로 적어 올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1592년 7월 15일에 올린 견내량(見乃梁)에서 왜병을 격파한 장계에 보면 공로를 「여러 장수와 군사와 관리들이 분연히 몸을 돌보지 않고 출입하며 힘껏 싸워 여러 번 승첩하였는데, 조정이 멀리 떨어져 있어 길이 막혀, 공로의 등급을 만약 조정의 명령을 기다린 뒤에 매긴다면 군사들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없으므로 우선 공로를 참작하여 1,2,3등급으로 별지에 기록합니다. 당초의 약속에 비록 머리를 베지 않았다 하더라도 힘껏 싸운 사람들은 신이 친히 본대로 등급을 나누어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공은 싸움에서 그치지 않고 일기에 매일 빠짐없이 기록하되 일일이 공범을 기록하고 공로의 등급을 나누어 보고하였으며 공이 기록한 일기에 다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8. 인장(仁將) 충무공

인(仁)은 흔히 마음을 자비롭게 가지고 남에게는 베풀며 없어도 상대방의 마음에 들게 좋게 말을 하거나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으나 인의 참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장의 인은 밝은 지혜로써 여러 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마음을 밝게 가져서, 부하들의 고충을 살피고 전우를 친구로 해서 지나친 욕심을 부하에게 주지 않고 무용을 마련하여 적으로 하여금 감히 침범치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항상 필요로 한 일세우는 인화는 진정한 무엇인가? 인화단결의 본질은 바로 인에 있는 것이며, 그 인을 실천하는 것은 장수된 자가 부하들을 아끼는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충무공의 조국애, 민족애는 이루말할 수 없으므로 말로 할 필요도 자연히 없었다. 난중일기에는 굶어 헐벗는 군속을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하며, 피란민들이 이러한 중에 아주 풍족

하다.」「아침에 맑았다가 늦게 흐리더니 저녁에 소낙비가 와서 농사에 흡족하다.」또「비, 흡족. 농민들이 얼마나 기뻐할까!」이 얼마나 순수하고 소박한 농촌의 표정인가!

충무공은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 백성을 사랑하는데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한 분이다. 공은 길에서 피난민을 만나면 「말에서 내려서(下馬), 손을 잡고(握手), 타일렀다(開諭).」는 사실을 보더라도 공의 태도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은 다만 전투에서 전과를 올리는 데만 힘쓰거나, 적을 무찌르는데만 목표를 두지 않고 우선적으로 백성을 보호하는 일부터 생각하였으니, 「적군이 타고 나올 배가 없으면, 마을로 돌아가 우리 백성을 괴롭힐 것이다. 한 척 배를 남겨두어서, 놈들이 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시해서 한 배 몇 척은 남겨두었던 것이다. 이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실감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공은 너무나도 쇠약해져서 그렇게 나라에서까지 걱정하여 왕이 친히 유지를 내리신 일도 있었다. 정유(丁酉)년 12월 5일 일기를 보면 「도원수의 군관이 유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권제로 들으니, 통제사 이 순신이 아직도 상제의 예법대로만 지키고 방편을 좇지 않아 보다 장수들이 권면해 어렵다고 하니 사정이야 간절하지만 국사가 한창 바쁘고 옛사람의 말에도 전쟁에 나가 용맹이 없으면 효(孝)가 아니다 하였고, 전쟁에 나가 용맹하다는 것은 소찬(素饌)이나 먹어서 기력이 곤비한 자로서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다. 예기(禮記)에도 원칙을 지키는 경(經)이 있고 방편을 취하는 권(權)이 있어 꼭 원칙대로만 지킬 수 없는 것이니 경은 내 뜻을 생각하여 소찬 먹는 것을 치우고 방편을 좇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울러 고기반찬을 하사하셨으므로 더 한결 슬퍼 통곡했다.」

이와같은 극정사랑과 격려에서 본 보기 외에도 공의 효도에 대한 사정은 다음의 편지를 구절들을 게시하는 글속에서 더욱 더 애절함을 금할 수 없다.

빛나림을 어르고 생활을 쉽게
너희들은 각색을 다리였건만
부자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일
나는 그런 적이 도저없노라
그때 혼줄을 한 자리에 부르노니
여기서 차린 제물 받으오소서.

4. 용장(勇將) 중의 용장 충무공

용(勇)이란 말은 명사(名辭)를 뜻하

는 것으로써 설명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보통의 병사들에 흔한 단순한 충의의 용으로써 적은 무례하기 쉽고 적을 대하여 돌진하여 노하여 덤비다고 해양의 명령대로 따르며 자기 몸은 아끼는 용인 것이다. 이런데 공은 그렇게 단순한 곳에 있지 않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용이지만, 필요시에는 뒤로 물러서는 것도 용이고, 적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고를 할 때 참는 것도 용이다. 나의 약점을 숨기고 사람은 피하며 라고 불의부정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이다. 그러나 매정의 용은 뒤로도 말하면 용기 뿐 아니라 지혜와 도덕이 곁에진 의지의 용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참된 용(勇)은 충무공의 생애를 통해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공이 나이 35세 되는 때에 서울 훈련원 봉사(奉事)라는 하급 직위에서 병서 관계의 직무를 맡고 있었을 때에 높은 상관인 병조정랑(兵曹正郞)이 자기의 친히 아는 어떤 사람을 후계하려 순서를 뛰어넘어 참군(參軍)으로 승진시키려는 것을 보고 공은 그것을 단연코 반대하였던 일이 있다. 「아래 있는 자를 순서를 뛰어서 올리면 어떻게 그 자리에 승진할 사람이 못하게 되므로 이 일은 공정치 못한 일이오, 또 법규로 고칠 수 없는 것이오」라고 하였더니 그는 상관이란 권위로써 누르려 하였다. 그러나 공도 역시 굴하지 않고 끝끝내 반대하여 주장하여 결국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공이 발포(鉢浦)·전라도 고흥 지방)의 수군만호(水軍萬戶, 지역수비대장)로 있을 당시 전라좌수사 성박(成鎛)이란 사람이 공이 근무하는 객사 뜰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가서 거문고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이것은 나라의 물건이다. 하루아침 한때라도 어찌 사사로이 쓰게 벌해서 베어갈 수 있느냐. 더구나 이같이 오래된 나무를 하루 아침에 잘라간다는 것은 옳을 수 없다」라고 거절해서 결국 오동나무를 베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충무공은 이러한 부정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 뿐만 아니라, 충절에 임하는 용(勇)에 있어서도 매우 누구도 따를 자가 없었다. 공이 원균의 무함에 의해 백의종군을 하다가 다시 수군통제사로 복임되었을 때는 이미 우리 수군이 대패하여 산산이 깨어진 뒤라, 호남, 경남의 해협을 두루 뒤져 겨우 12척의 전선을 찾아 수군을 다시 편성하고 있을 때에 조정에서는 수군을 폐하고 육전을 하도록 명령했었다. 그러나 공은 「신(臣)에게 싸울 수 있는 배가 아직도 12척이 있사온데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운

다면 백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 우리를 업수이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수군폐지론을 반대하고 조정에게 비장한 결의를 표시하였으며 그러한 결의를 실전으로 증명해 준 것이 바로 저 유명한 명량(鳴梁)해전이다. 적선 133척에 불과 13척의 전투였으나 공의 불굴의 용기와 신념으로 불가사의의 대승리를 거두었던 것이다.

5. 엄장(嚴將) 충무공

장수된 자는 엄(嚴)하여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네 가지는 모두 스스로 행하여 지자(智者) 신자(信者) 인자(仁者) 용자(勇者)가 될 수 있는 것이나 엄, 즉 위엄(威嚴)만은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다. 자신은 위엄이 있다고 생각하고 남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엄의 참뜻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얻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장수된 자의 마음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저력의 빛이며, 도덕의 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겉으로 꾸민 위엄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며, 학문적으로도 또는 기계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지혜의 눈을 밝게 하고 품행을 고상하게 하는 데에 있다고 보며, 그러한 위엄의 빛을 잃지 않으려면 물욕에 말려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색과 술과 재물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를 5덕의 첫머리에 두고, 엄만큼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엄을 끝에 두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엄(嚴)에 있어서 늠름하고 부동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분이 바로 충무공이다.

왜란말기에 우리나라를 응원차 왔던 명(明)나라 수군제독 진린(陳璘)은 오만불손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으나 충무공과 지내는 동안 공의 인품에 감복되어 대장권과 지휘권마저 양도할 정도였으며, 그는 노량(露梁) 해전 직후에 공의 전사의 부음을 듣고, 「하늘로 날(經)을 삼고 땅으로 씨(緯)를 삼아 온 천하를 경륜하여 다스린 인재요, 하늘을 깁고 해를 목욕시키는 천지에 가득차는 공로를 세웠다」고 공의 죽음을 애통해 하였다. 또 진린제독은 자기 나라 황제에게도 칭송하는 주청을 하여 신종황제로부터 공에게 예물으로 도독인(都督印), 영패(令牌), 귀도(鬼刀), 참도(斬刀), 독전기와 영기, 곡나팔 등의 여덟 가지 선물이 보내지게 했으니 이것은 공의 높은 지혜와 고상한 품성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공의 위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의 전사하시는 모습에서 보다 더 숭고한 위엄

을 찾을 수 있다.

1598년 11월 19일 새벽 남해 노량 앞바다에서 왜적과 싸우다가 적탄에 맞아 숨을 거두면서 「방패로 앞을 가려라.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발설하지 말라.」는 두 마디를 남기고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 모습. 어디도 장수의 저 이에서 더 위엄을 찾을 수 있겠는가!

끝으로 일본의 민족주의 사가(史家)인 「도꾸도미 소이찌로」가 이충무공에 대하여 평(評)한 것을 적은서 매듭하고자 한다. 「그는 이기고 죽었으며, 죽고 이겼다. 「임진란 중에 조선국(朝鮮國)의 학사(學士), 변사(辯士), 문사(文士)의 수는 많았지만, 전쟁에서는 이 순신장군 하나가 있음으로써 자랑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 수군의 모든 장수들은 이 순신장군의 생존에는 그의 앞에 머리를 들 수조차 없었다. 그는 실로 임진란에 있어 조선국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동양 3국을 통하여 제1의 영웅이었다.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오늘날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의 기치 밑에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우리의 현실이 커다란 시련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시련은 과연 무엇을 위한 시련이며 이것을 극복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겠는가? 그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와 우리 후손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것이며 번영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적과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것은 평소의 모든 노력의 결과로써 이루어 지는 것이다. 평소에 교육, 훈련, 장비, 보급, 정비 등 전투에 대비한 태세가 곧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인은 자나깨나 전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항재전장이라는 좌우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주국방과 공군

손 철 영

□ 우리는 이제 「유신 1차연도」를 맞이하며 번영의 조국과 통일조국을 향하여 줄달음치고 있다.

여기에는 「너」와 「나」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오직 「우리」만이 있을 뿐이다.

이에 「유신의 횃불」에 투철한 우리 장병은 자기의 임무와 책무를 다시 한 번 다지며 임무완수에 진력해야겠다. □

「자주국방과 공군」이란 제목이 요구하는 내용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자주적으로 국방을 함에 있어 공군에 담당할 역할이 무엇이냐는 것일 게고, 또 하나는 자주국방을 위한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군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것일 게다. 이 두 가지에 관하여 필자는 지난해 본지에 「자주국방을 위한 공군의 자립」이라는 제목으로 필자 나름의 소견을 기록했고, 더 구체적으로는 똑같은 제목으로 기획관리참모부에서 몇해 전에 간행한 소책자에 저서되어 있는데, 이중 간행물에 실린 내용 중 몇몇 숫자들은 신선성을 잃고 있으나 기본개념은 지금도 다름 없이 있다. 다만 경위(經緯)한 권할 문들이 「10월유신」 이전에 발행된 자료으로 「공군의 자립」를 유신정신에 투영하여 생각해 보는데서 미처가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시한 「공군의 자립」은 다시말하면 「10월의 유신정신」과 같은 동일한 동기와 의지에서 정립되어 지금은 거국적인 유신대열의 추세를 확인하게 됐어 가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상황에 대한 일치된 서구 열강 공통의 처방에서 연유한 당연한 귀결에 불과하다.

역설이긴 하지만 「공군의 지향」에 근본적으로는 더 보탤 말이 없다. 그것은 바로 「공군도 올림」이기도 한 때문이다. 다만 두 어휘의 차이가 주는 말뜻의 아쉬움을 가시기 위해서 「공군의 올림」을 생각해 본다.

1.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신등은 황산에서 백제군과 싸울 때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고 제군은 백골이 되었어도 나라를 보호하고자 하여 종군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나, 당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의 위엄에 눌려 그저 남의 뒤만 따라다니고 있으니,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우리들에게 조그마한 병력이나마 주어, 싸울 수 있게 해주소서」

신라의 화랑 장춘랑(長春郞)과 파랑(罷郞)이 죽어 그들의 태종대왕에게 현몽하여 이와 같이 호소하였단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말이다.

나라는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지켜야 마땅하다. 이 국방 훈련의 당위를 지적한 천수백년 전의 화랑 장춘랑과 파랑, 또는 이 설화(說話)의 저자 일연(一然)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의 오장에 역사적 사명이기도 하다. 일연의 예언은 나라의 흥망을 쥔 싸움판의 대세를 외세에 의존하고 있는 체제를 스스로 개선하여, 옛은 화랑의 영혼까지 통곡한 단위의 계시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주국방의 의지는 우리를 도와주던 우방의 우방이 그들이 장담하던 굳은 유기체에 매여 있으려고 나온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생존을 위한 역사의 필연이라 하겠다. 절박하기로 말하면 오늘의 우리의 정도가 몇곱 더하다.

그래서 우리의 절박한 과제이며 역사적인 사명이기도 한 자주국방태세 확립의 과제를 등에 짊어진 3년째. 지난 1972년 중 우리는 의향을 강돈하는데 힘을 기울였고, 1973년에는 보위 내실(內實)을 다지고 있는 중이다. 말하자면 자주국방을 위한 공군력 강화의 과업은 성과 계급이 한창 이제고 가장 중요한 시기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과업은 국가의 유관기관과 함께, 그 일부로서 진행되어야 하며, 그 유관과정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즉 공군 전력화를 위한 여건은 안팎으로 성숙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헨가르」를 기념할 생각(起記)시킨 「구룬드리세」(Grundriss)의 구호(口號)는 커다란

할 것이다. 「민족성을 바로 잡자」「내 속의 힘을 안에서 찾자」고 한 그의 구호는 정신혁명과 과학화를 통하여 내일을 개척코자 하는 우리의 당연한 목표적 과제와 상통하기 때문이요, 과학화의 더 깊은 기술 및 체계와 정신으로 무장되는 우리의 새 일정적 지향가도 목적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3. 「민족성을 바로 잡자」

가.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단군신화의 세대로부터 흘러 내려온 우리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예컨대 호랑이보다는 곰을, 용기보다는 인내 또는 덕(德)을, 명중보다는 성품(聖品)을 숭상했던 것 같다.

단군왕검은 환웅(桓雄)과 곰녀(熊女) 사이에 태어났다. 그 곰녀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호랑이와 함께 살면서, 인내와 근기로 해가 들지 않는 어두운 굴속에서 마늘을 먹기 삼칠일에 금하고 쑥만 먹고 호랑이를 이겨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 민족은 건국신화를 이런 식으로 윤색하고 살았던 게다.

신라의 노례왕(弩禮王)에 탈해(脫解)와 왕위를 두고 서로 사양하다가, 떡이 뒤 이를은 이(齒)가 많았던 때문인데, 이가 많은 것은 나이가 많고 덕이 있다는 가치관에서 나온 사고방식 같다고 한다.

또 서양의 영웅은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필요하면 가족 관계를 파괴도 하나, 우리의 조상들은 그 용감하고 슬기로운 마음이 비록 강하였어도 임금에 대하여는 그것이 아무리 부당해도 대개의 경우 묵묵히 순종했다.

이러한 우리의 가치관 때문에 때로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데 우리는 과감하지 못했고, 뛰어난 슬기를 지니고도 그것을 용이하게 현실화하지 못하여 얼마나 허다했었는지 모른다.

또 그러나 우리의 조상은 꼭 그렇지 않을 때에 자체는 거의 될계를 다시 경험하는 슬기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화랑도는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는 바와 같은 순수한 무사도는 아니었던 게 분명하다. 화랑의 이념엔 원광법사(圓光法師)의 세속오계(世俗五戒)에 이르기를 「도의를 서로 닦고 노래를 즐기며, 산수를 찾아 노닐다」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그들은 전인적(全人的)인 수련을 목표로 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삼국통일의 기운이 싹트던 시절의 화랑들은 무예연마에 힘써 용맹을 중히 여겼다.

팔관회(八關會), 유선회(遊仙會) 등

이. 신라의 고허기 국사를 논할 때, 큰 호랑이가 뛰어 나왔다. 모두들 놀라서 일어났지만 유독 알천공만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호랑이를 퇴치하였다. 그래서 뭇사람들은 용맹스러운 알천공을 도강의 수석으로 추대하였다고 한다. 통일 준비기의 신라는 영웅적 풍채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국가의 제도·이념과 이에 따르는 민족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민족성은 고쳐질 수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유대민족의 약점으로만 여겨지던 이기주의를 타민족에 대한 민족적 이기주의로 승화시킴으로써 오늘날 중동 강국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우리 민족성의 긍정적인 면과 그 이면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에 대한 평가를 그 시대마다의 요청에 따라서 올바르게 다스리고 헤쳐나간 슬기를 배워야 한다. 금세의 참을성은 평화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룩하고 찬란한 과업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참을성과 더불어 통일 준비기의 신라와 같은 용맹스러움도 특히 이념이 되어야 한다. 또 다시 동족끼리 죽이고 죽는 일은 하기 싫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돕는 혈연의 슬기로서, 결실한 불패(不敗)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민족성을 지어온 우리 민족의 고유이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능력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자주국방의 논리이다. 그러나 이는 엄숙한 능력보다도 더욱 어려운, 그러면서도 결코 실패하여서는 안 되는 역사의 계시이어야 하는 것이다.

나.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우리 나라의 군에서 유례 없을 위한 탐색관들이 권장되고 있다. 만약에 유사에 출동되더라도……우리 나라는 동양의 어느 나라들과 같이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 시간을 잘 배워 둔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비로 하게 된다. 취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노후의 생계도 보장된다. 자주국방을 위한 필요한 장비도 얼마든지 사들일 수 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면 나도 잘 된다.

문제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요는 이러한 논조를, 우리만 편에라는 환상(幻想)에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흔히 국가의 윤리와 개인의 윤리는 모순되기가 일쑤다. 이러한 모순을 가름없이 일치시키자는 것은, 단지 편한 사고가 가능한 풍토를 만들어 가는 데에 이어졌는가.

신라의 박제상(朴堤上)이 일본에 볼

로가 되어 있던 왕자를 구출하여 귀국시키고, 자신은 영원 불귀의 객이 되었다. 도일(渡日)을 하자면 말리던 그의 부인은 치술령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화석(化石)이 되었다. 제상의 도일을 만류하던 부인은 분연히 울음을 할 것인지 주저했다. 그러나 왕은, 제상의 충절에 감격하였던 그의 부인을 국대부인(國大夫人)으로 추서하였다. 제상의 지극한 충성은 나라의 운명과 모순되는 개인의 윤리를 극복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던 동의 「인간」을 한 층계 의하여 보람된 것이다.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닫는 헌신적 계기는, 나라를 위하여 공헌한다는 보람을 느껴지는 일이다. 그리고 그 보람은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또는 크게 작게 공헌하여야 한다. 대중의 귀추는 충무공 같은 위인이 될 수 없는 평범인(平凡人)들이기 때문이다.

현대 국방의 능력이란 나라의 번영 또는 국민의 복지를 위한 노력도 포함된다. 총력국방이라고 한다. 국력이 신장되면 국방력도 커진다는 당연한 이치다. 할 사는 자 즉 국방에서는 엄격한 위험이서, 국방한다는 것도 큰 일로만 하는 노력에 열변이라고 하여도 틀린데 없다. 안전보장이나 번영이나 국가의 위신이 되 하는 국가이익의 저변도 실천적 나라를 번영시키려는 살기 위한 노력에 한몫일 뿐이다. 이런 간단한 이치를 모르는게 아니다. 실제는 그 일에 직접 참여하는 일에 소홀하게 돈으로 좌우하던 납득된 행동, 나가 돈만 많이, 나의 일을 강요할 수 없었던 시대에 예고나는 행동으로 공정하지 못하게(물에는 여기에 있다) 흘러 들어갈 때에 이 간단한 이치는 외면당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경우 에 「공동 참」에는 잔순직인 정확성을 요구하게 한는 가애함이 있다.

모순을 모순대로 방치시켜 조구적인 어둔 가 태평을(泰平律)의 논리에 구애받지 않는 우리 민족의 인간적인 두고리함이 모든 것을 감싸는 우리에 예술로 미덕이기도 하였다. 학생들에 의거로 현과에서 벌어나 에 웃는 박수가 의외적으로 들어가는 결국에서 학생들은 조용한 박수로 노 정치를 찬송하였다. 이를 본 외국인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하였단다.

이렇사람은 모상의 공정성을 굳이 따지지 않는 에서 사람대로의 예우가 필요하고 합사람은 처음대로를 추시할 때 공같은 내고려줄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국가의 윤리를 가정의 윤리에 구현시키되, 가정의 언저리에 있는 새로운 그각 또한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등등. 이것이 정신을 재무장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지키는 초소근무의 자랑이 공군을 위하고, 자기를 위하고, 내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며, 그럼으로써 나의 개별에도 발전이 온다는 국가관의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이다.

다. 「신념과 긍지를 지닌…」

지금 우리 군대의 같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몇개의 집단으로 갈라서 같은 조건 하에서 똑같은 과제를 주고 작전계획을 세운 결과, 과제를 받은 집단 수 나름의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진 작전계획이 생산되었다면,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계가 아닌 사람인 까닭에 능력의 차이가 있고 성격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같지 않으니 그럴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도 하겠으나, 적어도 공군이라는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공통의 가치관, 공통의 행동 원리, 공통의 판단 기준이 있었다면 그럴 수가 없게 되는가?

거짓없는 실전행동의 지침과 교리이다. 그래서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신념으로 강조할 수 있는 때는 필승을 다짐할 수 있는 태세를 실제로 정비할 경우 뿐이다. 그런데 필승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원칙이나 기준에 없을 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권이 필승을 제시하는 대세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분분할 것은 정한 이치다. 더욱이 이러한 의견이 그의 부하들에게 끝을 지면 그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주게는 커녕, 지휘관의 「이미지」는 물론 아니게 생겨지 못할 것이 될 것이며, 게다가 상황에서 필수불가결의 부여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다.

미 공군이 독립한 무렵에 그들에게는 Silent Service라는 별호가 붙여졌다고 한다. 당시의 미 공군은 이론이나 철학이 없어 그저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붙여진 별호라고 한다. 그런데 오늘 사정이 바뀌어 세계최강이 된 우리는 의외로 다른 의미에서 Silent Service이고 싶은 거다. 공군의 이론이나 철학이 있는 까닭에 쓸데 없는 말다툼을 피하는 소질과 명철과 냉정을 갖고, 오직 공통의 가치관, 원칙, 기준에 따라 상호 일치하여 공동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전진하는 군대이고 싶다. 강한 군대는 침묵하는 군대, 말을 적게 하는 군대다. 단결과 신념과 긍지를 추구하는 기반은 우리의 철학과 교리의 정립이다.

라.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종교사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에게나 다를 게 없다든가, 교육을 받거나 덜 받은 수가 단기간

지 않다는 미국의 말들을 전혀 듣는다.

Fairchild장군의 말을 들어 보자. 미 공군대학의 초대 총장이었던 그가 취임사에서 「우리 모두 교만과 보수성과 안이성에서 탈피하자」고 하였었다. 교만이란 지적(知的)인 교만을 말한다. 공군에 관한 전체적인 제사를 다 알고 있다는 식의 교만. 공군대학의 교재 내용은 여기 모두 알고 있다는 식의 교만. 이러한 자세로 교육 과정에 임하였다면, 그의 학습성과는 입과 전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 또 이를 적은 바탕으로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창의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기존체제이나 방식에 만족하여 안이하게 소일하고 있는 한 조직의 발전이 없는 게 당연하다. 학습한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여, 그래서 있을 수 있는 보수적 관념에, 맞서 구현 용기가 없이 핑계대고 기피하면 될 뻔한 굳이 분과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무사안일주의에서 탈피하지 않는 한 교육의 성과가 나타날 기회는 없다. 교육받은 지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없는 것이 당연하다.

어느 때보다도 교육이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그만큼 교만, 보수, 안이성 추탈이 요구되는 때이기도 하다. 아무리 해봐도 더 배울 수 없다는 생각을 극복하고라도, 「한국적」인 것을 찾고 그것을 토착화시키는데 우리를 위하여 남이 만들어 준 모델은 없고, 그래서 우리의 것을 우리가 스스로 궁리하고 만들어 내야 할 형편에, 모두 안다는 교만은 용납되지 않는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으나, 좀더 철 기술의 수학을 믿고 몸을 싣는 동안에 소박하고 강인한 신념을, 굳은 결의로 「하면 된다」를 외치던 국적있는 선각의 마음 속에 기대할 수는 없다. 또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이어 받았어도 우리의 역사를 읽으면서 마냥 자랑스러울 수만은 없는 노여움과 굴욕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으로부터 자랑스러운 우리 것을 찾게 위하여 보수적이고 안일할 수는 없는 것.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에 강조되는 소이이다.

3.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군인이 줄어 든다. 아니 없어질지도 모른다. 나라의 능력은 군사력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에는 다소 벅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가지고 열 개같이 써야 하고, 1년 쓰던 것은 10년 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효율은 우리안에서」 「밖에서 잃은 것은 안에서 찾아」야 하는 처지이며, 그러기 재원관리를 극대화 하

고자 하는 바람에 하나이다.

우리의 제 전력은 정신, 기술, 체계로 구성된다. 그 중 정신력이란 배우려 갈수도 많을수록 좋은 것이긴 하다. 기술은 이 정신력을 일어나 싸움을 하는 현장에서 발휘되어 그 우열이 엎어나 싸움의 승패(勝敗)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고, 전력을 구성함에 있어 계산에 넣을 수 없는 미지의 요소이기도 하다. 그 우열을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상대적으로 기술과 체계는 대충의 구체성을 띠우는 것이오, 지금 전군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과학화 운동의 주(主) 대상이기도 하다.

공군으로서 과학화 운동을 새삼스럽게 들고 나온 일이 가볍지도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 공군의 과학화」는 새삼스럽게 생각되어야겠다. 과학이란 동서고금에 통하는 것인데 한국 공군의 과학이라는 표현이 우스꽝스럽게 들리나, 이는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의 공군에게 대응하는 과학을 한국의 공군에게 제일 가장 효과적으로 적합하게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뜻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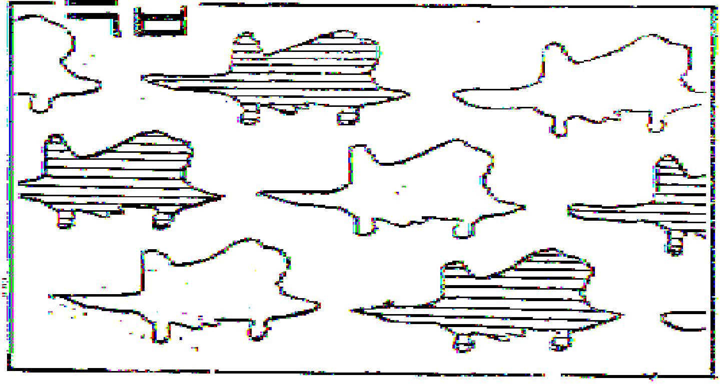
무기, 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술에 있어서도 그렇고, 체계에 있어서도 그렇다. 과거에 선진국에 보냈을 고려할 결과 우리는 각종 귀중한 정보를 축적하였고, 그들로부터 정(장비 또는 체계)들을 다루는 능력을 익혔다. 물론 이것들은 이제 우리의 힘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들의 범위에서 헤매면 안 되는 것만은 우리에게 자주국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게 요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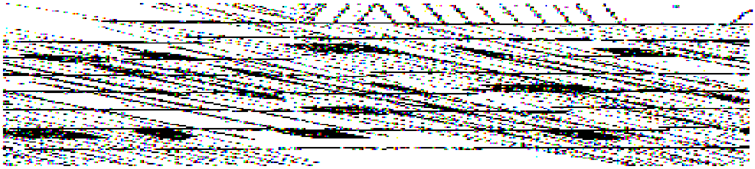
이러한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기존 기술에 한국적 응용 기술, 없는 것을 고안하고 만들어 내는 기술,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끌어 갈 관리능력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한국 공군의 입장에서, 한국 공군의 스스로 국토의 방위를 모색하고, 방법을 선택하고, 행동을 결정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우수한 기술자와 훌륭한 엔지니어를 거느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능력을 한국 공군적으로 활용하는 창의력과, 이들은 가장 효율적인 화력(火力)으로 전환하여 생산해 내는 「시스템」화 능력은 계속 정도에 보강해야 할 일이다.

공군의 과학화 운동의 방향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공군 요원들의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연구와 진취적 통솔풍토를 조성하고 「시스템」의 합목적성을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축소된 한국 공군 과학화의 목적을 설정하는 일에 정진할 것이다.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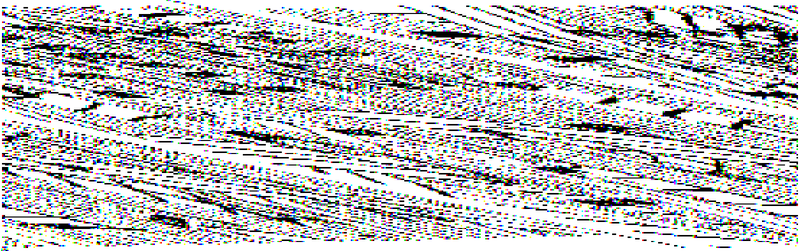


인간의 역사를 「과학발전의 누적」이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오늘날의 모든 문명의 이기(利器)는 과학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중화학공업과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1인 1기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군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 있어 능률의 합리화와 극대화를 위해 군의 과학화를 하루 속히 이룩하여 조국근대화의 선봉적 역군이 되어야 하겠다.

□ 특집 : 군의 과학화 □



□ 이 창 록 □

<한국일보 논설위원>

5월 17일 하오 2시, 국방부 회견실에서는 뜻깊은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두 사람의 장병이 입력하여 주엄한 포상금에 포함된 표창장을 전달에 수여했다. 최우수상은 받은 이는 공군본부 김 국영 대령이며, 장려상을 받은 이는 육군 제5033부대 장 희철 중사였다.

1973년도 1·4분기 전력개선 창안상에 있다.

최우수 창안상과 포상금 70만원을 받은 공군본부 김 대령의 개발작품은 「BDU-33 훈련탄재생」이라는 것이며, 장려상과 포상금 10만원을 받은 육군 장 회철 중사의 창안품은 「M1소총 분해구」였다고 한다.

그 창안의 경위와 성능의 자세한 내용까지를 자료부족으로 여기에 소개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간단하게나마 그 개요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고 한다.

즉, 「BDU-33 훈련탄재생」은 사격장에 투하된 폐탄을 회수하여 한두 몇 「캡」 부품을 재생 활용함으로써 지금까지 군별으로 도입되어 오던 「BDU-33 훈련탄」 소요예산 약 7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M1소총 분해구」는 육군에 야전에서 사용하는 M1소총분해구를 개량하여 개발하여 총기수입 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병기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한다.

그런데, 국방부는 금년 연초에 자주

국방 실태의 경제적 군 운영의 일환으로 매 작업제도를 마련, 전 장병과 소속 공무원 및 예비군들의 건설적이고 경제적인 창의를 모집 채택함으로써 국방 행정의 효율화와 경제적인 군 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으며, 응모된 「아이디어」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군 실험기관 등 관계부서에서 실험, 조사 및 검토 후에 창안심사위원회로 회부됨으로써 수상이 결정되는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고(本稿)의 서두에서 이 「창의제안장려제도」의 내용을 소개한 뜻은 다름 아니라, 군 전반에 걸쳐 오늘날, 장병들의 꾸준하고 참신한 제안이 얼마나 필요한가 또한 얼마나 되고 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아이디어」는 곧 「착상」(着想)과 「발상」(發想)을 뜻하는 것인데, 이 착상과 발상은 새로운 창조(創造)를 뜻하는 동시에 거기에는 꾸준한 노력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노력은 곧 하지도. 보다 보람된 책임완수를 다짐하는 근무의욕에서 싹트는 것이다. 공군본부의 김 나엽 대령과 육군 제5952부대소속 장 희성 중사의 공헌한 사례에 귀의를 그래 따지 않는다. 장 희성 중사에 국한 출력을 결정에 있어 하사관의 신분으로 군 장비개선을 위한 창안에 적극 참여해 성의와 끈기있는 노력을 경주한 결음을 보아도 이 창안제도 실행의 의의를 실감하게 된다. 특히 공군의 김 나엽 대령의 경우는 그 계급이 고급장교이면서도 불리하고 진지한 근무자세로 BDU-33 훈련탄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집념 꾸준한 연구를 계속했다는 점은 하나의 시범적인 사표를 가지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필자는 김 나엽 대령과 일면식 없고 그 개인적인 프로필을 들은 바도 없지만, 이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서도 그 인격과 공사간(公私間)의 생활면을 추적하게 된다.

과학하는 마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과학하는 마음」의 필요라고 하겠다. 우리 군 운영을 보다 합리적이며 보다 능률적이고 보다 경제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착상」과 「발상」의 원초를 목적으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20세기의 문명은 과학발달의 소산이다. 다시 말해서 인류문명은 과학문명의 과정이라고도 보게 된다. 근대화 혹은 과학문명에 힘입어 오늘 날의 고도문명은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며, 인류의 생활는 과학의 힘을 얻어 더욱 안전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와 동시에 과학의 원리는 항상 우

뉴톤의 주변에 있다는 사람도 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만약 과거(過去)에서 있는 과장 머그런 이들 들면, 「뉴톤」에 「만유인력설」의 착상할 것이다. 은혜 떨어지게 마련인 농군, 나무가지에서 떡 들어도 익고나면 으레 땅으로 떨어지게 마련이라고 여느 사람들이 무심하게만 생각하는 그. 사실을 「뉴톤」만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 곧 「만유인력설」의 계기이며, 사과는 왜 위로 떨어지지 아래로만 떨어지는 데에는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만유인력설」의 착상에 있다.

과학의 창조적인 결과는 「기이한 가정(假定)위에 서서, 엄정한 연역적(演繹的)·귀납적 방법에 의하여 세워서 체계의 세계」~의 계승된 추여대사 전에서~ 이라고 풀이된다. 「데카르트」는 그의 저서(著書) 「수상록(隨想錄)」에서 「과학이란 그 한계와 자격을 똑게 했고, 가능한 세운데, 과학이다.」라고 말했으며 「제4편」는 「과학과는 공백한 사실로부터의 발견이다 그 결론을 따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메스터필드」는 그의 저서 「세익스피어로 정신생활」속에서 「진리에 이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면밀한 사실의 검토에 근한 관찰 즉 과학의 길 뿐입니다.」라고 말했으며, 저명한 「골리」부인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훌륭한 업적은 위대한 과학자의 생활에서 얻은 것은, 끈기와 주의에 대한 집요한 투쟁이다.」라고 주장했다.

위에서 인용한 예와 같이 과학이란, 「사실의 설론」을 연구하여 하나의 결론을 추출(抽出)해 내는 과정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과학 분야의 범주는 실로 광범 다기(多岐)하며, 심오한 진리 등에 이르기까지 그 지식 상에 포함 복잡다양하지만 여기서 우리 군이 바라고 있는 「과학하는 마음」을 그저 곧에 보호할 현재 하자를 목표하는 것이 아니다.

극히 보편화된 상식적인 의미에서 군 운용을 합리적이며 경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군복무 주변에서 무언가 미비된 점, 무언가 고쳐야 할 점, 무언가 잘못된 점 등을 스스로 발견하여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 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인이 「과학하는 마음」은 결코나 군을 떠날 수가 없고, 군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극히 평범한 분야에 돌려져야 할 것임은 재론

의 여지가 없다..

이번, 뇌우유탄을 수송한 공군간부 길 나열 내용은 언제나 「BDU-33 훈련탄」을 어떻게 하면 폐기하여 줄 수 있겠는가를 생각했을 뿐이다. 정비장은 한 은 육군 제 2532부대 강 회원 중사도 일상 손으로 다루고 있는 「M1소총 분해구」를 어떻게 하면 좀더 쓰기 좋게 개량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했음이 틀림없다. 즉 「생각했다」는 점에 군 과학화를 뜻하는 심각한 복무의욕이 나타나 있다.

따라고 보면, 눈에 띄어있는 평범한 일이다. 공군에선 「BDU-33 훈련탄」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고, 육군의 사병이면 「M1소총 분해구」를 손에 쥐어보지 않은 이가 없을 것이다. 수많은 장병에 무심히 보아넘긴 그 사물을 이 두 사람은 유심히 살펴 보았다. 그리고 거기에 고쳐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그릇, 모든 발명은 「필요성」에서부터 비롯된다. 필요하기 때문에 끝에 시험하고, 끝에 새워짐으로써 결어 간다는 것이다.

군 과학화를 지향하는 「과학하는 마음」 위에서 한 발명을 원하는 평소 계획에, 필요성에 입각하는 것임을 볼 때, 우리는 진지한 자세를 스스로 가다듬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환경을 손쉽게 보아넘기는 타성(惰性)을 지니고 있다. 타성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이다. 이 관념에서 벗어나야 주위 환경의 사물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나마 갖게 될 때에 자신이 비로소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이 <조그만 관심>은 저절로 생기는 그 무엇이 쉬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얼마나 애정에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관심에 의한 꾸준한 노력에서다.

과학하는 마음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좀더 향상된 차원으로 올려 보겠다는 성실한 자세에서 우러나는 것이니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 생활하게 보다는 생활 속에서 보람을 찾아보겠다는 적극성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박 대통령 각하의 지시

그런 중에서 우리는 박 정희 대통령 각하의 지극하신 지시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박 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지난 연초의 국방부 초도순시에서 「값 쓰게 국방에 많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이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은 국방과 안보에 대해 절대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점을 잘 알고 한 푼의 예산이나 물자를 얻거나 절약해야 되는가를 더욱 명심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시었다.

유 재흥 장관은 이날, 73년도 주요 국방시책을 보고했다. 이 국방주요시책은 6개 항목으로 요약된다.

① 유신정신 함양 및 정신무장 강화 ② 간부운영 육성 ③ 군의 과학화 ④ 군 관리개선 및 방산체제 운영 ⑤ 병무행정 개선 ⑥ 군의 새마을 지원 및 주둔지 조림(造林) 등의 6개 항목 중에서 군 과학화와 관리개선은 획기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 정희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피와 세금에 토대한 국방 예산과 물자를 절약하라고 강조하시면서 다시 「군은 좀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과학화를 추진해야 한다……특히 각급 지휘관은 과학적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지휘관들에 더 많은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시었다.

이 자리에서 더 한층 음미해 보아야 할 점은 「국군은 60만 이상의 힘을 발휘하라」고 당부하신 말씀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 날의 국내외 정세는 평화수호를 위한 자주안보태세의 확립을 촉구해 마지 않고 있다.

안으로는 남북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힘>의 소재를 과시하는 의미에서 굳건한 국방력에 기대하며, 밖으로는 「닉슨·독트린」을 비롯한 세계정세 특히 아시아 정세도 급변에 대처하는 우리 조국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안보의 자주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시점은 바로—「60만 이상의 힘」으로 민족의 웅비(雄飛)를 계속해 나가는 역사적 단계—에 직면하여 군이 담당하는 사명은 실로 중대하고 막중한 때문이다. 이 궁지하고 막중한 사명완수를 위해 「60만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신중한 마음가짐으로 이 과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병기도 장비를 현대화하고, 정신무장을 강화하면서 실전에 못지 않은 교육훈련을 철저하게 실시하는 등 우리 군인에 일대 혁신운동을 통해 정예군으로 성장해가는 것은 일정한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염두에서 떠나서는 안 될 중대한 또 하나의 길이 있음을 유의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다. 박 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지시하신 「군의 과학화」와 동시에 「예산과 물자를 절약하는 경제적 군대」가 바로 그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군의 과학화」라는 문제는 결코 재래전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과학」이라는 말만이 들어 있으므로 해서

무는 그의 국방정책에 관련된 개념으로 표현되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제기된 「과학화」의 개념은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어 필요 없는 손쉬운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즉, 바꾸어 말하면 「우리 주변의 주변을 좀더 유심히 살펴보자」는 뜻이며, 「우리 모두 각자에서 무언가 변화하여 좀더 좋게 개선해 보자」는 욕구로 적극성을 추구하는 뜻이라고 하겠다.

「군의 과학화」라고 해서 장병 개개인에게 심오한 원리의 과학적인 창안을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모든 장병 개개인에게 전략전술의 거창한 연구검토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장병 각 개인은 현재 맡은 복무 환경 속에서 무언가 생각해 보고 무언가 찾아내어, 무언가 주어 보자는 것이다. 말하자면 소위는 제 소대를 그 위치에서 연 [illegible] 보다 능률적인 복무방도를 찾아야 보자는 것이다. 제○○군수학교는 병원들을 시켜 [illegible] 아니라 않고, 군수 분야에 걸쳐 그 어려운 업무를 보다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보라는 것이다. 또 각 단장은 계획부만 취급하지 말고, 부근한 마음으로 부대 전체를 항상 관찰하면서 구석 단점을 무엇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이렇게 곧 우리 「군의 과학화」라는 기

준에 몸이 어디였는가— 필자는 「60만의 창안을」이라는 제목으로 김 낙영 대령의 최우수작 수상에 즈음한 논설을 전우신문에 실은 바 있다(5월 22일자). 그러면 국군 60만 장병이 각자에서 지적한 다섯 걸음 마음가짐으로 적어 한 가지씩만이라도 무언가 창안한다면, 국군 전체로 볼 때에는 60만 가지의 창안이 쏟아져 오르지 않겠는가 하는 논지였다. 이 60만 가지의 창안을 어떻게 종합 정리하고 보면, 거기에는 엄청난 새 사실이, 창조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예를, 들은 작업 과정의 하찮은 창안은 아닐지라도 그 「아이디어」만으로도 훌륭한 과학화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과학적인 이론체계와 실험단계는 과학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 우리 60만 장병들은 그 기초 재료만 제공해 주자는 것이다.

한 개의 「핀」일지라도….

필자는 비행기를 볼 때면, 언제나 몸은 종도가운을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작은 것으로는 L-19에서, 큰 것으로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점보」제트기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보편하게 하늘을 비행할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부품—이름없는 부품들의 정성 어린 손길 덕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이 생각이 들게 시작한 것은 약 2년

전에 등관 모리지 비행장에 걸작품을 세우려졌다. 지금도 그 거대한 수리창에 그대로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견학 도중 잡은 손길은 같은 장인에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또 여의 비행기가 그 은익을 쫙 펴고서 극한음속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은 기체의 덕분만은 아니라는 것을 절감했다. 다시 인간의 세심한 정성이 기계라는 것을 제대로 작동시키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물론, 과학적인 이론으로 따지고 들면, 인간의 정성에 따라서 계속한다고 해도 인간에 있고 기술력이 없고서야 이렇게 즐 수 있었는가 하는 당연한 귀결이 나왔지만, 그 기계를 제구실시키는 힘은 역시 인간의 손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인간의 정성이 비행기를 뜨게 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인접 한 계를 이어놓고 여기 명의 저살정비원들이 헐하면서—몸차 그대로 제다갈이 볼우에 묻다내고 거뭇한 직면서 드라이버를 부지런히 돌리고 있는 그 손과 손을 지켜 보면서 「저 손이야말로 비행기의 생명이다.」라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가공(架空)이 은득 떠오르자 모골이 송연해지는 충격을 받았다. 「만약에 저 손이 한번만이라도 잘못 놀아………」그 수천 수만 개의 부속품 중 한 개라도 제자리에서 빠져나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단한 치의 틀림이라도 꼭 들어가야 할 곳에서 빠지게 된다면 하고 가공스러운 상상을 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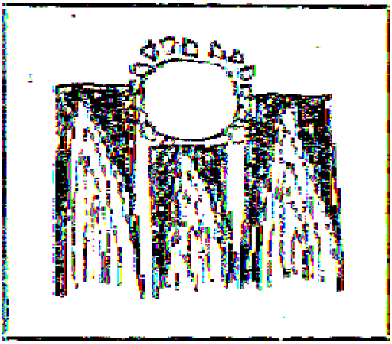
공군본부 길 낙영 대령의 경우는 이 새로 채택된 자구을 필히 실천에 옮긴 본보기로 다시 한 번 찬양해 마지 않으며 정비병들의 그 귀중한 손에서 우러나는 출발하고 발전적인 「아이디어」가 우리 공군의 현대화에 크게 공헌될 것을 계속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생각하면, 우리 공군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그 모두가 우방 미국의 원조에 의해 도입된 것이며, 각종 시설 및 부속품 또한 원조에 의한 것임을 다시 되새기지 않을 수가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서독과 일본이 또다시 현대무기에 국산화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새로이 비장함을 자탄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완전히 자립, 자족할 수 있는 국방력 배양에 전 장병의 애국과 노력, 그리고 견재한 애군정신(愛軍精神)을 스스로 가꿔가야만 할 것이다. 애군정신은 곧 애족, 애국의 실체에 직결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한다.

군의 과학화와 공군적 관리

□ 김 판 석 □



1. 군 과학화의 일반적 개념

과학은 본래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이것이 어떠한 법칙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가를 탐구하는 지적 활동으로서 과학이 진보되면 자연계에 관한 지식과 그 법칙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어 이를 생산에 응용할 수 있으므로 기술이 발달되게 마련이다. 오늘날에 과학은 이러한 과학 본래의 기초개념에 입각한 현실성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대상영역까지 확대되어 조직적 연구행위와 이에 의하여 얻어지는 지식의 총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과학화란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는 사고와 기술을 핵심으로 한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노력과 체계적인 인식 아래 어떠한 대상을 분석 평가하여 이를 근거삼아 결정체계를 정립하는 행적 및 그 결과를 실천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과학화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있는 요소들, 그 실체(實體)를 몇 가지 예시해보면 사고의 합리화, 분석의 과학화, 행동의 정밀화, 연구의 실용화, 관리의 기능화, 회계의 조직화, 운영의 효율화, 계획의 계수화(計數化), 평가의 계량화(計量化) 및 연구의 생산화 등을 통하는 요소로서, 결국 노력의 집약화와 행동의 정확성으로서 성과의 실현율을 보장하는 상태에서

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 각하께서도 지난 3월 23일 광주에서 개최된 「전국 교육자 대회」의 치사(致辭)를 통하여 「전국민의 과학화」 개념을 「전 국민의 사고방식과 생활습성을 과학화해서 우리 사회의 각계 각층이 모두 자기의 직종에서 생산과 직결되고 국력배양과 직결되는 과학기술의 생활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신 바 있다.

이상과 같은 과학화의 일관적인 개념과 박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신 전 국민 과학화의 실천적인 정의를 군에 적용시킨다면 「군의 과학화」란 「합리, 능률 및 창의를 바탕으로 한 과학정신에 입각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하게 될 유형·무형의 전력자원(戰力資源)을 보다 경제적이며 능률적으로 관리(管理)시키는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전력배양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군 운영관리(運營管理)의 총체적인 노력과 그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2. 군 과학화의 필요성

과학은 원래 전쟁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과학을 토대로 한 그 기술이 각종 무기를 생산하는 원동력이므로 군사력의 형성과 활용에 직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며 현대무기를 사용하는 오늘날의 전쟁이 과학전(科學戰)이라고 불리어 온 까닭도 바로 여기에 연유(緣由)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과학과 기술은 전쟁에 사용되는 각종 병기를 통하여 군사활동과 직결되어 왔으나 오늘날의 첨단 과학기술은 현대무기체계의 핵심요소로서 전쟁의 양상은 물론, 군사전략과 군 운용체계까지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나아가 국제질서의 변화와 국제정치 질서의 개념까지도 변천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초병기(超兵器)의 출현과 그 운반수단의 개발로서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어떠한 국가이든 그 나라의 안전보장은 군사력을 축으로 한 국력에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면 보다 합리적으로 증대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국제무대에서 국가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력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군사력은 과학기술의 소산인 무기가 그 주체이기에 「군의 과학화」는 필히 군대의 더불어 제도·운용 면에서도 그 개념을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꼭 실현해야 할 필수요건이 되므로 무기체계가 현대화될수록 군의 과학화는 그 수준이 고도화되어 범위의 확대도 요구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과학기술과 조직적인 대결로서 현대전이 특징된 다

전쟁의 핵심전력으로 간주되는 공군의 경우, 항공기를 비롯한 무기체계가 현대과학문명의 정수(精髓)이기에 이를 운영 관리하는 고도의 과학지식과 숙련되고 정밀한 과학기술이 요청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공군의 기능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되게 운영과 더불어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고, 운영화 된 이들 전군 기능은 전력의 집중적인 발휘를 위해 통합적이며 결합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예하 예비전력에서도 정비정연하고 체계있게 운용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므로 보다 고도적인 관리기능과 운용능력은 집대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공군의 과학화는 그 무기체계와 조직체계의 특성으로 보아 보다 생산적인 전력체계와 다양한 전력의 효율적 행사를 위해 긴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특히 한국공군의 경우, 양적 전력(量的 戰力)의 상대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전력 전력개발에 질적 비중을 두어야 할 처지에 있기에 종합적인 전력요소에 일차성 있는 연구는 곧 무형적인 기능전력(機能戰力)을 개발시키는 노력과 그 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기에 한국공군의 과학화는 매우 절실한 당면과제라고 하겠다.

더욱이 지난 3월 31일 공사교 제 31기 졸업식에 임석하신 박 대통령 각하께서는 유시를 통하여 우선과제영역을 위한 자주국방태세 확립의 필요성과, 자주국방태세 확립에 기여해야 할 공군의 역할과 그 사명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공군의 장비열세는 기술로써 이를 보완해야만 한다고 전제하고 「공군은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밀하고도 숙달된 기술을 필요로 하며, 현대전의 특징인 총력전의 전술개발도 과학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공군의 계획하는 조예(造詣)의 과제」라고 지적하신 후 「과학지식을 익히고 창의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 우리 실정에 알맞는 전술전기를 개발하고 끊임없는 교육훈련으로 전력을 배양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따라서 공군은 국가원수의 이러한 지시와 당군의 성격 및 여건으로 보아 전력배양을 보다 촉진시키기 위하여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과학화의 노력이 요망되는 바이다.

3. 공군 과학화의 기본방향

공군 과학화의 기본방향을 논하기 전에 지금 거국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전 국민 과학화 운동」의 의의와 추진방향을 살펴봄으로써 공군과학화의 기본방향 설정에 참고로 삼고자 한다.

지난 3월 25일 전주에서 개최된 전국 교육자 대회를 시기로 촉진되던 「전 국

민의 과학화 운동」은 조국근대화의 기초역량을 배양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즉 정부는 조국근대화를 위한 70년대 시책의 기조(甚調)를 첫째 중화학공업의 육성, 둘째 농•어촌의 균형개발, 세째 수출의 증대에 두고 80년대 초에는 100억불 수출, 1인당 국민소득 1,000불의 경제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도록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개발을 촉진시켜 조국근대화의 바탕을 조성하고 그 추진력을 육성시키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은 과학지식과 그 기슈-2: 전국적으로 보급시켜 일인일기(一人一技)의 기술능력을 갖게 하여 전 국민이 근대화의 역군으로서 산업전사(菜戰士)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생활의 합리화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사회기풍을 진작시켜 근대적 산업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국민기강을 확립시킴을 그 목표로 삼아 전 국민으로 하여금 근대화를 위한 정신자세와 능력을 함양케 하여 스스로 조국근대화 과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와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근대화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생활와 합리화와 생활여건의 개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학정신의 함양, 과학기술의 습득 및 그 기능의 발휘 없이는 도저히 干현될 수 없으므로 『전 국민의 과학화」는 조국근대화와 공업입국의 첩경이며 국력배양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은 조국근대화 및 공업입국을 위한 국민적인 기초역량을 배양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학정신과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신자세면과 기술능력면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공군의 과학화를 위한 조직의 배경과 자원의 자질은 전 국민의 과학화를 위한국가적인 환경과소지(素地)와는 상이하겠으나 과학화를 추구하는 기본방향은 같다고 볼 수 있다-

공군의 과학화는 1949년 창군과 더불어 체질적으로 발기(發起)된 과제로써 그간 6•25동란의 시련기를 거쳐 1960년대의 공군근대화의 과정에서 『자원관리의 봄」과 『완전무결운동」의 형태로서 거군적인 노력과 활동이 집중되어 군 운용관리의 개념을 비롯한 제반제도 및 체제, 그리고 운용능력 면에서 과학화의 바탕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군적력의 증강 및 근대화의 군사적 추세에 따라 보다 조직적이며 고차적인 과학화의 노력이 촉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공군의 과학화는 공군 과학화의 필료성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군이 당면한 현실적 여건 하에서 이미

미국처럼 높은 산업적인 기반 위에서 군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 중 주요 첨단전력의 극대화를 달성한 다음, 자주적인 공군전력을 육성해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공군전체를 혁신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이를 추진해야만 하겠다.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으로 보아 한국공군의 전력증강적 요소는 양적(量的)인 측면보다 우선 질적(質的)인 측면에 그 역점을 두고 질의 개발을 통하여 전력상승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가능성에 보장된 실질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시요소를 평시부터 증강시켜 상비전력(常備戰力)으로서 고도의 전비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공군력의 전력유지 체제와 그 순기능적 효과로 보아 현존전력의 극대화는 한국공군의 지상과제이기에 현존자원의 전력화는 공군과학화의 제일차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군민일체(軍民一體)와 이인동체(異人同體)로 집약되어진 공군조직관리의 수월성과 부여체계운용의 특성을 근간(根幹)으로 한 전력구성요소에 전력증강의 초점을 두고 「군의 운용관리면」, 「경영의 과학적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공군과학화의 기본방향을 설정해야만 할 것이다.

4. 공군 과학화의 실천방향

공군이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하게 될 수많은 무기의 전력자원을 낭비없이 전력화시켜 전력증강을 기하고, 나아가서는 이들 자원을 재활용하여 군의 현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군운용관리와 장병의 능력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결 조화시키는 데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공군의 과학화는 군 운용의 능률을 도모하는 지휘관리의 합리화, 장병 의무수행의 전문화를 이룩하는 장병육성의 과학화, 장비 시설 및 물자의 관리과학을 조성하는 지원의 생산화, 무기체계의 개선발전 및 토착화를 위한 연구개발활동의 조직화 등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공군이 추구해야 할 과학화의 과제는 장비 시설 및 물자 등 유형적이며 물량적인 전력요소의 효과적인 관리와 생산적인 운용, 그리고 정신, 기술 및 체제 등 무형적이며 기능적인 전력요소의 창의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구현으로 정예공군육성과 전력의 극대화에 직결되어야만 하겠다. 그러나 공군전력구성의 이러한 양면성(兩面性)과 전력육성 과정의 제약성(制約性)에 따라 과학화의 실천은 역시 다양성과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여러가지 측면

에서 단계적으로 고찰되어야 하겠으나 이미 전장의 주변서 외국에 제시된 바 있는 공군 과학화의 기본방향에 입각한 주요한 실천방책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 지휘관리의 합리화로 군 운영의 능률화를 기한다.

(가) 공군에 정책 및 의사결정의 과학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제도 및 절차를 재정비한다.

(나)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의 효율증진을 도모하고 성과측정의 과학화를 기하기 위하여 계획예산제도(PPBS)를 채택한다.

(다) 공군조직 및 기구의 전력화, 제도 및 절차의 체계화, 행정업무의 과학화로 군 운용관리의 능률을 증진하고 지휘책임을 확립한다.

(라) 보다 능률적인 사무제도를 조성하고 유연성있는 군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사무시설의 과학화를 적극 추진한다.

둘째 : 교육훈련체제 과학화로 직무수행의 전문화를 기한다.

(가) 일반사회의 기술인력자원을 유효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공군 모병 및 복무제도를 개선한다.

(나) 전 장병에 일인일기(一人一技)의 기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군사교육제도 및 내용을 개선 보완한다.

(다) 전 장병이, 일인일기의 기능으로 직무수행의 전문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및 부대훈련을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라) 공군의 기술 인력자원을 보다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인사행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마) 개별 개인의 능력적성개발과 직무의욕의 증진으로 직무능률을 제고(提高)케 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군 인사관리의 과학화를 기한다.

셋째 : 장비, 시설 및 물자관리의 생산화로 자원의 전력화를 기한다.

(가) 작전요구도에 부합되도록 장비 시설 및 물자관리의 효율증진과 수명연장책을 강구한다.

(나) 정비 및 시설물들의 표준화 체계를 확립하여 경비절감과 경제운용을 기한다.

(다) 군수물자의 운용계수를 과학적으로 책정하고 이를 표준화하여 재고관리 수급체계를 확립한다.

(라) 전시소모물자의 생산을 과학화하여 전투장비의 국산과 예비부속의 비축을 적극 추진한다.

넷째 : 연구 발전 활동의 조직화로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기한다.

(가) 한국공군에 알맞는 전략개념과

전술교리를 연구발전시켜 이에 상응한 전술전기의 고도화를 기한다.

(나) 현 보유무기를 최대한으로 전력화하고 우리의 환경에 부합된 특수무기의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다) 국가 방위산업전략에 부응하여 공군 무기개발 및 생산능력을 배양토록 연구개발활동을 조직적으로 강화한다.

다섯째 : 새마을 사업과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선도하여 조국근대화를 위한 국력배양에 적극 기여한다.

(가) 전 장병의 직무수행능력을 과학화함으로써 전 국민 1인 1기의 산업전사를 육성 배출한다.

(나) 전 장병의 생산적인 직무기풍과 합리적인 생활태도를 통하여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선도한다.

(다) 공군 기술과 시설을 동원하여 청소년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새마을 사업 및 전 국민 조직과 운영에 기술지원을 적극 강구한다.

지면의 제약으로 이상과 같은 주요한 실천방책만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공군과학화의 실천방책은 각 요소별 또는 각 업무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통하여 공군 운용관리의 바탕을 명실공히 과학화시킬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 장병의 능동적인 참여와 전 부대의 적극적인 호응을 통하여 장병 각자의 직무수행과 부대운용 면에서 그 효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실천되어야만 하겠다. 그러므로 공군 과학화의 궁극적인 성과는 전 장병의 직무수행능력, 부대운용의 실적 및 지원활동의 생산성 등에 초점을 둔 객관성 있는 성과측정 기준에 의거 주기적으로 이를 평가분석하여 실천을 촉진시키고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조국근대화와 중흥창업을 위한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이 거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매체로서의 우리 공군은 이 국가적인 대행진을 선도해야 할 시대적 사명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전 장병에게 강조하면서 이 글을 끝맺는다.

※ ※ ※

논 단

공자에서 싸르트르까지

— 현학(玄學)적인 입장에서 —

윤 영 춘

<경희대 초급대학장>

19세기 중엽에 「토마스 헉슬리」와 「매듀 아놀드」와의 사이에 자연과학이 인문과학보다 우위에 놓여야 한다는 주장과 인문과학이 자연과학보다 우위에 놓여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 격론이 벌어진 바 있고, 20세기 초기에 와서는 「존듀이」가 과학을 위주하는 이론을 내세우자 「허버트 메일」과 「로버트 허친스」는 인문과학을 내세워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일이 있고, 중국에서는 1923년의 「과학」과 「현학(玄學)」에 대한 일대논전으로 논란이 벌어진 일이 있다. 1950년대에 와서 영국에 「스노우」가 「과학문화」의 가속도 발달에 기초를 두고 「문학문화」를 힐난하자 「리비스」가 「스노우」의 주장을 통박하며 문학문화를 주장하여 양립의 이론은 커다란 파동을 일으켰다.

1954년에 미국의 36개 학술단체 및 34개 학술회(어학회·철학회·사학회)가 미국정부에 제출한 책은거 꿈은 전국계획시공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작성됐다. 백년래 과학기술이 상승일로에 있는 반면에 인문과학은 불경상태에 빠지고 있다. 과학무기와 경제는 날로 발전하여 가는데 세계질서와 체험은 날로 혼란해가고 있다. 그런데 지난 해 5월 「라이프」지에 「프린스톤」대학 역사학 교수이며 「두드로 윌슨」스쿨 교수인 「제임스 빌링톤」은 「미국대학에서 인문주의는 사라져 간다」는 논문을 발표하여, 매도가 연발하고 과학 일변도에만 치우친 미국대학교육에 시정을 촉구하여 일반에 관심을 끈 바가 있다. 과학만능을 부르짖는 이 시대에 과학의 공죄가 옹

용을 올바로 잡는데서 엉뚱한 미래를 거역할 수 없으므로 과학만으로써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다.

특히 후진국가에 있어서 후진성을 극복하고 근대화를 지향하려면 과학을 발전시켜야 할 것은 췌언(贅言)을 요치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올바로 사용할만한 정신의 자세를—즉 인문과학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우리 나라에서 아직 그다지 대두되어 본 적이 없는 「과학적」인 것의 반대 입장에 선 「문학적」인 것에 대하여 통속적인 논설을 전개해 본다. 극도에 이른 심리상태를 다소라도 누그러지게 해보려는 데서 이 붓을 들기로 한 것이다.

문학(文學)의 질적 요소

아폴로 8호 우주인들은 크리스마스 전야에 지구를 달로 향해 비행하면서 우리들에게 지구가 아름답다고 말했으며 우리는 달로부터의 일정한 거리를 재나면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한 구름 속에 떠 있다」고 한 고대의 말을 들을 때 구약성서 창세기의 천지창조설을 연중에 주었다는 점을 둔다. 다시 말하면 3년 전 소련 우주인이 우주를 돌면서 신을 통시 보지 못했다는 말과는 대조적인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더욱 끌게 되었다.

아폴로 우주인들은 달의 표면은 돌멩이 달의 모래와 그 표면은 사막 위의 불가사의한 계속 도처럼 울퉁불퉁하게 보인다고 했다. 이렇게 고공은 달에 착륙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려서 부터 달을 하나의 꿈의 환상의 세계로만 생각해 왔다. 그것은 우리의 노래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저기 저 달 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은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짓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천년만년 살고지고

우주인이 본 달과 우리가 꿈꾼 달과는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 달 속의 계수나무는 꿈 속에 그린 상징에 불과하다. 동양사람은 달을 영구불멸의 상징으로 보고 있으나 서양사람은 변화 무상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해와 달은 옛 모습으로
이 세상을 두루 비치건만

어제인 월명이 서창 가을에만
어린께 만창으로 님생도 하니
「日居月諸 照臨下土
　乃如之人兮 逝不古處」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무상(無常)」으로 노래한 「셰익스피어」의 「줄리엣」을 보면

O, Swear not by the moon, th' inconstant moon
That monthly changes in her circled orb
Lest that thy love prove likewise variable.

「오 저 무상한 달님 두곤 맹세말게. 저 궤도를 돌면서 다달이 변하는 달에다 서 그대의 사랑마저 그처럼 변치 말도록」

달은 변치 않게 온전의 달이언만 사람에 따라 변치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변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낙화암에서 3천궁녀가 백마강에 떨어져 죽을 때 겉치마폭을 뒤집어 쓰고 죽었다고 한다. 그것을 여러 각도로 해석하는데 오늘날 유행을 즐기는 어떤 사람의 말을 빌면 그때 궁녀들의 속치마가 너무 아름다워서 죽으면서까지 그 속치마를 보이기 싫어서라 하고, 어떤 사람은 유교도덕에 물들어서 우리 예법을 따라 죽은 사람의 얼굴을 베로 덮듯 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죽은 사람이 물 속에서 퉁퉁 부은 얼굴로 떠다니기보다 깨끗이 치마로 얼굴을 싸는 것을 하나의 정절로 보는 유교풍습을 따랐다는 말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의자왕에게 충성을 다하면 사비성에 남인 이별인에게 인질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충의를 다하는 모습으로 깨끗이 물 속에 빠진 것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온당한 해석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개념적인 우리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한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소크라테스」도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개념적인 우리의 명제가 아니고 증명해야 할 명제이다.」라고 천목([illegible]) 교수가 말한 바 있다.

배우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므로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재래의 방식이었다. 우선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의 여부를 알아보고 난 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가의 여부를 논하는 말로 확정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인문과학의 분야에 속하기 때문이다.

위의 말들을 요약해 보면 모든 사물은 과학적이어야만 인문과학의 연구실을 한다는 말이 통한다.

유교는 철학할 틈고가 아니다. 하나의 윤리학에 불과하며 종교철학이라고 부를 수 없고 윤리학이나 인간철학으로 부르기에 가장 알맞는다.

서양에서 말하는 형이상학은 바로 동양의 철학이다. 동양에서는 주로 노장철학을 근거로 해서 인생철학을 논한 때문이다.

인간의 지식에 대하여 나는 세 개로 분류하고 싶다. 과학적 지식으론 감각과 추리에 의한 지식이오, 실천에 의한 도덕적 지식과 체험에 의한 철학적 지식이다. 이 점에서 보면 노장의 지식론은 감각적 추리의 지식을 거부하고는 내면의 철학적 지식을 추구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지식을 거부하고 철학적 지식을 구할 것을 주장했다.

「칸트」는 지식론에서 「그 지식의 얻는(認識)은 경험에 국한되는 것이지 이를 초월하면 사물 그 자체를 모르고 만다」고 했다. 경험은 현상이나 과거(過去)의 경지에 머므고 절대 의식의 깊은 철학의 넓은 광장에서 비논리적 비철학을 한 까닭이다.

장자는 제물론에서 철학의 경지를 논하여

「知止其所不知至矣. 孰知不言之辯, 不道之道? 若有能知, 此之謂天府」

(그러므로 지식은 모르는데서 정지해는 것이 최상의 지식인 것이다. 말없이 논란되는 논쟁과 도(道)라고 말해지지 않는 도를 누가 아는가? 이를 아는 이는 천국에 들어간다 할 것이다.)

모르는데서 멈추는 것이 최상의 지식이라고 한 장자의 말을 체험을 통한 지식을 주장한 「칸트」의 지식론에 갖다 놓고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설명되지 않다. 그런 점에서 노장철학은 늘 「무위」의 자연주의를 내세웠다. 그 자연주의가 말하는 바의 도는 무소유에서 「무위」에 멀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매정이 무위자연이다. 지(智)를 버리고 명(明)을 구하여 대(大)에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生而不有. 爲而不恃. 長而不宰. 故 [illegible]」

(무엇을 생산해도 소유하지 않으며 일을 해도 자랑치 않고 무엇을 키웠다 해서 독재하지 않는다. 그로 무엇을 하지 않는다 해서 하지 않는 바 없으므로 성음는 무위로서 축일을 알지 못했다.)

이것이 원류의 대도(大道)라 했다. 「칼엔」은 노자를 대두로하여 불교 흥융과 결부롱통은 노장철학에 붙이서 자연주의라고 했다.

우주론, 인생론, 형이상학, 자세론, 이념론 같은 것은 노장철학으로서는 몰

혹 파동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절목노유는 「중국사람은 대체로 물질의 성을 변하기를 중히하고 물질의 구조를 변하기를 싫어한다」고 했다.

귀신론에 들어서 물질의 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도 추리적 관용은 다른데 하면서도 서양처럼 분석적으로 물질의 구조를 해체하려고 하지 않았다.

공자 당시만 말하더라도 그때 크게 논의된 문제의 하나는 죽은 사람에게도 지각과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종교적 문제였던 것이다.

옛날 장례식에 관 속에 갖길 보물이나 산 사람처럼 같이 넣어서 매장해 버린 것은 죽은 사람에게 지각과 감정이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묵자나 공자학파에서는 장례식에 「진흙으로 말 수레를 만들고 짚으로 인형을 만들자」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것이 후에 와서 실천되었는지 그렇지는 모르나 오늘도 중국에서 우교구등에 따라 장례식에 종이로 된 말을 만들어 상두 앞에 세우고 나가는 것은 죽은 사람이 그 말을 타고 좋은 세상에 가라는 뜻이겠으며 죽은 사람에 산 사람의 물건을 줄 수도 없으려니와 산 사람을 죽은 사람과 함께 생매장함은 비인도적인 살인행위이다. 이것은 반대로 중국 사람의 머리에는 실우([illegible]), 의회([illegible]) 한 형상으로 된 영장을 가진 주에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개혁적 풍의 중요시하게 않았기 때문에 성효를 거두지 못했다. 현실로 재보할 수 있어도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마음 속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말로는 전할 수 없다.

「[illegible]」

이것이 일종말출한 현묵의 오묘이다. 추우를 피우는데 자연조화에 맡겨버려 만 자연대로 된다는 것이 노장의 사상이라면 세상은 그렇지 않고 즐거운 음악을 들려주면 더 잘자란다는 것이요, 닭은 얼므려 온대극에 침을 박는 고 순자덕으로 구 회시 침이 많이 가는 좋은 방법 가야만 풀었던 것을 다시 좋는다는 것이 고작 우리 선조들의 단순한 사고방식이었다. 세월은 다른편으로 방향은 찾고 곧해서 이용했는가 하면 우리들은 교실에서 도계를 측정할 때 공수들이 이 나침반으로 방향을 정하는 데 사용했을 따름이다. 예같이 마디중국고 심미적이면서도 현학적인 데로만 목수원에서 비과학적인 결과를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보면 무슨 오행수를 따라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멀시 써 보면 ○×문제가 나와서 어른 대답에 귀에다 비틀지 않으면 얼굴을 굳히게 굴리가는 쪽에 답을 써넣는 것과

같은 것이다.

중용은 지나친 앞선 감을 준다. 양극단보다 원만함을 주장했다.

「博學之 審問之 愼思之 明辨之 篤行之」는 중국 고대철학의 정밀한 사상이 유럽의 근대철학 가운데 반영되어 경제고전학파의 논리형성에 도움을 준 점과 마찬가지다. 이 원리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존 듀이」의 사고방식 실험 과정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를 좀 더 깊게 현존한 학자들의 말에 비추어 생각해 보기로 하자.

현대 서양사조에 강렬한 영향을 주고 있는 「말틴 부버」의 「나와 너」는 총괄 철학을 다루고 있으며 「나와 너」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인생의 삶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한편 「에밀 부룬너」는 「만남(Encounter)」에서 「칼 바르트」는 「화해(Reconciliation)」로 인간의 영원한 구원에 이름을 논했다. 이것을 동양철학에 갖다 놓으면 곧 노자가 말한 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철학에 속해 있는 것처럼, 불교에 속하여 한계, 불명치 못하다. 현학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을 둘 다 준별하게 파악하려고 하지만 과학적인 전조와 주공(周公)과 같은 성인이 있으나 저편으로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여 에서 모든 생물과 문명을 제다 성인에게 돌려버리고 말미에서 과학적 태도에 성인이 필요했고 성인을 숭배했다. 이로써 과학은 무시당하고 말았다.

노자의 「도」의 범주에서 모든 문명은 병이다. 이를 부정하여 오히려 다시는 「동서의 피안」에서 문명을 이겼은 이념으로 제외했다.

「동양 문명을 「수동형」이라고 하던 사람들은 「정적형」이다. 동양문명을 대결국이라고 하면 서양문명은 적극스토. 인도문명은 보자다. 아세아에는 도가를 세우려고, 서구스는 동분하려고, 또 저게는 행동하려고 한다」고 했다.

철학보다는 동적인 것이 낫고 그렇지 않은 것보다 동분과 진리가 낫다. 달세계에 도착할 과학은 놀라울 사람이 있지만 날 시대에 과거·전쟁을 물리면 과학이 이용한 높은 고원이 어디 있겠는가? 여기에서 현학적인 고상하고도 명확한 이념을 가지고 과학생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현학적인 기초를 세우고 과학적인 생활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살자는 것이 인간 줌의 보람이 아니겠는가? 예로 들어서 나는 「윌드 듀란트」에 있는 「모든 철학의 기초」를 좋아 한다.

자 재군들이여!

모든 현학의 기초로서 또는 광국으로서

제군의 기억과 마음에 영원히 남게될 말 한 마디를 나는 하려 한다.

『많은 철학자가 모인 그의 강연 끝에 늙은 교수는 학생들을 향해 말했다. 십구세 과학과 독일의 학설을 읽고 칸트를 비롯하여 피히테와 쉘링과 헤겔을

연구하고 해설하고

플라톤의 학술을 서술하고 플라톤보다도

위대한 소크라테스를

소크라테스보다도 더 위대한 이를 탐구하고

서술하여 십자가 그리스도를 오래 연구하였다

나는 오늘 그를 희랍과 독일의 모든 학설을

회상적으로 바라보며 모든 철학을, .

기독교회와 그 교리를 회상적으로 고찰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아래에서 분명히 보고

또 십자가 그리스도 아래서 나는 본다.

사랑은 그에 동기에 의한 다정한 사상을.

밤에 비친 별의 매력을

행복스럽게 결혼을 한 남편과 아내의 아이와 둘의 도시에 대한 고시와, 그리고 국가에 대한 국가의 다정한 사상과 매력을——

현학의 좌표

「엘트 위프렌」은 사람에 철학적이 될 능동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데서 과단의 효용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했다. 우리의 정신생활에서 순결적인 면과 이지적인 면은 무시할 수 있는가? 무리다. 합리적, 형이상학적 생활은 무시할 수 있는가? 중국의 사상가들은 정치에 유의하고 인륜의 실제적 문제를 따졌으나 장자는 현학 즉 형이상학을 개발 면에 내세웠다.

「뉴톤」도 만유인력과 신학의 중계를 보인 학문이라면 장자의 제물론은 철학적 뜻을 띠고 있는 학문으로 볼 수 있다. 장자는 노자의 도에 근거를 두고 열자(列子)의 뒤를 따라 노자가 말한 바 「도」, 즉 「무」로써 본 바탕을 삼았으나 「제물의 학」을 우주의 원칙으로 하여 소요자적하고 상세를 초월한 달관의 경지에 이른 철인이었다.

경교의 중심을 잃은 춘추전국시대에 혼란한 사상계에서 두 조류가 흘렀으니 그 하나는 현세적인 것으로 공자가 대표자인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초월적인 면으로 노자가 대표자일 것이다. 이 두 조류는 서로 대립된 상태 속에서 노자의 계보를 다른 사람이 아닌 장자이다. 이 둘을 합해 노자의 사상은 유철

을 떠나 무한으로―몸위를 허나 통일로 지향코자 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상적 인물은 정치가가 아니고 철인이다. 모든 사물의 귀결을 이상의 인물인 철인에게 귀부시켰고 또 철인으로 완전한 사회의 종류를 삼았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형이상학의 발원지인 희랍은 어떤가. 「Metaphysics」라는 말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저를 편집한 「안드로니코스」가 붙인 말로서 그 뒤에 바로 철학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시 논리학과 윤리학 속에다가 신과 우주와 인생의 모든 관념을 포함시켰다. 이 점에 있어서 노장철학에 말하는 바 「신인(神人)」, 「진인(眞人)」, 「천인」, 「지인(至人)」 등의 이상형의 인물과는 먼 거리에 놓여 있게 된다. 여기에 우리의 생활 체계나 이상적인 목적이 이 속에 들어 작용하지 않는 점에 있다. 서양적인 철학은 중세기에 있어서 신학과 철학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17세기에 와서 천문학의 창조인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내세웠을 때 이를 반대하는 철학의 대표들은 스콜라의 철학자들이었다. 그들은 「갈릴레오」를 향하여 하는 말이 우주동체는 과학의 다룰 대상이 아니고 과학에 해결할 바가 못된다고 했다. 그들은 1633년 6월 22일에 로마 구교회의를 열고 정식으로 선언하기를,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안정」있지 않고 동(動)하며 매일매일 밤낮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은 철학이나 신학적 견지에서 보면 모두 거짓이다……』

그러나 후세 모든 진리가 긍정되어 신학자들은 이 진리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 뒤이어 생물학이 과학분야에 들어오고 19세기 후반기에 와서 철학가들은 심리학을 떠나서 독립된 학문으로 주장했다. 철학은 논리학에 돌아온 감을 주고 말았다.

유가 뿐만 아니라 인도의 불가도 모두 철학에 속한다. 그러나 이 둘 가운데는 서로 같지 않은 점이 있는데 불교의 철학사상은 시종일관으로 종교를 떠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유교는 시종일관 윤리실천에 중점을 두었다.

희랍철학이 「애지(愛知)」라고 하면 유교철학은 아는대로 행하는데 중점을 두며 신비적으로 될 것을 배격하는 태도를 주안으로 했다. 노자나 장자는 비체계적인 지식, 즉 개념적인 지식과 철학적인 지식, 말하자면 도덕적인 지식을 구하므로 인생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노자나 장자는 자연주의에 입각해서 도가 어느 곳에나 있다고 했다. 동곽자는 장자에게 묻기를

『이른바 도는 어디 있는가?』

『어디나 없는 데가 없다』

「어디라고 꼭 지적해 주시오」

「개구리와 개미에게도 있다」

「그렇게 낮은데요?」

「기장과 피 낟알에도 있다」

「한층 더 낮은 데는?」

「기왓장에도 있다」

「더욱더 몹시 낮은 데는?」

「오줌 똥에도 있다」

이윽고 동곽자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도가 그처럼 보편하면서도 내재한다는 것은 신비중에서도 신비라 아니할 수 없다. 「도」의 보편성과 내재성에 대하여 장자처럼 잘 설명한 사람은 없다. 「도는 음양과 공허를 낳으나 음양도 아니요 공허도 아니다. 도는 생성과 파괴를 낳으나 생성도 아니요 파멸도 아니다」

노자철학은 「겸손은 이로우나 교만은 해롭다」는 말을 머리에 세웠다. 이와 비슷한 말은 구약성경 잠언에도 여러 번 되풀이 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어떤 사람은 노자의 「도덕경」과 「구약성서」의 시편, 잠언과는 너무나 같다고 해서 노자의 「도덕경」을 성경에 그대로 집어넣어도 무방하겠다는 말을 하는 이도 가끔 있다. 그러나 「도덕경」은 하나의 교훈이지 생명을 다루는 종교는 아니다. 거기엔 구원론, 속죄론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신앙으로서 볼 수 없다.

장자는 동곽자를 향해 보편성과 내재성에 대하여 계속으로 하는 말에,

「그대의 묻는 말은 도의 본질을 미치지 않으므로 나는 말단을 들어 말했다. 돈주에 있어 쓰는 돼지가 살찌고 여윈 것을 관원이 알려면 시장감독에게 물을 것이고 감독자가 돼지다리를 들고 중량을 보이는 것 같다. 다리가 살쪘으면 다른 부분도 따라서 살쪘을 것이다. 도가 오줌 똥에도 있다면 귀한 데도 있을 것이다. 도는 일정한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에서 없는 데가 없다. 인류적으로 구한다면 결국 도를 모를 것이다. 우주에 무엇에나 도는 하나씩 존재함이 없고 또 도는 만물을 위해서 따로 독립한 것도 아니며 둘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는다. 지도(至道)는 이렇고 대언(大言)도 이렇다」

이와 비슷한 기회의 설명을 보였다는 그와 정통조차 아리송한 현학적 미궁에 들어간 감을 주는 대목이 있다.

장자가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가 큰 나무를 발견했는데 그 근처에서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는 사람이 큰 나무를 베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이상해서, 왜 이 나무를 베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이 나무를 쓸 곳이 없어서 베지 않는다고 했다. 이 나무는 쓰임이 없어

서 가장예로 자란 것을 쳐서는 제자에게

「보라— 이 나무는 소용이 없어서 이만큼 컸단 말이야」

이윽고 장자는 그 산을 떠나서 어느 마을 친구집에 들어가 그 집 주인은 노는 아이에게 오리를 잡아오라고 했다. 아이가 주인에게 묻기를

「오리 두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잘 울고 다른 한 마리는 통 울지 않습니다. 어느 놈을 잡을까요?」

「그야 울지 않는 놈을 잡아야지」 했다.

「선생님, 그 숲의 일도 같습니다. 산에 나무는 소용이 없어서 제대로 잘 자라게 했는데 오리는 울지 않는다고 해서 잡혔으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용있는 것과 없는 것의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장자는 서슴치 않고

「글쎄말야! 소용있는 것과 없는 것의 중간을 택한다고나 할까! 하지만 이도 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기는—— 도와 다른 게 아니다. 또 이런 경우에 순례한단 말야! 칭찬도 받지 않고 비난도 받지 않으며 때에 순응하여 아무런 의욕도 가지려거나 남의 시비가 극투는 일없이 자연의 근본인 도에 순응해 살면 그만이란 말야! 살았거나 못살게나 시비할 것도 없이 자연에 맡기며 도 안에서 살면 그만이 아닌가?」

장자는 무위염담를 숭상했다. 신대는 그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세속적인 것은 초월했다. 때문에 죽음을 초연했으며 삶에 대한 집착이나 조금도 불안감 없이 너무나도 유유자적했다.

「소크라테스」도 어떤 면에서는 장자와 비슷한 경향이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축복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신의 것이므로 신이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우리에 문을 열어주어 좋은데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렇다—— 우리 인간은 생명을 임의로 끊을 수 없으며 끝에서는 한 오는 것이다. 이것은 장자의 학설과 아주 근접된 말이다. 즉 천지의 근본인 도를 떠나 자연에서 떨어진 고기가 될 때는 죽음도 지금과 같이 온다고 한 장자의 말을 뒷받침해 준다.

진리의 우화

인간은 원래 형이상학적인 동물이다. 어떤 현상을 그저 과대로서 이해하기에는 우리는 윤리와 종교와 역사와 예술과 과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 「용비어천가」에서 읊었다. 그 뿌리를 깊게 하고 그 나무의 꽃을 피우는 노

적으로 우리는 이제 전형적인 것을 살려 놓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실은 조건만을 가지고 질서를 가지지 않는 어떤 상태를 소중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 즉 선이나 악같은 것은 어떤 세상의 조건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기보다 그 사실의 뒤에 숨어있는 비중의 돌려주-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술 일종의 선악의 개념이나 일반 윤리적인 조건과 전혀 별개의 것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술을 감상하게 좋아하는 그 근본적인 태도에 연결되는 상태이다. 즉 인간은 애초부터 2원론적인 존재인 것이다. 현실에 투과된 인간 자기 내면에 깊숙이 뚫어져 있는 선의 두 얼굴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우리는 현실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 이 두 세계를 가지고 있다. 현상적인 그것에서 비롯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추상적인 그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철학이요 종교요 예술이다. 이 양자는 서로를 수식해 갔을 것이요, 인간에 의하여 서로 약속되어 갔을 것이다. 그래서 좋은 사회 또는 훌륭했던 국가에서는 이 양자의 체계가 아주 밀접하였고 거의 현실세계와 추상적인 세계가 비슷하게 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의 원형을 요순시대에서 구하고 예컨대 동양에서 본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것과 거의 정반대의 현실에 놓여 있다. 현실세계와 추상세계가 서로 이혼하고 있는듯한 상태인 것이다. 현실은 과학적인 세계에서 멀어져 버렸고 그리고 사상세계는 현실성 위에 발을 붙이지 못한 채 허공을 돌고 있다. 때문에 현실세계는 발서가 되어 버렸고 사상세계는 「현학자」이라는 레벨에 의하여 괴담을 벌이나 일축 당하고 있다. 이 둘 사이의 간격은 자꾸만 넓어져가는 것만 같고 그래서 2원적 체계가 아니라 다원적 세계가 형성되어 버렸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주체인 것이다.

주체는 사고와 행동의 주관자이며, 판단과 생각의 능력자이다. 이 주체의 설정에 우리는 현실을 방지할 수 있는 태도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성실성의 실체이다. 성실은 엄숙한 것이다. 진솔하게 사물을 대하는 태도이다. 진지하게 예술을 음미하는 입장인 것이다. 우리가 성실하면 현실을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철학도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완전한 생명체가 될 것이고 우리 앞에 펼쳐진 세계는 일종의 건강한 조용함을 가지고 우리를 감싸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개발된 세계에서 우주철학에 만나는 그런 사랑을 찾아

틀 수 있게 될 것이다.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인간은 모순의 종합이라고 했다.

첫째로 육체와 정신의 종합, 이것을 진정한 의미의 정신이라고 했다.

둘째로, 시간과 영원의 종합, 이것은 시간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때문에 정신은 순간의 연속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 순간에는 무엇인가? 종말해 있는 것과 종말해 있지 않은 것과의 둘 가운데 하나이다. 장자가 말하는 「有始也, 有未始有始也, 有未始有夫未始有始也」

(무엇은 맨 처음이 있었고, 그 전에 실체가 없는 것은 없을 것이다. 맨 것이 처음으로 정인은 동일에서 동이져 있음이 없느니라)

이 말과 같이 「키에르케고르」는 영원이란 그 자체가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자리잡으며, 시간 가운데 영원히 가로놓여 있다고 했다. 여기에는 단지 우연히 있지 않는 때는 것은 영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시간—다시 말하면 단순한 순간에 불과한 것이다. 시간이란 결함이 있으므로 그 자신이 「무」에 돌아가며 따라서 흘러가 버리지 않는 순간은 시간적인 순간으로서 「무」 가운데 사라지고 만다. 영원한 그 자신의 안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순간 가운데 있으면서도 영원하고 없으면서도 있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이 이중성이 인간의 정신적 불안을 초래한다고 했다. 불만족감을 갖고 일을 하면 일이 되지 않고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사악을 뉘우치고 일에 열중할 때 괴로움을 잊고 자신을 잊게 한 자아를 주로 하여 일할 때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해서 못할까? 두 관계 속에서 헤매면 마음이 산만해지고 불안을 갖게 된다.

원광(圓光)·원만(圓滿)은 돈의 원(圓)인가

한국사람들은 처음 이 원불교를 보고 원불교인가? 원불교인가? 두 관계 전제 하에 혼란에 빠지는 그 사람들뿐 아니라 일 될 리 없고 마음만 무산해지고 만다. 여다지 자신없는 경우에서 결실조차 잘 결중되어지지 않으니 자연히 마음은 불안상태에 놓여 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같은 극한상태에 놓여지게 될 때 원상복귀를 하지 못하고 인격이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 때문이다. 「원(圓)」이라는 글자의 본래의 뜻은 원만 또는 원광으로 해석되지만 요즈음 와서는 너무 국가적이고 세속적이 되어버려 돈의 「원」으로 해석되어지고 한다. 돈에 눈으로 행복을 가져온다고는 볼 수 없다. 돈으로는 세도를 부리고 행복하려해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종교나 정치로도 명쾌한 생활을 하지 못할 때는 그 마음에 어느 편으로 출발할 한 결단과 용기를 내리지 못한다. 현대 젊은에게 불안전한 자세가 바로 여기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의 불안한 심리상태가 바로 애증성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성서의 말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려도 하고 나무를 말 잔등에 싣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일단계에 자기에게 말씀 준 천사의 같은 계시는 악마의 말이 아닐까? 의심이 일어났을 것이다. 악마의 말일까? 그렇지 않으면 천사의 말일까? 결론은 의혹에 쌓였을 때 불안에 떨었을 것이다.

순간은 영원과 무한의 종합이다. 이것을 사람은 운명이라고 부른다. 운명은 되풀이되는 저주적인 비극이며 삽시간에 목숨을 잃는 군로병에 운명였다. 그러나 정의와 평화를 위한 뜻있는 일로 생각하고 싸운다면 불행과 궁조는 사라지고 기쁨이 올 것이다.

이런 사람은 결국 인간의 불행을 가엽지 하지도 운명을 미주 망각해버리려고 하는 하늘의 뜻이 되겠는가?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힘은 어쩌면 시오는 줄 안다. 불행한 운명이란 결국 허로운 명상을 보고 행복적인 「무」의 상태에 놓여있는 무한속에 자포자기 상태를 말한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결단성은 도대체 무한성에 결핍되어 버려 제구실을 못한다. 따라서 운명은 끊임없이 불안과 동반하게 된다.

노자는 무로 통일된 것을 선으로 봤다. 이 점은 「키에르케고르」의 이중성의 불안과 통하지는 않는다. 도가 「을 낳았다 했고 도를 넘으면 자연스럽고 막히지서 천연(초시)한 경지에 이른다고 했다. 서양의 불행은 도로 통일된 선을 이루하게 못하는데 있다고 말한 노자의 말은 「사르트르」의 『출구없다』는 희곡이 어떤 구체적인 힌트를 주는 감을 준다. 그래서 『출구없다』는 어떤 희곡인가?

『한 사나이와 두 여자가 지금금 죽어서 그 영혼이 세계가 놓여있는 이상한 방에 안내되었다. 이것이 바로 현대라고 하는 지옥인데다. 그러나 안과 밖의 관계는 완전 두절되었다. 세 사람은 이 방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애의 광경을 구경한다. 지옥의 귀신들은 현재를 얻고 밀살스럽게 한 결론을 내린다. 방문은 목도 하에서 열도록 되어 있어 밖에서는 도저히 열 수 없었다. 이 창한 지옥의 실정은 뻔히 보여지지만 안에. 유각은 차단되어 있다. 세 사람은 언제든지

해 할 수 없다. 서로 곁눈질만을 할 뿐이다. 이 관계에서 저편 사람은 풀어 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세 가운데서 남자 한 사람과 여자 두 사람이 이 지옥에서 영원히 함께 갇혔으나 서로 곁눈질을 하므로 결과 만족을 할 수 없었다. 서로 곁눈질을 하는데서 물도 공명하게 못하고 있었다」

인간이 불통되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비극적인 운명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노자가 말한 바와 같은 운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독일의 문학자인 「프란츠 카프카」는 인간의 내적적인 모순과 충돌을 이같이 말했다.

「우리가 세계를 볼 때 속의 세계는 초인간적인 속도로 돌아가는데 밖에 보이는 하늘은 천천히 걸음마기의 속도로 돌아간다.」

「키에르케고르」의 이중성의 불안과 「카프카」의 내적·외적 충돌에서 오는 인간의 불행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인간의 불행한 면을 보면 내적·외적의 충돌, 영과 육의 충돌, 주관과 객관의 충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행복한 면으로 바꾸어 볼 수도 있다. 생명이 나오는 위대한 일을 가질 때 「오셀」의 전개를 보면 「오셀」은 억울하게 「도미니」의 아래의 유폭적 유혹을 거절한데서 금욕생활을 했다. 그 금욕생활을 하는데서 광명을 체험하고 충만된 생활이 되었다. 「오셀」이 금욕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충만한 삶이 되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오늘의 세계문에 정신적인 체질의 비관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 내적인 불안의 공포에 대한 안도감과 우울함에 대한 결단과 용기는 외부에서 오기보다 내부에서 온다는 말은 「카프카」나 「키에르케고르」의 말이나 노자의 말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다시 말해서 현대의 고독은 외부보다 내부의 정신이 더 세심한 극의 수양에 있는 줄 안다. 이렇다고 소박하며 동쪽 거의를 배워 순진성으로 돌아간에 내 실의 자세가 다녀야 한다. 노자의 말에 의하면,

「오그라지면 온전하게 되고 굽히면 곧게 되고 움푹하면 차게 되고 헤지면 새롭게 되고 적어지면 얻게 되고 많아지면 혹하게 된다. 이러므로 성인은 一을 안고서 천하의 양식이 되나니 스스로 나타내지 않으므로 밝아지고 스스로 옳게 여기지 않으므로 드러나게 되고 스스로 칭찬하지 않으므로 공이 있게 되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므로 길게 된다. 그 오직 다투지 않으므로 천하가 그와 더불어 다툴 수 없다. 옛날에 또

구부러지면 온전하게 된다 한 것은 어찌 헛말이겠느냐? 참으로 온전케 하여 그것이 돌아가게 한다」

신약성경 가운데 특히 산상수훈(山上垂訓)의 첫 귀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했는데 이 가난한 마음이란 다름 아니라 겸손과 온유와 자비스런 마음을 말함인 줄 안다. 이것이 노자의 대성주의와 별다름 없는 교훈이다. 다만 노자는 신의 은혜 대신에 자연을 근원을 삼았을 뿐에게 덕이 있으면 모든 면에 부자연스러워지므로 자연스런 어린아이의 순진성을 갖고 덕을 수행하라고 역설했을 따름이다.

아이가 남을 해칠 줄 모르는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어린아이가 내 앞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했듯이

「성인은 모두 어린아이」라고 말한 노자의 말과 별 차이가 없다.

불안 초조의 탈출구

절대자 사이의 관계설은 순명적 태도는 같이 「키에르케고르」나 노자보다도 공자가 오히려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듯 싶다. 노자는 현학적이면서 비신비적이다. 「亡若有, 虛若盈, 約若泰, 有若無」(패망해도 있는 것 같고 비어도 찬 것 같고 적어도 큰 것 같고 있어도 없는 듯 하다)라 했으니 이와 반대의 입장에 선 공자는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함이 아는 것이니라」「있는 것은 있다 하고 없는 것은 없다 하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릇된 것은 그릇되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에는 중용도 아니요, 노장 실학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현학적이거나 신비적인 것도 아닌 애매한 사고가 우리의 정신세계를 오래 지배해 왔다.

「저런 건 없지만 많이 잡수세요」라든가, 배가 고프면서도 체면을 차리려고 「배 불러서 더 못 먹겠어요」라든가, 있으면서도 없는 듯, 없으면서도 있는 듯이 우리 생활의 모순 속에서 진실은 뒤에 아예 얼굴을 덮히고 말았다. 서양의 실존은 人과 神(我)과의 관계에서 실존주의가 생겼다면 동양은 인간과 자연을 합치해서 실존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은 개인간의 뜻을 내포했으니 「인」과 「중(中)」은 아주 밀접되어 있다.

「중용」에서

자왈(子曰) 「道不遠人, 人之爲道而遠人, 不可以爲道」(도는 사람을 멀리 한

수 없나니 사람이 도를 위해 사람을 멀리 한다는 것은 도가 될 수 없을이니라.

우주는 원형이다. 유기적으로 된 우주는 그 형체가 원형이면서도 중심을 보전한다.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다른 말로 중용이라고 한다.

「動的圓面 宇宙論」

이 같은 유기적인 프렉터당연을 필요인 줄 안다. 모가 났거나 결에가 되는 점이 있는 물건을 원으로 볼 수 없는데 씨앗은 원을 요구하고 행동은 중용을 요구함이 우주의 원리다. 우주의 본체는 하나의 「동(動)」에서 동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아무것도 안보이고 원으로만 보인다. 동의 속도가 극치에 이르면 열려야 될 수 없는 원으로 화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우리가 늘 자주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동의 속도가 빠르면 때 물고기 보이지 않고 다만 원과 그림자만이 보일 따름이다. 이 중에 좋은 원이 오엔이다. 우리들에 우주의 개념을 분석하여 그것이 유물론적 혹은 관념적 혹은 유심론자들이 말하는 정신적 관념 그 개념은 원을 떠나지 못한다. 우리들이 말하는 우주의 본체는 원인데 이것은 우주의 본체설을 반대하는 학설과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주의 본체는 원이며 우주는 동시 중체임을 알게 준다.

그러면 「중」이란 무엇인가? 이는 균형이다. 세상 만물은 모두 균형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우주에는 인력, 반발, 압력이 있는데 이것들은 서로 충돌하고 모순으로 결국 조금도 안정된 상태에 놓여 질 수 없으나 균형이 있으므로 해서 안정된 상태를 이룰 수 있으니 이 「균형」이 곧 「중용」이다. 「원」과 「중」으로 해서 원만과 중심이 함께 될 수 있으며, 질서에 상응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용을 예찬한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이 있다.

그는 로마의 「황금의 중용」을 노래했다. 실제적인 가운데 진실적으로 중용을 소중히 하면서도 재담스럽게 그 생활을 고백한 사람은 없다. 「황금의 중용」을 노래한 이 시인은 중용에 모든 학문의 중심이오, 시 계문, 서로 알고 놓아 이를 찬양할 줄 안다.

우리는 창공보다 유구한 이념을

또 명확보다 더 높은 피라미드를 세웠다.

황금의 중용이란 고대인들의 이상에 있고 무한과 유한계의 교섭이었다. 「무한한 과다 한계와의 동일」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의 철학 속에도 뿌리박혀 있는 말이다. 「호라티우스」는 이어서 신은 역경에 있을 때 유달리 감추어진 운명을 바라고

득경에서 그것을 두려워한다.

즉 인생을 달관한 사람은 불행 중에서 희망을 바라고 행복 중에서 운명의 냉혹함을 잊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같이 달생관은 통달과 공도를 뜻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박에서나 궁통에서 오는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지식의 원만에 이르는 과정

혹은 부분으로서는 우주의 다방면을 체득할 수 없다. 원만하기를 요구하는 자가 지식만으로 우주의 신비와 접촉코자 한다면 자아를 작은 우주 속에 봉쇄해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주는 다방면이요, 진리는 무한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주관만을 고집하여 사물을 보고 느끼고 생각한다면 그 보고 느끼는 바의 세계와 진리는 좁은 것이 되고 만다. 인간은 겸허한 태도로 사물을 고구(考究)해야 하며 허심으로 진리를 연구해야 한다. 여기에서 「격·물·치(格物致知)」의 초보에 이르는 것이며, 이 초보가 「학(學)」이 된다. 「학」은 지식의 초보인 동시에 그 결과는 사물의 외면을 접촉하는데 불과하므로 우주의 실재성을 체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단계의 지식은 산만한 것에 되기 쉽다. 진정한 지식은 사물의 외면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며 사물을 하나의 통일된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사물간에 자재한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같은 사물간의 상호 공동관계를 파악함이 곧 「격 물 치」에 제 2보인 「통(通)」이다.

사물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사물의 실재에 접근한 것이다. 우주는 유기적이어서 사물의 관계는 결코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일 변해가므로 이 관계를 파악함은 산 것을 파악함이 아니냐. 이같이 사물의 상 관계를 파악함은 다시 말해서 지식을 산 지식으로 만드는 것이며, 사물의 발전을 동시에 발견시키는 것이므로 이것이 「격 물 치」의 제 3보인 「화(化)」인 것이다. 「학」한 후에 「통」할 수 있고 통한 후에 「화」할 수 있으니 지식의 대화(大化)의 경지에 이르면 원숙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지식은 단순히 피동적으로 외계의 사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며 진정한 유기적 지식은 즉 우주 발전의 한 요소이기도 한 것이다. 인생은 지식으로써 우주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써 우주를 재현하는 것이다. "노고한 사색과 「불원천」「불우인」을 체득하는 것은 「원만」과 「화해」를 지향하는 까닭이므로 이는 「격 물 치」의 제 4보인 「정(靜)」이다.

「정」의 경지에 이르러 우주를 향해 진

제한에는 자기와 행과 환경의 복잡한 조직과 기울어 도하게 이르러진다. 이때 주관과 객관은 합일시키는때가 「천」에 이르게 된다. 중용에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이라 했는데 희노애락이 발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중」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인도는 허(虛)에서 중(中)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도 중용의 추상적이며 애매한 관념에 가까운 것이다. 송 현자에는 형태상으로 「중정(中正)」 「주정(主靜)」 「존도덕(尊道德)」 「드러냄(顯[illegible])」의 분설이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적연부동(寂然不動, 感而遂通)」의 원리와 별 차가 없다. 그러나 이들 학설은 희열불미([illegible])하지만 마음은 모든 사리의 최고대원칙으로 된 것은 틀림없다.

중용의 작자는 「중」자에 대하여 세가지 주석을 붙였는데 「시중(時中)」 「중화(中和)」 「중용」이다. 시중은 시대와 환경에 맞는 중이오 「지어지선」, 「실천사대([illegible])」 「죽어 죽는 말은 큰 일에 미치나 전체를 잃는 큰 일이다」는 반존어결의 구절에서 나왔으나 지금은 이 학설에 통할 수 없다. 중화(中和)는 「발이개중절위지화(發而皆中節謂之和)」라 했는데 중화는 마음이 전체로 중요한 것이다. 이는 전체의 하모니를 뜻한 말이다. 중용은 「행복중」을 말함인데 용은 「평범」, 「상식」, 「중용(庸[illegible])」을 말함이다. 한쪽도 편벽되지 않다는 뜻이다.

결 론

과학만으로 인간생활이 행복해 질 수 없다. 과학이 발달될수록 노이로제가 많아지고 불안초조가 더 커질 따름이다. 이 불안상태에 놓인 서구인들은 고결한 동양(東洋)은 곧 이상적인 위로와 안식처를 찾는데 있다. 서양의 과학문명이 분석에서 생기고 정복을 지향해 나가는 입장에서 벗어나 전체와 융합을 모색하고 동양은 미는귀적인 철학의 입장에서 때마 우주도 하나가 되는 인간 삶을 찾는 조화된 입장을 모색하는 데서 진정한 인간의 정신구조가 재정립되고 행복증진이 서로가 될 것이다.

× × × ×

군사기밀보호법 체제완비

군사기밀보호법의 시행령이 지난 2월 10일 각의를 통과했다.

군기의 범위와 그 보호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이 의무를 위배하거나 군기를 탐지·누설한 경우의 벌칙 등을 규정하고 이 시행령은 군사기밀을 중요정도에 따라 1급·2급·3급비밀로 구분하고 군사기밀 분류와 동시에 기밀임을 표시 또는 고시토록 했다.

군사기밀보호법의 시행령이 지난 2월 10일 각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군기보호를 위한 법체제가 모두 갖추어진 셈이다. 비상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작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군기보호법은 한 마디로 해서 군기의 범위와 그 보호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이 의무를 위배하거나 군기를 탐지·누설한 경우의 벌칙 등을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군기의 법적 보호는 기밀보호가 군사방위의 제1요건이라는 사실과 함께 군기의 범주를 놓고 벌어졌던 「군기논쟁」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법이 생긴 동기는 일반형법의 간첩죄 등만으로는 군기를 보호할 수가 없다는 현실에 대응한 것이다.

법이 규정한 군기의 범위는 아주 열거적(列擧的)이다. 법은 군의 중요결정, 용병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까지 7호에 걸친 기밀을 열거하고(제2조) 각호의 범위를 별표로 세부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군기를 취급하는 자는 기밀임을 명백히 표시하거나 고지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도 접근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조]. 또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는다[제15조]. 또 기밀 취급자가 기밀을 누설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조①], 과실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5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제9조①].

기밀취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당하게 기밀을 탐지, 수집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제6조), 탐지 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6조]을 규정했다.

기밀누설에 신문, 방송 등을 통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제11조]. 또 기밀의 과실누설(2년 이하 징역 제9조②), 우연히 소지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제10조)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시행령은 기밀을 3급으로 분류, 기밀의 범위를 대폭 자세히 규정하고 기밀의 고지, 표시방법을 정했다. 고지에 있어서는 설명, 열람, 응답에 앞서 기밀등급을 알리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한다는 뜻을 경고하는 방법으로 한다[안 제2조 및 별표].

또 고지나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의 「필요한 조치」로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가 있다. 보호구역은 ① 군사제한구역과 ② 군사통제구역으로 구분, 비밀취급 비인가자는 ①에서는 안내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고 ②에서는 출입을 금지한다. 어느 경우에나 경고로 구역을 표시한다(안 제4조와 별표).

또 이 시행령은 「군의 중요부서의 인사에 관한 사항, 군 고급지휘관의 인사에 관한 사항, 특수부대 지휘관의 인사에 관한 사항」 등 규정했던 군 인사기밀의 범위를 「군의 편제상 장관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부대의 지휘관 및 참모와 정보부대 및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지휘관」으로 정리했다(제5조).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사상의 기밀(이하 군사기밀이라 한다)의 관리, 취급, 표시, 고지, 공개, 기타 기밀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군사기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기밀의 구분 및 분류)

① 군사기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군사 1급비밀, 군사 2급비밀 및 군사 3급비밀로 구분한다.

1. 국가기밀 중 누설되는 경우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군사방위계획, 군사정보활동 및 군사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기밀은 군사 1급비밀로 한다.

2. 국가기밀 중 누설되는 경우 군사방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밀은 군사 2급비밀로 한다.

3. 국가기밀 중 누설되는 경우 군사방위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밀은 군사 3급비밀로 한다.

② 제1항의 군사기밀의 분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군사기밀의 표시 및 고지 등)

① 군사기밀은 그 취급자에게 경고하고 기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의 분류와 동시에 군사기밀임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군사보호구역의 설정)

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기관의 장은 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

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한 군사기밀에 대하여는 그 기밀에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기밀의 소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군사보호구역의 구분, 설정대상 및 설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보호조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기관의 장은 군사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한 경비
2. 출입 인가자의 한계 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3. 보관용기의 사전점검

제6조 (군사기밀의 공개)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군사기밀을 해제 또는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서로 국방부장관을 거쳐 중앙정보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국민에 대한 계몽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2. 국가안보에 현저한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때

제7조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조치)

국방부장관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사기밀의 재분류, 배포된 군사기밀의 회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군사기밀의 취급관리 등)

군사기밀의 취급관리 기타 군사기밀의 보호에 관하여 이 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한다.

제9조 (군 인사에 관한 군사기밀의 범위)

법 제2조 1항 제6호 및 법 별표의 제5호에 규정된 군의 중요부서에

인사에 관한 군사기밀의 범위는 군의 편제상 장관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부대의 지휘관 및 편조된 결전부대 및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지휘관으로 한다.

제10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안업무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은 이 영에 의하여 분류된 것으로 본다.

군사보호구역은 제한·통제 2개로

1. 군사보호구역은 군사제한구역과 군사통제구역으로 구분한다.

가. 군사제한구역이라 함은 군사기밀 및 군사기밀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한계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나. 군사통제구역은 군사 보안상 지극히 중요한 군사기밀이 보관되어 있어 예를 들어, 교체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누설당할 경우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2. 군사구역의 설정대상

가. 합동 비밀보관소

나. 암호 취급소

다. 비밀 상황실

라. 정보 분석실

마. 정보 공작실

바. 군사기밀자료 및 군사기밀 장비의 보관시설

3. 군사보호구역의 표시 및 고지 요령

가. 표시의 방법

(1) 군사제한구역

「경고」 (군사 제한구역)

이 구역 내의 출입은 군사기밀 취급 인가자에 한함.

출입을 요하는 비 인가자는 관계자의 안내를 받을 것.

(2) 군사 통제구역

「경고」 (군사 통제구역)

이 구역 내의 출입은 군사( )급기밀 취급 인가자에 한함.

(3) 경고 (군사 제한구역) (군사 통제구역) 및 군사( )급비밀은 적색으로 표시한다.

나. 표지판의 규격 및 설치장소

군사 보호구역표시의 표지판은 비 인가자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되 관계 시설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 사용한다.

군사비밀의 분류기준

1 급 비 밀

1. 국가방위 및 외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사항

2. 우리 나라 또는 우방국가에 무력침공이나 전쟁을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군사정책 및 군사외교에 관한 사항

가. 군사에 관한 비밀조약 또는 협정이나 비밀 합의내용

나. 군사전략 및 작전계획의 내용 및 집행사항

다. 비밀무기의 설치 및 사용계획, 전시소요계획, 비밀무기의 저장량 등 군사전략에 관한 사항

라. 핵무기 사용 및 전쟁방지에 관한 운용계획

마.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적 능력의 정보판단

3.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군의 편제, 장비 및 동원에 관한 중요사항

4. 군사상 중요한 전략 정보수집활동 및 완성된 군사정보계획

5. 군사력향상에 매우 중대한 과학, 기술 발전에 관한 사항

2 급 비 밀

1. 국가방위에 중요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사항

2. 국제관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군사상의 비밀활동조약 및 회의 등의 부분적인 사항과 국가방위계획 및 그의 효과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군사사항

가. 군사 1급비밀에 속하지 아니한 군사전략, 군사작전 및 훈련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군사행위 및 군사비밀 외교(군사협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자군부대의 지휘계통·구성 수·부대의 명칭 수 또는 부대의 장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

라. 정보부대 및 특수작전부대의 임무·위치 또는 활동에 관한 사항

마. 부대가 사용하는 군사시설의 위치·구조·설비·성능 또는 강도에 관한 사항

바. 부대가 사용하는 함정·항공기·병기·탄약 기타 군수품의 종류·수량·상태 또는 배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사. 군 및 군속의 신분을 가진 간첩의 수색·체포활동에 관한 사항

아. 군사동원의 계획·발령 또는 그 집행에 관한 사항

3. 군의 편제·장비 또는 동원에 관한 계획의 내용 또는 그 집행사항

4. 군의 편제 또는 장비의 현황

5. 제조 또는 도입중이거나 보수중인 함선·항공기·병기·탄약·기타 군수품의 성능·제작·보관 및 수리에 관한 기술·사용방법 및 전반적인 수량과 품목에 관한 사항

6. 군 기관의 창설·수정 또는 해체에 관한 계획 또는 그 집행사항

7. 군이 보유하는 전반적인 적의 군사비밀에 관한 사항

8. 전시 및 훈련시 군의 수송계획의 내용 또는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중요한 군용통신시설 또는 군용 통신규격의 배분에 관한 사항

10. 전반적인 군 통신망의 조직, 통신소의 호출부호 또는 사용 주파수에 관한 사항

11. 군용 암호에 관한 사항

12. 전반적인 군수공장의 생산 또는 수리능력에 관한 사항

13. 군수품의 발명·개량에 관한 연구의 내용 또는 그 성과(군의 계약, 위탁 또는 감독에 의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4. 전반적인 향토예비군의 편제·장비 및 동원에 관한 사항

3 급 비 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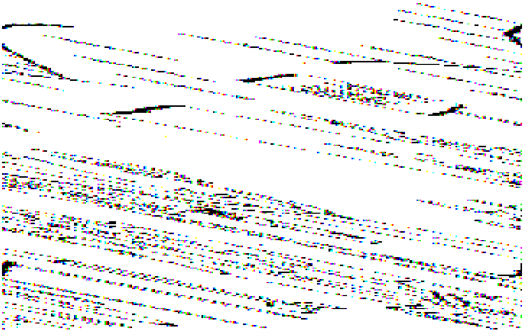
1. 국가의 보안상 중 누설되므로써 적 또는 가상적국에게 유리하게 이용될 우려가 있는 군사사항

가. 공개되기 전의 부분적인 비밀군사외교(군사원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나. 군사 2급비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사작전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 군사정책·군사전략·군의 작전 계획과 이에 따르는 군사용병에 관한 사항

가. 부분적인 각군부대의 예속 계통·부대수·부대의 병원수 또는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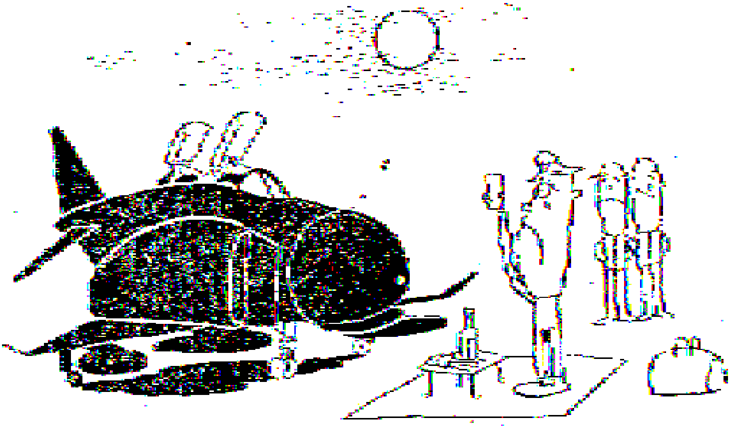


◇ 성질이 급하다 ◇

식수는 완료! 아울러 군발할 때의 주의사항 몇 가지를 하달하니 주지하여 착오 없기 바란다.

에…… 일렬을 그대로 구우면 폭발물이 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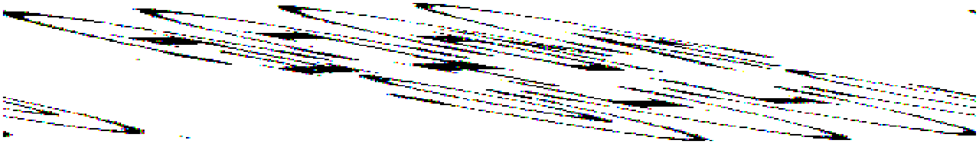
그러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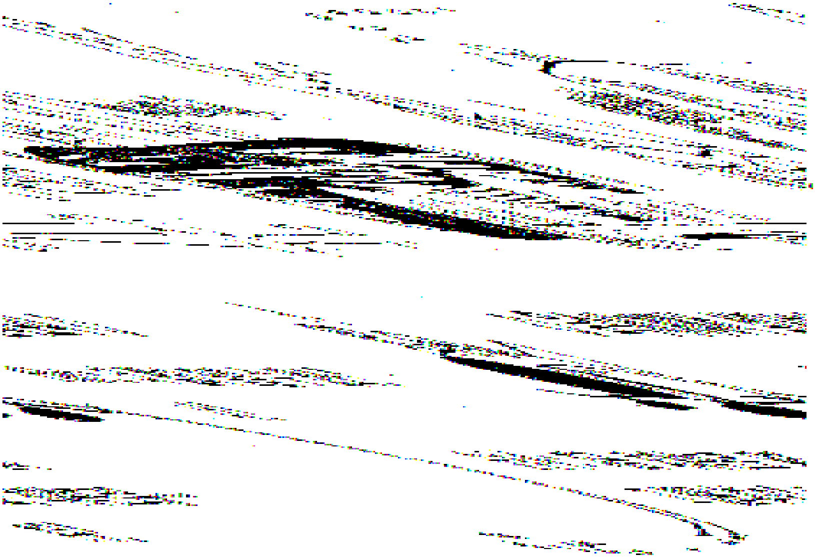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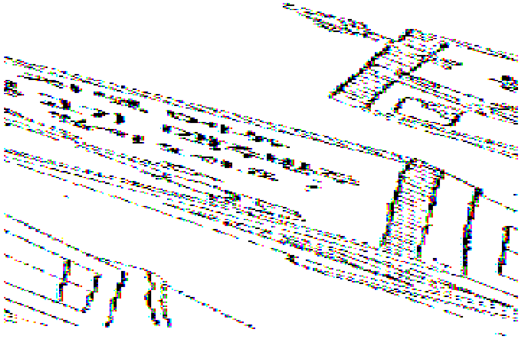
◇ 어느 기지 라인에서 ◇

아듀! 도레미!

삼여년간 내 정성어린 손때가 안 묻은 곳이 없는 그대를 두고 내일부로 향토예비군이 된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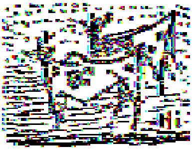




◇ 주효한 귀가작전 ◇

나 오늘도 일찍 귀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됐네그려……… 김대위!

소박(素朴) 속에 깃든 전우애



김 은 우
<이대 사범대교육원장>

우리의 조국이란 우리들 자신이 제 마음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들 자신이 조국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이다.

왜 내가 이 나라에 그리고 이 민족의 하나의 존재로서 태어났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여 줄 사람은 이 지상에는 하나도 없다.

철학자도 과학자도 종교가도 심리학자도 왜 내가 하필이면 이 땅에, 이 나라에 그리고 이 시대에 태어났느냐를 설명하거나 대답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내가 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갖은 고생과 노력을 하면서까지 나의 조국을 지켜야 하느냐의 대답은 오히려 간단하고 명확하다.

나의 조국이 나를 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아무런 설명이나 이론이 필요하지 않다.

즉 나는 대한민국을 나의 조국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되게끔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어느 아들이 왜 내가 저 사람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고 효도를 다해야 한단 말인가 하고 물을 때 「저 사람」의 아들로 내가 태어

낳기 때문이다라는 한 마디로 모든 설명이 끝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국애란 모든 인간의 판단이나 세력이나 사유 이전에 속하는 존재이고 명령이다.

모든 인간에 초연관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과 나의 관계는 하늘의 뜻인지도 모르고 혹시 신의 장난인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로서 이미 이루어진 회피할 수 없는 사실 그 자체인 것이다.

조국에 충성을 다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자기자신 전부를 바쳐야만 하는 당위적인 요청은 도덕적인 요청도 아니고 윤리적인 행동강령도 아니다.

모두가 도덕과 윤리 이전에 속하는 자연적인 법칙에 의한 지상명령이다.

어쩌면 생각 이전의 소박한 원리이고 진리일 지도 모른다.

즉 우리의 말없고 소리없는 피(血) 그 자체 속에 들어있는 원리이고 진리인지도 모를 일이다.

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일 수도 있고 뼈와 살일 수도 있다.

오히려 나의 마음 속에 깊이 우리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튼다면 그것은 말이나 개념적인 사상이나 생각과 이론과 논리로써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과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때는 우리가 무시하고 경시했던 소박한 피부와 감각기관이 먼저 조국애를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발휘해서 작용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심리학자 「제임스」와 「랑게」의 정서학설이 맞는 것 같다.

즉 「제임스」나 「랑게」는 우리가 웃거나 울거나 즐거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것은 우습고 즐겁게 생각되니까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몸이 생각에 앞서서 즐거워하고 웃으니까 즐겁게 되고 우습게 된다는 것이다.

슬퍼하고 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슬프니까 슬퍼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의 어떤 부분이 먼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슬프다. 눈물이 난다라는 식으로 된다는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다.

자기 나라와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기 때문에 또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으니까 나라를 나는 사랑하게 되었고 조국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못되고 조국을 내 목숨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가르침과 논리적 귀납(歸納) 이전에 무엇인가 저절로 조절할 수 없게 조국애의 마음이 먼저 몸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조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 좋은 예를 여기서 몇 개 들어보기로 한다.

나는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심리학을 했고 「매스커뮤니케이션」도 전공을 했으며 신학도 배운 사람이다.

좀처럼 해서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태도에서 떠나는 일이 적다.

어지간한 일에 눈물도 안 흘리고 감동이나 감탄도 별로 하지 않는 비교적 냉정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도 어쩔 수 없이 가슴이 마구 뛰며 감동과 감격이 한꺼번에 터지게 일어나서 눈물을 막을 길이 없이 눈물을 흘리며 흥분하는 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국군의 날의 우리 군인들의 분열식 행진을 볼 때다.

한두번 경험한 것이 아니다. 볼때마다 체험하고 있고 나의 가슴은 뛰고 감격과 감동의 눈물에 마구 젖어지는 나 자신을 보고 놀라는 수가 있다.

얼른 보아 그 행진 자체는 별로 이론적인 어떤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 행진을 볼 때는 순간적으로 그 어떤 이론이나 주의나 철학을 볼 때보다 먼저 더 큰 충격을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몸 전체로 가지고 경험한다.

이것이 바로 내 몸 속의 피와 뼈와 살 그리고 모든 감각기관이 외치는 나라 사랑과 조국애의 심포니 같은 것이라 하겠다.

두번째의 예를 들면 미국 영화 중에 「게리쿠퍼」가 주연한 「박스」([illegible])이라는 비교적 오래 전(한 20년 전일 줄 안다) 영화가 있었다.

그 영화에 보면 바로 진짜 애국심이 어떻다는 것을 잘 밝혀주는 장면이 있다.

「존 도우(케리쿠퍼 분)」라는 실직한 야구선수(그는 유명 투수였는데 팔이 부러지면서 직업야구 팀에서 쫓겨났다.)와 어떤 허스름한 대중식당의 늙은 주인과 서로 마주 앉아서 묻기를 당신은 우리 나라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왜 사랑하고 또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묻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늙은 식당 주인이 말하기를 나는 뭐 별로 내가 애국자란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별로 나라를 위해 한 일도 없을 뿐만에 아니라 또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우리 나라 국가만 들으면 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아랫배가 뭉클하는 것을 느끼며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힘이 주워지고 그것이 점점 가슴 위로까지 올라와서 그대로 앉아 있지를 못하고 벌떡 일어나게 되며 그때 기분으로는 내가 당장 죽어도 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뛰어 나가고 싶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는 마치 바보처럼 아무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존 도우」는 나는 이상하게 우리나라 국가만 들으면 바로 그 순간에 나의 목덜미가 뻣뻣하면서 마치 전기침을 한대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나고 바로 그로써 나의 눈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눈에 고인다. 물론 나는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는데 이것이 아마도 내가 우리 나라가 조국과 낳은 새나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된다고 하면서 혹시 이런 느낌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다는 하나의 나의 육체의 외침인지도 모른다 라고 말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 위에서 말한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감각과 느낌 전부를 가지고 그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국민인 것 같다.

세번째의 예로는 이것도 영화의 이야기인데 불란서 영화 중에 이별의 곡이라 해서 유명한 역사적 피아노 작곡가이며 연주가였던 「쇼팡」이 이제 막 자기 조국인 폴란드 외적의 침입을 받으며 막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불란서 「파리」로 연주 여행을 떠날 때까지 친구들에게서 환송의 흙을 받으면서 친구들의 말 「자! 이것이 네게 조국의 흙일세」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감격한 나머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직감적으로 느낀 기분은 나중에 「마즈르카」라는 유명한 애국곡을 창작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냥 흙이 되었던 그렇게 유명한 곡, 즉 애국애족을 상징하는 역사적 작곡을 하였나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애국애족심의 생동력은 기실 그 근원은 두꺼운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의미없이 보이는 한 줌의 조국땅의 흙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옛에서는 잘 알 줄 안다.

우리는 외국에서 보는 부두거나 독계 항공선의 도착지인 국제 비행장에서 오랫만에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젊은이들이 배나 비행기에서 뒤에 내려오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 조국의 땅과 흙에다가 큰 「키스」를 퍼붓는 장면을 본다.

흙과 땅이 뭐길래 그렇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흙이 정말 우리들 조국애를 일깨나도록 하는 그 엄연한 진리와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오래 전부터 독일에서는 애국심을 길러주는 시간 과목을 각급 학교에다 집어 넣는데 그 시간에 가르치는 그 내용을 보면 애국심을 강조하는 이론과 해설과 설명을 주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나라의 갖가지 식물과 동물과 자연 그 자체를 가르치는데 심지어는 잡초나 곤충에게도 학생이 친밀감을 가지고 알게 하여 직접 접하도록 하는 시간을 배정해 왔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말없는 식물이나 곤충은 곧 애국심을 일으키게 하는 직접적인 교재가 된다는 것을 독일은 일찍 발견해낸 모양이다.

조국을 지키는 공군 장병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병들에게 정말 조국을 위하여 자기 마음과 몸을 바칠 수 있는 조국 사랑하는 마음과 정열의 그 원천이 되는 것은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웅변 이전에 가장 소박한 비중 속에 있는 것이다.

「말없이 아무렇지도 않은 자기 아내가 사철 발 벗고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보리이삭을 줍던 곳, 그곳을 참아 꿈엔들 잊을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시의 한 귀절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같은 자기 가족과 식구들께 오손도손 모여서 질화로에다 밤이나 감자를 구워먹으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도란 도란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부담없이 나누는 바로 그런 자리와 그런 시간과 그 분위기 그리고 그런 집안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 물체 즉 헤진 대문에다 개나리로 둘러싸인 울타리, 살구나무와 밤나무가 마당머리 서 있는

행체

공 피사일의 조만에 적합)

○ 항공기의 가격 상승

○ 값비싼 같은 지상 표적에 대한 공중 공격의 위험 표적 명중도의 한계

○ 인명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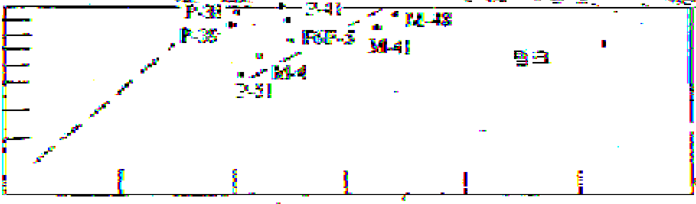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이 결을 무겁게 해 주는 평가 기준이 변해가고 있다. 즉 손실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손실이란 임무 한 표적을 공습 하는데 소모되는 여러 비용과 손실, 일별 출격 회수 및 할애되는 특정의 몫(항목) 등을 말한다.

대공 방어의 정도는 매 출격회수에 대한 소모율 즉 손실비로 나타낼 수 있다. 한국 동란시 미 공군의 출격회수는 170,113회이고 대공포화만에 의한 손실비는 0.12~0.29%이다. 2차 대전시 연합국 전장에서는 출격회수 33,000여회에 손실비는 5.0%이다. 6일간의 중동전쟁에서 처음 이틀 동안 출격회수 1,000회에 손실비는 2.6%, Remagen철교 공격시 출격회수 402회에 손실비 32.2%, 괴르펠 공격시 출격회수 351회에 손실비는 5.0%가 된다. 이러한 손실비는 Red Eye, Hawk, Chaparral, Vulcan 같은 고도로 발달된 대공무기가 출현하기 이전의 것이니 오늘날은 어떠할 것인가 짐작할 수 있다.

손실비는 대공 방어의 효과 뿐만 아니라, 지휘관이 공격 규모를 선택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휘관은 예견되는 비율과 위험률를 고려하여 공격 규모를 선택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또한 전쟁지원, 국가정책 및 운영되는 전쟁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제2차대전의 공중 전술에 의하면 특정 방어가 심한 중요한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많은 출격을 감행하여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항공기의 가격 때문에 이러한 전술은 곧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차 대전시에는 중요한 한 표적을 공중 공격으로 파괴하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수만불의 비용에 불과했고, 항공기의 손실비는 수% 정도였다. 오늘날은 같은 표적을 파괴하는데 드는 비용은 1~2백만불 정도가 된다. 이전과 같은 비용을 고수하려면 손실비를 예전의 몇 십분의 일로 줄여야 하는데 대공 방어가 점점 더 심해지니 오히려 손실비는 예전보다 훨씬 증가된다.

매일 손실비가 5%라는 이야기는 조종사가 3주 동안 생존할 가능성이 50% 정도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2차 대전의 3년 동안 유럽에서 영국과 미국은 약 4만대의 항공기와 16만 명의 승무원을 잃었다. 현재의 가격으로 계산하면 이 항공기들의 가격만도 2천억불을 이루게 된다. 한국 동란 동안 미국은 2천여 대의 비행기와 1,700여명의 승무원을 잃었다. 매출가격으로 항공기의 가격



중에 의하여 격퇴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유인 비행체와 비교할 때 가격면에서 그리 절약되지 않을 문제점에 놓아있다. 예를 들어 F-4에 1,000lb의 폭탄 6개를 싣고 운항해 0.1, CEP(Circular Probable Error)300ft로 한 목표를 명중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1,100,000불 정도이고, 이와같은 공격의 결과를 RMV를 이용한 경우 90,000불 정도가 소요된다. 물론 RMV를 이용하는 경우 조종사의 피해는 없으나 여전히 RMV의 비용이 훨씬 유리하겠지만 좀더 RMV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일종의 RMV라 할 수 있는 "카메라 새"의 가격은 대략 50,000불 정도지만, 요즈음 개발된 다목적용 RMV의 가격은 약 500,000불 정도나 된다. RMV의 높은 가격의 주요원인은 항공전자 장비의 높은 가격에 기인한다. RMV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자 장비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RMV의 기능은 아주 다양하다. 표적을 공격하는 기능 이외에 다른 몇 가지 기능을 예를 들어 보면,

○ 지상군에게 표적 지시를 할 수 있는 레이저 광투 장비

○ 근접 지원: 넓은 전장의 감시, 수복작전 지역에 대한 수색, 확인 및 표적 지시. 저항권 교란장치의 무기 운반, 전단 보급품 운반.

○ 통신 중계: RMV는 아주 미세하므로 움직일 수 없고 조종할 수 있는 통신 중계소이다. 사람의 힘은 실릴 제 없어 매우 높은 고도에서 오래 동안 머무를 수 있다. 실제로 7만ft 고도에서 24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RMV가 개발되어 있다.

결 론

유인 조종항공기와 비교할 때 현존 RMV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 한층 더 접근 공격을 할 수 있다.

○ 설계된 큰 기동력에 견딘다.

○ 아주 정교한 대지저 그리고 확실한 전자적 폭탄 투하를 개선시킬 수 있다.

○ 조종사가 피살되거나 체포되는 위험을 제거해 준다.

○ 보도로 잘 방비된 미증 방어망 수역에도 손쉽 우수한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다.

○ 한 표적당 파괴하는데 드는 비용이 절약된다.

○ 공격을 성공시키는데 필요한 출격 회수를 감소시킨다.

다른 한편 이와 반대로, 공격의 정확도가 점점 증대하게 되고, 표적을 공격하는데 넓은 지역에 걸쳐 많은 양의 무기를 투하할 필요가 없을 때, 그리고 조종사가 큰 기동력이나 여러 비행 조건에 견디지 못할 때, 인간적 시행—착오—결단력이 거의 치명적인 관점에 돌입하지 않으면 안 될 때 RMV의 보다 적절한 기능이 발전될 것이다.

「빌리암·미첼」의

심 사 수

1. 미첼의 생애

윌리엄 미첼(William Mitchell, 1879~1936)은 미국이 낳은 위대한 항공인이다.

그는 항공기가 군용무기로써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1차대전 후반기에 있어서 항공계의 미래를 예견하고, 항공세력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쟁하였다. 전투원의 사상자 1천만명, 비전투원의 사상 1천 5백만명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낸 4년간의 1차대전에서도 항공기는 전장에서 주역을 담당하지 못했었다. 모든 군사전문가들은 국방의 주축은 육군과 해군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다. 1차대전이 끝난 19년 후인 1937년까지도 세계는 비행선(LZ 129 힌덴부르크호)에 대해 흥미와 기대를 집중하였었다. 오늘날 항공기의 특성으로 삼고 있는 항속거리, 속도, 전투능력, 화력운반능력 등이 극히 유치했던 당시의 항공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큰 기대를 걸지 않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첼은 예리한 통찰력으로 항공세력의 위대한 미래를 내다보았으며, 미래 전쟁에 있어서는 항공기가 반드시 전장의 주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의 이러한 확신은 그의 조국 미국에 대한 뜨거운 애국심과 결합하여 항공세력 확장을 위한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항공세력의 확장 없이는 미국의 국방이 실현될 수 없다고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윌리엄 미첼(William Mitchell)은 애칭인 빌리 미첼(Billy Mitchell)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그는 1898년 미국 육군의 위스콘신 제1보병사단에 한 병사로 입대하였다. 그의 탁월한 능력은 곧 인정을 받게 되어, 바로 장교로 임관되었으며, 육군통신 시설을 통제하는

단의 통신 장교로 보직됐다. 1916년 비행교육과정을 마치고 항공과로 전출되었다. 1917년, 미국이 1차대전에 참전하자, 그는 프랑스로 건너가 유럽주둔 미국항공대 사령관으로 근무하였다. 이때 그는 소령이었다. 이 무렵 그는 영국의 항공사령관인 트렌차드(Hugh Trenchard, 1873~1956)와 자주 만나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미첼은 트렌차드로부터 많은 영향과 감화를 받았다. 항공세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사상적 체계화가 시작된 것은 이 때부터였다. 전쟁이 끝난 후 1920년부터 1925년까지 그는 미국항공대의 부사령관으로 근무하였다. 이 기간 그는 항공세력의 독립을 위해서 군의 보수파들에 대한 줄기찬 투쟁을 계속하였다.

1차대전에서 미국이 참전했던 기간은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전쟁에 있어서의 항공세력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경험을 갖지 못한 채 종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비록 짧은 기간의 경험이었지마는 항공대의 지도자들은 미래전에서 항공기가 담당할 역할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항공기의 잠재능력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이다.

전쟁이 끝나자 평화를 구가하는 세계의 대세에 따라, 미국의 항공대도 위축하기 시작하였다. 1918년 종전을 앞두고 육군항공대는 항공기 13,100대를 발주하였으나 종전과 더불어 이것은 취소되었고, 20만명에 달하던 항공대의 병력도 감축되어, 1920년에 항공대 병력은 장교와 사병 합해서 1만명 미만으로 감소되었다. 항공기 생산도 위축되어 1923년이 되자 미국의 항공기 생산능력은 90%가 감소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미래전을 중시하는 미첼의 의지와 정열은 통분을 금할 수가 없었으며, 여기에서 그의 투쟁의 생애는 출발하게 된다. 그는 항공세력의 확장을 외쳤으며, 육군·해군으로부터 공군이 독립해야 한다는 것 ——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미국도 국방이 가능하다고 하는 논리를 전개해 왔다.

1920년의 육군 재편성법에 따라 육군에는 23만명의 지상병력 이외의 항공대(Air Service)의 설치가 인가되었고, 병력은 1만 7천명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항공대는 육군의 한 전투병과로 규정되었으며, 장교 1천 5백명, 사병 1만 5천명, 후보생 2천 5백명의 편제가 인가되었다. 항공대 사령관의 계급은 소장으로, 찰스·티·메노허(Charles T. Menoher)가 이에 임명되고, 부사령관에

는 기질 충돌이 선명되었다.

이와 같은 연유에 편성된 항공대에서는 27개의 항공대대가 있었으나 이것은 모두가 육군작전을 지원하는 임무에 중점을 두었으며, 따라서 항공대의 실제 전투부대는 원정군 육군의 9개 군단에 각각 분산 배치되었고, 그 결과로 항공대사령관은 단지 비행훈련학교, 항공보충부대 등만을 관할하는 정도가 되었다.

항공대사령관인 패트릭 소장은 공군의 독립을 지지하는 자는 아니었으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머지않은 장래에 항공대가 육군으로부터 독립하기에는 미숙하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항공 세력을 위한 투쟁에는 과격파인 미첼과 아놀드(Arnold), 풀로이스(Foulois) 등이 선봉에 나섰고 이 중에서도 미첼이 최선봉의 인물이 된 것은, 그의 성격이 가장 대담하고 솔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1920년부터 1925년까지 항공대의 부사령관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그는 육군연합참모부에 대해, 거칠고 활발한 존재로 인식되었으므로, 「연합참모부의 골치거리」(Gadfly of the General Staff)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하였다. 군의 보수파 사람들은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미첼의 비전(Vision)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그는 어둔 들에서 울어대는 외침의 계몽이 되고 말았다.

미첼의 주장과 반대파의 주장에 상관되는 문제의 핵심은, 항공기가 과연 육·해군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또한 항공기가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육·해군의 고위층 지도자들은 거의 모두가 항공기의 독자적 임무수행 능력을 의심했었다. 그들은 1차대전의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도 항공기는 지상군에 대한 지원을 주임무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항공기의 독자적 임무수행능력을 의심했었다. 왜냐하면 항공기의 독자적 임무란, 적의 도시와 산업시설에 대한 장거리 전략폭격인데, 이러한 임무는 1차대전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생소한 임무였다.

1918년 10월, 연합국 독립공군(Inter-Allied Independent Air Force)이 창설되었으나, 이 독립공군은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해 보기도 전에, 창설된지 1개월만에 종전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적의 전선 후방에 대한 전략폭격을 주장하는 미첼에게 미국의 여론은 냉담하였다. 왜냐하면, 적의 도시와 산업시설을 파괴해야 한다는 미첼의 주장은 「모든 전쟁을 종결시키는 전쟁」(The War to end wars)을 무효화시키고,

[illegible]

달러는 막대한 건조비용 지불하고, 독일로부터 비행선(LZ 126호, 또는 ZR 3호) 1척을 구매하였던 것이다. 참사를 당한 셰난도아호는 미국 해군이 1차대전 후에 최초로 건조한 비행선이었다.

비행선 셰난도아호 조난사고에 대한 비난 이후에 미첼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는 워싱톤으로 소환되어, 19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법정에 섰다. 그는 법정에서도 불공정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군사재판을 요구한 사람은 다름 아닌 쿠울리지(Coolidge) 대통령과 국방장관 위크스(John W. Weeks)였다. 결과는 명백하였다. 그는 유죄로 판결되어 5년간의 정직처분을 받았다. 1926년 미첼은 제대하였고, 곧 버지니아의 그의 농장은 막을 내렸다. 나머지 10년간의 생애를 저술에 바쳤다가, 1936년, 그의 꿈은 실현되지 못한채 57세로 사망하였다.

미첼의 주장은 아놀드 등 후배에게 계승되어, 제2차대전 미국 항공에는 미첼이 예언했던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1930년 미국에서는 세계 최초의 전금속 폭격기(B-9)가 제작되었으며, 1934년 아놀드는 폭격기 B-10 10대를 지휘하여 알라스카에서 시아트르까지 13,200킬로미터를 비행함에 성공하였다. 1940년에는 항속거리 1,000마일의 B-17 개발을 했고, 1943년에는 항속거리 1,500마일의 B-29를 완성하였다.

1930년대 경시되었어야만 했던 미첼의 주장은 태평양전쟁을 통해서 비로소 입증되었다. 미국 국민은 항공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미첼의 선견적 행위는 애국적 충성심에서 우러난 것이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1942년 미국 국회는 1925년 영구 중령으로 강등되었던 미첼을 그의 사망 연도인 1936년으로 소급해서 소장으로 진급시키는 특별법을 가결하였다. 항공세력 발전의 중요성을 주장하다가 희생을 치른 선구자 미첼이 미국의 국민에 기여한 공로는 드디어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2. 퇴사피코인의 실험

항공세력을 위한 투쟁에 있어, 미첼의 생애 중에서도 가장 절정을 이루는 것은 1921년에 실시한 군함폭격 실험이었다. 항공기의 발달 때문에 해군의 함선은 앞으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미첼은 주장하였다. 그는 앞으로의 해상제해권은 군함에 의해서가 아니고, 항공기에 의해서만 장악될 것이며, 여태까지 만들어진 군함 중에서 항공기의 공격에 견딜 수 있는 군함은 없고, 앞으로 건조될 여하한 군함에라도 항공기에 의해 격침되지 않을 것은 없을 것이

라고 단정하였다. 그는 전함(Battle Ship)에 대한 항공기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3회에 걸친 대규모 폭격실험을 실시하였다. 첫번째는 1921년 7월의 오스트프리에스란트(Ostfriesland)호의 격침이며, 두번째는 동년 9월의 알라바마호의 격침이고, 세번째의 것은 1923년 9월에 실시한 버지니아호와 뉴저지호에 대한 실험이었다.

당시에 있어서는 해군당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전함의 불가침성을 인정하였고, 더욱이 불가침의 요새로 설계된 전함에 도전할 무기는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모든 군사전문가들은 전함이야말로 세계를 지배하는 병기라고 믿었던 것이다. 모든 열강들이 이 전함의 건조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였으며, 1차대전 이후 1922년부터 시작한 워싱턴군축회담의 주제는 바로 이 전함건조를 어떻게 제한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항공기의 공격능력을 확신한 미첼은 수천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해군의 권위에 도전하였으며, 전함의 불가침성의 신화를 제거하였다. 그는 해군으로부터 많은 논쟁 끝에 항공기와 군함의 결전을 실현하게 되었다. 1921년 7월 20일~21일 양일간에 걸쳐 체사피크(Chesapeake)만 입구에서는 미국 국민의 관심이 총 집중되는 가운데에서 전함·항공기의 대결전이 공개되었다. 이 2일간의 실험에서, 미첼이 지휘하는 폭격대는 불가침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오스트프리에스란트호를 격침시키는데 성공했다.

오스트프리이스란트호에 대한 도전은 미첼에게 있어 사활을 결정하는 중대사였으며, 해군측은 미첼의 요구를 일소에 부치고 승리를 확신하는 자세로서 경기에 임하였다. 이 역사적 순간의 경기를 위하여 미첼은 1921년 2월, 버지니아주 랭글리(Langley) 비행장에 폭격단을 편성하여 훈련을 거듭하였다. 유치한 항공기의 성능, 조잡한 폭탄투하장치, 조종사의 미숙,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맹렬한 훈련에 치중하였다. 이 랭글리 기지는 1921년 1월까지만 해도 항공기 10대, 조종교관 7명, 조종학생 8~9명 밖에 되지 않는 조촐한 상태였었다. 군함 공격시험을 위한 훈련이 시작되자 이 랭글리 기지는 불과 1개월 만에 조종학생 1,000명, 항공기 550대를 가지는 방대한 비행장으로 변하였다. 폭탄 투하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폭탄의 위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 개발도 같이 진행되었다. 당시에 사용된 폭탄은 1천 파운드 폭탄이 보통이었다.

미첼은 폭탄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600파운드, 1,550파운드, 2,000파운드,

그리고 4,000파운드 등 각종 규모의 폭탄을 사용함으로써 파괴효과의 증가를 꾀하였다.

특히 공중폭 파괴력도 크거니와, 바로 옆에 투하 할 경우 그 효과를 높이게 되었으면 항공기 자체의 안전이 위험을 받게 되므로 명중률은 저하된다. 예컨대 경우에는 56발 중 30발이 목표권 내에 명중하기도 했으나, 다시 이번의 훈련에서는 143발 중 겨우 12발 밖에 명중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도 전의 일련 훈련에서 동기간의 공격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한편 해군 측에서는 이번의 실험을 위하여 오스트프리슬란트(Ostfriesland)호를 내어 놓기로 하였다. 이 배는 독일의 전함인데, 1차대전 후 미국이 배상 독일로부터 접수한 전함이다. 이 전함은 1차대전 직전인 1911년에 건조된 27,000톤의 배수량을 가진 거함이었다. 이 군함을 건조함에 있어서는, 당시 해군장관 티르피츠(Tirpitz) 제독의 주문에 따라 문자 그대로 불가침의 배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어뢰와 기뢰의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내벽(4중)의 장갑이 되어 있고, 특히 1차대전의 유트란드(Jutland)해전에서는 영국 함대로부터 18발의 포탄공격을 받고서도 모항으로 무사히 돌아온 불사신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전함이면 미첼의 공중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해군측에서는 이 실험을 도박에 대어 놓았던 것이다.

1921년 7월 21일, 체사피크만(Chesapeake Bay) 입구에는 역사상 미증유의 해군과 공군의 대결투를 구경하기 위해 많은 군중으로 운집하였다. 이 군중 속에는 보도기자 50명, 수 백명의 정부 요인이 있었다. 정부 요인으로는 윅스(Weeks) 국방장관, 해군장관 덴비(Denby), 농림장관 월리스(Wallace), 해군차관 테오도르 루스벨트 2세, 그리고 상원의원 8명, 하원의원 12명이 있었다.

7월 20일 오후 3시 30분, 시속 20노트의 바람을 무릅쓰고, 떼를 지어 비행하는 폭격기 5대가 각각 300파운드 폭탄을 오스트프리슬란트호에 투하하였다.

투하된 5발 중 3발이 전함에 크게 명중하였으나, 이 거대한 전함의 골격은 조금도 동요되지 않았다. 20일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다음 날(21일), 다시 폭탄실험은 계속되었다. 기상은 양호, 풍속은 12노트, 시정도 양호하였다. 이날의 실험에서는 1,100파운드와 2,000파운드 두 가지 폭탄이 사용되었다. 아침 8시 30분에 투하된 4발의 1,100파운드 폭탄중 2발이 명중하여 갑판을 뚫었다. 공격을 중지하고 검열반이 관찰하

었다. 관찰자는 오기에트만큼 굴어 차 올렸다. 그러나 젤로한은 「아직도 항해가 가능함」이라고 보고하였다. 랭글리 기지로 돌아온 미첼의 공격대는 재보급을 받아 12시 부터 다시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번에는 폭격고도를 2,500피이트로 잡아 2,0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하였다. 두 발의 폭탄이 전함에 명중하지 못하고 지근탄으로 3,000톤의 큰 물기둥을 만들었으며, 전함에는 손상을 가하지 못했다.

12시 32분에 3차 공격이 개시되었다. 12시 37분과 38분에 투하된 제2탄과 제3탄이 다의 배로 떨어져서 지근폭발하였다. 배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제4탄이 이 측면 30야아드에 투하되었다.

거선 물기둥에 출렁이는 순간 젤리의는 물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제3차 공격이 시작된지 16분만인 12시 38분, 거대한 불침함 오스트프리에스란트호는 침몰되고 말았다.

미첼은 영웅이 되었다. 미첼을 비롯하여 랭글리 기지로 돌아온 항공대원들은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기지에는 환희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반면에 거대한 배마다의 항복을 목격하고 현구에 서 있던 해군지도자들은 통분의 눈물을 흘렸다. 이 날, 미첼의 폭격에는 불멸의 역사의 전환점을 제시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 및 군 지도자들은 이 엄연한 현실을 수긍하려 하지 않았다. 항공세력의 눈부신 아침 해는 아직도 두터운 구름에 가리워져 있었다. 1921년 7월 21일에 있었던 오스트프리이스란트호에 대한 비극은, 전함이 해상에 항공기가 큰 위협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함선이 제공권을 상실한 상태 하에서는 결코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군 지도자들은, 항공기의 공격능력을 믿으려 하지 않았으며, 오스트프리이스란트호에 대한 공격은 「앉아 있는 물오리」(Sitting duck)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비평하였다.

1923년 9월 14일에 육군참모총장 직에서 물러난 퍼어싱(Pershing, 1860~1948)장군은 9월 13일에 국방장관에게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항공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미국의 항공부대는 전장에 있어서 육군부대에 대한 보조세력으로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상부대와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만 그 최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육군부대가 수행하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군을 지상에서 압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체사피크만에서의 실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러나 포사고가 집중하는 정밀으로 항공

거의 전모·저서에 명확하게 발전되어 나간 것이다.」

3. 미첼의 항공사상

미첼의 항공전략사상 두헤(Douhet 1869~1930)——두헤에 대해서는 「공군」지 1984년의 「두헤의 항공전략사상」을 참조——의 사상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미첼의 저서를 열거하면, 1921년에 출판된 「우리의 항공력」(Our Air Force)을 비롯하여 「날개 있는 방위」(Winged Defense, 1925), 「공로」(Skyways, 1930), 그리고 그의 사후 1960년에 출판된 「1차 대전 회고록」(Memoirs of World War I) 등이 있다.

미첼이 두헤의 저서를 보았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첼의 사상에 두헤의 이론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헤와 같이 미첼도 항공력에 의해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견했으므로, 항공력의 잠재능력을 크게 평가하였다. 「아마도 미래의 전쟁은 특수한 집단, 즉 항공부대에 의하여 수행될 것이다.——국가 비상사태가 되었을 경우, 전 국민이 소집 동원될 필요는 없을 것이며, 다만 극히 큰 잠재능력을 가진 항공기를 조종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만으로도 족할 것이다」라고 그는 설명하였다.

미첼도 폭격기를 중시하고 폭격효과를 크게 평가하였다. 폭격효과에 대한 미첼의 기대는 두헤보다 훨씬 더 컸다. 두헤는 적의 전쟁수행능력과 근원지를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 반하여, 미첼은 「미래전에 있어서는 공군이 한 도시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만으로서도 그 도시 주민은 도시에서 철수할 것이며, 따라서 모든 공장의 생산활동이 정지되어 버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미첼은 항공력이 적군 및 적국민의 사기에 미치는 효과를 절대시하였다.

전략폭격의 목표에 관해서는 미첼은 두헤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미래에 있어서의 영속적인 승리(Lasting Victory)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조성하는(To make war) 적국의 능력을 파괴해야 한다. 그 능력이란 곧 공장, 통신수단, 식량생산지, 농장, 연료보급소, 그리고 적 국민이 생활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까지도 공격해야 한다」. 미첼이 말하는 공격 목표는 국제법상 「무차별 폭격」이라고 금지되고 있는 것이었으나, 어디까지나 미첼의 주장은 적의 국민 생활을 혼란시키는 것이었으며, 살상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 도시의 모든 건물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파괴할 필요는 없

다. 다만 시민들에 드러내서 좋게 나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도록 해서 봉쇄해야.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가스폭탄이면 족할 것이다.」

전투기에 관해서는 미첼은 두헤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두헤는 제공권의 임무를 무시했고, 따라서 지상군과의 협동작전에 필요한 전투기의 필요성을 완전히 무시하였음에 반하여, 미첼은 지상군과의 협동작전의 중요성을 인정하였으며, 항공기의 전술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또한 미첼은 항공기의 사용방법에 관해서도 두헤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두헤는 항공기를 공격형 기로만 주장하였으며, 「만약 항공기가 방어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힘의 배분과 낭비라고 하는 우스운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함에 반해, 미첼은 항공기를 방어형으로 사용할 가능성과 가치에 대하여서도 인정은 하였다. 「공중공격에 대한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어는 적의 공군력을 공중에서 말소시키는 것」이며 「적의 항공기에 대한 적절한 방어수단은 우리 자신의 항공기 밖에 없다」.

미첼이 해군력을 어떻게 평가했던가 함에 관해서는, 이미 오스트프리스란트호의 격침실험에서 잠깐 보았거니와 그는 항공기의 등장으로 인하여 해상의 제해권을 장악하는 임무가 다 끝났다고 주장한다. 여태까지는 해역방어와 해외권익 확보는 전함을 주축으로 하는 해상함대가 담당해 왔으나, 해상함대가 항공기 앞에 무력함이 입증된 금일에 있어서는, 제해권은 전함에 의해서가 아니고 항공기에 의하여 장악되어 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금일에 와서 만일 어떤 전함이든지, 그리고 앞으로 건조될 어떤 전함이든지, 항공기에 의하여 완전히 그리고 용이하게(With absolute sureness and facility) 격파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상함의 해군(Surface Navy)이 해전방위를 위한 최선적 수단이라고 하는 생각은 낡은 사고방식이다」. 그리하여 미첼은, 해상 제해권은 앞으로 항공기에 의하여 장악될 것이므로 해군의 주력가는 해상이 아닌 수중(Undersea)세력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해권이 공중에 달렸다면, 장차의 해상세력은 항공기와 잠수함에 의하여 장악될 것이다. 해군력이 강력한 수상함대(Surface Fleet)에 의하여 존속된다는 이론은 낡은 사상이다. 우세한 해상함대만으로서는 이제 제해권을 확보할 수 없다. 이제부터 해군은 주로 수중함선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미

같은 제해권 장악의 임무를 항공기가 대행하게 될 시대에 있어서는, 해군력의 중요성이 소멸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육·해군과 비교해서 항공세력에 관해서 말한다면, 육군은 발전이 정지되는 단계에 있고, 해군은 국방체계의 중요성이 감소되어가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항공세력은 앞으로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

미첼의 이상한 예언들이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하여 거의 타당하다고 함이 입증되었으며, 항공 우주무기의 개발로 향해 달리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도 그의 이론의 타당성은 입증되고 있다. 1차대전 이후 2차대전까지의 중간계에 있어서, 모든 전략가들이 거대한 전함을 절대시하고 전함에는 항공을 생각하기조차 못했던 당시에 있어서, 전함의 무력성을 갈파하고, 전함의 무용론을 주장한 미첼의 예리한 통찰력은 실로 놀라운 탁견이었다. 1941년 12월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의 주목표가 미국 태평양함대의 주력함인 전함 8척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일본이 1936년 런던 군축회의에서 탈퇴한 후 세계 최대의 거대한 전함을 건조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미첼의 논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된다. 미첼의 예견 대로, 1936년부터 4년 이상의 세월을 소모하여 건조한 일본 해군의 7만 8천톤급의 거대한 전함 「야마토」는 1.5톤의 포탄 3,000발, 사정거리 4만미터, 주포의 구경 46센티미터……등 세계 최고도의 파괴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간의 태평양전쟁에서 그 거대한 포탄 단 1발도 명중시키는 일 없이, 1945년 4월, 드디어 미군 항공기에 의하여 격침되고 말았던 것이다. 오늘날 전함(Battleship)은 함대편성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전함을 건조하는 나라는 없다. 한 세기 이상의 영화를 자랑했던 전함은 항공기의 등장으로 인하여 줄곧 지켜오던 왕관을 항공모함에 넘겨주고 말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끝으로 미첼의 항공사상이 가지는 결함과 제한성을 지적해 두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미첼도 두헤와 마찬가지로 폭격기의 능력과 폭탄투하에 의한 파괴효과를 지나치게 평가하였다. 또한 항공공격이 미치는 심리적 효과를 과신하였다. 또한 해군력과 지상군의 중요성을 경시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측된다. 즉, 역사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기가 살고 있었던 당시에 있어서의 최고 무기를 절대병기(Absolute weapon)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미첼도 항공기야말로 절대

렸다고 생각하는 과오를 범했기 때문이다. 미첼의 시대에 있어서 전함은 신화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 불가침의 무기였었다.

그런데 이 전함을 구축화시키는 항공기야말로 진정한 현대무기일 것이라고 미첼은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항공력만이 앞으로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라고 내다보았다. 미첼은 장차의 과학문명이 다른 신영계로 비약에 발맞추어, 육군과 해군도 각각 새로운 과학의 응용을 통하여 현재를 극복하고 미래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발전적 가능성을 간과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과신적 과격성에도 불구하고, 미첼의 당시에 있어서의 발전적 견해를 펼친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의 국방을 예언했다는 점에 있어, 그의 선각적 가치는 높이 평가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의 주장이 과격했던 것은 그의 혼신에 너무나 집했기 때문이며, 그의 예언자적인 혼신이, 독립성을 요구하는 신중한 보수주의자들에 의하여 좌절 당했을 때 그의 의협은 더욱 날카로운 절규로 변했던 것이다.

미첼은 최종적으로 공군을 독립된 군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국방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미첼이 열원했던 미국공군의 독립은 그의 사후 12년, 그리고 그가 공식으로 강등되어 텍사스주의 산·안토니오로 쫓겨갈 때부터 23년이 지난, 194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실현되었다. 「육·해군의 일관된 주장은 대공무기가 항공기에 대한 적극적 방어 수단으로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전함은 결코 항공기에 의하여는 격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주장은 모두가 불합리한 말이다……그러면 국방을 위한 진정한 현대적 제도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일까. 그것은 국토방위의 제1선을 담당하는 자로서 공군을 창설하는 일이다.」

× ×

회 견 기

구입해 접수되었다. 프랑스 비행학교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비행학교이며 동시에 1,000명 이상의 학생을 훈련시킬 수 있었다)에서 전투기 조종훈련을 끝마친 후 제66 Spad 1차대전시의 프랑스제 단좌 복엽 전투기 중대(전투비행대대의 전신)에 배치되어 제1차세계대전의 휴전시까지 출격하였으며 총 62회 전투출격을 하였다. 이중 공중전은 30회, 확인된 격추는 2대이고, 3대는 미확인 격추이었다.

전쟁이 끝나자 신코레이중령은 뉴욕 오로라의 자택으로 귀가한 다음 재정적 곤란을 해결으로 현재 살고 있는 콜로라도스프링에 이사하였다. 그의 비행에 대한 애착은 결코 누그러지지 않아서 1933년에는 자가용 경주비행기를 스스로 설계하고 만들어서 같은 해에 열린 전국비행경주대회에 참가하여 동기 중에서 제2위를 차지하였다.

1930년대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스프링의 중간 지역에 있는 큰 농장을 사서 경영하였다. 그와 그의 가족은 1970년에 이 농장을 팔아서 은퇴할 때까지 농사에 종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재빨리 미 해군에서 임명장을 받고 펜사코라 해군항공기지에서 해군 항공승무원(사병)의 사격교관 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을 맡았다. 1942년 3월에는 하와이로 건너가서 카네오헤 만 해군항공기지와 바버스포인트에 고등비행훈련학교를 창설하였다. 그 후 엔젤레스에 돌아온 신코레이중령은 종전까지 해군본부에서 승무원 사격훈련 계획을 담당하여 1958년의 퇴역시까지 예비역으로 있었다. 농장일과 해군예비역 근무에서 은퇴한 신코레이씨의 은퇴 후 전원생활은 고된 그의 전성시대의 아지랑 생애를 지시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그는 현재 Lafayette Escadrille항공대와 비행대 생존자회의 총재로 있으며 또한 Lafayette Escadrille기념재단 이사회의 일원으로 있으면서 프랑스에서 종군 중 전사한 용감한 미국인의 기념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기념재단의 기념비는 파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이곳을 방문하는 일반 여행자들에 많은 관심을 주고 있다. 그는 또한 제군기능의 관수와 시공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 기금으로 기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당년 79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두 종의 비행사령부에서 활약하는 반면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가용 비행기를 스스로 조종하였다. T-33도 조종한 바 있으며, 공군에는 고도로 숙련도를 요하는 F-4를 탑승한 일도 있었

다. 저쪽에서는 클로테르스크림의 자태에서 사람들은 허락 조용히 살고 있다. 우리들에 자동차로 그의 저택 정문을 통과하여 현관에 도달하다. 그의 사람됨을 잘 반영하는 아늑한 존엄성에 우리들은 설동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안채에 들어가니 하녀가 우선 우리 일동을 그의 서재에 안내하여 주니 쉰크레아중령이 어제까지 걸어온 생애의 여러가지 역사를 보여주는듯한 분위기에 우리의 눈에 들었다. 방벽 한쪽 벽에는 프랑스 정부와 미 정부에서 받은 훈장이 걸려 있고 다른 벽에는 조종사 활동기의 여러가지 사진과 설계도가 걸려 있었다. 책장 가까이에는 금테두리를 한 프랑스 조종사의 모자가 걸려 있고 방한 한 구석에 있는 책장에는 책들이 많이 꽂혀 있었다.

그가 우리에게 인사를 드리고 일어서자 그의 큰 키에 우리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 키는 6피이트 5인치는 넘었을 것이고 과거는 원래에 Spad항공기를 조종하였을 때와 같이 지금도 꼿꼿해 보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기 몸을 전투기 조작 내부와 같이 조화되게 하기 위하여 Spad 기체의 좌석을 줄여 놓았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들의 손을 꽉 쥐면서 악수를 하고 나서는 눈을 반짝거리면서 적당한 안락의자를 우리들에게 권하였다. 우리는 사전에 인터뷰를 하고자 함을 서신으로 요청하고 또한 여러 가지의 질문을 통하여 그가 체험한 전투조종사의 배경에 관한 여러가지 질의를 제출하였다. 그는 곧장 화제에 들어가려고 하는 눈치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즉시 본제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자기의 소견을 솔직히 말하였는데 과거의 격추 이름, 장소, 일자, 고도 및 속도를 거의 계산기와 같게도 역력히 기억하는 데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나간 반세기 동안에 일어난 여러가지 일들을 언제도 당시와 같이 생생하게 명백히 알려주었다.

쉰크레아중령이 전투기 조종사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은 특히 귀를 기울여 그 말 들었다. 대령께서는 비단 변론하였지만, 조종사에 기질에는 천부적이 있었다는 것을 독자들은 앞으로 인터뷰 내용을 통하여 알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인터뷰가 끝나자 우리들은 우리의 자동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는 금일의 미국 수도인 방향이 옛적 1918년대의 파리와 같은 좋은 휴양지가 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었다.

※ 편집자 주 : Lafayette비행대는 전원이 미국 지원병으로 구성되어 있었

으며, 이들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군과 같이 비행하였다. 또한 Escadrille Americaine비행부대는 1916년 5월에 편성되어 프랑스공군 내에서 오직 미국인만으로서 구성된(그러나 미국인이 지휘권을 가지지 못하였다) 유명한 비행대대(제 124비행중대)이며, 1916년 11월에 Lafayette Escadrille비행대로 부대명이 변경되었다. Escadrille 부대에는 최종에 미국인이 5명 뿐이었으며 15명을 초과한 적은 없었다. 전체 비행군대 내의 프랑스 비행대대에서 약 200명의 미국인이 실제로 비행에 참가하였는데 이 동안에 총 39명의 미국인이 이 124비행대대에서 비행에 참가하였다.

문: 전투기조종사로서 중령께서는 다른 조종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다고 느끼십니까?

답: 그렇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전투기인 Spad와 Nieuport기종은 여러 제작을 가진 독일기와 앨버트로스기보다 성능이 우수하였으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싸워야만 하였다. 비행기에 해서 올라갈 수 없는 때에는 자신이 만사를 혼자 처리하게 된다. 우리 정찰기로 Bay 군은 특수임무로 출격하였지만 우리 등 전투기조종사들은 주로 소위 「자유 초계」임무로 출격하였다. 우리들도 적의 정찰기를 계속 추격을 한 일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특수임무로 출격한 예도 있었지만 적기를 공격하기 위하여 마음대로 배회하는 임무가 가장 많았다.

문: 중령께서는 비행을 시작한 이후로 많은 비행사와 사귀었을 것입니다. 초창기의 전투기조종사 시대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경험을 통하여 숙련한 경험을 쌓았다고 보는데 어떠한 조종사가 천부적인 전투기조종사라고 느끼십니까?

답: 그것은 오로지 천적으로 타고난다고 본다. 요즘 몇 명의 전투기 조종사와 이야기를 해서 보니 자기들이 전투기조종사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는 전투기 조종사이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전투기조종사를 대표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전투기조종사를 용모나 특정 행동으로 식별할 수 없다고 보게 되었다. 내가 아는 전투기조종사 중에는 키가 크고 몸도 가 하지 자신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문: 실제상의 개인성, 말하자면 운동선수에 있어서의 기민성 같은 것이 출중한 전투기조종사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 아마 운동선수는 경쟁의식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운동경기가 공중전투와 같이 전적으로 「정세」를 잘 읽어 나가는 예민한 감각이 필요한 전투기 조종사는 보다 경쟁적인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는 이해하고 있다. 기민성과 더불어 여러가지를 조정하며 활동하는 능력은 중요하지만 이러한 자질을 구비한 사람은 오직 운동선수만이 아니다. 내가 아는 친구 중에는 무명의 운동선수의 기질은 없었지만 뛰어난 전투기조종사가 된 사람이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그들에게 이러한 것을 보편화하여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드는 것이다. 운동선수가 자신을 스스로 공격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훌륭한 전투기조종사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나는 본다. 문제는 정신적인 자세에 달려 있으므로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들도 이를 평소 체득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문: 공군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시에 신체적 적합성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습니까?

답: 당시는 어떠한 구체적인 일정한 연습이나 혹은 오늘날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체기능 조절계획과 같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들 중의 많은 사람이 전쟁 전에는 운동선수였었다. 나는 축구, 조정, 하키 및 무도술을 하였다.

나는 훈련중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익숙하였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과 신체기능 조절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한 요구이며 훌륭한 신체기능 조절이 당시는 공헌과 같이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이렇게 유익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다.

문: 전투기조종사의 경우 자기 훈련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고 있는 폭격기조종사의 경우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답: 물론 비행시 자기 개체에는 아무도 힘을 보태어 주지 않는다. 즉 스스로 주위를 살피며 자기 개체의 한계를 계속 파악하며 연료잔고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모든 것을 제2의 습관화하여야 한다. 전쟁 후 수년간 나는 자주 기차를 탄 일이 있었는데 창에서 운행하는 전차를 볼 때에는 그것이 Dead-stick Landing(엔진정지)을 할지 않은 착륙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관계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활공할 수 있는 행든 간에 나름대로 후방의 연료를 조체서치 본 일이 있었다. 나는 와셔마를 탈 출이라도 부득이 좋고 이를 조작할 수 있다고 느꼈다. 운이 좋게도 나의 비행 일생 중에 조만에

것은 날우가 어려웠 있어서 연전을 크고 확득한 일에 있었음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문: 실패한 경험을 되지도 않고서도 자신을 키우는 방법이 있는 거요?

답: 무엇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만큼 극명한 교훈은 없다. 내가 제 순에 얻은 「교훈」을 말한다면 이야기가 되겠다. 제1차 세계대전시 독일군 전선의 후방을 초계하려고 단독으로 출격하였을 때 독일군을 정찰한 계곡 한 대를 찾아내었다. 나는 아직 풋내기로 전투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뭇 과격하던 초조의 적중률만을 가지고 주위를 살펴보지 않았다. 바로 내가 계곡을 향하여 돌진하려고 할 때 기체 뒤쪽에서 기총 소리를 들었다. 나는 이때 비로소 깜짝 놀라고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더니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뒤에는 독일군의 항공기인 Albatross 두 편대의 전투기 두 편대의 정찰전투기들 편대가 보이지 않는가. 당일에는 독일군의 항공기는 한 대도 본 일이 없었는데 오 이라 하고 나는 즉시 급선회를 하면서 바로 이탈하였다. 그러나 다시 수평자세로 돌아오게 되자 거기에는 다른 적기 한 대가 보였다. 거기에 세 대의 Albatross기가 나에게 급강하를 하는 것은 보았다. 나는 공중에 어떠한 전법가를 알고 하였지만 아군과 적군이 1대 4의 비율로서는 유독하다는 것을 빨리 알게 되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나의 탑승기인 Spad기를 조종케 한 이야기를 하겠다. 계곡에 귀환하려고 빠르게 어딘갈 때마다 반드시 적기가 1대 가까이 나타나서 사격을 개시하였다. 그 중의 한 대는 나의 정면을 통과하게끔 하였다. 적에 사격을 가하므로 나도 재빨리 사격을 가하려고 하였으나 기총은 두 번이나 공발이 나가지 않았다. 특히는 두 번이나 독일군에게 사격을 가하였으나 기총이 막혀 했었다. 곤란한 것이 나는 일정 이름 기총은 수렴할 사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재차 사격하려고 기총에 손을 대고 방아쇠를 당겼으나 기총은 역시 어쩐지 발사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공중선회 강하에 들어 갔다—실망 나는 이 항공기를 잘 조종하였다—나는 너무 꾹 버티지 게 별들면서 배짱가지 이탈하였다. 구름 이 높이 그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아서 나는 무사히 기지에 귀환하였다. 착륙하여 보니 나의 비행기에는 총알의 관통구멍이 하나도 없었다. 당신들은 내가 굉장 운 좋은 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전투에서는 누구나 자기를 사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로 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일찍이 월남 전투경험을 통하여 배웠다.

문: 중령님께서는 홀로 비행하였기 때문에 묻는 수 없이 홀로 경험을 터득하여야 하였읍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었다면 그것이 경험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요?

답: 내가 경험을 통하여 배웠다고들 하는데 대개의 경우 아무도 경험은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교훈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훈련할 경험을 요리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즉 예와 같은 불쾌한 경험을 우리의 생각에서 몰아내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방식은 엄격한 기밀 하던 여기에서 배우는 것이다. 내가 당시 최대의 적기와 만나고 격투하였을 때에 이를 진심으로 두고선 다음에는 일시에 지속적인 자세를 가지려고 하였다. 즉 어떻게 하면 더욱 훌륭하게 될 수 있을까? 하다 이러한 경우에 답안으로 볼 수 있는 교훈은 극히 간단하다. 말하자면 놀라지 말고 침착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힘들게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와 같은 혼란 중에서도 안전히 빠져 나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경험은 물론 타인에게서 들은 경험으로부터 배울 모든 것을 이용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경비행하게 되기 시작하였다. 나는 경험을 통하여 자신을 얻었다. 나는 자신을 처리할 수 있다고 느꼈다. 나는 Spad기의 비행법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Spad기가 무엇을 하려고 원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전투 중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념만 한다면 자기를 처리할 수 있다. 경험을 쌓지 못하니 자신은 결정을 수행는 혼란상태로 빠져들어가지 못하게 하더군. 내가 이와 같은 교훈을 배우니 자기의 능력에 자신이 생기고 이러한 경험으로 또한 자신을 가지게 되고 때문에 더욱 공격적이고,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시의 공중전은 순조롭게 빨리 결정되어서 그래 동시간 걸리지 않았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지 재빨리 하여야 한다. 전에는 훌륭한 전투기조종사는 전투의 시작 전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물론 우리들은 언제나 허무한 곳에서 갑자기 타인에게 덤벼드는 기습과 같은 방법으로 타인을 잡으려고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여야 한다. 내가 아는 친구 중에는 아직도 훗날 유명 조종사에게 계속된 자가 있었다. 이러한 친구는 생존해서 돌아와서도 여전히 농담을 부

되다가 결국 독일군에게 어려운 행동을 당한 후 귀국되었다.

그러나 제지없는 전투조종사는 항상 명중을 얻으려고 하며 이점을 얻는 최선의 방법은 처음부터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우리들은 가끔 숫적으로 우세한 독일군의 조제기를 공격할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에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가속력을 내서 그들 위에서 공격을 하였다. 아시다시피 Spad기는 수평비행에서는 약 140mph 속도로 비행하지만 300mph까지도 속도를 내서 급강하를 할 수 있었다. 나는 때때로 Spad기를 급강하하였는데 대단한 불쾌감을 느꼈다. 급강하 중 노출된 와이어(당시의 항공기는 상하 날개의 복엽기로서 금속줄로 상하를 연결하였다.)의 요란한 금속소리는 별로 좋지 아니 하였으며, 이 소음을 없애기 위하여 솜뭉치를 쓴 일이 있었다. 조종간은 나무인데 손이 굳어져서 급강하에서 기체를 돌리는데 장갑을 쓰곤 하였다. 그러나 공격의 빠른 속도는 대단히 유익하였다.

문: 공중전에 돌입시 공격에 있어서는 특수전투의 경우 어떠한 태세로 대비하였읍니까?

답: 아! 그런 말인가. 그것은 축구 시합에서 바로 킥오프를 하고 돌진한다. 근접으로 접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즐겼었다. 누구나 약간은 떨리기 좋아하였을 것이고 도로가에서 한판 리듬이 들리기만 하면 그 이상 흥분되지 않았다. 나는 독일 항공기가 항공 성능면에 있어 우수하였다고 보았다. 우리는 독일군이 원하는 고도보다 더욱 높은 고도에서 싸울 수 있었다. 4,900m 이상의 고도에서는 우리는 독일군의 Fokker D-7기, 제1차 세계대전시의 유명한 독일의 우수한 전투기 보다 더욱 훌륭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독일군은 중고도에서 높이 비행할 수 있었지만 고공에서 싸우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문: 귀하가 처음으로 적의 전투기 한대를 격추하였을 때의 기분은 어떠하였읍니까?

답: 그것이 일어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이상이 되지만 모든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1918년 2월 18일에 일어났는데 그 이전에 적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 그 순간의 나쁜 경험을 아직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말하자면 적기 네 대가 나를 추격하면서 곤경에 몰아넣은 것을 잊을 수가 없었다. 나는 동료와 Tom 저구 등 동을 같이 초계비행을 하였다. 우리가 바로 전선상공에 도달하여 아래를 내려다 보니 독일군 항공기 한 대가 초계비행 중에 있음을 보았는데 이것은 복좌기 두

때와 전투기 사이 중의 하나였다. 우리는 즉시 공격을 가하였다. 즉 나는 나의 요기 위·가져서에 있었는데 갑자기 급강하를 하였다. 적의 조종사가 우리에게 사격을 시작하며 적의 편대는 모두 좌선회를 시작하였지만 유독 전투기 한 대만 반대 방향인 우선회를 하였다. 나는 그를 고착하여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이렇게 계속 비행하여 그를 놓칠 것으로 생각하여 나는 그의 뒤로 상승하며 그가 자기의 기체 너머로 나를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당시부터 그는 자기의 편대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었으므로 나는 그에게 급강하를 하였다. 내가 속력을 가하기 전에 그는 벌써 180도 선회를 하면서 나의 미체를 통과하였다. 나의 탑승기는 Spad이었고 그의 탑승기는 Albatross였다. 나는 그를 능가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의 뒤로 위치를 옮겼으나 그와의 거리는 여유 없어졌다. 내가 재차 그에게 급강하를 시도하니 그도 역시 번개와 같은 선회조작을 하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패스(Pass)를 5회인가 6회를 하니 그때마다 그와 나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그는 같은 조작을 여전히 되풀이하였다. 그에게 접근하려고 내가 외선공중회전(Outside loop)의 정점에 들어갈 순간에 나는 좌측에서 위로 부터

번쩍 하기 이제 뭔가와 부딪쳤다. 마음에는 무엇인가 바삭 깨어지는 것을 감지하였다. 나의 얼굴과 안 유리창은 온통 기름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나는 조종간을 중립에 당기고 엔진을 죽이면서 독일항공기를 찾기 시작하였으나 그는 벌써 사라져서 찾을 수 없었다. 내가 나중에 기지에 돌아왔을 때 안에 과한 원인 나의 정비사가 엔진에 주유시 송유조절 구경을 닫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름소동이 일어난 것이었다. 이 뚜껑은 공중에서 물구나무 비행에 들어가든가 G력이 걸린 뒤에는 열리면 기름이 송유조절관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 마침 구멍이 열려 있었으니 기름이 흘러나와서 얼굴과 안 유리창을 기름투성이로 만든 것이었다. 나는 기름 때문에 적기를 놓친 것에 실망하였다. 독일의 비행장이 후에 나에게 전화기를 걸어 우리 전선구역의 일선에서 수신한 바에 의하면 자기네 전투구역 상공에서 공중전이 벌어졌다는 데 알바트로스 독일항공기가 격추되어 참호에 추락되었다고도 보고하였다. 나는 당시에 자기가 이것을 격추시켰다고 주장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의 프랑스인 정비사는 뚜껑을 닫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6개월간 급료를 몰수당하였다.

문: 중령께서는 독일군의 유명한 폰 리히트호펜 독일군 비행기 대의 대장으로 적기 격추 80대의 에이스를 자랑한 대령 에이스에게서 처음 전투기 운전하에 특수비행을 하는 동안의 이야기라든가 고결한 기사같은 사연 없이 없었습니까?

답: 제가 그 부대를 인수한 후에 고결한 일이 많았었다. 리히트호펜은 4월에 전사하여서 공중에서 그와 상면할 기회가 없었다. 리히트호펜은 자기 비행기 전체를 항상 붉은 색으로 페인트칠을 하였고, 나머지 부대원은 제각기 붉은 색으로 페인트칠을 하였다. 나는 그들과 접근할 일이 없었지만 거기 전투사 붉은 색의 항공기는 본 일이 있었다. 이제야 서와 리히트호펜은 매번에 만들었는 색다른 자였다. 그는 공중전에는 뛰어났으며 그의 종교 말기에 이르러 불구가 될 만한 승기를 잡아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대피하였다. 결국 그를 격추시킨 것은 캐나다의 전투기 조종사인 브라운이라는 캐나다군의 조종사였다. 젊은 교사로 공대로 가기 전에 그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하려고 하였다.

1918년 5월 15일에 나와 나의 친구는 가동조작비행을 하려고 이륙하였는데 때는 대단히 늦은 오후이어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우리들은 독일군의 복좌기 한 대가 혼로 동쪽에서 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항공기는 전원은 평범하며 우리의 계기를 관찰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분명하였으며 적기도 또한 우리들을 본 것이 분명하였다. 피차의 거리는 약 3,500m로 고도도 같았는데 적기는 우리들을 살피고 있었다. 이때에 우리들은 남쪽으로 비행한 다음 다시 동쪽으로 비행하여 적기의 뒤로 도망감으로써 적기가 우리와 만나서 싸우고 하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였다. 적기는 우리를 보자 동쪽으로 180도로 선회하면서 도망을 쳤었다. 우리도 동일한 조작을 다시 하였다. 우리는 남쪽으로, 다음에 다시 동쪽으로 비행하며 이때에는 제법의 거리를 약간 단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적기는 다시 180도 선회로 재차 동쪽으로 계속 도망을 쳤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조작을 세 번이나 하였다. 이때는 제가 별로 자꾸 이겼지만 우리는 결국 그의 도망길을 차단하였다.

피차간의 거리는 3,500m로서 한참 남아 있었지만 차량은 상당히 어두워졌었다. 나도 나의 친구는 연락기에 상공에서 그에서 접근하면서, 동시에 공격을 개시했다. 바로 우리가 그에게 접근하여 기총을 마음대로 발사하였을 때에 독일군 계기의 이중인 뒤편 밑에서 세 명만이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며

적기는 파손되고 우리는 자기로 무사히 귀환하였다. 우리는 나중에 아군에서 우리를 사격한 항공기는 아군의 프랑크 뉴으크 중위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 2명이 적기를 격추시킨 것이 명확하였다.

루으루중위는 그날 독일군 항공기가 추락한 곳에 착륙하여 그날 밤 독일군의 운체와 회부함을 저었다. 그는 인텔의 적기 격추로 명예 훈장을 받았다.

문: 양국 전투기 중 어느 쪽이 성능에 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까?

답: 물론 미군의 Spad전투기이지요.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을 나는 알고 있지만 약 160회의 전투임무와 약 20회의 초계(공중전) 등 수천시간의 전투비행을 하였는데 Spad 전투기가 정말 훌륭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문: 그 전투기의 우수한 성능은 무엇이었읍니까?

답: 우리의 Spad기는 상승력이 독일 전투기보다 우수하였다. 내가 처음에 전투에 참가한 것은 1918년 봄이었는데 당시 독일군은 피아기에 대부대 전기로부터 공격군이 취하였다. 나는 그때에 독일군의 경이부대와 상면한 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정도로 흥분하였다. 나는 좋으로 조종한 전우와 처음 전투에 참가하였다. 우리가 만난 적의 항공기는 Fokker D-7이었다. 우리 항공기는 초계임무 중에 있던 5,500ft 중의 일부였으며, 우리가 만난 적기의 대수도 우리와 동일한 7기로서 초계기였는데 고도는 거의 동고도였지만 우리는 적기보다 저공에 있었다. 양측의 초계기 편대장이 맨 도중에서 돌아서자 양측의 항공기는 상승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적의 위로 약 4,500ft 떨어진 위치에서 300m 이상 높이 적기의 상공에 도달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적기보다 우세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로 적기보다 상공에 있었으며 둘째로는 속도에 있어서도 적기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적기를 향하여 급강하를 하여, 기총사격을 가하고, 적기 7기를 하나 격파할 수 있었다.

문: 다시 말을 하면 중령께서는 공중전에서 노장 두려워서를 취하였다는데 적기의 배면으로 돌아보려고 한 일이 있었는데요?

답: 누구나 삼각화를 하게 되면 문제나가 위하여 실패는 하게 마련이지요.

문: 독일군 항공기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은 무엇이었읍니까?

답: Fokker D-7이라고 생각하지요.

문: 독일 항공기가 동맹국의 뒤에

있을 때 적절 이상한 효과으로 이상 의하였는게요?

답: 공격하를 하는 것에 조급하였지요?

문: 수평비행시로 귀관의 항공기는 독일군의 Fokker D-7 보다 속도가 빨랐는게요?

답: 그렇다고 된지요. 그러나 시공중에는 수평비행으로 장시간 있지 못한다. 일하자면 적을 쳐전려 상승하거나 방어태세를 취하려고 해야지요. 적을 기습하려고 항이 우리들이 할 뿐이지요.

문: 항공기를 격추시켰을 때에 귀관이 긴박한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을니까?

답: 흥제하였지요— 이겼으니까— 그리고 바른 적은 처음 커 버렸으니까.

그러나 적을 격추시켜도 별다른 감정적인 느낌은 없었다. 사실 나는 어느 독일군의 조종사에 대하여서도 미울한 감비하도 싫은 내지 않았다. 내가 격추시킨 상대도 아마 나로 나와 같이 대학에 재학 중이던 훌륭한 친구이며 그도 나와 같이 애국하려고 하였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왜 내가 그를 미워해야하였는가? 그러나 제가를 격추시킬 수 있을 때에는 의기가 충만하고 흥분한 기분이였다. 현재 내가 기억하기로서는 6월의 어느 날이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날은 구름 낀날이며 우리 ... 끼었고 있었다. 나는 고도 약 5,000피트에서 호게 중인 아군기 수척이 공격받는 것을 ... 우리는 독일군 Pfalz 전투기 다섯기가 구래를 이어 밀집대형으로 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편대장의 배로 뒤에 있었는데 우리는 일제히 적기에 대해서 급강하를 감행하였었다. 그러나 갑자기 나의 편대장은 기수를 위로 돌리면서 독일군을 멀리 하였다(그 때에 편대장기의 양 기총이 막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나는 급강하를 계속하면서 마지막 적기의 뒤로 약 50피트까지 육박하였다. 그 파일럿 적기는 도망하려고 하는 기색조차 없기 때문에 아직 나를 보지 못하였다고 나는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는 바로 적기의 거의 정면 가까이를 조준하여 명중시켰다. 적기는 한쪽 날개를 떠소 때려 떼며 검은 연기를 내뿜기 시작하면서 내려가더니 거꾸로 추락하면서 화염에 싸여 버렸다. 나는 나머지 적기를 추격하려고 하였으나 나머지 아군중 누구도 공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추격을 포기하였더니 마침 나머지 적군기가 나에게 열세하였다. 우리는 모두 날개를 흔들어 주면서 기지에 귀환하였다.

동시 나머지 아군기 전부가 같이 적을 추격하였더라면 나머지 적을 전부

격추시킬 수 있었는데, 참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문: 중령께서는 대개를 해결 할수록 더욱 자신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투기 조종사로서 체득한 그 자신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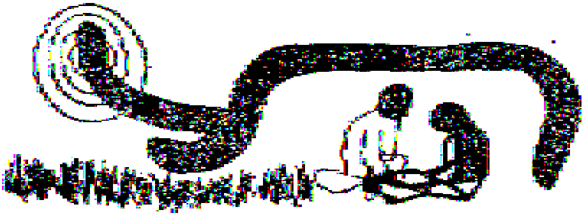
답: 물론 없이 그렇고 말고. 나는 이러저러 해서 자신을 얻고 있다. 나는 다음 생일이 되면 60세가 될 것인데 혹시 내가 무언인가 잃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약간의 공격정신일 것이다. 그러나 자신에 관해서는 경험적으로 잊게 되기가 힘드는 귀중한 것이다. 나는 누구나 이것을 충분히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어디에서 얻었으며, 혹은 어떻게 그것을 보존할 것인가를 자문자답할 수 있는가?

당시 프랑스에서 훈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전투기에 관한 훈련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나의 친구는 나에게 와서 자기들은 폭격기로 기종을 전환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내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의 비행능력을 믿을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이들 중의 몇 명은 폭수(폭격)비행을 실시하였으며 이런 이유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었다.

나는 그것이 개개의 문제라고 보지 않으며 오직 그들에 자신을 가지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나의 친구 중의 한 사람은 전 미국 육군참모총장이었는데 나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암만해도 도저히 훌륭한 전투조종사가 될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금은 용기의 문제가 아닌 것은 확실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의 우리 폭격은 전투기조종보다 더욱 위험하였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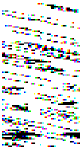
문: 무엇이 전투조종사에게 자신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훌륭한 훈련이 누구에게나 자신을 가지게 하는 근본원리임은 의심할 바가 없다. 내가 비행학교를 수료하고 전선으로 갔을 때에는 비행시간이 불과 약 80시간이었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탑승기와 이를 비행한 나의 능력에 자신을 가졌었다. 내가 만난 영국조종사 중에는 7시간의 비행훈련 후 전투에 나간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 영국조종사들이 얼마나 많은 자신을 가져야했는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수필

잊을 수 없는 사병



장 덕 수

간간 우리가 듣곤는 사연거리며 듣고 읽는 생활 속의 미담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평상적인 경우일 수도 있다고 볼 때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메마른 쪽으로 흘러 왔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는 자애서 때때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친절한 처녀의 손길은, 너무도 무악스레 밀려닥는 시장 통한 속에 살다보면 기가 막히도록 고마울 수 밖에 없고 무거운 짐을 군소리 없이 짊어져 주는 택시 운전수를 만나는 날은 그 하루 종일 흐뭇.

불쾌해서라도. 무거운 짐 실었다가 쉽게 갈라서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같은 이유에서가 아니겠는가? 세상이 이러하다 보니 택시 운전사에게 경경하기는 먼 거리로 그대로 올려 않는다는 것도, 생각보다는 귀은 멀지 아니 했기에 고쳐 주고마는(?) 친절을 불쾌하다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쨌든 그 착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선행을 알리우는 사례에 있다는 것을 일반으로서 실감치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착하게 살도록 용기를 주는 일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큰 일이다 싶어 예외 없이 기사 운전수의 얼굴을 보게 하고는 이런 저런 생활주변의 얘기로 불친을 해 주다보면 두서적에 마다르곤 한다. 실제 의게 친절한 그중 어느 때에께도 "아저씨는 남달리 친절하시군" 할 가지만 승객들이 말해 줄 수 있는 관심을 갖는다면 무엔가 훈훈 달라 질 것이라 믿고 노력해 보는 것이다. 어느 한 3년 전 일이라라. 당한 용무로 제정된 비자장에 아닌 곳에서 정차를 요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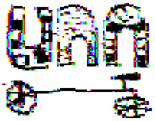
장교에게 "오늘은 식사 미처 했읍니다마는 여기서는 쉬지 않읍니다. ○○국가 식계 도에 있으니 이용하십시오"하던 그 당시 내 흘렸던 버스 운전병 신하사는 곁에서 민지 않은 주체적으로 했다 한 것은 어느 누른 저런 늦은 저녁이었다. 언젠가 지기 차가 고장이 났다면서 도중에서 수레 차를 타고 가던 조 모 중위가 적당한 곳에서 내리고자 했을 때 오래 넘어가던 고개모로를 넘게 않고 앤듀러 타는 우회한 바퀴길로 차를 몰아 시내 버스를 간다 하기 쉽고 안전한 곳에다 그를 내려 놓으며 메식과게 하면 김하사가 메일레에 다시는 그 차를 못 타겠다고 애게 얼자던 조 모 중위만이 그의 친절에 감격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늘 알아 보아 오면 차라 술이라도 한 잔 사 주어야 겠다고 그를 찾았던 것이다. 그 날도 운전병들의 버스를 고쳐 주고 있는 김하사를 찾아 술은 못한다기에 가까운 제과점에 데리고 가서 먹을 만큼 푸둑히 사주고는 그의 친절에 모든 장교와 기타 승객들이 고마와 한다는 애기며 그 조 모 중위의 감사도 그렇게 한없이 살다보면 사회서고 분명 없이 왕공하리란 애착 그 실교조의 적은 새를 늘어놓고 웃을 때 조용히 웃은 얼에 내게 해준 김하사의 애기는 이러하였다. "별별드리지 말씀십데다는. 사생은 오늘 오렌톤일으로 도착을 한봇는데요, 살(?)으로 멀을 특별 휴가를 줍니다. 군대 생활 8년이 됐지마는 휴가 한 번 못갔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차가 너무 말썽이야. 저게 내가 몰지 않는데야 원(?)무리 수고를 (Show)하죠. 식사시간은 매일 주행을 내보냅니고 꼭 휴게 중 가려가지마는 고맙게 계주시는 장교님들 틈에 근덕을 수게 배웠읍니다? 고가 휴가 못 가서도 권리해뿐입니다." 말을 마치고 태연스레 미어지도록 한입 빵을 써는 기름때 묻은 김하사의 얼굴을 쳐다 보던 나는 한적을 종을 끊어 있었다. 그를 아사리이라고 한 말로 게드림을 더 우는 장교인 내가 그 얼마나 초라하고 더할 것 없는가를 절감하는 회한(悔恨)에 얼기도 해겠다. 돈을 몇 푼 더 건만의 이익이 많다고 하는 소위 재벌들이 거래한편 식금을 벌다는 신문보도 뒤의 그 말없는 봉사와, 어둠없이 더구나 알아 주는 사람없이 홀로 고국의 바치고 있는 남구한 자립복의 이 한 병사의 봉으로 고귀한 자원의 봉사와 그 누가 감히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로부터 여행 사이에 출터는 장병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 같이 기쁜 마음으로 성금을 모아 한서는 크레을은 분분이다. 이제 그는 군을 떠

왔다. 시내에서 합승을 운전한다고 하더라. 그를 믿고 마을 운전해 하는 어느 새끼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나는 이 이야기를 탈바꿈처럼 후배들에게 들려준다. 늘 천당사처럼 웃어야 했다고 혼자 마무리하면서.

<공사>

천 태 만 상



홍 종 도

첫째 이야기.

제복은 때로 커다란 힘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그 제복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때도 더러는 있다.

지난번 귀향길에 걸린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을 구경하러 갔을 때의 일이다.

제복을 한채로 동료 장교 몇 명과 시내 버스를 타고 운동장에 갈 때는 시민들과 같이 "20원정"의 차비를 내고 갔지만. 입장권을 살 때는 군경권으로 일금 "100원정"의 덕을 보았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에 있었다.

수업시간 내려와야 하는 나로서는 10시 정각에 출발하는 열차를 타기 위해서 나와 택시를 타려고 할 때였다.

운동장앞으로 모여드는 택시를 타려고 차도상에 내려서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주의를 넣기고, 해치지 않지 죽은 몸과 출세를 해친다 하며 단속했다고 했다. 그래서 안벌의 거리. 더우기 수 많은 사람이 밀려나온 장소에서는 구태 의연하게 제복이 나타나 군경을 격게 하는 것이었다.

"안마대로. 나갈 할 것을 해주 걸어" 는 사고방식이 충만해 있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전쟁이었다.

"가뭄에 콩나듯" 오는 택시에도 달려드는 사람은 십여명씩.

밀고 당기고, 다투고, 욕지거리가 거리를 메꾸곤 한다. 제복 한 사람은 체면상 슬슬히 자리를 떠나버린다.

나는 몇 번씩 차를 놓치고 멍청히 서 있었다.

곁에 달려들어 차를 타고 싶었지만, 제복을 한 나의 처지에는 국제신사가 보는 데에의 질서와 공중 예절의 늠름한 모습을 주위의 사람이 주시하는 것 같아 행동에 제한을 느끼게 도곤 하는 것이다.

또 때로는 "지금의 나를 누가 공군장교로 만들었는가"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도 남과 같이 책을 향해 열려둔지 못한 것은 그나마 내몸메로써 군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 20명을 기다린 끝에 탄 버스를 잡아타고 험한 거리를 달려 떠나려는 기차를 숨가쁘게 타고나니 잠시동안이었지만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항상 젊은 교육에서 순결수련이니 예의 질서를 찾고, 축복의 경조리로 공덕 악습을 버리라고 강조하던 "나"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언젠가 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즉 소심한 남편과 도리장을 치고 집에 들었을 때 세탁을 들고 들어온 장모의 "보게줄 밥으로 삼키할 하나만 내놓아도 죽게되리겠다"는 근엄한 명령을 듣고 죽은듯이 있다가 출간한 군진은 모르게 자기고 으랑한 장모의 뒷편에다가 "계여" 하고 갈으니라고. 내게 고기장 위으로 울꾸러져 나둘었는데도 모르는군!"하며 의기양양한 함편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던 어내와 같은 웃음이었을까?

우리는 예로부터 "동방의 예의지국"으로 이름나 있는 민족이었다.

즉 공경과 겸양의 미덕이 있었고, 자기가 먹을 밥과지 남에게 대접했던 양보와 봉사의 미덕을 지닌 민족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남에게 주는 것, 공양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은 고사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남의 순서를 빼앗으려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타난 것일까?

이제는 이것을 탓하고만 있을 수는 아니며, 서로가 벗어 위주고,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예 하는 사람부터 누가 보든 보지 않든간에 솔선수범하며 하나하나씩부터 고쳐 나가야 한다.

이러한 것은 역시 젊은층의 우리 내일의 주인공들인 젊은 엘리트들이 솔선 실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야기.

세상에 잘 해주고도 공제서 못받는 것들이 있다.

물게기 시구에게 매타고 있는 것은 예예지게 해주고도 조그마한 일로 원망을 받는다든가 제보가 외곡되어 처세에 욕하고 잘해주고도 부모에게 듣는 것이, 어려운 때 빌려주고 필요할 때 독촉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잘해 주고 서운하고, 공제서 받지 못하는 말이 또 있다.

반 할머니 제나서 어렵게 얻은 뒤에 거여워 뒤군길이 보도를 하던 자던 내

손이 저려서 앵앵거린다.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방긋방긋 웃던 애는 발을 품에 안고 있다가 오줌에 저 등을 가려주고, 칭얼거리는 아이를 안아 흔들고, 쉬쉬 하고, 수단 방법을 다해서 달래고, 별르다가 끝내는 다시 울음보를 터뜨리게 한다.

어린 아기에게는 적당히 울리는 것도 목이 트게 해서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귀엽기만한 내 딸의 울음소리보단 웃는 얼굴을 보고저 할 욕심 때문에 팔잠을 습관시켰다가 드디어는 버릇을 들인다. 대번 칠순은 넘은 듯이 오매 웃음 띤 얼굴로 "할머니가 마구 꼬집는가 보지 무척 우리 열이가 우는 것을 보니—"하면서 타기를 받는다.

종이 편함을 울리면서 아기를 보면 나는 때이 끝져 주저앉으며 구차스러운 질병을 하게만 역시 덕을 보을 주는 엄마와는 같은 수가 있는가?

열려 젖을 먹고 난 아기는 엄마 품에 쌔 방실거린다.

또 궁지에 몰들을 아기보기는 시작되지만 쉽지는 않다.

또한 "아빠가 아주 고집는가 보다"는 엄마의 이야기다 결국에 별명 돌게만 그래도 자식을 귀여워하는 아빠의 즐거움에 때찌 당했다.

아무리 해가도고 굴리어 못들는데 하지만. 그래도 아빠의 마음은 즐겁게만 한 것은 어인 까닭인가?

<공군대위>

생활의 멋

한 경 수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낚시질을 다녔다. 아마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이었을 것이다.

처음엔 고기미끼만 끼어놓고는 혼자 돌 장난을 하거나 싫증이 나면 세우게를 잡는다고 온 들을 쑤어다니곤 했다. 때로는 아버지 곁에 가만히 앉아 얼마나 큰 고기가 걸릴까! 하고 멋대로 상상하게도 했다.

친구녀석 두서넛 정도로 함께 갈 날이면 내가 잡은 월척가를 잘 만들었다느니 대가 많은 비지가 적었다느니 하면서 나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생각도 난다.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새벽의 이슬젖은 벼 이삭을 누비며 강

던 시골길에서 잘 재목이 고기가 많을 것 같다고 들려서 찾아가던 했던. 그리고 저녁시간을 맞추려 통행금지시간에 나왔다가 몇시간을 파출소에서 보냈던 일. 그저 기차를 타는 것이 좋아서 몇십리를 계속해서 걷다가 중도에서 주저앉았던 일 등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이런 곤란에서 얻어진 경험에 열다섯 자부한 스승부터 정식 낚시질을 시작했다.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된다.

아버지보다 큰 것을 잡아보겠다는 욕심에서 가끔 새벽도 낚시에도 따라간 탓에 몇번 잡아보려고 노력하고는 아버지보다 큰 것을 잡았던 기억은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잡은 고기는 강남에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잡은 것은 생선하고 좋은 고기라고 자신을 달래곤 하였다.

비록 작은 고기라도 몇마리잡았다는 표시를 한 놓겠다고 잡아올리던 때, 손에 전해오는 감각은 장대끝에서 전해오는 느끼게 했던 것이었으리라. 결국은 나에게 대범한 붕어의 모습에 계속도 눈이 쏠렸다.

대학교 1학년 5월의 일이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아주 커다란 봉투으로 싸인 낚시도구를 을 보여주셨다.

"너도 이젠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으니 아주 큰 바다고기를 잡아서 오라며" 하시면서 바다 낚시도구들을 건네주시는 것이 아닌가.

다음 일요일에 나는 첫 바다에서 만난 메이트와의 데이트 약속도 연기하고서 <생활의 개선을 위한 공사의 더부름> 이라는 거창한 슬로건 아래 모든 것을 잊혀두고 아버지와 함께 인천으로 갔다. 바다낚시에는 강 낚시나 호수낚시와는 다른 묘미가 있었다.

넓은 바다에서 어장을 찾는 즐거움과 풍랑에 속에서 낚시질하던 즐거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파도에 흔들리고 있다고 착각했던 멋적은 기억, 낚시대를 놓치지 않고 쥐던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 많은 종류의 고기 등등 …… 해가 저물어 출출해지면 목이는 복어찌개 생각나서 집에까지 따라가도 했고, 바다의 미녀 농어를 잡으려고 철야를 했는데 밤동이 새도록 잡아 기분을 잡친 나를 위로해 주던 사공 아저씨의 모습도 잊혀지지 않는다. 바다에서 얻은 강인한 체력과 튼튼한 얼굴의 검푸른 미소를 띄고 있던 사공 아저씨의 원만한 분란들은 문제없다는 굳은 의지와 적극성에서 나는 또한 많은 것을 배웠다. 그 후 대학시절에는 혼자서도 제법 자주 바다낚시를 즐기곤 했었으나 군에 입대한 후로는 낚시를 즐긴 기억은 없

다. 한번 개인적…하고 털은 적은 많았으나 우세력은 생활의 멋을 찾기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너무나 집착한 탓인지 좀처럼 발동이 놓여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비록 남세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처지라도 생활의 멋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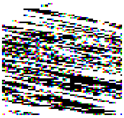
젊은 사람들은 창조적 지역한 두메 절치 속에 있다 소리의 변화를 예민하게 느낄 수 있어야만 생활의 멋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들 하지만 나는 나름대로 벌거숭이 속에서도 스스로가 노력한다면 생활의 멋을 창조하고 또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 하나의 임무를 즐거운 마음으로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에 충실할 수 있으며 생활의 멋을 즐길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

오늘도, 나는 저편 세의 남쪽에서의 즐거움과 6월의 바다를 기다리면서도 천주님께서 나에게주신 시간 속에서 스스로 생활의 멋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록 적은 삶의 매듭이라도 만족 소리를 무감각하게 느낄지라도 생활의 멋을 아는 유능한 생활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제5305부대>

무 제



김 덕 기

이제는 한 달 동안 그리던 10일째였다. 왜 10일을 고대했는가는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잘 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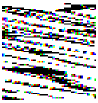
그날 밤

오랫동안 벼르고 별렀던 음악감상동호회로 그리그(Grieg)의 유일한 「피아노 콘체르토」레코드 한 장을 샀다. B.O.Q에 있기 때문에 밤 11시 업무연락 Bus를 타고 숙소로 돌아와서 새물을 꽂는데 아주 흥분에 젖었다. 기가 개살의 승늉을 나타내주었다; 결합한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은, 음악을 사랑하는 청년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것이다.

즉 모두 3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협주곡은 그리그가 페르귄트 소곡과 더불어 그의 명성을 세계에 떨치게 한 작품으로서 그리그가 결혼한 그 다음해에 작곡한 것이며, 북국의 깊은 향토색에다

[illegible]

정 의 감



문 창 욱

지난 달 공군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때의 일이다. 1조 교관님이 하신 말 한 마디가 계속 나의 마음 한 구석에 묵직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그 말은 다름아닌 공군에게는 주의 이념이 없다고 한다. 타군은 모두 제 나름대로의 뚜렷한 이미지가 있어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데 공군은 내세울 만한 뚜렷한 이미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군에게서 뚜렷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군인답지 못하고 긍지도 자부심도 없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니 아직도 사회에서는 우리 공군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난 주 남포동에서의 일이다. 복잡한 거리에서 우리 공군사병도 외국군인이 다투고 있었다. 그래서 우선 말리자 주위의 눈도 있고 하여 또 외국군이라면 일단 우리를 멀리서 도와주려고 온 군인이므로 혹시 무슨 실수라도 있을까 겁이 중재역할을 하려고 뛰어들어 자초지종을 물었다. 사건인즉 외국군인 둘이서 지나가는 아가씨들을 희롱하며 욕을 하는 듣지 못할 언사를 쓰고 있었다. 주위의 사람들도 구경만 할 뿐 감히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공군사병이 보고는 뛰어들어 다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잘 설득시켜서 다툼은 일단락되었다. 분을 참지 못하는 사병들을 달래려고 근처다방으로 들어갔다. 술잔을 앞에 놓고 방금 있었던 사건에 관해 서로 얘기를 나누었다. 사병들 중에서 공군사병은 아니더라도 외국군인의 교만함을 참고는 있지만 그들이 멀리 도와준다는 입장에 있다고 하며 우리 국민을 깔보고 희롱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공병장도 왜 우리가 그런 모욕을 보고 참아야만 하느냐고 흥분하기도 하였다. 나는 "오늘과 같은 일에 너희들이 뛰어들었다는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참는 자가 곧 승리하는 자"라고 타이르고 같이 술잔을 기울였다.

이상의 작은 사건, 얼핏 아무 것도 아닌 일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난 그렇게 않았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민족의 수모를 겪어도 좋다는 그런 사람들은 큰 일에도 결코 나설 수 없는

자동일을 잘하고 있다. 더우기 요즈음의 우리 사회를 보라. 국제의 정세는 우리에게 힘을 요구하고 있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업수이 여기는 사례가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종합이 위태로웠던 우리 사병들의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한 것이다. 옳지 못한 일에 나서서 이길 수 있는 기세를 보고 나는 우리 공군이 국가와 자부심이 충만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군인은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것이 공신이다. 전쟁을 위한 전투만이 군인의 의무가 아니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군인이 해야 할 일일 것이다. 국민을 괴롭히고 국가의 체면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보고도 그냥 둔다면 체면을 수수방관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우리 사병들의 고귀한 행동은 바로 국민을 지키고 국가의 위신을 지키는 참된 대한의 국군이요, 멋진 공군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공군의 지상 이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세계 국민의 평화공군」이 되는 것이며, 공군의 각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평화공군의 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유신과업의 소명완수에 총력을 다한다면 멀지 않아 생활과 풍요를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오고 통일의 등불이 다시 켜지는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한다.

<제5091부대>

□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이념의 퇴색이 있을 수 없고 정열의 냉각이 있을 수 없다. 왜? 우리의 근대화는 세계사의 과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며, 또 지금 이 시기는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마지막 중흥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혁명의 불길은 영원히 살려야 한다. 그것이 꺼지는 날 우리는 영영 세계사의 진운(進運)에서 낙오하고 만다.

여기 소개하는 글의 내용은 국방부 군 특명검열단 연구요원들이 제 1단계연구(자주국방을 위한 PPBS : 공군지 제 128호, 72년 2호 게재)에 이어 72년초부터 73년 5월까지 연구한 제 2단계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PPBS

국방부 특명검열단 PPBS연구위원회 제공

차 례

서 론
제 1 편 체계편
제 1 장 기획 계획 예산의 순기와 주요문서
제 2 장 계획구조
제 3 장 국방 5개년계획과 예산
제 2 편 분석편
제 4 장 체계분석
제 5 장 성과측정
제 6 장 비용정보
제 7 장 관리회계제도
결 론

서 론

기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 예산이

동할 경제여자원에 의한 제약을 받고 있었다. 그런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의 구도 뿐만 아니라 그 목표 자체의 성격도 역

시 가용자원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었다.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정부는 국방, 문교, 사회 및 경제개발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정부는 가용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한다.

다시 말해서 자원배분 과정에서 정부로서는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의 안전보장간에 적절한 타협점을 발견하여야 하며 국민복지에 자원투입을 계속한다면 반면에 국방은 그만큼 희생된다는 뜻이 된다. 또 정부가 국방과 복지에 집중적으로 역점을 둔다면 그만큼 국가의 장기적 경제개발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자원배분에 있어 「돈을 공평하게 배분」코자 하는데는 예나 지금이나 별으로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각 목표 사이에 적절한 타협을 찾고자 하는 것이 관리자의 관심사이며 이것이 계획예산(計劃豫算)제도상에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예산제도는 최고 관리층이 자원할당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계획예산제도 또는 기획, 계획 예산제도라 하던 것이 이기로 발전된 과학적 방식을 가미한 관리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창시자의 한 사람인 「히치」 박사의 말을 빌린다면 계획예산제도는 계획(Programming)과 체계분석(Systems Analysis)이라는 두 개의 관리기술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계획과 예산의 분리라는 근본적 결함을 시정하고 양자를 연결짓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계획의 목적이다. 이 계획은 모든 사업계획을 국방목표와 관련지어 조직 배열하고 이에 의거하여 향후 5개년에 걸친 모든 비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요구가 국방목표에 근거를 두도록 하여 예산이 결정된 후에 목표가 정해지는 일이 없도록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계획예산제도에 있어서 체계분석이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가능한 한 계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관리도구라고 할 수 있다. 체계분석의 목적은 「성취한 목표의 가치」「소비된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사기업에 있어서는 이는 「이윤의 극대화」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수입과 지출을 모두 금액으로 계량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방목표나 군사작전에 대하여서는 공통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치로서 평가하기 곤란한 문제이므로 주어진 자원으로 목표에 대한 효과를 극대

제1장 기획 계획 예산의 순기와 주요 문서

제1절 군사기획과 자원관리

1. 가용자원(可用資源)

우리나라에도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인간은 모름지기 물질을 전혀 도외시하고서는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 물질이란 단순히 물품만이 아니고 인간의 의식주(衣食住)에 필요한 모든 물질은 물론이고 생활수단으로서의 노동력 즉 인력(人力)까지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 물질이 옛날에는 직접교환의 수단으로 쓰였지만 그 후 문명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화폐 즉 「돈」이라는 매개물을 통한 교환의 대상물이 되었고 오늘날 이것을 자원(資源)이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 자원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는 물론이고 현재나 장래나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면서도 이것을 획득하고 이용함에 있어서는 여러 국면의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가용자원에 관심이 대두되고 이 가용자원은 대부분의 경우 이것을 획득함에 소요되는 「돈」의 한도에 따라 한계지워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로 인간은 어떻게 하면 이 가용자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능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무리 이상적으로 작성된 계획일지라도 가용자원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은 하나의 공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반면에 아무리 풍부한 가용자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관리여건, 계획이 없다면 이 자원들은 사장되든지 또는 낭비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같은 여러 차원(次元)의 과정을 통해서 그 방향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재원관리 수단의 발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오늘날 여러 선진국가에서 기획 계획 예산제도가 발전 도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기획과 예산

미국에서 발전된 기획 계획 예산제도란 궁극적으로 이 한정된 국가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국가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매우 합리적인 자원관리제도로서 모든 관리자들로 하여금 자원관리 활동에 합리적인 의사결정(意思決定)을

할 수 있게끔 그 제도를 향상시켜 주는 것을 근본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이 제도가 미국에서 처음 발전될 무렵 미 국방성의 기획과 예산관계를 좀더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의 미 국방성의 군부관리(軍部管理)는 군사기획과 재정관리로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군사기획은 합참과 각군 참모에서 이원적(二元的)으로 관장하였으며 재정관리는 국방성 관리부서(管理部署)에서 주관하고 있었다.

군사기획은 5년 내지 10년 또는 20년 간에 걸친 부대와 주요무기의 판단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반면에 재정관리의 핵심이 되는 예산은 1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의회의 승인을 목적으로 의회가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서 운영유지비, 병원유지비(兵員維持費), 군 공사비 등등 항목별로 편성하고 있어서 이 둘 사이는 각각 상이한 기간과 상이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군사계획은 가용자원의 한도를 무시한 결과 그 계획의 소요예산이 항상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해서 수립되었으며 더구나 무제한, 주요 무기별 또는 사업별 연차계획의 우선순위 결정도 각군에 일임되어 있어서 각 군간에는 자원획득을 위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어 종합적인 국방계획상에는 상한 불균형에 봉착하게 되었고 예산은 편성할 때와 같이 구분 재정관리제만 치중한 나머지 최고 관리자가 종합적인 국방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서의 역할을 주지 못하였다.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설정된 군사계획은 때로는 비경제적인 사업을 무모하게 강행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는 막대한 비용이 이미 투입되고 있는 사업이 중도에서 취소되어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

이와같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미 국방성에서는 장기적 안목에 입각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기초로 기획과 계획과 예산을 상호 일관성있게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합리적인 자원관리제도의 발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연구 고찰코자하는 기획 계획 예산제도인 것이다.

제 2 절 기획 계획 예산의 순기와 대상기간

1. 기획 계획과 대상기간과의 관계

우리가 자주 들어온 속담에 「1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꽃을 심고 10년을 내다

보는 사람은 나무를 심어한 10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사람을 키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단순하게만 받아들인다면 시설 각 대상물의 완성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에 국한하여 말한 것이라고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에는 그 이상의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즉 우리 인간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적인 암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이 암시란 저 튼튼한 것도 없이 인간은 각자의 목표를 향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이 방향에 따라 실천에 옮기게 하는 이정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생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계획의 필요성을 말해과 동시에 매에 필요한 계획할 설계과정을 선정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기획이나 계획은 일반적으로 장기, 중기 및 단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자의 목적에 따라 유효적절하게 채택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획은 장기계획으로, 그리고 계획은 중기 내지 단기계획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어느 면으로서는 이상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획은 궁극적으로 어느 장기적 안목에서 목표의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수립과정에 있어서는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정이나 예측에 관한 불확실 요소를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약점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계획은 장기기획에서 제시된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서 기획과 기지([illegible]) 그리고 예산과 결산간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특히 중기계획은 보다 확실한 기초에 입각해서 장기기획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인 시간범위와 중간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구체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단기계획에 대하여서는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장황한 이상적인 설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좀 과욕적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아직도 장기계획을 완결시키지도 못하였으며 이것을 달성시키기 위한 준비조차도 갖춰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의 기획 계획 예산제도 상의 기획과 계획은 공히 중기계(中期計劃)로 하고 5년을 그 대상기간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통상 3년 이상 10년 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고 있는 중기계획에 있어서도 5년을 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즉 계획에 있어서 기간에 대한 가정이나 예측에서 가급적으로 불확실 요소를 감소시켜 가능한 한의 확실성과 현실성을 보장할 수 있고 기획이나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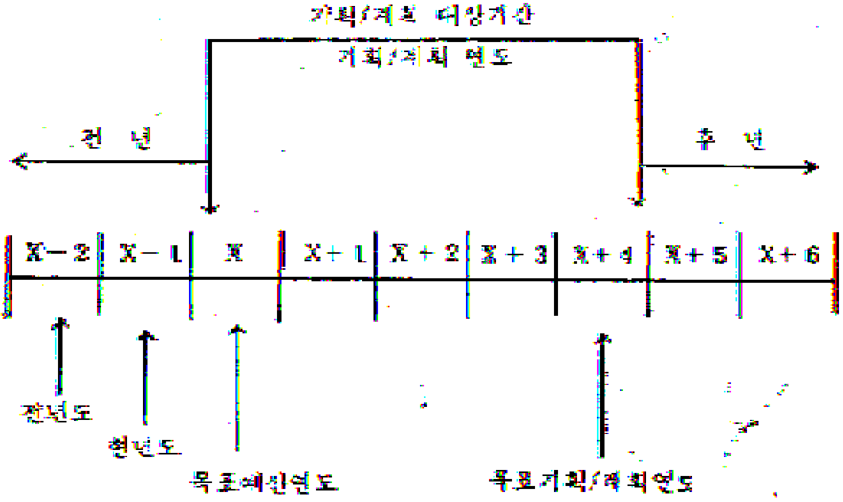
대상의 지속성의 원리나 일관성의 원리에도 부합되는 적절한 중간적 위치에서 미국을 비롯한 계획예산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외국의 국방 5개년계획이나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나 각종 군사계획에서 채택된 현존 기법을 참작해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다.

또한 기획이나 계획은 그 대상기간에 대한 구분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정식으로 하느냐 또는 이동식으로 하느냐의 문제도 등한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고정식과 이동식은 그 나름대로 각각 그 용도에 따라서 장점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변화하고 있는 제반 여건 하에서는 기획이나 계획의 융통성과 지속성의 요구가 긴절하는 기술적 발전에 적응하고 타당한 업무를 을 고려해서 기획과 계획을 이동식으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이동식에 있어서는 대상기간 5개년은 그 최초연도(X년도)를 기준으로 향후 5개년간을 말하며 매년 여기에 1년을 추가하고 동시에 1년을 소거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한 이 5개년을 중심으로 해당 예산연도와 새로운 기획 계획연도와 전후의 참고연도 등을 각각 다음의 도표와 같이 통합함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기 도입하는 것이 고정식에 있어서의 그것과 비교하였을 때 훨씬 용이할 것이다(도표 1-1 참조).

(도표 1—1)



3. 순기(循期)

국방관리(國防管理)가 지향하는 주된 목적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군사력을 제공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 유지하는데 있는 것이다. 기획계획 예산제도는 이것을 위해서 능동적이고 통합된 자원관리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 절차를 기획단계, 계획단계 그리고 예산단계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다음의 각 절차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합리적인 시간 간격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약한 절차라나 절차중의 진전에서 특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조와 협력의 원리에 입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도표 Ⅱ-2 참조).

가. 기획단계

국방기획과정은 급변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무엇을」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절차로서 안보회의와 국방부 합참과 각군이 상호 유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며 안보회의에서 제시하는 안보 기본정책으로부터 유도되어야 하겠다.

이 절차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국방부는 합참에서 발전시킨 합동 장기전략 연구 및 합동 장기정보 판단과 각종 분석자료 등을 기초로 하고 안보 기본정책에 입각해서 국방 목표와 이에 따른 국방 기본정책을 수립한다. 이 기본정책은 향후 계속되는 각종의 군사기획과 국방계획 수립에 근본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합참은 각 군별 중기판단과 국방 기본정책에 입각하여 국방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략과 이 전략수행을 위한 소요자원을 제시하는 합동전략목표기획을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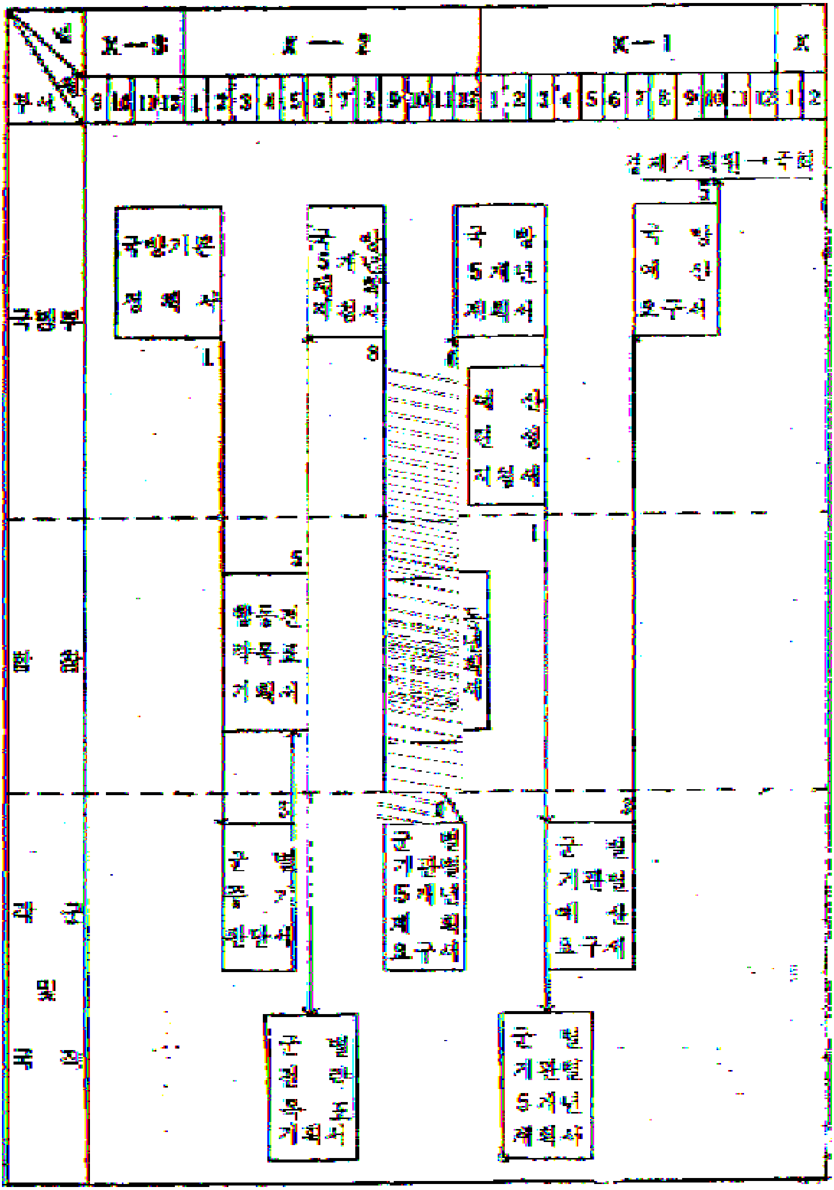
나. 계획단계

국방계획 과정은 상술한 기획과정에서 제시한 「무엇을」「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절차로서 전략수행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국방자원을 계획요소별로 배분하는 단계이며 향후 시간과 재원의 제한을 고려해야하는 소요내용을 종합적인 국방 5개년계획 수립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즉 국방부는 전략수행을 위한 소요에 따라 국방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시달하며 이에 따라 각군은 국방 5개년계획에 반영할 계획을 제출하고 합참은 이들 각군의 계획에 대하여 전략적 측면에 입각한 합동참모회의 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한다. 국방부는 이들 각군 계획과 합동 의견을 기초로 해서 국방자원관리제도의 핵심이 되는 국방 5개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각

주요문서 및 작성순기

(도표 1-3)



원리나 통제의 변경의 원리와 상충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획은 물론 계획이란 수립 당시부터 세부일관하여 확고부동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기획이나 계획이 확고부동성을 고수한다면 그 결과란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례으로서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기획이나 계획이 항상 변경성이어 가변적이라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즉 기획이나 계획은 그 본질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언제나 상황에 따라 적응할 수 있게끔 융통성과 가변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모든 기획이나 계획상에 가변성의 원리란 필수적인 것이며 특히 국방관리에 있어서는 매우 절실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국방 5개년계획의 변경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우리의 안보를 제한되며 전비에 적응할 신호를 위하여 국가의 정책과 국방목표와 이에 따른 전략의 변경이 필연적이며 이에 입각해서 국방 5개년계획이 변경되 불가피하게 된다.

국방 5개년계획은 비록 국제정세의 변동뿐만 아니고 국내정세 변동에서 국방 자원관리상의 사정을 필요로하는 결함이 노출되었다든가 또는 예측되었을 경우에도 이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획 예산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계획의 변경 절차를 능률적으로 설정하고 적용하는 것은 다른 주요 절차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2장 계획구조

제1절 계획구조의 개념

1. 계획구조의 의의

계획예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국방자원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권한자로 하여금 적절하고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 제도 하에서는 문제를 「프로그램」이라는 개념과 그 작업과정에 기초를 두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즉 국방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으로서 「프로그램」이 제시되며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비교, 검토되어 선택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를 만드는 제활동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 그 기여하는 성과와 투입되는 비용의 상관성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계획구조는 다시 말해서 여러 조직의

가 달성해야 할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을 분류함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도웁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제방안들의 비용과 목적에 대한 유효도를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계획구조는 여러 「프로그램」을 그 목적수준에 상응하게 단계적으로 배열한 것으로서 「프로그램」과 달성해야 할 목적과의 관계와 또한 「프로그램」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 계획구조는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분류항목의 크기에 따라 몇 개의 수준을 가진 계층적 구조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요계획항목, 세부계획항목, 계획요소로 대분된다. 이것이 바로 자원배분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방 5개년계획의 구조이다.

가. 주요계획항목(Major Program Category)

국방업무를 대분하는 계획구조상의 제1차(최상위 수준) 분류항목으로서 국방최고 관리자가 결정을 내리는데 편리하게 임무와 활동 등의 주요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크기로 분류하여야 한다. 통상 한 조직의 주요계획 항목은 5~10개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나. 세부계획항목(Program Sub-category)

주요계획의 제 2차(하위의 수준) 분류항목으로서 주요계획 항목을 내용과 목적에 따라 다시 세게 분류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 3차 분류항목인 계획요소를 필요에 통합한 항목이라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계획요소는 공통목적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그의 성과와 유효도 그리고 실적에 그 측정이 유사한지에 따라 통합되는 것이다.

이 세부계획항목은 경우에 따라 세세부계획항목으로 재분류되거나 또는 주요계획항목과 계획요소 사이에서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다. 계획요소(Program Element)

계획구조의 기본적인 구성단위가 되는 분류항목으로서 임무수행의 기본단위부대 또는 기능상의 기본단위를 말하며 다음 세 가지의 성격을 통상 구비하여야 한다.

(1) 명확하게 파악이 가능한 성과로써 나타낼 수 있고 또한 가능한 한 수량적(數量的)으로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2) 계획요소의 임무성과는 가능한 한 그 조직의 최종 생산물로서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3) 계획요소에 투입되는 자원과 연계되는 산출은 반드시 비례되는 것은 아니나 성과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2. 계획구조의 작성

어떤 조직체든지 그 조직체조직의 성격과 달성해야 할 목적 등이 각각 상이할 것이며 또한 그 조직체로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특히 중시되지 않으면 안될 관점도 각기 다른 것이 통상이다. 따라서 계획구조는 목적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분류하는가에 따라 각 조직체에 적합한 그대로 재조직 작성되어야 하며 획일적 형태로 제시한다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다만 여러의 문제들은 참고적 도움성을 가지고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가. 기본원칙

(1) 항상 조직체의 임무목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2) 비용과 제 편익의 검토를 용이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3) 한 조직체의 달성코자 하는 목적은 반드시 그 부서에서 작성된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4) 계획구조는 되도록 많은 용도에 적합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5) 가능한 한 최신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만들지만 부분적 수정은 계속 계획되어야 한다.

나. 작성방법

(1) 목적의 명확한 설정

계획구조의 작성을 위하여 제 1 단계에는 그 조직체가 갖는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일이다.

(가) 그 조직체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나)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할 것인가?

(다) 각종 활동은 왜 실시되는 것인가?

(라) 현재 실시 중인 활동의 달성코자 하는 목적 이외에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될 목적은 없는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목적과 분류항목의 설정

(3) 분류항목의 계층

목적을 위주로 한 계획구조의 기본원리는 하나의 목적에 기여하는 활동은 동일하다는 것과 같으므로 계획구조는 그의 목적의 구조에 따라서 다시 각각 나눌 수 있는 분류항목을 가지고 많은 수준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다음 도표와 같다.

(가) 주요계획항목의 설정

주요계획항목은 선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은 분류할 근거와 그 타당성을 단언에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계획항목은 조직체가 가지는 기본적 목적과 직결 기능하는 분류항목이며 계획구조의 최상위 수준에 위치하고 위에서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서 예로 지방행정 조직체에 대

분류 항목 수준	계획구조의 예
[illegible]	[illegible]

하여 예를 들어 보면 정부, 그 조직체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우선 분류하여 보면 보건(保健), 교육, 주택건설, 운수, 직업보도(職業補導) 등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 반면 동계으로는 기능별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 즉 그 조직체가 하나가 되어 수행해야 하는 기능에 착안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발전, 자본자원의 유효한 활용, 인적자원의 개발 등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계획구조는 계획활동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목적과 기능 등의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나) 계획요소

계획구조의 각 단계에서 최하위 수준을 구성하는 이 계획요소는 성과의 최종 생산물로서 계량화(計量化)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조직체의 목적에 대하여 공헌(貢獻)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방 5개년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구성요소로서의 계획요소로는 그것을 개발하여 그로 인하여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고 운영유지함에 필요되는 모든 활동과 비용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제2절 외국의 계획구조 소개

1. 미국 국방성 계획구조

가. 주요계획항목

미국의 국방성 계획구조는 국방기구의 권한에서 계획단계 뿐만 아니라 관리, 통제단계까지 포함하여 전군의 모든 부면에 걸친 정보의 분류체계를 확립하여 작성하였으며 주요계획항목은 모두 아래와 같다.

프로그램 1. 전략부대(Strategic Forces)

프로그램 2. 일반목적부대(General-Purpose Forces)

프로그램 3. 정보 및 통신(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프로그램 4. 공수(空輸) 및 해상수송(Airlift/Sealift)

프로그램 5. 방위 및 예비군(Guard and Reserve Forces)

프로그램 6. 연구 및 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프로그램 7. 보급 및 정비(Central Supply and Maintenance)

프로그램 8. 교육, 의무 및 기타 인사활동(Training, Medical, and Other General Personnel Activities)

프로그램 9. 행정 및 관련(關聯)활동(Administrative and Associated Activities)

프로그램 10. 외국원조(Support of Other Nations)

나. 구조개념

(1) 국방관리자의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정보 자료를 식별 정리하게 하는 수단으로써 설계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활동이 국가안보에 대한 공헌(貢獻)의 목적에 따라 분류됨으로써 국방성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모든 활동의 관련자료를 임무분야와 지원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계획구조는 10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프로그램 1에서 5까지는 「임무 프로그램」에 속하며 나머지는 「지원 프로그램」이 된다. 여기에서 특히 기본이 되는 것은 목적 지향적(目的指向的)이라는 것으로 국방성의 계획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각 관리자의 필요에 따라 자원정보를 여러가지 형태로 집계하여 제시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 기준은 편제조직에 따라 각개 담당부서들을 관리하기에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하여는

프로그램 6. 국방연구 기술 관리

프로그램 7. 시설 및 군수 담당 차관보

프로그램 8. 인력 및 예비군 담당 차관보

프로그램 9. 행정관리 담당 차관보

프로그램 10. 국제안전보장 담당 차관보 등으로 같이 각기 관련되는 국방성 내 담당 부서와 배합하고 있다. 그 일면 「임무 프로그램」(프로그램 1-5)에 대한 감사 및 재평가에 관한 권의는 제각 군의 담당 차관보의 기능에 속하고 있다.

(3) 실제소요와 자원을 승인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이 기준은 모든 자원소비를 목적 및 예산 구조에 일치시키는 동시에 계획구조에 대조시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목표가 국방성 계획관리제도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상황변화에 따라 검토와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

다. 프로그램의 편성기준

프로그램 1에서 프로그램 6, 및 프로그램 10 등 7개 항목은 「독립 프로그램」으로 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7, 8, 9 를 「종속 프로그램」이라 하고 있다. 독립프로그램은 군사적 세력 정책 등에 따라서 그의 규모나 구성이 독자적으로 편성되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결정되는 것이 종속프로그램이다.

라. 계획요소의 개념

계획요소는 이 계획구조의 기본단위가 되며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에 투입된 총자원(總資源)을 나타내기 위하여 집계되는 단위로 보며 또한 일군(一群)의 무기체계(武器體系)와 그 지원체계를 내포하는 경우도 있다.

계획요소는 어떤 기준에 편성되고 있는 무력, 인력(人力) 및 비용(費用)의 집합체라고 본다. 각 계획요소에는 통상 이들 세 가지가 포함되나(육군 보병사단 등) 육군의 전투기병부대, 야전군 지원 등의 계획요소는 인력 및 비용으로만 구분되며 연구개발에 의하여 계획된 육군의 주 전투능력차(主戰鬪能力車), 해군 항공기 발전계획 등의 계획요소는 다만 비용으로만 집계됨을 볼 수가 있다.

계획요소별 세분화에서는 비용이나 인원을 계획요소별로 예산수립에 의하여 표현하므로 계획수립 과정에서 일련 관리자가 더욱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마. 계획요소의 성격

기획(企劃)과정에서 보는 계획요소의 성격을 규정짓는데 적용한 기준(基準)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성에서는 각 계획요소의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수립 및 통제에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인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비용은 사용자와 보유자 중 어느 한쪽에서만 계정(計定)해야 한다.

(3) 임무프로그램 내의 계획요소는 조직의 단위와 그의 전체관련비용(즉 B-52비행대대)으로 보아야 하며 사물(事物)의 결합체(즉 B-52항공기)로 보아서는 안 된다.

(4) 임무계획요소는 어떤 부대를 조직별로 세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관련부대까지의 자원비용을 식별하고(소비를 배분 분할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조직의 식별이 가능한 최하단위부대로 구성하여야 한다.

(5) 계획요소는 계획된 임무(B-52비행대대 등) 혹은 성과(기지운영지원 등)로서 나타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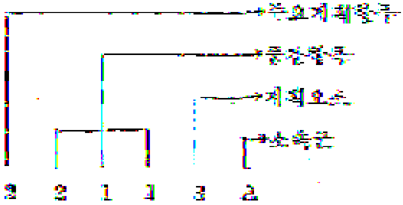
(6) 계획요소는 「임무」와 「근무」의 2종으로 나눈다.

(7) 임무계획요소는 그 자신의 운영비, 투자비 이외에 근무계획요소로부터 지원받는 근무비용도 가산되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근무계획요소의 비용은 임무계획요소에 부담시키지 않는 분(分)만을 계정한다.

(8) 2개 이상의 계획요소에 배분(配分)하지 않으면 안 될 운영비의 집계를 위하여는 별개의 계획요소를 작성하여야 한다.

(9) 동일한 프로그램 내의 2개 이상의 계획요소와 관련되고 있는 기지운영과 같은 근무계획요소는 이와 관련되는 임무계획요소의 바로 다음 자리에 배열한다.

바. 계획요소의 부호(符號)



예 1: 육군 보병사단

예 2: 해군 구축함 244CDN

사. 자원 식별부호

이 부호는 각 계획요소 내에 포함된 자원의 특성(종류, 성격 등)을 나타내는 부호로써 통상 3개의 기본자원 즉 부대, 인력(人力) 및 비용으로 구분된다(자원부호표 참조).

(1) 부대부호: 각군별로 작성되어 특정한 장비(예: 항공기, 함정, 유도탄 등)와 특정한 부대의 조직(예: 사단, 비행단, 대대 등)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2) 인력부호: 장교, 사병 및 군속

을 재군별로 표시하고 있다.

(3) 비용부호: 3개의 세출예산분류 항목 즉 연구발전비, 투자비 및 운영비 별로 세분하여 각 군별로 표시하고 있다.

마. 계획구조의 구성

미 국방성 국방 5개년계획 계획서(예산, 기준 및 부호)(71. 11. 4) 3/4분기 수정판에 의한 계획구조의 몇 가지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주요계획	세부계획	세세부계획	세세세부계획	계획요소
프로그램 1. 전략부대	공격부대	항공기부대	폭격기부대	B-47 비행대대 B-52 비행대대
			정찰기부대	RB-47 비행대대
		유도탄부대	지상부대	아틀라스 대대
	방어부대	항공기부대	요격기부대	F-101 비행대대
프로그램 2. 일반목적부대	육군부대	전투부대	사단	기갑사단 기계화사단 보병사단 공수사단 공수기동사단
		전투지원부대	야전포병대대	175밀리 평사포대대 155밀리 곡사포대대
			방공부대	나이키 대대
			기타전투지원	전투공병대대
			전투근무지원	건설공병대대
	해군부대	순양함·구축함부대		구축함 호위구축함
	해병부대	사단		해병여단
	공군부대	전투항공기부대	폭격기부대	B-57 비행대대
			전술공수부대	C-130 공수대대 C-7A 공수대대
프로그램 3. 정보 및 통신	통신	통신체계		위성통신 방위 위성통신

주요계획	세부계획	세세부계획	세세세부계획	계획요소
				육군 전략 증원
프로그램 4. 공수 및 해상수송	공 수	산업기금		C-130 공수비대 C-141 공수비대
	해상수송	산업기금		병력 수송선 화물 수송선
	교통관리 및 항 만	산업기금		항만 부두운영
프로그램 5. 방위 및 예비군	전략예비부대			생략
	일반목적부대			생략
프로그램 6. 연구 및 개발	연 구			생략
	개 발			전차 무기체계 핵무기효과 연구
	관리 및 지원			연구 및 분석
프로그램 7. 보급 및 정비	보 급	일반지원		보급창 운영
	정비 및 근무	산업기금		병기시설 항공수리
프로그램 8. 교육 의무 및 기타 활동	교육 및 의무	교 육	정규교육	훈련소
		의 무	일반지원	메디칼센터
프로그램 9. 행정 및 관련 활동	사령부 및 지휘부	[illegible] 훈 련		국방성 합 참 각군성
프로그램 10. 외국원조	연합국지원			월 남 군사원조단

자 원 부 호

○ : 표본사업 해당

항	명 칭	부호	내 역	부호	내 역
A	무 기	1	항공기	4	유도탄
		2	함정 및 선박	5	통 신
		③	차량	9	해당 없음
B	인가 병력	1	장교	4	군속
		2	사병	⑧	군인/군속
		3	장교/사병	9	해당 없음
C	비용 구분	1	연구발전비	5	연발/투자비
		2	투자비	6	연발/운영비
		3	운영비	⑧	투자/운영비
		4	연발/투자/운영비	9	해당 없음
D	비용 규모	1	백만불 미만	5	5천만~1억불
		2	백만~천만불	6	1억~5억불
		3	천만~2천5백만불	⑦	5억불 이상
		4	2천5백만~5천만불	9	해당 없음
E	적용 연도	1	중고	5	계획
		2	전년—현년—예산	⑧	전년(全年)
		3	예산	7	예산—계획
		4	전년—현년	9	해당 없음

1. 미국 연방정부

계획구조에 관한 예를 들기 위하여 현재 미국 연방정부(聯邦政府)가 채택하고자 연구하고 있는 계획구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계획	세부계획	주요계획	세부계획
1. 지역사회 개발	가. 농촌 및 도시개발	5. 국가방위	가. 전략부대
	나. 운수		나. 일반목적부대
	다. 주택건설		다. 동원 및 예비군
	라. 재난 구호		라. 연구 및 개발
2. 인적자원 및 개발	가. 보건 및 안전		마. 외국원조
	나. 교육	6. 국제관계	가. 대외원조
	다. 취업		나. 외교활동
	라. 소득보장	7. 법 제	가. 법규
3. 자연자원 및 환경	가. 지질자원		나. 사법
	나. 해양 및 수중자원		다. 교도
	다. 공중자원	8. 연방시책 및 행정지원	가. 입법
	라. 환경보호		나. 행정
4. 경제활동	가. 기업		다. 재무
	나. 농업 및 농경지		라. 중앙정부 활동
	다. 운송사업		마. 특수체제
	라. 국가경제		바. 일반행정 및 지원

기타 외국의 계획구조(국방)

캐 나 다	항 목	질 본
캐나다의 주권보호	1	본토방공
북미방위를 통한 안보	2	장·단록 제거
NATO 집단방위를 통한 안보	3	주변해역 방위

국제 안정을 통한 세계평화	4	특별활동
전쟁통제 및 종결	5	해상교통 보호
군사지원 활동	6	연구개발
	7	교육훈련
	8	후방지원
	9	일반관리

영국	항목	노르웨이
핵 전략부대	1	국방관리 및 통제
해군 일반목적 전투부대	2	조사 및 경보
유럽전구 지상부대	3	삼군 전략예비부대
육군 전투부대	4	상설부대 증강
항공일반 목적 전투부대	5	국제연합군부대
항공동원	6	군수근무 및 지원
예비 및 보충	7	교육 및 훈련
연구 및 개발	8	연구 및 개발
교육	9	기타
생산, 수리 및 시설	10	
전쟁물자 및 비축	11	
기타 지원	12	
기타 경비	13	
특수 물자	14	

제3절 한국 국방계획 구조

1. 국방목표와 국방시책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방 시책이 수립되고 국방시책은 각군의 과업에 의하여 구현(具現)되며 이러한 각군의 과업달성을 위하여 국방부는 자원을 배분(配分)하게 된다.

국방목표와 국방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수립한 실천계획이 국방 5개년 계획

이다. 국방부의 자원관리자는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총체적인 관점에서 가용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방 5개년계획은 최고관리자가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시도(試圖)하는데 가장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을 국방목표와 시책에 상호 관련을 지어서 서열화하여 조직할 필요가 있다.

가. 국방목표와 국방기본시책(현행 국방 기본계획서 참조)

나. 국군 주요부대 구조(예년도 합동 전략목표계획서 참조)

다. 각군의 과업(예년도 합동전략목표계획서 참조)

2. 국방계획구조 주요계획 항목

본 시안(試案)에서는 국방부의 전사업(全事業)을 다음과 같이 임무에 기초를 두고 사업화하였다.

전쟁억지, 후방방위 및 예비군,
정보 및 통신, 연구개발, 군수,
교육, 일반지원

이들 주요계획항목은 다시 세부계획항목, 세세부계획항목 및 계획요소로 각각 세분하였다(각 주요계획항목의 설명과 내용은 별책으로 발간된 II급비밀 문서를 참고하기 바람).

3. 계획구조의 작성기준

본 시안의 계획구조는 현존 군대체제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가. 계획예산제도의 원칙 중 하나인 동일목적 활동기능은 각군 및 지원체제에 관계없이 통합하였다.

나. 동일한 임무부대라 할지라도 규모가 상이하거나 운영비가 상이할 경우에는 구별시켰다.

다. 소규모 부대라도 각 무기체계별로 독립시켰다.

라. 다목적부대(多目的部隊)는 주된 임무를 기준하였다.

마. 지휘통제부대는 자체의 지원집계를 위하여 독립시켰다.

바. 계획구조의 구분

(1) 독립 프로그램

전선방위, 후방방위 및 예비군

(2) 종속 프로그램

기타 항목

※ 별책으로 발간된(II급비밀)한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국방계획 구조 주요 계획항목의 설명

2. 계획구조의 작성기준

3. 주요부대와 계획구조와의 관계

4. 국방시책과 계획구조와의 관계

5. 국방부 및 각 군별 해당계획요소 분류표

6. 국군주요부대 구조

7. 국방계획구조 시안(試案)

책 임 과 행 위

목사 최 원 진
<동두천 갈릴교회>

책임의 뜻

책임이란 말 Responsibility는 응答, 답변, 응답의 뜻을 가진 Response (라틴어 Responsum) 와 능력, 수단의 의미를 지닌 Ability의 합성어로서, 그 개념을 정의하면 응답하는 능력, 답변하는 능력이 되므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구에 응答하는 능력과 센스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문의 「責任」이란 말은 간단히 말하면 "맡은 짐"이란 뜻이 되기 때문에 영어의 의미보다 뉘앙스는 산뜻하지 않지만 계속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음은 흥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좀 더 강하게는 책임과 의무의 결합어로서 「책무」로 표현하기도 한다.

또 책임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말하고 부과되어 있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다.

사람이 향상하고 발전하고자 하면 자연적 또는 본능적인 경향을 극복하고 이상적 지식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은 정의해서 하여야 할 "각자의 업무와 의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책임의 중요성

책임감은 다른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다. 즉 인간은 자율적 인격자이기 때문에 책임의 관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쉐르토르는 "나는 죄행을 벗고 걸어가는 데 후생 자녀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말해 책임을 그렸다.

또는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사고의 실례 원인을 좀 생각해 보자.

정비 불충의 차량이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내고 있는 것은 정비원 개인이 그 차에 타고 다니지 아니하므로 그 자기 사고가 나도 자신에게는 별 책임이 없다고 느끼고 소홀히 정비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돌려지지 않고 자신에게 돌아 갈 것이다.

또 공중을 나르는 비행기에 탑승하여 나르지 않으니 정비를 소홀히 하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업무에 태만하게 일한다고 하면 귀한 생명과 막대한 재산(비행기)을 손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은 그 순간을 어물어물 넘기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머리에 인식해야 한다.

한 사람의 잘못이나 부주의가 수많은 인명 피해를,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주어진 책임을 적든 또는 크든간에 중요시하여 충실한 임무 완수를 해야 될 것이다.

책임과 행위

책임에는 행위가 따른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책임은 이미 시체가 되어버린 마치처럼 아무런 생명이나 능력이 없는 것이다. 책임이 행위로 나타나는 사회라야 생동력 있는 사회의 질서가 형성되는 것이다.

군대는 나라와 겨레를 위한 책임적 사회 집체이므로 그들이 책임적 행위를 한다면 그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보초를 선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등등의 모든 임무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들 각자의 임무와 책임은 막중한 것이다.

공군 구호에 우리는 "정예공군" 하우자 1:5, 우러르자 1:5, 이기자 1:5, 이 모두가 책임있는 행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싸움에 있어서도 매 자신을 희생할 각오와 행동이 있어야 되며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된다.

"이기자" 에는 공항이 아니고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적은 일 하나에

이제부터 우리는 승리하는 마지막까지 책임과 행위는 계속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론과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여 책임을 다하는 국군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군인의 책임

군인에게 있어서의 책임은 어느 누구보다도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

헌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군인의 책임이란 그가 속해 있는 민족과 국가를 외부로부터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해서 그 국가로 하여금 자유와 독립을 누리게 하여 그 국민들로 하여금 평화스럽게 생을 즐기게 하는 신성한 의무이다.

그러나 일부 군인 각 개인의 책임은 중차대한 것이다. 즉 군인은 그 국가와 민족의 존명을 양 어깨에 메고 있는 것이다."

군인의 각 지휘는 책임 준수에 가려서 연결되고 있다. 우리는 훈련 수행에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그 명령에 복종해서 엄정한 군기를 확립한다.

즉 책임완수의 문제는 군인에게 있어서 사생관과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즉 책임 완수의 문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책임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군기가 서질 수가 없다. 군기는 군대의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군기가 해이해진다면 통솔 계통이 문란해져서 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군의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군대가 강하다고 하면 투철한 책임감이 있는 군대인 것이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부서에서 자기가 맡은 책임을 잘 이행할 때 최강 무적의 군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책임에 불평이나 불만, 혹은 게으름이 있어서는 안된다.

책임완수의 방법

군인으로서의 책임의 중요성을 논하였으나 중요한 책임 완수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1) 책임의 이해 2) 희생정신

3) 피곤케 말것 4) 건전한 생활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먼저 이해하여야 되며 그 책임을 완수하기

말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완수해야 하며 그 책임을 제일로 좋은 마음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제일로 미루지 시작하던 때부터 쉬운 것에서도 많은 흠으로 번지게 되며 거기에서 커다란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자신이 담당한 일에 게으르거나 소홀히 할 때에는 책임을 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를 발견하게 제일 좋은 길은 들끓는 민족의 기쁨을 우리는 과제야 될 것이다.

영국의 "세르니"라는 여성은 결혼에서 서우다 마침내 숙의 숲에 맞아 오고 있다.

들에 참중을 느껴 물을 찾은 즉 한 사병이 약간 남은 물병을 갖고 와서 그 물을 마시라고 그에게 막 마시려고 할 때 옆에 쓰러져 있던 한 부상 당한 사병이, 그 물병을 바라 보면서 그 물을 언제 마셨으면 하는 눈치를 발견했다.

이것을 본 세르니 여성은 물병을 사병에게 내어 주면서 "내 먹어라. 너는 나보다 더 목이 마른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그는 쓰러졌다.

이 상여는 괴기에게는 아주 소중히 얼음 운단 아니라 작은 고행과 로정을 말게 한으면서 질행을 다칠 사람들이 세계 곳에 많이 였다.

오늘 우리는 돌처 간 선배들의 피로 땀에 적금 매주 살고 있는 내 조국을 지금에게 커져온 선거중에 될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일본의 압박 밑에서 신음할 때 수 많은 애국 지사들은 자신의 훈계와 권력을 헤쳐보다 가정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였으며 6·25의 민족의 참극 때에도 우리들의 선배들은 붉은 마수의 계획 침략으로부터 국토 방위와 민족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고귀한 피를 흘렸다.

오늘 우리는 냉혹 야욕을 버리지 못하여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는 북괴 김일성 일당은 완전히 섬멸하는 날까지 아니 남북 통일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국토방위의 신성한 책임을 완수하는 일에 충실히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책임적 시대관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단계된 막중한 사명을 알아 고귀한 피와 땀의 정신적인 봉사하여 후손에 물려줄 유산을 지키며 자부에 다한 하므로 부끄럽지 않은 조상들에 되어야 할 것이다.

× × ×

인 내 와 성 취

군 목 허 · 수

1.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는 격언이 있다. 참는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체험한 사람 이외엔 그 뜻을 쉽게 알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도 하다.

귀부인의, 부랑들이 [illegible] 수 없는 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지내는 괴로운 삶을 인내하고 자위하면서 달콤한 열매를 막연히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참는다는 것이 반드시 달콤한 열매를 가져오는 당연한 귀결일 수 있을 것인가?

인내는 어떤 뜻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 수반되는 정신적 자세일 뿐이지 괴로움을 참는다는 그것 자체가 목적 달성에 수단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2.

그러므로 인내는 투철한 신념과 그에 수반되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신념이 없는 인내는 무가치한 것이며 희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는 것이다.

신념은 인내의 목적이며 희망은 인내의 힘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념은 멸공적 이상이요 인류적인 소원이다. 종교는 이 말을 신앙이란 말로 표현하여 그 말 속엔 신인의 [illegible] (구원)과 인류의 영구한 행복을 희구하는 배경을 포함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군인의 신념은 자유의 수호, 민주주의를 침략하려고 하는 공산주의의 망상적 침공을 분쇄하여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의 길을 길이 계속하는 길에로 나아가서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그 「우령」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천만의 인류, 특히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의 겨레들을 하루속히 밝은 자유의 광장으로 안내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군복을 입고 불편한 제대까지 여건을 무릅쓰고 귀중한 젊은 시절을 병영 속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 이런 사상, 이런 신념이 없는 군인은 그들이 걸치고 있는 단정함에 저해 값진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송세월하는 것이다.

보람없는 인내, 값 없는 인내란 바로

아쉬운 것이다.

「인내가 인내다움은 그 뜻에 있는 것이다.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희망이 견딤을 매우 굳게 하는 것이다. 인류 역사에 위대한 공헌을 할 수 있었던 인물들은 대부분 큰 꿈과 거기에 따른 꺾을 수 없는 희망을 지닌 자들이었다. 인간은 아직도 판도라 상자 속에 잠자 있는 희망 때문에 고달픈 하루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희망을 잃은 삶은 삶의 의욕조차 잃어 버리게 되기 때문에 비극적인 것이다. 희망이 삶을 즐겁게 해주며 삶을 매우 힘차고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다.

희망은 마치 새의 날개와 같은 것이다. 새는 그가 앉아있는 고목이 큰 소리에서 무너진지라도 추락을 모르는 것은 자신에 지닌 희망의 날개가 있기 때문이다.

희망은 내일에 대한 동경이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오늘 비록 고된 생이 고달파도 그 내일 다가오는 내일에 걸고 자신의 능력이 오늘에 있기에 그 죽엄을 같은 시련을 견디어 가는 것이다.

3.

인내는 성실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은 언제나 좋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에서 나온다. 성실의 「성」은 「참」의 근본인 하늘의 길이요, 「실」은 「성」을 따르는 인간의 길이다. 그러므로 성실이라고 하면 하늘의 뜻을 따르는 인간의 마음, 즉 참을 근본으로 삼는 인간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로 거룩한 마음 자세가 아니면 큰 뜻을 향한 인내의 가슴에다 할 수 없다.

인내의 길은 굳은 역경과 고난을 수반하는 길이며, 그리고 그 길은 수련의 고되고 긴 길일 수 있다. 무수한 헝크를 극복해야 하는 이 인내의 길에 준비없는 단순한 생각으로 정거될 수 없는 성실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길은 성실한 성품이 아니고는 이룩할 수 없는 길이다. 마키아벨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하여 목적을 위해서는 비굴한 수단도 불사한다는 무서운 행동철학을 제창했으나 우리의 거룩한 목적은 그 수단 역시 정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이념과 사상일지라도 지나친 떼 몰골한 음모이거나 낙원을 위해서인지라도 오늘의 존엄한 개개인의 인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박탈되는 권한을 지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좋은 목적일수록 좋은 수단을 통하여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

는 훌륭한 그릇을 성취하게 된데서 오늘은 인내하는 이 길은 반드시 꽃을 피우는 세로운 마음가짐에 아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심은대로 거둔다는 것은 인과의 진리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바로 그것이다. 진지하고 성숙한 생의 과정에서 저마다 저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다. 그 중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인간은 저마다운 방법으로 저마다에 공급된 시간에서 내일을 오늘로 흡수하여 어제로 배열하면서 그의 인생을 설계우고자 한다.

불성실의 씨를 심은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수확할 것이다. 성실의 씨를 심은 사람은 그의 인생이 찬란히 빛나는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어 들일 것이다. 이것이 인내의 본질이요 그 논리이다. 인내의 합리성은 성실의 이론에서만 꽃으로써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4.

인내의 철학은 훌륭한 예술을 성취하고자 성실성의 원리를 수행하려만 그렇게 정적일 때 그 숙제는 극복해지는 것이다. 동양이 서양에 비해 좋은 사례의 생명은 일찍 터득했으면서도 오늘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까닭은 서양의 그 프론티어적 행동철학이 단조롭던 탓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행동성의 의미는 실로 우리에게 깊은 통찰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행동의 논리는 적극적 노력의 결실이다. 노력에 게으르고 포섭에 인색하면 인생의 구조는 붕괴된다. 한 국가와 사회의 흥망은 그 국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참된 용기자가 포함되어 있는가에 좌우된다. 아무리 좋은 이상적 세계의 꿈을 갖고 또 제아무리 훌륭하고 정치한 설조 계획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할 의욕과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시들고 마는 것이다. 비록 약점을 지니고 뒤약성을 면치 못해도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이 의식이 강한 편에 좋은 꿈과 달콤한 공상에 젖어 큰 것만 기다리는 소극적 생의 태도를 능가하는 것이다. 작은 열발자라도 가설을 세우고 행동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다시 도전하는 불굴의 자세가 창조적 생의 필수인 것이다. 이것이 창조적 인간의 철학이다. 동양인은 대부분 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인내의 자세에는 익숙하면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며 창조적인 인내의 철학에는 무력했기 때

줄에 오늘의 현실을 말해준 것이라고 단정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 이다.

인간의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나는 날부터 그의 생명은 소모되어 가는 것이다. 생명은 애걸해서 그 생명이 더욱 길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값있게 소모했는가가 그 인생에 가치결정이 되는 것이다. 현재에 보다 높은 차원의 실현을 위해, 보다 넓고 큰 자아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고귀한 생명을 순교하는 헌신의 결의에 의해서 역사는 창조되고 세계는 생활권을 부여받아 움직이고 이상은 실현되어 가고 문화와 문명은 진보되어 가는 것이다.

인류 역사의 문명과 문화의 금자탑은 헌신적 결의에 의해서 쌓아 올려진 선현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엮인 생활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다. 노력없이 뜻을 이룰 수 없고 헌신적 마음 없이 큰 일이 성취되는 법이 없다. 이것이 생동적 인간의 논리이다.

5.

근세 한국 민족의 역사는 비굴로 점철된 소극적 인내의 역사요, 꿈을 품고 이상을 세웠던 내일이 없는 인내의 역사이며 책임성을 상실한 도피적 체념으로 인내의 역사였다. 게다가 침(侵)과 실(失)마저도 오래된 압축된 망국사였다. 그러나 신흥 이스라엘군의 20세기의 출현은 한마디로 그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렸던 2천년간의 긴 역사의 쓰라린 체험을 통한 인내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내는 승리의 열쇠이다. 이 사실의 혼돈과 암흑의 불경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슬기로운 인내의 걸음은 신중히 그리고 도전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내는 그 목적과 이념 혹은 근거로서 확고한 신념과 뚜렷한 희망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인내의 윤리이자 실천으로서 솔선성이 우리의 생의 원초로서 사회 구석구석에까지 실천되지 않아서도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인내의 기동력으로서 소아적(小我的) 생명의 [illegible] 대아(大我)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헌신의 결의와 땀과 눈물을 쏟아붓는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 안에 경주되는 개혁적이고 창조적 세계관이 개개인이 생의 원리로서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와같은 인내의 구조가 우리 국민과 군인의 의식에 깊이 뿌리 박는 날 이러한 민족의 역사는 그 방향을 바꿀 것이다.

단결의 중요성

신부 김 춘 근

우리는 한 마리의 새이나 곤충 몇 마리의 곤충들 앞에 위대함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수천만 마리의 새이나 개미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공동 작업을 할 때에는 결국 놀랄만한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외국에서는 수많은 메뚜기 떼가 하늘을 나를 때에는 넓은 창공이 구름에 가리우듯이 캄캄해지기도 하고 넓은 들판에 앉으면 삽시간에 농작물을 먹어치워 버린다는 사실을 듣고 있다. 이들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다수의 힘의 규합으로서 즉 단결된 단체의 힘으로써 가능케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배우고 또 실천할 줄 알아야 하겠다.

인간 사회에는 크고 작은 많은 단체들이 있다. 이 많은 단체들이 어느 것 하나 예외없이 단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생명력은 단결하는 데에 있다.

단체란 어떤 공동목표를 위하여 여러 사람이 서로 힘을 결속하는데서부터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단체가 강하냐 약하냐 하는 문제도 바로 이 단결력의 강도에 따라서 측정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단체 중에서 군대라는 특수단체가 가장 막강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이유는 젊은 청년들로서 구성된 단체라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강인한 단결력이 그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청년들로서 구성된 단체라 할지라도 단결할 줄을 모른다면 한 사람의 개인적인 힘과 능력 이상의 것이 그 단체 안에서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다. 동시에 단체로서의 옳은 전력 발휘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힘과 능력의 무질서한 발휘는 힘의 불균형과 불협화로 결과적으로 한 단체의 존립 여부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잘 훈련된 병사라 할지라도, 우수한 무기를 갖고 있을지라도 혼자의 힘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음은 뻔한 이치나 마찬가지다. 단결할 줄 모르는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할 것이며, 그것으로는 나라를 지키기는 커녕 집안조차 지킬 수 없는 것이다. 60만 대군이 아니라, 100만 대군을 자랑해도 단결력이 없는 군대라면 한낱의

총성에 송장이 흩어지는 채 구덕을 받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단결은 군대사회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가정생활에서부터 단결할 줄을 알아야 한다. 가장을 중심으로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할 때 안으로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밖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의 모든 관계는 단결할 줄 앎으로써 함께 살아남을 수 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끝내는 국가 사회라는 거대한 단체에 있어서도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국민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 모두가 나라의 안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고 단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의 한국 정부는 국민총화를 부르짖고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하나로 결속되기를 요망하고 있다. 국토방위도 군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국력의 증강도 군수산업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나라의 안위를 자기 생명처럼 여길 줄 아는 국민 모두의 생활자세 안에서 강한 군대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결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획일적 타율적 동조가 아니다. 단결의 참된 가치와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피동적으로 이어지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뿐더러 무서워서 혹은 처벌에 못이겨서 남과 하나가 되는 척 겉으로만 흉내내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는 단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단체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 단결은 피동적인 운동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각자 마음에서부터 자발적인 협동심을 나타내는 능동적인 운동인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단결은 올바른 인간성과 사회성을 계발함으로써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고도로 조직화되고 다양화된 사회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살고 있다. 그러나 양(量)적으로 증대된 인간관계가 무조건 좋은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양적으로 증대된 인간관계 안에는 동시에 질적으로 견실하게 계발된 인간성과 사회성이 수반되어 내재하고 있어야 한다.

인간관계와 그 안에 내재하고 있어야 할 견실한 인간성과 사회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인간사회는 많은 부조리와 모순을 산출할 수 밖에 없다. 확실히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그 인간관계 안에는 오히려 과거보다 성실성과 진실성과 겸허한 자세가 부족

을 우렁 같은 껍질이 갈라져 메말라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관례로 개인의 영달만을 탐하는 이기심과 포악무도한 야합과 거짓들이, 주고받는 인사말에까지 얼룩지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때가 흔히 있다. 사회생활에서 상호 인간관계가 이렇게 저질화되면 사람들은 타인과 서로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없으며, 괴로울 때 서로 걱정을 나눌 수도 없다. 괴로울 때 서로 친절한 위로를 주고 받을 수도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 주위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지만 할 수 없이 우리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고독하게 살 수 밖에 없다. 현대인은 고독하다고 말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얼굴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엮어가면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태의 상호 관계를 고독한 인간관계라고 부르는 까닭에 있을 것이다. 이 고독한 인간 관계 안에서는 오히려 불신과 경계의 눈초리가 대두하고 있다. 겉으로 나타난 타인의 말조차도 그 표정과 말 속에서조차 그 저의가 무엇인지를 의심하고 안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틀어쥐어야 할 인간관계가 소조하고 불안한 정신적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다. 현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을 것이다.

인간은 본래 혼자 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한 측면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 생활의 사회성은 인간 본성에 뿌리를 박고 있다. 때문에 누구든지 이웃과 함께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불안과 고독에서는 결심에만 매여 벗어날 수 없다. 이 병은 남이 치료해 줄 수 없다. 환자 자신이 이웃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친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에만 치료될 수 있는 것이다. 서로의 일과 문제점들에 관해 공동관심사를 갖고 노력할 때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인간생활에 있어서의 건전한 사회성은 소극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방심을 자제해야 하고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하는 이웃에 해를 끼치지 않을 줄 아는 기본적인 생활태도에서만 형성될 수 없다. 적극적으로는 이웃을 도울 줄 알아야 하고 이웃과 힘을 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결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리고 단결할 줄 아는 국민은 바로 가장 건전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가장 건전한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단결할 줄 모르는 국민은 바로

건전한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과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건전한 사회의 질이 결여되어 있는 인간사회와 국가에서는 불안과 고독이라는 병에 걸린 채 절망하던 사람들이 서로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속이면서 제가 이익만을 찾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우리 민족을 두고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고 자랑하곤 한다. 장구한 민족의 역사야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 민족의 우월성을 시간의 길이로 따지고 앉아 있을 만한 시대는 벌써 지나갔다. 더우기 그 장구한 민족사의 내용이 굴욕과 불명예 일관의 역사라면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기 위해 우리 민족은 민족중흥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힘을 모아 일어서야 할 것이다.

지금에도 우리는 국토가 분단된 채 불행한 역사를 계속하고 있다. 민족이 하나로 뭉치지 못해서 나타난 불행한 현실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의 바로 우리가 단결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민족이 소용돌이치는 강대국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치는 것이다. 단결하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 총화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밝고 건전한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전쟁관

군목 김 상 배

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과 소련 세계 열강국들이 핵 무기를 보유한데서 평화보다는 오히려 전쟁이 감도는데 있다. 이에 대한 기독교의 전쟁관을 역사적으로 대략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그리스도교인의 견해는 거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전쟁은 무서운 죄악이다. 더군다나 현대전은 전에 상상도 못하던 무서운 파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쟁은 죄

비한 대비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신자는 부득이 전쟁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런 경우에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의무라고 믿는다. 하지만 "전쟁 없는 세계"는 기독교가 실현하고자 하는 세계를 향한 노력의 이상이다. 이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근거를 고찰해 보자.

1. 전쟁과 평화에 대한 성서적 개념

구약시대의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전쟁의 용사"(출애굽기 15:3)라 불렀고 그들은 그 용사의 의지와 계약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였다. 초기 구약시대의 평화 개념은 구약 최초의 기술단계에 형성되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기습에 새로운 길에 "여호와 샬롬"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간구했다(삿6:1—24). 이 말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화인 안전의 보장,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결코 무사주의적 평온함이나 정적인 고요를 포함하지 않았다. 평화사상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전쟁의 [illegible]수들의 압제로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음을 사사기에서 찾게 된다. 그리고 왕정시대에는 왕권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성전(聖戰)을 선포하기로 했으나, 그 중엽에는 평화에의 깊은 동경이 서리고 있었다. 그들은 옛적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성취되는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있었다. 그것이 후일 평화의 실현이 메시야 사상으로 발전해 갔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사 2:4). 예수의 교훈에 있어서도 전쟁은 주제가 될 수 없었다. "너희 원수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라"(마 5:43—48)고 예수께서는 분부하셨다.

2. 역사에 나타난 전쟁과 평화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교훈에 따라 원수를 사랑했고, 살인행위 등 극력 회피하면서 병역을 거부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한 신앙의 자유가 선포된 이래 십자가는 평화와 희생의 상징이라기보다는 군인의 상징으로 표현됐다. 로마황제는 정권과 교권을 한 손에 휘어잡고 십자가를 앞세워 원수를 격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 교회 안에 평화주의와 대립되는 "정의의 전쟁론"이

박행을 갖기 시작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의 사령관 보니파키우스가 세상을 하직하고 수도사 되기를 희망했을 때 그것을 만류하고 오히려 군인으로 있으면서 야만적이고 호전적인 북방의 민족과 대적하여 싸우는 일에 정의로운 헌신하고 봉사케 한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정의로운 전쟁론에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오늘 그것은 세계교회의 사상으로 전래되어 왔다. 이러한 "정의로운 전쟁관"은 결코 중세의 독점물이 아니었다.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그것은 중심으로 계승되었다. 군인 「아더 폰 크람」이 루터에게 농민전쟁의 진압구조에 참석하여 "믿는 자가 과연 군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겠는가?"고 물었을 때 루터는 그것에 답하기 위해 "군인 또한 축복받는 계급에 속할 수 있는가"란 글을 썼다. 거기서 루터는 전쟁을 의사의 치료와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사가 중태의 병든 환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그 수족을 절단 수술하는 것이 선한 행위인과 마찬가지로 전쟁도 "사랑의 행위"요 "선에 속하는 행위"라고. 그리고 칼빈에게 있어서도 루터 보다 더 더 극적인 태도로 정의의 전쟁을 옹호하고 있음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신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전쟁에는 인도 문제를 개입시킬 여지가 없다."고 강조한 것다. 그러나 중세의 십자군이 패배했고 종교개혁 이후의 30년 전쟁을 통하여 살생(殺生)에 대한 회의가 높아지자 소수의 평화주의자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이르렀다. 이들은 무조건적으로 평화 사상을 강조하고 현실의 죄와 불의, 권력 투쟁, 부도덕한 사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불의의 악을 방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인류를 멸절하려는 큰 악에 대해서도 "평화"라는 미명하에 도전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라인홀드 니버」는 비판했다. 그리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고전적 정의 전쟁론, 또는 정당화할 수 있는 전쟁관을 부정하는 이른바 그리스도교 현실주의를 제창함에 이르렀다. 「라인홀드 니버」가 절대적 평화주의에 도전하는 까닭은 여러모로 고찰할 수 있는데, 첫째는 큰 악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후 수단으로써 전쟁 방식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치 정권의 유태인 말살 내지 독일 민족의 세계 정복 등과 같은 큰 악에 대해서는 그것을 방관하는 것보다는 "보다 작은 악"으로서의 전쟁을 수단으로써 막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힘의 균형"이 없이는 어느 한편이 항상 힘의 위협하지 않고, 세계는 전체주의적 악에 지배되어 들어갈 가능성이

컸다는 것이다. 힘과 권력이 배제되는 날, 정의가 관계할 수 없고, 정의가 없는 곳의 연대성을 내용으로 한 사랑의 구원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정의는 사랑의 범위 안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칼 바르트」 역시 국가의 무력과 국가에 대한하는 무력적 관여가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바르멘 선언 제5항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에서 국가는 법도 권력의 행사를 통하여 정의와 평화수립에 이바지해야 할 과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한다. 즉 국가는 하나님께 질서에 따라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권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동원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원칙적으로 바른 선전(善戰)을 적극 긍정하고 했다.

3. 핵 시대의 전쟁

핵무기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재래식 전쟁과 평화의 개념에 대하여 다시 근본적으로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래의 "정당화할 수 있는 전쟁"을 긍정해 온 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십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전쟁 긍정을 기정사실화하기 때문에 재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적 힘을 과대하게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재난 받은 역사적 평화주의자들이 비록 전통적 교회로부터 인정할 수 없는 굴욕과 핍박을 받았으나 그들이 지켜온 그 진리성을 다시 음미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입장은 오늘의 핵무기 시대에 있어서 그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루터가 흔히 말한 바 열 사람의 수족에 절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은 구출해야 한다고 했으나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하려가는 전인류를 살인하고 말 가공할 힘을 내리려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핵전쟁 하에서는 힘의 균형이란 사실상 인류 전멸의 "공포의 균형"으로서,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여기서 「니버」의 현실 균형에서 정의를 실현하려는 그리스도교 현실주의적 입장은 인류의 생존과 관계되는 도덕적 문제에 봉착하여 새로이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재래식 전쟁 전략의 방제를 목적으로 제한 전쟁 또는 제한된 보복전쟁으로 한정하자는 설이 그리스도교 현실주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핵무기 시대에 있어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있는 모든 전쟁을 철저히 반대하는 과격 평화운동을 한다. 라의 「슐레서」는 "정의의 정당화할 수

었는 핵전쟁"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핵을 도구로서 마치 "목적의 칼" 이라 말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또그러한 국제이란 할지라도 분명히 전면적 핵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핵전쟁의 가능성을 외면하면서도 항구 평화시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만일 적은 선제공격이나 전쟁 억제전이 불가피적이라고 하자. 그리고 오늘의 국제 사회가 힘과 힘의 대결 흥정의 마당이므로 적국보다 더 강하거나 적어도 동등한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적의 군사력을 억제할 도리가 없다고 하자. 그렇다고 평화란 것이 "힘의 균형"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는 노릇이다. 우리가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 결코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에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그러한 논리가 성립되느냐가 문제이다. 비엔나에 경고했듯이 어떤 바 "무방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체제다. 각국의 정치가들이 현명하게 행한 단지 상대국의 정책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고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결코 인간 이성의 교활성을 믿기는 어렵다. 「야스퍼스」는 원자폭탄을 일 단 무기로 사용한 위협이 철학적으로 했다면 그 무게가 어떤 "위협"이 될 수 있겠는가고 반문한 바 있다. 그런 발언은 결국 하나의 인간적 기만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탄했다. 이문에 있어서 야스퍼스는 묻는다. 그러나 그 역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전체주의가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는 차라리 "노예가 되기보다는 죽음을 다오"란 논리를 택하여 핵무기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야스퍼스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수 없었다. 노예가 되기 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는 것은 즉, "인류의 존속"이라든가 창조질서의 유지 사상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자기가 노예되기 싫으면 자살하는 한이 있더라도 왜 전인류의 멸살을 가져오는 핵병기 사용을 시인해야 하느냐? 그런 자세 가운데 성립될 수 있는가 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음을 택하는 개인의 의사와 핵무기 사용의 문제는 확연히 구분되어야만 할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종결한 후 암스테르담에서의 세계교회협의회의 제1차 총회에서 "전쟁은 신의 의지에 어긋나므로 반대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교 역사에 있어서 놀라운 발언이다. 근래 W.C.C. 산하의 C.C.I.A.에서도 핵병기의 소유는 전면

건강에의 위협으로 인정하고, 이런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축, 무기통제, 특별한 훈련 등 제도상의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더런가 모르는 핵무기에 의존한 공포의 균형은 불안전한 것이며, 근본적인 평화의 방안은 결코 아니다. 그러고 그런 현재가 처한 위치는 하나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이 딜레마를 타개할 길은 지극 막막하다. 그러나 그 길을 타개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 가운데 인류에 대하여 끼어진 우리의 윤리적 정치적 책임이다. 군비 경쟁의 종결, 제 3세계의 생존과 신뢰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우리의 재목들을 제거하며 완전 군축을 지향한다.

이제 요약해서 몇 가지로 결론을 내린다면,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통치자시다. 어느 세상 위험이오, 악을 위험이 지배하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전쟁중에 일어나는 악감정, 비극 등이 갈수록 그 힘이 늘어간다. 그리고 전쟁에서 발생하는 결과는 크게고 대수인에게 거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멸제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 피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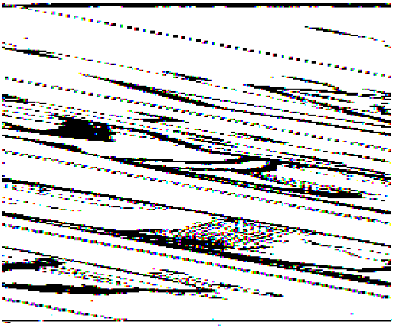
둘째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회나 국가가 오직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을 따라 지정한다면, 그리하여 다른 나라나 민족의 권리와 자유를 무시하며 경제적 탐욕, 정권욕, 인종적 편견, 복수심, 자만 등을 계속 강행한다면 사회는 전쟁으로 인도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쟁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고 하나님은 무서운 이런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인간 자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서 이 선물은 우리의 도덕적 책임을 명령한다. 우리는 이 자유없이 인간일 수는 없다. 우리의 책임은 그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대로 사용하는 그것이다.

셋째로, 하나님만이 절대주권자이시다. 궁극한 것은 모든 국가들 위에 인류가 있다. 그리고 이 인류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념은 하나님은 속죄자시며 화해자시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심판이 다만 보복적인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개인, 사회, 국가가 공의(義)와 선과 평화의 길로 돌아오기를 추구하고 계신다. 전쟁은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피할 수 없는 현실만은 아니고, 정복으로부터 인종과 사회, 국가를 보호하고 더 큰 죄악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에 동참해야 하는 비극을 우리 인간은 알고 있다. 이 점을 볼 때 기독교 윤리관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 일본 관례어화 □

대심원으로 행차하신 벤대

□ 허 왕 □



■ 일제시대 나온 일본관례어 생책자를 뒤적이다가 그 책갈피 속에서 문득 나가노 판사가 쓴 중 관계용고에 위 제목으로 소개 되 놓은 글을 읽어 본 바 그 제목과 사안(事案) 내용이 우습고도 희한하여 잠깐 읽을거리로 옮겨 본다. ■

(1)

『얼마 전, 오오이소 정거장에서 승차하려는 어린이 손에 게(蟹) 한 마리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꽃꼼한 역장이 야단치며 가라사대, 「게는 동물이니 객차 안에 휴대를 금하노라」 하고 동물운반규칙을 준수하기를 호통쳤다. 던데서 방광한 채 이를 지켜보던 한 친구 왈, 「이 돌대가리 역장아! 게가 동물이면 너 등에 붙은 이(虱)는 어린놈이냐」고. 역장, 이를 듣고 말끔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아무소리 못하더라』

이것은 유명한 일본시인 오규우 편집에 나오는 얘기로 철도규칙은 전문가인 역장보다 풋내게 한 친구의 해석이 더욱 잘 되었다고 보겠다. 오규우는 이 역장을 「상식에 결핍된 우리 일본인의 좋은 예」라고 평하였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게가 이의 권익이 될 수도 있으며, 동물학상의 사실이야 어떻든 권책으로 취급 당한 게에게 억울한 것도 없고 사람들도 이를

잘못된 것으로 생각지는 않는다. 이는 법 해석이 그 목적에 들어맞기 때문이리라.

(2)

그러나 법적 해석이 잘못되면 빈대마저 비웃게 된다.

법률신문(제3798호, 5면게재)에 이, 벼룩과 동등시 당한 빈대가 재심되자 불복상고(不服上告)한 예가 있다.

개(慨)하여 가라사대「빈대는 비웃는다」고, 이 사실은 당시 도하(都下) 매신문들에 붓을 모아 보도했고, 잡지도 전재하여 더욱 세간거리로 읽어나갔다. 어디에 그 뉴우스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되 아마 대심원, 재판관, 변호사와 빈대의 묘한 대조에 유모어를 느낀 때문이리라. 그 엄숙한 대심원으로 행차하신 빈대! 상상해 보면 유모어를 안 느끼는 바도 아니다.

(3)

나는 이 사건을 보통의 계약에 관한 판례로서 소개한다.

사안은 흔히 있는 보증금 반환의 소송이다.

시즈오카현에 사는 어떤 집 주인이 시가지에 있는 가옥을 도쿄의 어떤 신문사에다 임대하였다. 신문사는 이 집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가 확실치는 않으나 아마 신문배달부의 숙소 등으로 사용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 임대차(賃貸借)는 보증금을 건 보통의 어느 임대차와 다를 바는 없었던 것 같으나 말썽은 임대차가 해제된 뒤에 생겼다. 즉, 집 주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한데서 비롯된다. 신문사도 집주인을 걸어 반환의 소(訴)를 제기하게 되고—. 집주인 측에서는 신문사에서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던 중 빈대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구제 비용으로서 26엔이 들었다고 하고 이는 임차인(신문사)이 가옥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의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이므로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항변하였다.

1, 2심 모두 집주인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공소심(控訴審=抗訴審)은「특히 차가인(借家人)이 악의를 가지고 가주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하에 일부러 불결하게 하여 대량의 기생충류를 배양번식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단순히 원고가 통상의 용법으로 이를 사용한 데 불과한 이러한 기생충류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질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빈대의 애완동물이란 말은 매우 재미있는 표현으로 생각된다.

(4)

이에 대한 각주의 상고이유는 빈대와 이, 벼룩의 비교론으로부터 시작된다. 원 판결에서는 상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빈대를 이, 벼룩 등속과 동등시하고 있으나 인체에 대한 가해의 정도를 비교하면 빈대는 출몰자재(出沒自在)로 그 구제가 지극히 어렵고 물린 자국은 피해자가 일본 민족인 경우, 체질에 따라 고통을 별반 느끼지 않는 자도 전무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물린 부분이 광범위하게 부르트고 근지러운 데다 통증마저 느끼며 수일에 걸쳐 심신통일을 결(缺)하게 하고 지능사무(智能事務)에 이르러서는 심한 장해를 초래함이 보통임에 반하여 이, 벼룩은 그 출몰에 있어서 빈대만큼 자재하지 못하고 구제가 용이하며 그 물린 자국은 순간적이고 그 부분이 부르트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려움증과 통증도 가벼우며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다 그 구제방법을 비교해봐도 전자의 근절은 극히 완전한 소독구제로서도 어려우나 후자의 근절은 용이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전자를 두려워 하고 후자를 별로 문제삼지 않음이 일반적이니 가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자가 있음을 고지하면 그 계약이 성립될 수 없지만 후자의 있음은 고지하더라도 계약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일찍이 DDT가 나오기 이전에는 이, 빈대, 벼룩 등 각종 기생충의 전성시대였음을 상기할 것—역자). 과연 그렇다면 전자와 후자를 동일하게 취급함은 그 심히 부당함을 알 수 있겠다 하고, 또 빈대의 발생은 통상의 용법으로 가옥을 사용한 결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터인즉 결론상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에 즈음하여는 통상의 용법으로 가옥을 사용한 결과의 상태로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할 소위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면 그 용법에 따른 가옥의 사용의 결과 이외의 훼손멸실(毁損滅失)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당연히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 바, 그 용법에 따른 가옥의 사용의 결과 당연히 발생한 것

으로 보게 되리운 빈대의 발생은 임차인이 이를 구제하여 그 없던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가옥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은 명백하다고 본다고 결론을 짓고, 그 구제를 게을리한 임차인은 동 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반대로 이, 벼룩과의 우열론이 전쟁론을 운운하고 사주능률론에까지 이르고 보면 완전히 이, 벼룩의 판정패로 볼 수 있겠고, 그 옛날 제왕 등등이 지위향상을 뽐내던 이도 여기서는 그 체통과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된 셈이다.

(5)

그러면 최후의 승자는 그 누구인가?

소화 11년(1935년) 6월 11일의 대심원 판례는 가라사대,

이, 벼룩에 대한 논의는 일단 제쳐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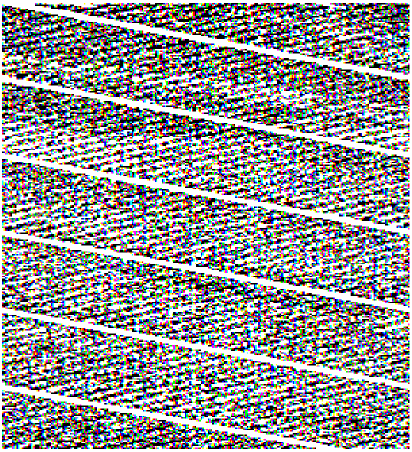
빈대에 있어서는 우선한 빈대가 피상고인(신문사)의 본건 가옥인도 기준 이후에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상고인은 이를 구제하지 않고 빈대가 있는 상태 그대로 본건 가옥을 상고인(가주)에게 명도하여 상고인이 이를 구제하기 위한 비용(금 30원)을 요하였은즉 적어도 빈대의 발생 또는 번식에 대하여 피상고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한 차가인인 피상고인은 그 원상회복 의무의 불이행에 기(基)한 손해를 가주(家主)인 상고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겠다. 이와같은 배상의무 발생요건으로서는 반드시 원판시(原判示)와 같이 피상고인이 악의를 가지고 가주인 상고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하에 일부러 불결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빈대종류를 더 많이 번식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6)

빈대는 드디어 승리를 하였다.

이, 벼룩에 대하여 무수했던 판례에 침공된 빈대는 마음으로 더욱 더 기승을 부리며 다닐 것이로다.

정 승 환



곳곳에 테니스 붐이 절정을 이뤄 클럽이 다투어 생겨나고 있다. 부유층이 체력관리를 위해 붐을 일으켰던 골프가 주춤해지자 테니스가 뒤를 매고 있다. 요즘 테니스 복장을 갖춰 라켓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흔하게 눈에 띈다. 테니스는 골프에 비하면 비용이 적게 들지만 사교적인 면에서나 건강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 경기의 유래

서기 기원전 500년경에 이집트 또는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것이라 전해지고 있는데, 그리스 로마에서는 현재의 테니스와 직접관계가 있는 볼게임 운동과 비슷한 것을 즐겼다.

공은 중세기 프랑스의 귀족들 간에 유행하였으며, 루이 10세, 샤를르 5세 등도 이것을 몸소 즐기는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으나 그 후 약간 쇠퇴한 감이 있었다. 그러나 15, 16세기에 접어들어 이들에서 이른바 코트 테니스 또는 로얄 테니스로 발달되었으며, 프랑스나 영국에서 널리 즐겼다.

1874년에는 영국 소령 「월터 윙필드」씨가 확실한 코트와 네트를 고안하였으며, 1875년에는 「메리본 크리케트 클럽」에서 테니스 규칙을 결정했다.

1877년에 전 영국 크리케트 클럽에서 테니스를 하게 되고, 여기 제1회 전 영국 선수권 대회를 윔블돈에서 개최하였다.

이때부터 테니스가 구미 각국에 보급케 되어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 경기방법

중앙에 네트를 친 코트의 양쪽 끝에 한 사람씩 서로 라켓을 가지고 공을 번갈아 받아 넘기는 경기이다.

이렇게 서로 공을 받아 넘기는 동안에 상대편으로부터 득점을 하며 또한 상대편에게 점수를 빼앗기는 것이다.

일정한 게임 및 세트를 끝마치면 게임이나 세트를 많이 이긴 편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 경기의 종류

1. 싱글 게임(단식)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상대로 경기하는 것이다.

2. 다블 게임(복식)

두 사람이 1조가 되어 다른 조를 상대로 하는 것이다.

3. 믹스드 다블(혼성 복식)

남녀 각 1명씩이 한 조가 되어 다른 남녀 각 1명씩의 한 조와 경기하는 것이다.

● 단　　식

1. 그립(Grip)

그립에는 포어핸드와 백핸드의 두 가지가 있는데 포어핸드는 악수하는 것처럼 잡는데 이 때에는 라켓의 끝이 손바닥의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백핸드는 치는 순간에 왼쪽 어깨를 돌리어 엄지와 검지 사이에 V자를 그리며 라켓의 끝 부분을 쥐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다. 이것은 서브에도 사용된다.

2. 서어브(Ser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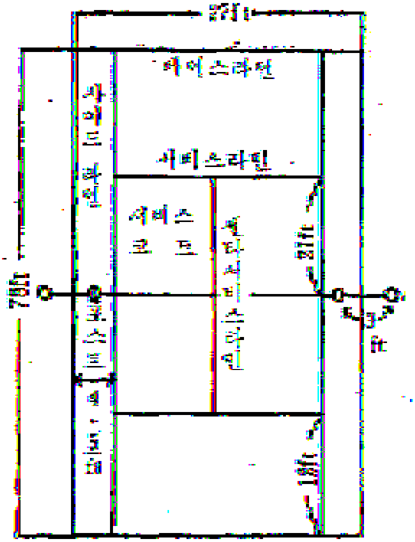
본래 서어브란 단순히 공으로 시합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테니스의 중요한 공격무기로 발달되었다. 즉 그것은 리시버(Reciver)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또는 제자리에서 서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세에 자신이 생기고 흐름을 타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이용케 된다.

서어브는 라켓 히트로 공을 어떻게 처

넘기느냐, 혹은 팔로우 스루(Follow through)를 왼쪽으로 하느냐 오른쪽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변형이 생기는데 서비스 그립은 백핸드에 쓰여지는 것과 같으며, 손잡이는 단단히 잡되 너무 꼭 잡지 않는 게 좋다.

서어브는 라켓의 스윙이 최고점에 달하였을 때 공과 라켓이 완전히 마주치는 동작을 말하는데 여기에 세고 다른 수가지 동작의 조화를 필요로 한다. 먼저 베이스 라인(Base line)의 중간점에서 4~5인치 떨어진 지점에서 가운데 쪽으로 공을 보낼 수도 있고 코트를 가로질러 서어브할 수 있는 위치에 서야 한다. 왼발은 네트 쪽으로 45°로 향하고 오른발은 풋트 폴트(Foot fault)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베이스 라인과 2~3인치 쯤 뒤에 놓아야 하고 오른발과 왼발은 18인치쯤 벌리는 것이 좋다. 중심은 두발 사이에 고르게 두어야 하며, 라켓은 그 목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잡게 하고 약간 위쪽을 향하도록 한다. 이때 공은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잡아야지 손바닥으로 쥐어서는 안 된다.

스트록은 양팔이 동시에 각각 현저히 동작을 시작함으로써 비롯된다. 오른팔은 서서히 뒤쪽으로 움직이고 손목은 라켓이 머리를 넘어 등 뒤에 이를 때까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자세를 유



<싱글 코트는 4미터 반의 양쪽 폭을 없앤 것이다.>

지해야 한다. 이 동안에도 스윙은 계속되는 중 팔꿈치가 어깨높이에 이르면 손목도 굽어지고 라켓헤드는 아래로 떨어진다. 그리고서 앞쪽으로의 동작이 시작된다. 팔로우 스루는 몸무게를 모두 전방으로 옮기면 자연스러워진다. 공을 치고 나서 발은 베이스 라인을 넘어 들어가고 있는 방향으로 옮겨놓고 그 다음 다른 스트록을 할 수 있는 준비자세로 되돌아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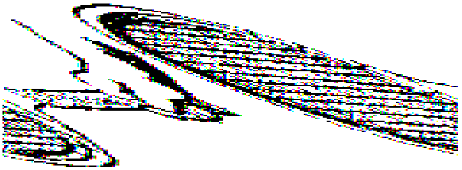
오른팔이 라켓을 올리는 것과 동시에 왼팔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동작으로 공을 위로 던지는데 던진 공이 가장 높이 올라간 곳에서 라켓과 공이 마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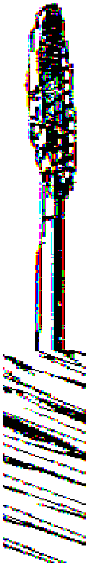
야 하고, 이 때에는 손목의 굽은 곳을 라켓이도 필연적이도 않는 상태에 있는 곳이다. 이것은 많은 선수를 계로 하는데, 왜냐하면 가장 높은 곳에서 라켓이 공을 칠 수 있도록 토스를 할 때에 공을 일정하게 올릴 수 있도록 습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포어핸드

<라켓과 악수하는 것처럼 잡으면 그립이 잘 된 것이다. 라켓의 끝이 손바닥의 끝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백 핸드





<공을 치는 순간에 왼쪽 어깨를 향하여 엄지와 검지 사이에 V자를 그리며 라켓의 끝부분을 쥐는 것이 백핸드의 올바른 자세. 또한 서브에도 사용된다. 기본 스트록을 칠 때는 받쳐주기 위해 손잡이의 뒷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받쳐준다.>

3. 포어핸드(The fore hand)

테니스에서 가장 잘 쓰는 것은 포어핸드 드라이브이고 이것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경기에서 사용하는 무기이다. 이것은 상대를 공격할 때나 혹은 여러 경우로 피치 않는 최고의 수비를 할 때 사용될 수 있다.

여튼 테니스의 기본 스트록이라 불리우는 포어핸드와 백핸드는 페이스, 템포, 정확도에 결정해하여 효과가 나타난다. 테니스의 성공은 모든 다른 운동의 좋은 스트록과 마찬가지로 선택스러운 구성요소의 완벽한 조화와 타이밍이 있음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여 공을 때리는 바로 그 순간 스트에다 당신의 몸무게와 힘을 실리게 하는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좋은 포매는 능력과 그 정확도는 몸무게의 전달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익히게 된다. 테니스의 오른쪽으로 포을 칠 포대려면 몸무게는 두 발 사이에 거의 똑같이 나누어져야 하고 포울을 제일 멜향으로 고쳐세려면 약간 여우 앤다 질 빨로 몸무게를 옮겨야 한다. 또한 거튼 스트록은 완르우 스루는 소홀히 하지 말 것이며, 자신과 결단을 가지고 공을 치고 언제나 지고 난 글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그리고 포어핸드에 있어서는 스트록을 하는 동안 팔이 자주 완전한 호를 그려야 한다. 왼팔은 재는 자세에서 오른팔을 따라가고 라켓에 무게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전에 라켓의 머리를 그 뒤로 뽑는 동작을 한다. 라켓을 오른발에 인치하고 백스윙은 라켓 머리를 높이게로 끝난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 어깨를 낮추면서 라켓으로 공을 낮으게 바로 처과게 포의 현이 되도록 라켓을 이동시키고. 공을 접촉하게서 라켓의 손텝을 그 공의 안쪽 아래부분으로 옮겨다 좋은 칠 때에서 결례를 주어냉기 위해 받을 수 제고 손목을 고정시킨다. 왼팔은 앞쪽으로 나아가 몸의 앞 부분으로 돌아가는데, 스트록은 항상 완전한 스루를 크게 하고서 끝나게 된다.

4. 백 핸드(The back hand)

백핸드 드라이브도 기교면에서는 포어핸드 드라이브를 칠 때와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백핸드는 안쪽게만 된다면 포어핸드보다 쉬운 것이다.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백핸드가 포어핸드보다 더 어렵다고 하게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핸드는 몸으로부터 멀어지며 스윙을 하기 때문에 더 쉬우며, 백핸드는 공격무기이며, 방어무기가 아니다.

백핸드의 한가지 단점은 몸을 전환해 라켓 헤드의 중앙에서 맞추기 위해서 몸

수 있는데로 몸을 펴지 말고 공 자세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너무 공과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되는데, 떨어진 공을 잡으려면 무리한 힘이 들기 때문이다.

백핸드를 잘하는데 있어 왼팔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왼팔은 라켓을 돕고 어느 자세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이때의 한 목적은 공을 칠 준비를 하고 뒤로 하는 동안에 라켓은 하나의 완전한 원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항상 발 끝쪽에 중심을 모으고 준비자세를 취하고 나서, 몸을 돌리고, 라켓을 뒤로 스윙하고 앞으로 스윙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다음 공을 기다리면 된다.

1. 완전한 원형

백핸드는 율동적이며, 연속적인 동작이어야지 한 동작과 다음 동작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백코트에서의 준비자세는 오른손은 손잡이를 덮어서 쥐고 왼손은 라켓의 목부분을 가볍게 받쳐준다. 왼손은 라켓을 뒤로 잡아당기게 하여 로 호를 그리게 하고 오른손은 그 길을 쭉 간다. 내각 오른발 앞으로 12인치 떨어진 허리 높이의 타점에서 공을 맞추어야 한다. 만약 공이 낮게 된다면 무릎을 굽혀 공을 허리높이에서 맞혀야 하고, 칠 때 그립을 꽉 잡아야 하고 손목도 치는 순간 자연스럽게 펴서 고정해준다.

준비자세

<이 자세는 치는 때나 치고난 후 취하여야 한다. 몸의 힘을 잘 빼며 중심은 발끝에 두고 균형을 잡는다. 라켓은 왼손으로 받쳐주고 공을 칠 준비를 한다.>

5. 발리(Volley)

현대 테니스에 있어서 두드러진 경기는 발리이다. 발리는 공격용으로 사용되어서 뒤지던 위태한 공격수세에 있음에서 전타에 상대편의 균형을 잃게 하고

유리한 위치에서 득점을 할 수 없게 한다.

코트에서 네트로 나아갈 때가 가장 공격을 받기 쉬우므로 강하고 깊은 스트로크를 치고 나서 발레이를 한다. 그리고는 네트에 접근하면서 한번이나 하프발레이를 절대로 하지 말며, 네트와 서비스라인 사이의 중간 위치가 좋다.

단식에는 전후에서의 간격이 짧고도 날쌘 스트록이므로 백스윙하지 않고 팔로우스루도 짧게 해야 한다.

가장 좋은 자세는 날아오는 공을 향해 민첩할 수 있도록 발을 약간 벌리고 구부린다. 얕게 낮은 공을 발레이할 경우에는 발을 구부려야지 하반신의 허리를 펄어트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 위치를 방어하기 위해 쇼트를 사용하며 공이 네트보다 높을 때 득점에 연결할 수 있다.

● 복식(Doub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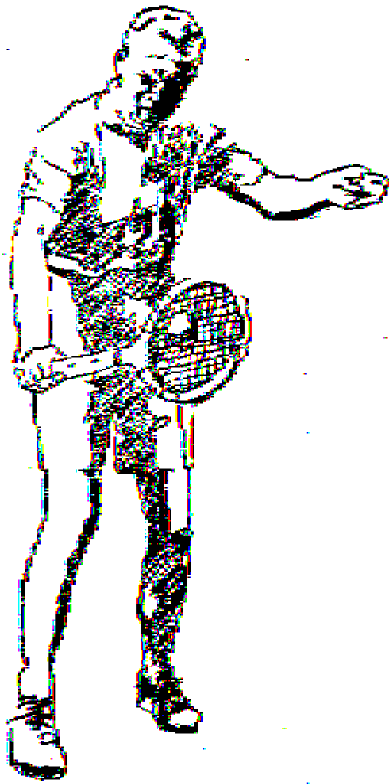
Doubles란 말은 영국에서의 마구에서 유래되었고,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어느 연령층의 사람이든 할 수 있는 게임이다. 일반적으로 이 복식은 별로 속도를 내게 않고 노력도 보통으로 움직이는 게임이다. 그러나 양쪽 어느 편에게나 매우 숙련한 게임이다.

성공적인 경기에서와 같이 훈련한 복식게임은 위치를 잘 잡아야 한다. 이길 수 있는 위치는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 네트 앞이다. 숙련된 선수들의 게임을 보면 세번의 쇼트 중 한번은 발레이고, 서브와 리턴을 제외하고 득점의 80%는 포어코트 근처에서 이루어진다. 부득이 뒤로 가야 할 경우에만 베이스 라인까지 후퇴한다.

1. 가장 넓은 네트커버(Net-cover)를 위해 옆으로 움직인다.

대부분의 성공적인 스트록에 대해서 사용되는 세 가지 기본원칙은 네트 근처에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파워 한 쉬게임에서 테니스코트의 중앙으로 자신에게 오는 볼들이 하나하나의 스트록을 한 후에 네트 플레이할 수 없는 위치로 되돌아와야 하는데 선수들이 네트와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가의 정확한 거리는 그들의 신장, 반응의 속도, 배구의 예상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대개의 경우 게임은 네트 근처에서 결정된다. 예를 들면 로브를 하려면 네트맨을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게 하거나, 혹은 스매시의 준비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만약 상대편이 약한 로브를 처올리게 되면 네트맨은 자리에 남아서 단독이고 쳐내려가다. 옆으로 빠는 친구를 향해야 한다. 네트맨 중의 한 사람은 공



<포어핸드 발리와 마찬가지로 백핸드발리의 특징도 약간 짧은 것 뿐이다. 라켓 머리를 안정된 팔꿈치 약간 위로 올리고 공을 향해 짧은 스텝을 취하면서 라켓을 약 1~18인치 움직인다. 라켓 머리의 각도는 낮게 될수록 커진다.>

상을 향해 앞으로 나온 한 사람은 서어드라인을 향해가는 상대의 선수를 해야하고 자기 행동을 위한 적당한 거리는 러닝을 하려고 하는 속도에 관해 있다.

상대편의 각도가 크면 클수록 보올을 길게 볼을 공격에 거리는 더욱 좋아진다.

2. 서어브의 방어

빨리건 간에 공격의 목적과 같다. 즉 가능한 한 빨리 네트에서 공격을 취하는 것이다. 가령 리시버가 서어브를 판별하여 네트로 접근할 수 없으면, 점수는 득점으로 연결하여 2에 1에서 1대 1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낮은 보올로 너무 빠르지 않게 코트 대각선으로 타구를 보내면 받는 쪽이 네트에서 공격할 수 없는 위치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러나 접근공(Approach shot)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종류의 서어브 반구에 또 다른 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리턴된 공을 달려와도 때려줄 수 없고 또 공으로 리시버의 코트의 쪽으로 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어버의 네트에의 주축을 막기 위해 리시브는 수비로 플랫 드라이브, 크로스로 치거나 라인에 떨어뜨리는 것이 필요하다. 혹은 네트 로브를 해도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리시버는 공을 네트너머로 올려보내야만 한다. 그리고 서어브를 리턴한 경우 먼저 다량의 실점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받는 쪽은 득점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네트를 넘기는 확실한 리턴이 코트에 떠는 경우의 순속보다 훨씬 낮게

때문이다.

리시버에게 가장 치명적인 곳은 서버가 공을 넣으려고 하는 리시버의 백핸드 구석 코숙한 곳이다. 대부분의 서버들은 약 3/4속도의 트위스트 서브(Twist Bit)이다. 그것은 숙련된 서버에는 볼을 콘트롤할 수 있고 네트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많게 생긴다. 그러나 리시버는 서브된 공을 리시버가 손쉽게 받을 수 없도록 자주 서브되는 서버의 변형에 속도, 공격권을 항상 점제하고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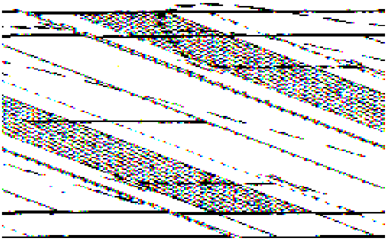
공이 어느 곳에서 치든지, 리시버의 주요책임은 어떻게 그 공을 처리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서버보다 리턴이 그 시합의 50%의 능률을 지배하며, 그 다음은 상대편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편이다.

3. 생각은 게임의 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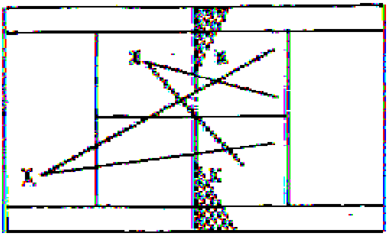
승리가 뛰어난 압도적인 스트로크 또는 파워에 비하는 결정적 상대편에 대하여 계략을 숨겨서 많은 점수를 딸 수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경기자들은 게임에 전심을 기울여야 하고 조그마한 정신적 탄성은 금물이다.

또한 경기자들은 헌신적인 팀 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이것은 단순히 훌륭한 테크닉을 기계적으로 숙련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팀의 충분한 재기가 없이는 다양하고 강한 스트로크나 훌륭한 전략이 있다 해도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다. 성공적인 파트너들은 득점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는 당황한 경기자를 안정시킴으로써 실력을 변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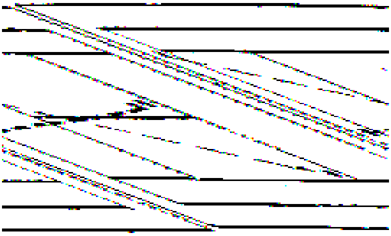
그러나 좋은 팀과 아주 훌륭한 팀을 구별할 수 있는 차이점은 상대편의 약점을 철저하게 공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경기자들은 스트록에 약점이 있거나 코트 포지션을 잘못 잡거나 또는 이 두 약점을 다 가지고 있다. 스트록의 약점을 지나치게 힘주지 말고 힘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 약한 스트록을 상대편으로 하여금 지나치게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한다면 약한 스트록은 정말 강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코트 포지션의 약점도 철저할 수 있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훌륭한 복식팀은 상대편 네트맨이 네트에 아주 가까이 있거나, 또는 앨리(Alley)나 센터(Center)를 방어하지 않고 있는지 유심히 주시할 것이다. 그것은 상대편이 날카롭게 코트 바깥쪽으로 리턴한 공을 받아낼 수 없는 위치를 잡을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서버 코트를 이탈하고 네트로 달려오는



<공격용 로브는 방어용 로브와는 달리 낮게, 낮지만 길게 해야 한다. 너무 짧고 낮은 로브를 하고서 네트에 달려들어가는 것은 불리하다. 상대방은 당신에 서서 짧은 지역(빗선 부분)에 있을 때 당신 발 앞을 찌르게 된다.>



<네트 포지션은 적당하지만 네트보다 5인치 높은 곳에서 비랄끝(빗선 부분)으로 보내는 공은 아주 위험하다.>



[illegible]

서버가 공을 넣으려고 하는 리시버의 백핸드 구석 깊숙한 곳이다.>

짜를 보기 위한 것이다. 일단 그러한 허점을 발견하면 그들에게서 결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어려운 서비스 반구

복식에서 서어브의 연구는 매우 어렵다. 이 스트로크는 다른 것보다 득실점에 더욱 연결되고 서어브팀은 리시버보다 2:1의 유리한 위치에 있다. 실제로 세트의 모든 서어브의 연구 중 80%는 실점에 연결되고 불과 17%의 근소한 공간이 득점에 연결된다.

리시빙 팀은 칠 수 있는데로 공격 규칙에 접근하여야 한다. 리시버의 파트너는 서비스 라인 바로 안쪽 코트 중앙 근처에서 변형된 네트 포지션에 서야 한다. 첫 서비스일 때 리시버는 베이스라인에서 한 두발짝 안쪽에 서야 한다. 독특한 서버에 대비하여 움직일 수 있는 스텝은 애절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리시버에게 서어브를 빨리 받도록 해 며. 앞으로 나오는 서버의 발길에 공세적인 리턴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서버가 네트에 접근하여 공격 포지션으로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게 된다.

5. 코트에서의 5원칙

일반적으로 각 파트너와 공을 받아 넘기는데 지켜야 할 5가지 기본원칙이 있다.

1. 센터에 온 네트 플레이는 보올을 센터 쪽으로 포어핸드인 선수가 받아야 한다.

2. 코트 대각선으로 친 로브는 친 사람과 반대편 코트에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한다.

3. 중앙에 떨어지는 로브면 좋은 포어핸드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스매슈해야 한다.

4. 짧은 거리에서 공이 빠르게 교환되는 경우엔 공을 치고 있던 사람이 공을 쫓아서 반구의 준비를 하기가 더욱 쉽기 때문이다.

5. 서어브의 반구가 중앙에 떨어질 경우 네트맨은 발리어로 쳐내기 위하여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자기 파트너가 발리어에 실패할 때를 대비해 서어버는 그의 뒤에서 준비하여야 한다.

6. 포우칭(Poaching)의 기교

복식에서는 어느 파트너든지 상대방이 네트 근처보다 낮은 볼에서 발리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느 편이든 자기 편이 될 여지 제내는 사정은 사용되어야 한다.

가장 좋고 많이 쓰이는 방법은 포우칭이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말한다. 게임 도중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계획적일 수도 있다. 한쪽 편은 그의 파트너의 앞에 계획된 네트맨이 네 볼은 자도로 바른 쪽에서 분명히 칠 수 있다면 그가 그 볼을 쳐야 한다. 그러나 포우칭하는 파트너가 공을 못잡을 때를 대비하여 다른 파트너는 그를 위해 커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포우치의 변형 즉 위장된 포우치는 드리프트(Drift)이다. 크로스코트 리턴을 예상하고 네트인이 처음에 느리게 옆으로 움직인 다음 두번째 연결되는 크로스 코트 리턴을 할 수 있는 최대속으로 네트를 따라 빠르게 옆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테니스클럽은 주로 회원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특별회원 입회금은 10만원 안팎으로부터 최고 30만원까지이며 1개월간 1사람이 내는 회비는 5천원 이상. 또 회원은 시간당 평일 4백원~천원, 휴일(토요일 포함) 1천원~1천 5백원선 정도이다. 특별회원에게는 샤워장과 타월등의 무료사용 등 특전이 있다.

광화문에 테니스협회로 널리진 광충

코트는 현재 선착순으로 무료개방하고 있으나, 클럽하우스등 갖고 있는 코트를 보수한 뒤 8, 9월부터는 유료제로 시간당 3, 4백원씩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연중 200여개의 대회를 치르다보면 일반인의 이용기회는 크게 줄어들게 마련.

중앙청 안에는 9면의 코트가 있으나 공무원들의 수요에도 달려 각 부처에 배정을 철저, 회원제를 실시하여, 1인당 월 2천원씩의 회비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대 연대, 성대, 고대, 숙명여대 등 대학교와 배재, 양정, 중앙, 영동 등 고교, 이화, 계성, 무학, 대성 등 여고 등 30여개의 각급 학교에 약 50여면의 코트가 있으나 일반인들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고교의 경우만은 주위 불구 10여명의 간곡한 부탁으로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공개. 그들은 그 대가로 코트 보수, 볼을 제공 등 학교에 협조하고 있다.

각 학교마다 이른 아침에는 대부분 코트가 비어있지만 교내질서 유지와 코트 보호를 위해 일반공개를 꺼리고 있으며 여러가지 사정 등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끔 공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코트 시설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코트 1면을 만들려면 땅값을 빼고도 최소 1백여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에게 쉽사리 코트를 빌려 줄 수도 없으려니와 코트 빌려 달라고 조를 수도 없어 대부분의 애호가들은 값비싼 클럽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라켓 하나에 국산 5천5백원 외제는 1만3천원부터 3만원이 넘는 것까지 있으며,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수입 볼은 4개 1통에 2천5백원~3천원이 호가되고 1주일에 1세트가 소모된다.

이밖에 초심자인 경우 복장을 갖추려면 T셔츠 1천5백원, 반바지 1천5백원, 운동화 2천5백원, 헤밴 1천원, 양말 3백원, 모자 5백원 등과 용구를 담은 백이 1천2백원부터 3천원. 또 기본자세를 익히기 위한 교습에도 1시간당 월7천~1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서민생활로는 경제적 부담이 비교적 큰 편이다.

● 테니스 용어해설

에이스(Ace)—리시버가 손댈 수 없도록 잘 넣은 서비스

찹(Chop)— 언더스핀(Under Spin)으로 친 스트록

듀스(Deuce)—게임에서 40포인트, 세트에서 10게임 후 서로 동률의 점수의 게임을 요구할 때

드라이브(Drive)—포어핸드나 백핸

으로 그라운드(Ground)에서 튀는 공을 치는 것.

폴트(Fault)—네트에 걸리거나 서비스 코트 에어리어(Area) 밖으로 잘못 나간 잘못된 서어브.

더블폴트(Double fault)—잘못된 두 번째 서비스

풋 폴트(Foot-fault)—서비스하는 동안 발의 위치나 동작에 잘못된 것.

플랫 서어브(Flat serve)—스핀을 넣지 않고 강하게 친 서비스. 콘트롤이 가장 곤란하다.

렛(Let)—공이 네트를 맞고 서비스 에어리어에 떨어진 서비스. 레시버에게 벌을 주지 않고 서비스를 다시 한다.

로브, 오펜시브(Lob, Offensive)—공을 공중에 높이 쳐서 상대편 코트에 깊이 떨어지게 하는 것.

로브, 디펜시브(Lob, Defensive)—공을 공중에 아주 높이 쳐서, 선수로 하여금 적절한 코트 위치를 되찾게할 수 있게 하는 것.

매치(Match)—승자를 결정키 위해 사전에 결정한 코트나 게임의 수

네트 볼(Net ball)—서비스 이후 네트에 닿는 공. 대부분 경기를 진행한다.

오버헤드 또는 스매시(Over head, Smash)—높이 뜬 공을 공중에서 치는 것.

오버스핀, 탑스핀(Overspin, Topspin)—라켓 페이스를 공 아래서 위쪽 앞쪽으로 올리면서 치는 스트록. 특히 포워드(Forward) 모션을 도와 준다.

세트(Set)—승자는 두 게임 이상의 차를 가진 채 6게임을 먼저 딴 경우

슬라이스(Slice)—라켓 페이스를 써서 사이드스핀(Sidespin)을 넣어친 스트록

트위스트, 아메리칸(Twist American)—네게 공이 땅을 스치듯 공에 킥킹 액션(Kicking action)을 주면서 사이드 스핀과 탑스핀으로 친 서비스

언더스핀, 언더컷(Underspin, Undercut)—라켓헤드가 공 아래에서 지나가면서 친 스트록으로 공이 역회전을 한다.

리버스 트위스트(Reverse Twist)—반대로 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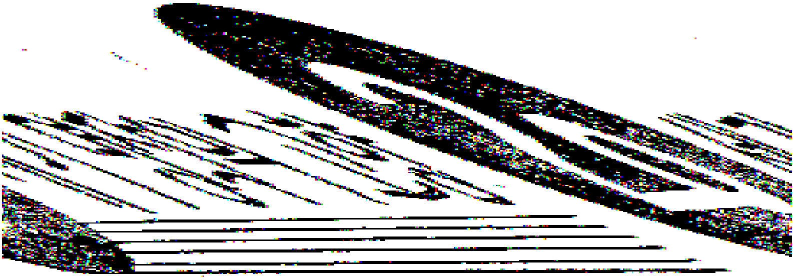
발리이(Volley)—공이 땅에 닿기 전에 친 짧은 펀치(Punch)

앵글 발리이(Angle Volley)—공이 땅에 닿기 전에 각도를 이루고 상대편을 지나는 스트록

드롭 발리이(Drop-Volley)—상대방이 못받도록 네트 바로 너머로 부드럽고 약하게 친 스트록

하프 발리이(Half-Volley)—공이 땅에서 튀어오르자마자 친 스트록

로브 발리이(Lob-Volley)—공이 땅에 닿기 전에 상대편에게 높도록 친 스트록



작가는 죽어서 위대해진다. 살아 있는 작가들 보러 문학여행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그가 일단 죽고 나면 그가 살던 집과 그가 거닐던 공원과 드나들던 카페들은 그의 작품과 함께 여론의 물레 속에서 순례자들의 필수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존경하는 그를 아는 나중에게는 작가는 살아서보다 죽어서 빛을 발해준다.

「제임스·조이스」의 「더블린」

「조이스」는 장편 「율리시즈」를 끝내고 나서 "만약 「더블린」시가 하루 아침에 무너진다 해도 내 작품 「율리시즈」에 나타난 대로만 재건한다면 과거의 「더블린」과 똑같은 「더블린」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그의 작품은 「아일랜드」 태생의 젊은 마음을 울렸고 「더블린」시가에 뿌리를 박았던

겠이다. 이와같은 짙은 지방색은 그의 조국과 더블린에 대한 깊은 애정의 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미국의 희곡작가 「손톤·와일더」가 처음으로 「더블린」의 문턱을 디딘 18세의 「젊은 예술가」에 등장하였던 「코너·오브라이언」(현 「더블린·이브닝·프레스지」 편집국장)이 안내역을 맡았다. 「오브라이언」이 「G·스위프트」가 영국인들의 학정을 규탄하는 근거지로 삼았던 「롱」 교회를 비롯하여 뭇군데의 유명한 조각과 큰 건물들을 소개하는 도중 「와일더」는 「마텔로」탑과 「샌디코브」해안, 「애블러스」가…… 등은 어디 있느냐면서 스케줄을 변경시켰다. 이들은 모두 「율리시즈」의 주인공 「스티븐」과 「블룸」의 1일 편력(遍歷)에 나타난 지명들로서 「아일랜드」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와일더」로서는 필연히 「조이스」의 소설 속에서 그려진 상상의 도시였던 것이다.

해마다 6월 16일은 「블룸의 날」이다. 그래서 「조이스」광들은 이날 「율리시스」에 나타난 주인공 「블룸」의 하루동안의 행적을 따라 「더블린」시를 순례한다.

「조이스」가 죽은지 26년——. 그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이 「더블린」 땅을 거쳐 갔지만 아직도 그가 작품 속에 상세한 묘사에 따라 「더블린」 곳곳을 순방하기에는 그의 고향없는 지도는 아무도 불편하다.

「조이스」의 부친 「존·조이스」는 지방 「더블린」으로 이사와서는 중심가에서 3마일 거리 떨어진 「러스타운」동에 살았다. 그의 가족은 차차 중심가로 이동하여 「런슨」주(州)에서 가까운 「그라운드가」의 「브라이톤」광장 41번지에서 1882년에 「제임스」가 태어난 곳이다. 「제임스」는 어려서 「브라이톤 스퀘어」가 어째서 4각형(스퀘어)이라 하고 3각형으로 생겼느냐고 웃어대곤 했었다. 85년이 지난 오늘도 그가 태어난 41번지 주택은 옛 번호가 있으며 「조이스」가 늘 하던대로 현관 앞에 서면 삼각형으로 된 광장 너머로 「더블린 힐」이 내려보인다. 이 집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형체를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다 정면 벽에 쓰여진 문구만이 「조이스」가 태어났던 집임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조이스」를 기념하는 조촐한 박물관은 「더블린」에서 8마일 떨어진 「샌디코브」의 「마텔로」 탑안에 운치있게 있다. 「조이스」가 기거했던 「더블린」의 여러 집들 중에서도 이 「마텔로」 탑은 가장 멋있고 낭만적인 곳이다. 이 탑은 19세기 「나폴레옹」이 침입할 무렵 동해 연안에 세워진 여러 개의 성채(城砦) 중의 하나다. 1904년 「조이스」는 근처 국민학교의 선생노릇을 하고 있을

에 친구 「올리버 · 센 · 존 · 고가티」가 이 탑에서 같이 살자고 초청해 왔던 것이다. 이 탑은 내부를 많이 개조한 오늘날 와 보아도 당시의 이 두 젊은이의 충실하고 원활한 생활상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탑은 이 둘이 살았다는 사실적 가치보다는 「율리시스」의 첫 장면이 이 탑 속에서 시작된다는 게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첫 에피소드(텔레마커스)의 첫 단어로 나오는 「벅 · 멀리건」이란 인물이 바로 「올리버 · 고가티」를 나타내며 「블룸」의 방랑, 이날 6월 16일 아침 「스티븐 · 디달러스」(조이스 자신)의 「더블린」으로 향한 행렬이 시작되는 것이다. (「벅·멀리건」으로 등장한 「올리버 · 고가티」는 후에 「조이스」를 걸어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적이 있다.) 「스티븐」이 「마텔로」탑을 떠나는 바로 그 시각에 역시 주인공 「블룸」 또한 그의 집 「에클레스」가 7번지에서 그의 하루를 떠난다. 이 「에클레스」가 7번지 주택 역시 낡고 위험하지 해서 중심가에서 멀지 않은 그 위치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조이스」는 「브라이튼」광장과 「마텔로」탑 외에도 여러 곳에서 살아왔다. 「존 · 조이스」는 그의 친구에 나타나 있듯이 부모에게 풍부하고 가치있고 재정 있는 스나이기는 했으나 세제(稅制)에는 무능했고 술의 유혹에서 헤어날 줄 모르는 센티멘탈리스트로 낙인찍혀서 「조이스」는 예전엔 여러 번 이사를 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말하자면 「조이스」의 유년기는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행운이었으나 청년기부터는 불우했던 셈이다. 옳은 이사가 「조이스」가의 몰락을 증명해 주는 셈이다. 「오브라이언」이 그의 어머니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존 · 조이스」의 말로는 늙은 빈털이에 구질구질한 술주정뱅이였다고 한다(그의 어머니는 「존 · 조이스」가 젊어서 그녀를 귀찮게 따라다녔다고 회고한다.). 「존 · 조이스」는 술값 때문에 번지는 집세를 빚으로 갚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조이스」가는 중류사회에서 곤궁 하류사회로 급강하해 내린 것이다.

「조이스」가 두 살 때 그의 집은 「러슬우드」가 23번지로 이사를 갔다. 아직 부유했으므로 이 집은 꽤 크고 부드럽고 넓은 가옥이었으나 현재의 철로 체건 벽돌로 보아서는 당시에도 그러한 손길이 갈 뻔했던 적이 없었다고는 않다고 한다. 1885년 「조이스」의 동생 「스태니슬라스 · 조이스」가 이 집에서 태어났다.

대가식구의 행운이 쇠잔한 「존 · 조이스」는 시가지에서 12마일이나 떨어진 「브레이」 교외로 이사를 갔다. 그러나

이로써 술친구들은 필요할 때면 조용을 경계하여 「조이스」의 집에 몰려들게 되어 노래를 불러대게 되었다. 이러한 음악의 밤에 당시의 「더블린」 중류사회의 한 특징을 이루었으며 「조이스」의 출현 「죽은 사람」에 나오는 「가브리엘 콘로이」의 모습에 큰 영향이었다. 「조이스」가는 「브레이」에서 다시 「블랙록」으로 이동하여 약 1년간을 살았다. 이 「블랙록」의 「캐리스포트」가 23번지 그가 살았던 집은 현재의 거주인에 의해 깨끗이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존·조이스」는 매 잘 마시어 재산으로 경매에 넘겨 버렸고, 이로부터 「조이스」가의 몰락은 시작되었으나 이후의 「조이스」의 거처는 결코 여유하고 화려한 것으로서 지금은 그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빈자집들이었다.

그러나 「조이스」의 작품세계를 완전히 순례하려면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귀로도 들어야 하는 법. 「더블린」의 「오코너」가에 가면 「그리스도」 교회 옆의 두 개의 술집 사이에서 「브레이즌·헤드」란 레스토랑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레스토랑은 「조이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현재까지 경영되어오는 오래된 유명한 술집으로서 「조이스」가 자주 드나들던 술집이다. 술값도 별로 비싸지 않고 주방들이 맥주로 이을 수 있어 좋다. 하기 루레 「율리시즈」 한 권도 더 나오는 「제임스」주(酒) 한 잔을 시켜놓고 손 그거나 거에 앉아 주객들의 얼굴에 귀를 기울여 보라. 살아 있는 「술꾼」이 걸어 들어 오는 것은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그 뿐만도 주변의 눈 「더 콩벨」에서 또 무슨 성(聖)「스티븐」공원을 거닐어 보라. 거기 앉은 한 사람도 「율리시즈」를 읽는 사람은 없지만 그들의 저편에는 한때의 한마디에서 모두 「율리시즈」에 나타난 레오폴드 사회를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작품에 묘사되어 있는 동일을 뭘 책으로 가고 싶다면 「스티븐」공원과 대학 건물에 들어가 보라. 이곳이 바로 조이스가 다니던 대학으로 현재는 학생들의 오락장으로 쓰이고 있다.

그보다도 「조이스」의 손이 저로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호우스」언덕으로 달리는 게 의외적일 것이다. 지금은 거닐매조차 남아 있지 않고 옛 실현의 유적도 사라졌지만 찬란한 바다의 이 언덕길이야말로 「조이스」뿐만 아니라, 「W·B·예이츠」와 「버나드·쇼」, 「올리버·고거티」 등 거의 「아일랜드」 출신 작가 모두들에게 영감을 불어준 곳이다.

「토마스·S·엘리오트」의 런던

「엘리오트」는 처음부터 런던이 좋아서 런던인이 된 것은 아니다. 「하이델베르크」를 거쳐 1916년 「소르본느」를 나온 그는 프랑스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었지만 전쟁때문에 영국으로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네 사중주」를 보면 「엘리오트」는 수세기를 전해 내려오는 영국의 교회나 공원, 거리의 풍 역사의 냄새 속에서도 신비와 매혹을 발견한 듯 하나 그의 가장 두드러진 체험은 역시 「황무지」에 「불 속의 도시」로 나타난 일차 세계대전에 있었다 하겠다.

처음 런던에 도착해서 2년간 「엘리오트」는 「하이게이트 스쿨」에서 선생노릇을 했다. 학생들은 그를 「미국선생」이란 별명으로 불렀었다. 「하이게이트」는 19세기 시인 「코울리지」와 「키츠」와 작가 「콘스터블」이 자주 거닐던 곳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옮긴 곳이 「베이커」가의 「클라렌스게이트 가든즈」— 여기서 그의 「비비엔느」와의 첫번째 결혼생활이 시작되었고, 「셜록 홈즈」의 창조자 「코난·도일」의 이웃이라 해서 「엘리오트」가를 괴롭히기도 했다. 아닌게 아니라 그가 이사온지 3~4년만에 근처 상점에서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이 있은 후 겁에 질린 「엘리오트」는 늘 하던 저녁 산보도 중단했었다고 한다.

교사생활을 1년기 만에 끝마치고 그는 「런던」에 있는 「로이드」은행 외국부 계원으로 들어갔다. 여기에 8년여 그는 예기를 통해 근처의 교회를 찾았으니 가장 두드러진 것이 「황무지」의 「이오니안」의 순백(純白)과 황금색의 광채를 지닌 성(St.) 「마그너스·마터」교회와 9개 런던교회의 파괴될 운명 중 하나가 벗어나게 된 「메리·울노스」교회이다.

「올더스·헉슬리」는 이 시기의 「엘리오트」를 가리켜 늘 「은행가 중에서도 가장 은행가다운 시인」이라고 「스티븐·스펜더」에게 말했다 한다. 교회에 출석인 행렬관은 그의 작품과 생애에 있어 두가지 큰 계기를 만들었다. 하나는 이 오래된 건물들이 그를 성공회(聖公會)로 개종시켰고, 교회에 대한 사랑은 그로 하여금 교회건립모금을 위한 드라마 「대성당의 살인」을 쓰게 했던 것이다. 「엘리오트」는 은행가 생활을 즐기진 않지만 이 생활은 그의 작품시간을 빼앗아갔다.

이를 발판하여 그의 친구들의 주선으로 「엘리오트」는 「더 크라이테리언」지의 편집장이 되었다. 여기부터 그의 「러셀·스퀘어」의 생활은 시작되는 것이다. 「러셀·스퀘어」는 대영박물관

각 칼렌더악 같은 고풍건물들로 둘러싸이긴 했지만 그 가운데 작은 공원과 정원을 가진 미로의 넓고 쓸쓸하고 한산한 곳이었다. 예컨대 말하자면 럭셀광장 가까이 드나드는 외국 학생들만으로 붐비는 별세계적 매력적인 곳으로 그의 저 「헤드스카의 고향이」에 그 분위기를 그대로 그리고 있다.

「럿셀·스퀘어」의 북쪽에 「엘리오트」 외에도 많은 시인, 소설가, 학자들과 예술인들에 모여 인생을 논하고 예술을 창조했던 「블룸즈베리」문단의 본거지 「고든·스퀘어」와 「핏츠로이·스퀘어」 「가우어」가 등이 있다. 「핏츠로이·스퀘어」에 살던 「버지니아·울프」의 집에 「블룸즈베리」파의 아지트를 세우었고 셰더릴 건너 「자우어」가에 동 문단의 중심 「오톨라인·모렐」여사가 살았다.

「모렐」에서는 「포틀랜드」공작의 누이로 예술을 위해 작위를 버린 예술로서 「버트란드·럿셀」의 애인이고, 「아우구스터스·존」이 초상화를 그렸으며, 「D·H·로렌스」의 작품 「사랑을 하는 여인들」의 여주인공 「허마욘·로디스」의 실제 인물이다. 「모렐」여사가 매주 열던 소위 「목요회」에 드나든 문인으로는 「엘리오트」 외에도 「예이츠」와 「제임스·스티븐스」, 「올더스·헉슬리」 「줄리안·헉슬리」 등이 있었으며 「고든·스퀘어」에는 「E·M·포스터」가 살고 있었으므로 「럿셀·스퀘어」를 중심한 「엘리오트」의 주변은 거의 당시 영국문단의 중심가를 이루었다고 할만 하다.

「엘리오트」가 「더 크라이테리온」지의 편집장을 겸하면서 「페이버 앤 페이버」출판사의 지배인으로 있는 동안 그와 그의 주위의 시인, 소설가들은 「소호」에 있는 「코메트리호」식당에서 만나 점심을 나누곤 했다. 「코메트리호」는 음식맛도 괜찮고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은 조용한 「이탈리아」식당으로 「엘리오트」의 바로 다음 세대인 「스티븐·스펜더」와 「W·H·오든」과 「이셔우드」도 종종 같이 드나들며 점심하기도 했다.

「엘리오트」의 「코메트리호」출입이 매우 잦았던 「허버트·리드」가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박물관으로 직장을 옮기자 애들은 아지트를 「코메트리호」에서 「웰링턴」 「로얄·플레이스」에 있는 「고로브」주점으로 옮기게 되었다. 「허버트·리드」옹에 「스파러 더블」지에서 이렇게 쓰고 했다. 「고로브」에는 「크라이테리온」의 기고가들 뿐 아니라 런던을 방문하는 세계 문인들이 꼭 다녀가는 이른바 옛 「브리드」가의 「더비스트·태번」을 방불케 했다」고. 이렇게 하여 「럿셀·스퀘어」와 「웰링턴」는 「엘

리오트」의 런던 생활의 두 극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엘리오트」가 가장 런던인 다웠다는 것은 그가 수십년을 거기에 살았고 런던의 지방색을 샅샅이 더듬어 연구했다는데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검은 수트에 검은 중산모를 쓰고 다닌 그의 모습은 런던 아니고는 다른 어느 데에 갖다 놓아도 안 맞을만큼 런던시에 어울렸다.

런던시가 중에서도 「엘리오트」가 런던인으로서 가장 잘 어울린 곳이 그가 아파트를 얻었던 「첼시」에서 였다. 그는 전쟁 중 한때 「존·헤이워드」와 이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다리를 못쓰는 「헤이워드」를 휠·체어에 태워 산보시키는 구부정한 그 모습은 이상하리만큼 런던인의 분위기였다. 그는 약 10년 동안 「헤이워드」의 산보를 보살펴 주었다.

런던생활 초기에 「엘리오트」는 자주 이사를 다녔고 거처를 옮길 때마다 그의 작품사를 꾸는 작품 1개씩을 산출했다. S. W.「런던·사우스·웨스트」 1의 「체스터 테라스」에서는 「시메온」을 위한 노래를 쓰고 W·C 2의 「가덴」가에서는 「스위니 에고니스트」를 썼다.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런던」사교생활을 즐겼던 곳은 역시 「켄싱톤」에서였다. 그는 거기에서 약 25년 동안 성「스티븐슨·글로스터·로드」의 교회위원을 지냈다. 그가 「켄싱톤」생활을 얼마나 즐겼는가는 「4개 4중주」에 처음에는 「켄싱톤 4중주」란 이름을 붙일려 했던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다.

「켄싱톤」에서의 그의 런던적 생애는 결혼생활 이전의 생활과는 좀 다른 것이었다. 사실 그의 두번째 결혼의 행복한 생활의 대부분이 여기서 소비되었고 이때부터 그는 가끔 시장이나 외국 대사들이 베푸는 공식연회에도 흰 타이에 연미복을 입고 나타났던 것이다. 30년대에 이르면서 「엘리오트」의 런던에 대한 태도는 훨씬 수동적이고 누그러진 양보와 낙관적인 편으로 변해 갔다.

그의 태도를 이렇게 변모시킨 데는 세 가지 원인이 작용했다. 하나는 완전히 성공을 본 두번째 결혼이었고 둘째는 일시의 외형으로 재능에의 자신을 얻었다는 점이며 셋째는 예의 출판회사 그의 경영담으로도 입증됐기 때문이다. 결국 「런던」은 그에게 명성과 성공의 결실을 채워 준 셈이고 그도 그만큼 여기에 대해 이 도시에게 감사하고 성의 다한 충성으로서 보답한 셈이다.

「엘리오트」의 최종 세속적 순례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빠뜨려서는 안 될 곳이 「트라팔가 스퀘어」에 있는 「옥스포드 캠브리지」클럽회관이다. 그는 과거

작품 속에서 자신을 이 클럽의 회원으로 등장시킨 적이 있다. 후에 그는 이 클럽을 떠나고 「사보이」클럽과 「개릭」 회관으로 옮겼다. 그는 64년 사망하기 전까지 「개릭」클럽에서 「스코트」와 「찰스 디킨스」의 동료들인 「헨리트·리드」와 「모닝 드로리」, 「윌키·콜리」들과 주(?) 흡의 객기 계획을 가졌다.

「섬머셋 모옴」의 태평양

「섬머셋 모옴」의 가장 인기있는 소설은 모두 열대의 불결한 남양의 주민 섬이다. 유럽의 이국적인 동경에 관한 작품들이라는데 누구나 의견에 일치한다. 「모옴」이 태평양 지역에 매력을 느낀 것은 이미 10살 때부터이다. 「레인 벌렌」의 「모비 딕」와 「타이피(Typee)」 등을 읽고 그는 낭만과 모험의 세계 태평양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해서 그는 태평양에 관한 「멜빌」의 글들을 숭배한 적이 있으나 「이 섬나라고 황스러운 태평양이 전 지구를 띠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모든 해변은 지구에 대해 하나의 띠를 만들어 주고 파도소리는 지구의 고동소리를 남기어 다 들을 수 있는 다를 적에다 큰소리로 노래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호화스런 관광여객선과 소무어, 혹시 카누를 타고 남태평양과 태평양의 항만여행을 즐겼던 것이다.

「모옴」은 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호텔, 바, 식당에서도 다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거의 떠벌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비서인 동료로 「제랄드 헉스톤」이란 미국인을 거느렸는데 그는 「모옴」과는 아주 딴판으로 사교적이고 항상 자리를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하는 술꾼이어서 「모옴」의 그러한 결함을 보충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헉스톤」은 술집, 항구, 호텔, 바 특히 열대지방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모옴」에게 자세히 전했고 「모옴」은 그의 이야기들 중에서 극적인 인물을 등장시키곤 했다. 이렇게 해서 「모옴」은 그의 작품의 주인공의 실제인물과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아도 되었다.

「모옴」이 「헉스톤」과 처음으로 여행한 것은 1916년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하와이」로 항해하는 순양선을 타고였다. 「모옴」은 1차대전 중의 영국군 사령부를 위한 정보원의 임무를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여 여행하게 되었었다. 그래서 그는 「허만 멜빌」과 「조셉 콘라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과 시인 「루퍼트 브루크」가 지나간 발자취를 밟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가 존경하던 작가의 눈으로 태평양을 관찰했던 점을 입증할 셈이다.

그러나 「모음」은 「이제 일어날 모든 일은 거의 모두가 독서와 여행을 통할 것이다」라고 「월튼 버나드」에게 말했다. 그는 「호놀룰루」에서 처음으로 야자수를 보면서 「마크 투웨인」이 이 섬에서 맞은 경탄과 같은 놀라움을 묘사한 것을 기억했다.

「모음」과 「헥스톤」이 묵었던 「와이키키」 해변의 「모아나」호텔의 넓은 베란다는 수년 전에 바로 「루퍼트 브루크」가 앉아 태평양을 즐긴 곳이다 —

「향긋한 나무에서 솟구쳐온 매끈한 향기가 떠나지 않았다.…… 젊은 향기는 속삭이고 희미한 물결은 나를 향해 기어오른다. 하얀 머리카락같은 물살이 밀려나온다. 그리고 물안개는 무드러운 「와이키」 바다 위에 별빛이 빛난다」

「모음」을 매혹시킨 것은 「하와이」의 경치뿐이 아니라 「호놀룰루」의 번화가 「이윌레이」의 악명높은 홍등가였다. 1916년 11월에 쓰여진 「레인 톰슨」도 여기 출신으로 「모음」에 의해서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모음」은 미령(美領) 「사모아」의 「파고 파고」에서 1916년에 「버나드」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illegible] 으나 작품에 나타난 창부의 이름이 그 창부의 실명임에 틀림없다. 그들이 「호놀룰루」에서 「파고 파고」로 타고 간 배의 승객명단과 사진이 이것을 증명하며 예정은 「버나드」가 미국서 출판한 「S.모음의 양(兩)세계」란 모험여행기에서도 볼 수 있다.

「모음」은 「세디」가 「파고 파고」로 떠나기 직전에 「아이월레이」에서 쫓겨났다고 들었지만 마음은 배를 항해하는 동안 그녀의 난잡한 행동을 자세히 보았다. 그들이 「아피아」를 향해 「파고 파고」를 떠날 때 「세디」는 「호놀룰루」에서 승선하고 「모음」은 영국에 돌아와 그녀를 주제로 처음으로 창부를 등장시킨 작품을 썼다. 이 「세디·톰슨」에 관한 단편은 영화와 연극작품으로 널리 그에게 거액(巨額)의 인세(印稅)를 벌게 했다. 그들에 한 다음 숙은 서「사모아」의 「우풀루」도(島)다. 「아피아」에서는 「아피아」산에 있는 「스티븐슨」의 묘를 참배했고 「모음」이 그의 태평양에 관한 각종 에피소드, 단편들, 「연못(The Pool)」과 「레드(Red)」, 「매킨토시(Mackintosh)」 등의 소재를 얻은 것도 여기에서이다.

전 독일의 무역항이던 「라바울」의 「마토투」만에서 「모음」은 「남수록의 위치」 주인공 「북커」의 모델인 「팩크·윌리암스」를 만났다. 「윌리암스」는 후에 「사바이」 원주민들에게 섬 주위의 도로 작업을 시키는 「북커」가 되었다는 것은 재미있고 처음에는 「모음」을 고소하려

교체하려 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위키」를 좋던 엘도우의 자로 결합시켰기 때문에 마음을 돌렸다고 한다.

이들은 「서 사모아」를 떠나 「헬리」와 「알카」를 거쳐 「누벨렌드」의 「오늘렌드」로 갔다. 목적지는 「타히티」였는데, 거기서 그는, 오래 「달과 6펜스」의 소재인 「프랑스」 신인상파화가 「폴·고갱」의 일생을 탐구했다. 「파페트」의 당시 유명한 「티아레」호텔에 묵으며 틈만 「오세아니아」에서의 「고갱」에 틀림없던 생애를 철저히 탐색하며 몇 달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가장 명은 정보제공자 중의 하나가 풍부한 불이 여인 「루이자·치스맨」이란 호텔 여주인이었다.

이 여인은 「달과 6펜스」에서 「출뢰르」호텔의 「티아레·존슨」으로 등장한다. 「모음」은 「타히티」의 낭만과 아름다움에 매혹되었다. 「타히티」의 넘쳐난 「마테이아」지방을 여행하며 「고갱」가 살던 집도 찾아보며 수없이 즐겼다. 「모음」은 이곳을 가리켜 「젊은이들이 유령 주위를 맴돈다. 나는 이렇게 죽음 같이고 평화로움을 느낀 적이 없다. 호수같이 몸을 대고 얼굴과 새파란 햇빛은 한으며 풍동 떠서 이 섬의 낭만주의자 「보물그」의 소리를 생각할 때처럼 비행에 띄어 「모음」은 「달과 6펜스」를 쓴다 보는 지금은 수영해서 「타히티」를 떠났고 다시는 거기에 돌아가 보지 못했다.

1963년 12월 죽기 이틀 전에 그는 마음과 같이 자기 소망을 말했다. 「다시 이번에 수영술이 투명한 호수에서 다시 한 번 수영해 보고 싶다」고.

「어네스트·헤밍웨이」의 「스페인」

1953년 6월 6일 「어네스트·헤밍웨이」와 그의 처 「마리·헤밍웨이」는 「스페인」의 「나바라」주를 통해서 투우제가 있는 「팜플로나」로 차를 달렸다. 「어네스트」는 「엔젤루시아」의 순동불독한 올리브 포목의 향기를 포착 절실히 들이마시기를 좋아했다. 그녀는 친구 「칼렉스·자코리아·베노레오」의 승용에 동승해 마드리드로 가게 위한 가죽 장화를 사들고는 「아빌라」의 경마장을 거쳐왔다.

그들은 「팜플로나」의 대로 카페에 앉아 술도를 마시면서 「우나 마나나 데 니에블라(Una manana de niebla=안개 낀 아침)」와 「엔다 볼레로 볼레로(Anda bolero bolero)=볼레로 노동의 멋쟁이」를 부르곤 했다. 당시 스페인은 대단한 흥으로 유동적이어서 노래부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때다. 「엔다 볼레로 볼레로」는 17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모상징도의 노래다. 「헤밍웨이」는 고전을

아가 심도네와 정력을 쉬어졌다.

투우시즌을 맞은 「팜플로나」는 「마타도어」와 「토레로」 투우사들로 이미 붐비고 있었다. 「마리·헤밍웨이」는 그의 일기 중에 그날 배일의 일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었다.

「오후 4시 30분 「팜플로나」에서는 아무래도 투우할 방을 구할 수 없었으므로 우리는 20마일 거리 떨어진 「페랄레라」의 「아레 스파칼」호텔로 갔다. 「6월 8일, 우리는 새벽 4시반에 일어나 「어니스트」의 친구 「후안니토·킨타나」에게 가서 커피를 마시며 투우 예기를 했다. 우리 셋은 모두 목에 빨간 네커치프를 두르고 투우장으로 갔다. 헝거리 친구 「루퍼트·벨렌」이 어머니를 보고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다. 오늘 경기에서 소에 받힌 사람은 한 명뿐, 그것도 심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투우장을 떠날 때 어머니는 주머니의 지갑이 없어졌음을 발견했다. 그 지갑은 애가 뉴욕에서 아버지 생일선물로 사준 것이다. 어머니는 남겨하는 빛은 보이며 「스페인」에서 가장 일류의 소매치기들이 오는 시합에 모두 모인다고 변명했다. 그래도 첫날 무사한 게 치우고는 시즌에 끝나기 전에 모르도 말한다는 것이 없다.」

1953년 6월 16일 그들은 「마드리드」의 「플로리다」호텔에 자리잡고 늘 하듯 「마드리드」 합석에 나섰다. 「헤밍웨이」 자신의 말을 빌리자면 「마드리드」시의 옛 명물들을 찾기 위해 그가 전에 늘 가던 「푸엔로펜숀」의 ?는 없어졌고 「그란 베아」의 「치코테」 바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마요르」광장 뒤에로 가는 서민들 같은 골목을 즐겨찾곤 했다.

6월 21일은 「어네스트」의 생일. 이날도 역시 투우장에서 돌아오면서 「어네스트」는 「마리」에게 「마드리드」에서 「발렌시아」로 알리는 길을 가리키며 「저곳이 열렬한 투우팬이 세계 투우계에서 최고의 「마타도어」 중에 하나였던 「안토니오·가르시아·발라다」가 태어난 곳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마리」는 '늘 「스페인」에 관한 한 「어네스트」는 살아있는 백과사전」이라고 말했었다. 7월 30일 신문을 보며 「어네스트」는 「마리」에게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이 성립되었다」고 알려 주었다.

「토마스·울프」의 「베를린」

「토마스·울프」의 「베를린」에 대한 사랑은 우스울 정도로 강한 것이었다. 「울프」는 1935년 5월에 처음으로 「베를린」에 갔으며 그 뒤 5월과 가을에 8~9월에 올림픽 경기를 보러 갔었다. 이때 그는

「베를린」서 환영되었다.

그는 일찍 독일지방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웅장한 종(鍾)」, 고딕의 마을, 광장 맥주에 들떠가는 물소리, 여름에 풍성한 여인들의 웃지 술집 등— 나는 그것을 잊을 수 없는 추억의 꿈속에서 그려보았다.

이러한 풍성한 기분으로 베를린에 온 「울프」에게 「와그너」의 낭만주의는 「히틀러」의 베를린과 더불어 강한 영향을 주었다. 그는 낡은 도시에 관한 매혹되는 순례였다고 한다.

5년간의 노력으로 「시간과 강(Of Time and River)」을 쓰고 나서 한참 지쳐 있을 때 그는 낭만의 대상인 정경(情景)을 「베를린」에서 찾게 되었다.

그의 첫 소설 「천사여 고향을 돌아보라(Look Homeward Angel)」는 「한스・쉬벨후트」에 의해 독역되어 독일 애정가들에게 호평을 얻었다. 「레로한 렛세」는 이 작품을 「현대 미국의 가장 인상적이고 시적인 작품」이라고 평했다. 「울프」는 「베를린」사람들의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켰고, 그의 문학활동은 「히틀러」 치하의 「베를린」에서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울프」가 살던 곳은 「티어가르텐」과 「샬로텐부르크」에로 「브란덴부르크」문과 「쿠르퓌르스텐담」 쪽의 사이의 지역이다. 이곳은 지금도 그렇지만, 호화롭지 않고 식당, 카페, 상점이 번화하여 휘황한 불빛과 공원이 있는 즐거운 번성함의 도시였다. 「하노버」에서 기차를 타고 「베를린」과 「티에르가르텐」사이 어둠에 쌓을 시의 인상을 「울프」는 「사람들은 「쿠르퓌르스텐담」의 나무 길을 산보하고 카페는 사람들로 붐비고 대낮의 햇빛이 쏟아지는 데서도 공중에는 항상 음악 소리가 들렸다」고 적었다. 이것은 그가 첫눈에 「베를린」에 매혹되었음을 밝혀 준다.

「울프」는 처음 2년 여름을 「쿠르퓌르스텐담」의 「암주」호텔에서 지냈다. 이 호텔은 지금도 유명한 호텔로서 작가와 기자들이 즐겨 찾고 국제영화제도 열리는 곳이다. 그는 「다드」 미국 대사의 딸 「마사・다드」를 통해 「잘스・란드베르그」, 「윌리암・쉬레르」 같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었다. 「파이다르」지방에 자리한 「자베」의 정원과 「월리」의 보기를 좋아 보고 거기 독일 예술가들의 정치에 참관하곤 했다. 「울프」는 이러한 독일의 예술과 철학의 정신을 재살려려는 중심인물이 되었다. 그리하여 「울프」로 인해 「히틀러」 이전의 문학활동의 중심을 이루었던 「루더레스테로」가의 「로마니쉐」 카페는 다시 활기를 띠었다. 여기서 그는 「히틀러」 치하에서 외국여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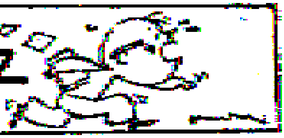
만날 수 없었던 문필가 지식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칼페·클라우저」공원에도 자주 갔고 새벽 3시에 「아우구스부르그」거리에 있는 「안네 메츠」카페에 가서 닭고기 수프를 먹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울프」는 「빌헬름」 황제기념교회당의 시계 치는 소리가 울리는 곳에서 2년을 살았다. 「마르틴·루테」가의 「슈파한터즈」에도 가고 「포프슈」과 「샬로텐부르크」의 「돈크투룹」을 보고 즐거움을 느꼈다.

그는 「샬로텐부르크」의 「올림피아」 체육관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것이라고 찬양했고 행진하는 군인이나 「나치」당원들은 쾌로 웃고 얘기하는 젊은이들이라고 찬양하면서 「그들의 전진의 발자국을 듣고 우렁찬 군화소리를 내며 행군한다」고 표현한 적이 있다. 이 점에서도 「울프」는 확실히 「히틀러」 지배하의 독일의 소리에 공조하는데 열성을 가졌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날 무렵 「울프」가 사랑하던 이 도시는 모조리 파괴되었다. 「브란덴브르크」문(門)과 「쿠르퍼르스텐담」은 흔들림으로 파괴되었고 「티르 가르텐」공원의 아름다운 수목들은 땔감으로 다 잘리어졌다.

「울프」가 드나들던 「로만니셰스」카페는 지금 폐허 속의 수렁처럼 남아 있을 뿐이다. 만일 「울프」가 1957년에 「베를린」을 방문했다면 과거의 실적 그 뒤로 찾아볼 수 없다는데 몹시 실망하리라. 사실 「울프」가 「베를린」에서 체류했을 때 「베를린」은 이미 히틀러의 제3제국과 바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울프」는 나치의 관점에 공감적으로 그가 받는 인세(印稅)를 독일 이외의 지역에서는 쓸 수 없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자기가 사랑한 독일이 「나치당」의 행군 아래 짓밟혀 무너졌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 군대는 처음 자기가 묘사했던 영웅이 아니라 「베를린」의 모든 무그릇, 능력, 지식, 기구가 모두 살육시대의 지원물로 그의 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울프」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도 몹시 슬퍼하게 「와그너」조로 「옛 애가이며 거제 (신앙) 「파우스트」를 낳은 지리와 영광의 땅, 그러나 마법의 파괴를 겪은 암흑의 독일, 내가 사랑하는 옛 슬픔이여 안녕」이라고 적고 있다. 그의 독일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해서 끝났다. 그가 가장 좋아했고 자신도 역시 사랑을 받았던 그의 글 독일은 그가 그의 작품 「너에게 할 말이 있다」에서 나치의 비인도성을 배격하자 영원히 그와 절교했다. 그는 예술적인 수목과 호수의 아름다운 땅에서 「나치」세계의 압축을 보았던 것이다.

편집을 마치고



○…공군지에 발을 들여놓은 지 5년 하고도 6개월. 때로 지치고 돌다 보니 이젠 본의 아닌 관록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언제 본의대로만 살아 왔는가?

책을 펴보는 일이라 하더라도 어렵게 앉았고 실지에서는 조그만 마음 [illegible] 보고 듣고 느끼고 적고 그리고 [illegible] 일들을 열심히 해보려 한다.

<편>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군의 과학화」를 꾸몄다.

과학의 첨단시대를 맞아 국가의 발전도는 국력의 부강을 좌우하는 척도인 「바로미터」.

자주국방력 확보를 위한 여건에서의 군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인 「군의 과학화」. 이에 다소라도 「플러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일독을 권한다.

○…편집실에 새 식구를 맞이하는 기쁨과 떠남을 아쉬워하는 정이 교차되었다.

새 식구 김 세환 대위와 손 형수 중위가 앞으로 독자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공군지 발간을 위해 애써 온 [illegible] 대위 [illegible] 공군지를 떠났다. 그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라며 석별의 정을 아쉬워한다.

○…「공군」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으로 보다 나은 「공군」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한편, 원고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항공과학, 군사, 경제, 문예 전반에 걸쳐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

발 행 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 공군대령 신 현

인 쇄 처 : 공 군 교 재 창

인 쇄 인 : 공군대령 [illegible] 오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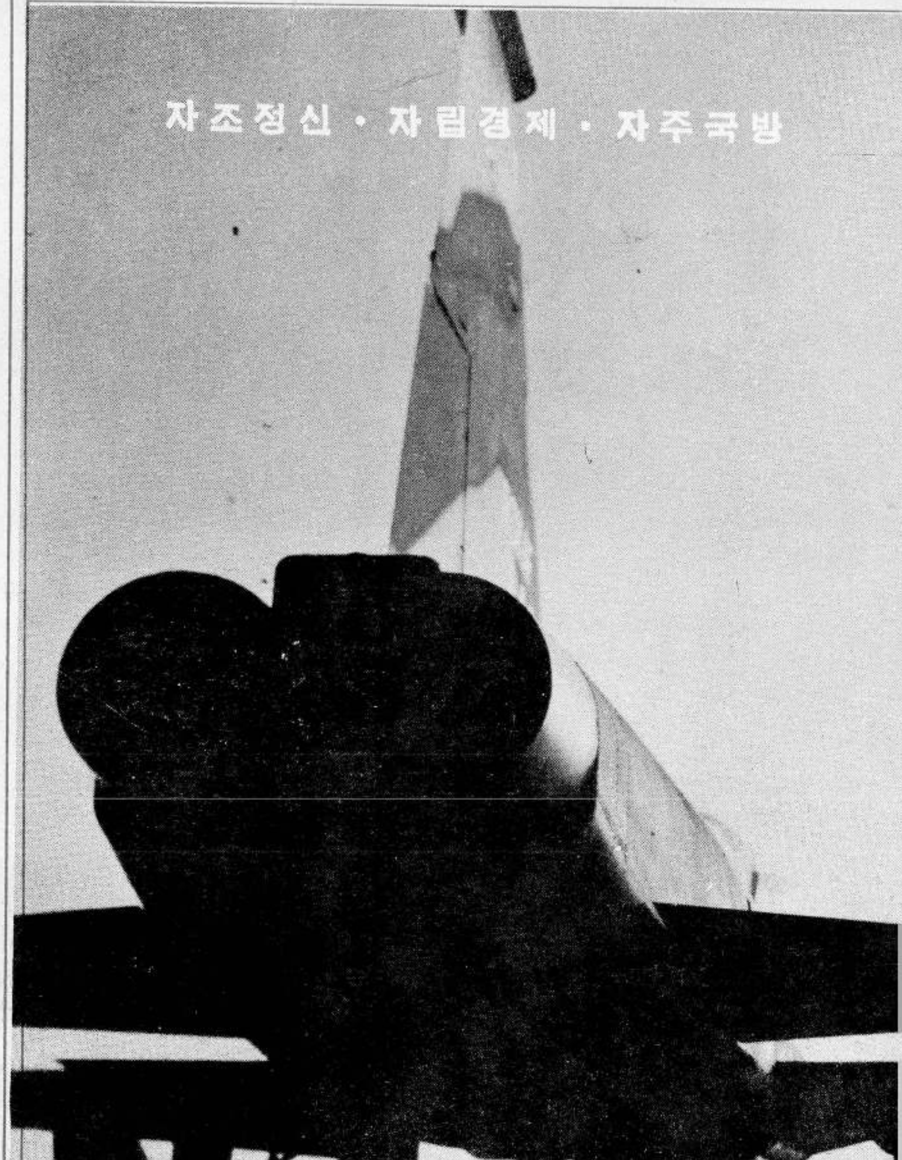
편집실 전화 : 69-3311, 696-3353

이임 미 8군 부사령관 공본 예방

이임하는 미 8군 부사령관「피어스」중장이 6월 7일, 이임인사차 공군본부로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신임 미 8군 부사령관 공본 예방

신임 미 8군 부사령관「노우리스」중장이 7월 20일, 취임인사차 공군본부로 옥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정 예 공 군 되자